

# MAXIM

KOREA

한국 여자 배구를  
섹시한 스포츠로 만든  
VOLLEYBALL  
10 HOTTIES

VOTE NOW!  
2014  
MISS  
MAXIM  
contest  
이번에도  
대박이 들어왔어



RAINBOW BLACK  
조현영

막내가 이렇게 섹시해도 돼?  
언니들한테 맞을라

“저도 맥심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채널A 상무 & 여전히 현역 PD  
<먹거리 X파일> 이영돈에게 MSG란?

“누그 아버지 뭐하시노?”  
PAULINA GRETZKY

전설의 NHL 공격수 웨인 그레츠키의  
딸에게 비키니를 입혔다.

특별기획! 뮤지션 출신 에디터가 지껄이는  
세기의 히트곡 가사에  
숨은 섬뜩한 이야기

FOR GIRLS

남자는 AV에서 본  
'이런 것들'을 당신에게 원한다

12 SECRET  
SEX TIPS

여자들이 살짝 알려주는 또 하나의 매력남  
사정 잘 하는 남자

2014년 3월호  
정가 5,900원

GENIUS GLAMOUR

서울대가 김태희 이후 12년 만에  
두 번째 국민여신을 배출했다.

tvN <더 지니어스> 최정문

MAXIM Party  
@SYNDROME

이렇게 놀아도 안 잡혀가?



+ MAXIM의 책 속 특별 부록  
FREE 브로마이드 1+1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 세계 그 이상의 감동, Royal Eternity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르 코리아 1688-8907

\*직영점(여의도) 02)783-8910  
\*롯데백화점(중동점) 032)320-7559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대백프라자(대구점) 053)253-7133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엘가(대구점) 053)255-6940

\*맨세점(롯데) 1688 - 3000  
\*롯데백화점(울산점) 052)256-3191  
\*NC백화점(경서점) 02)2667-9514  
\*e-watch(명동점) 02)771-7033  
\*TMSI계백화점(신도림) 02)2111-1120  
\*보보스와치(청주점) 043)235-1510  
\*주얼리아(대구점) 053)428-2668

\*맨세점(J T O) 064)780-7665  
\*롯데백화점(창원점) 055)279-3192  
\*NC백화점(불광점) 02)350-8979  
\*정우상사(중로점) 02)2272-2688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타임 21(청주점) 043)224-8951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롯데백화점(본점) 02)772-3908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NC백화점(노원점) 02)3399-8236  
\*와와치(강남점) 02)537-8977  
\*타임 21(광진점) 02)3424-0793  
\*복와치(청주점) 043)223-1333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22  
\*롯데백화점(전주점) 063)289-3191  
\*NC백화점(송파점) 02)2157-5213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타임 24(일산점) 031)931-5555  
\*메가와치(충주점) 043)857-9125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64  
\*롯데백화점(서면점) 051)810-4087  
\*NC백화점(안산점) 031)8085-1708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롯데MALL(파주점) 031)960-2873  
\*골드캐니언(광주점) 062)714-1121  
\*타임피아(포항점) 054)253-8855



Swiss made  
Super luminova  
5030D Chronograph  
Unidirectional turning bezel

# MODERNO 301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164-6191
- \*롯데백화점(광복점) 051)678-4191
- \*NC백화점(고진점) 031)436-4279
- \*해피타임(홍산점) 02)2012-0625
- \*사론(안양점) 031)463-9788
- \*파메(광주점) 062-383-9930
- \*조이필(포항점) 054)613-1170
- \*롯데백화점(건대점) 02)2218-3191
- \*롯데백화점(센텀점) 051)730-3198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패션존(동대문) 02)3398-7527
- \*시계상자(안양점) 031)441-0158
- \*골드룩(광주점) 062)410-0137
- \*모다(양산점) 055)911-7111
-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130
-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 \*NC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타임갤러리(동대문) 02)3398-5528
- \*탈타임(안산점) 031)413-7656
- \*롯데MALL(광주점) 062)606-2719
- \*롯데MALL(김해점) 055)900-2690
- \*롯데백화점(분당점) 031)738-2140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NC백화점(해운대) 051)709-5741
- \*타임머신(동대문) 02)6388-2927
- \*뉴코아아울렛(부천점) 032)624-8337
- \*틱톡(군산점) 063)443-0090
- \*타임북(부산점) 051)919-4704
- \*롯데백화점(인양점) 031)463-2185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 \*백기통(부천점) 032)662-0686
- \*진보석(순천점) 061)725-3849
- \*엘가(부산점) 070)7569-5766
- \*롯데백화점(부평점) 032)452-2146
- \*신세계백화점(센텀점) 051)745-2297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워치룩(노원점) 070)4136-5090
- \*타임런(인천점) 070)7516-4545
- \*엘가(구미점) 054)451-6940
- \*티아라(제주점) 064)745-3008

# Contents

March / 2014

# 118

Cover

## 레인보우 조현영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호  
커버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주저 없이 그녀를 택했다.  
상큼하고 귀여운 얼굴에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장착한  
걸그룹 멤버라니, 대세  
아이돌로 손꼽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녀를 보면 당신 마음에도  
봄이 올 거라네!



# Contents

114

“

내가 가면 식당 사장님들이  
아주 비상이 걸리지.

”



ICON  
이영돈 PD

종편 먹방계의 끝판왕, 고발 프로그램의 레전드  
이영돈 PD를 만나고 왔다.  
저... 오늘 점심은 어디서 드실까요?

## Maxim Inside

12 이번 달 MAXIM 편집부엔 무슨 일이 있었게?

## Circus Maximus

- 24 산채로 열반에 오르는 죽신불(卽身佛) 되기
- 26 명칭한 마약사범들: 어떤 약을 빨았길래?
- 28 화이트데이 특집: 혐오 사랑의 세계 최고봉은?
- 30 노화의 신비: 늙어서 맞으면 어디부터 곤죽 되나?
- 32 눈을 없이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오르가슴 이야기
- 34 굽시니스트 카툰:  
레이디 고디바의 송고한 알몸 승마
- 36 죽이기 전 킬러의 기막힌 마지막 드림 Best 11

## How To

- 38 이제야 알려줘서 미안하다! 야근 안하는 법
- 40 주스팩 물 폭탄으로 친구 시원하게 옛 맥이기
- 42 장인이 알려주는 훈이 담긴 연필 깎는 법
- 44 짜증나는 쥐새끼, 손 안 대고 죽이재!
- 45 NBA 휴스턴 로키츠의 득점 기계,  
첸들러 파슨스에게 배우는 파워 덩크 스킬

## Comment

- 46 성룡의 액션을 보고 우리가 울컥하는 까닭
- 48 죽음의 신이 인생을 다시 살게 한다. <사신 치바>
- 50 허영만, 이현세, 김성모  
한국 만화 거장 3인의 애국 만화 속으로!
- 52 EXO와 소녀시대로 쓸쓸하게 돈 버는 방법

## 서울 코믹 월드

- 54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흥미만점 코스프레  
한마당. 환상 미모의 엘사부터 아이언맨까지!

## Sport

- 58 한국 프로 여자배구 톱스타 10인  
그 실력에 그 미모가 말이나 돼?

## Sex

- 60 남자들의 사정에 대한 여자들의 적나라한 속마음
- 64 FOR LADIES: 아동 속 남자의 섹스 판타지

## Game

- 69 이달의 여캐: 아이유가 신봉선으로 변해?  
리얼 반전 매력! <단파> 나이트
- 70 괴작이나 명작이나?  
코코소라의 최신작 <로봇을 그만두고 싶어>
- 71 원사운드 카툰: 하다가 암 걸리는 게임들

## From Maxim India

- 73 인도 맥심의 '2013 HOT 100' 1위 섹시 스타  
프리안카 초프라. 조ونا 이베!

## Stuff

- 80 애기를 볼에 난 송달까지 보인다? LG UHD TV
- 81 센스 있는 사회초년생이 되기 위한 아이템
- 88 이달 편집부가 지른 물건: 트랜스포머북,  
블루투스 스피커, 전동 드라이버, 반영구 렌턴  
에디터들의 적나라한 사용기가 궁금하지?





본 자료는 MAXIM Korea의 저작물이므로 개인 소장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등 공개된 곳에 재업로드, 제3자에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재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MAXIM**  
KOREA



SWISS + MADE



# ESSENTIAL GEAR.

RECON Point Man Series No. 8823.KM: 45mm, carbon reinforced polycarbonate case and case back, unidirectional ratcheting bezel with aluminum ring compass rose, antireflective sapphire crystal, walking tachymetric scale, water resistant to 200 meters, gray NATO strap with signature buckle, and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Preferred timepiece of Swiss Special Forces and outdoor enthusiasts.

[www.facebook.com/luminox](http://www.facebook.com/luminox)

[www.luminox.com](http://www.luminox.com)



Constant Glow for up to 25 Years.

## 루미녹스 판매처

공식수입원 및 서비스 센터 미림시계(주) (02)757-9866, A/S센터직통 (02)735-9880, [www.milimwatch.co.kr](http://www.milimwatch.co.kr)

직영점 [모멘트] (롯데백화점)본점 지하1층 02-772-3181 / 잠실점 1층 02-2143-1920 / 청량리점 1층 02-3707-1179 / 평촌점 2층 031-8086-9232 / 대전점 1층 042-601-2109 / 대구점 1층 053-660-3122 / 부산 광복점 1층 051-678-4039 / 울산점 1층 052-960-4533 / 아울렛 서울역점 2층 02-6965-2637 (현대백화점)입구정 본점 1층 02-3438-6093 / 일산 킷스점 1층 031-822-2929 / 총창점 1층 043-909-4148 (신세계백화점)인천점 1층 032-430-1555 (AK백화점)원주점 1층 033-811-5525 (갤러리아백화점)진주점 1층 055-791-1170

특약점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층(TM 시계백화점) 02-2111-1120 / 강변 테크노마트 7층(타임21) 02-3424-7073 / 강변 테크노마트 1층(타임21) 02-3424-1210 / 동대문 OK아웃도어닷컴 1588-8796 / 종로 YMCA 1층(타임존) 02-737-3627 / 종로 중앙상가(노블워치) 02-745-8789 / 동대문 두산타워 5층(패션존) 02-3398-7527 / 동대문 두산타워 3층(타임갤러리) 02-3398-5528 / 상계동 하이델빙상기 A동(도라시계) 02-971-5334 / 종로 세운스퀘어 1층(정우상사) 02-272-2688 / 명동(이와치) 02-771-7033 / 종로 피카디리 플라자(정신사) 02-741-9678 / 을지로6가 굿모닝 시티 2층(사프) 02-2118-8075 / 잠실 롯데월드 웰빙센터 1층(제네바) 02-419-5622 / 왕십리 민자역사3층 (원타임) 02-2200-1355 / 용산 아이파크몰 6층(해피타임) 02-2012-0625 / 용산 이태원(월드워치) 02-794-7210 / 안양 안양동(시계상자) 031-441-0158 / 안양 안양동(보석상자) 031-466-1014 / 부천 심곡동(톡톡) 032-662-2026 / 고양 장항동(타임24) 031-931-5555 / 안산 고잔동(타임루트) 031-487-9057 / 평택 핑택동(유빈) 031-658-6883 / 수원 갤러리아 백화점 1층(GG클렉선) 031-221-4997 / 화성 엔터시스 2층(타임 플러스) 031-371-6850 / 인천 홈플러스 가좌점 2층(스위스) 032-578-2002 / 인천 구월동(워치보이) 070-8632-5300 / 대전 세이브존 1층(타임터치) 042-482-2328 / 대전 가오동(에진시계) 042-280-9117 / 대구 삼덕동(엘가시계) 053-255-6940 / 대구 덕산동(스위스) 053-252-8111 / 천안 신부동(알파&오메가) 041-564-5465 / 청주 가경동(보보 스위치) 043-235-1510 / 청주 남문로2가(복와치) 043-223-1333 / 충주 메가박스1층(메가와치) 043-857-9125 / 전주 롯데백화점 5층(세광당) 063-289-3592 / 익산 롯데마트(원남상사) 063-833-8536 / 광주 롯데마트 첨단점(원남상사) 062-971-8523 / 광주 황금동(시계이야기) 062-233-9100 / 포항 밸류플러스(조이필) 054-613-1170 / 구미 원광동(엘가시계) 054-451-6940 / 진해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5-542-8521 / 부산 광복동(국제시계) 051-245-1230 / 부산 해운대(리브워치) 051-746-6112 / 부산 서면(엘가시계) 070-7569-5766 / 제주 연동(티아라) 064-745-3008

# Contents

## 132 Who's That Girl? 최정문

환상의 골반 라인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서울대 공대 여신' 최정문을 MAXIM이 만나고 왔다. 아, 완전 귀여워!



헤... 여기가 진짜 명당이구먼.



자리 좀 바꿔주세요...



상미야 오빠라고 불러다오! 제발!

### Style

- 92 화이트데이에 100% 까 먹힐 미각 자극 팬티
- 94 외출, 기출, 탈출을 유발하는 멋진 가방들
- 96 평범남을 합합간지남으로 바꿔줄 마법의 스냅백 12종
- 98 연봉보다 중요해! 맥심 직장 수질 검사단 발족! 1탄: 여의도 오피스 패션, 그래서 사내연애는?

### Motor

- 103 일본 다젤차의 역습: 인피니티 Q50 2.2d
- 104 독자의 차 화보 프로젝트 #9: 개성 넘치는 젠콧+섹시 발랄 미스맥심 김소희

### Paulina Gretzky

- 110 비키니 셀카로 뜬 폴리나 그레츠키. 그 누구지 뭐하시노? "NHL 전설의 공격수, 웨인 그레츠키 선수요." 아... 그렇구나...

### 호르몬의 노예들

- 128 니가 여자를 보면 침을 흘리고, 여자 앞에서 괜히 센 척하는 이유? 다 호르몬 때문이다!

### 명곡의 비밀

- 138 굳이 몰라도 되지만 알면 너무 너무 재밌는 노랫말 속 숨겨진 이야기

### Miss Maxim Contest

- 142 두 예선 통과자의 살벌한 매력 대결. 누가 당신 타입? 우리 둘 다.

### Maxim 연기 대상

- 146 누가 최고의 배트맨? 누가 제일 멋진 슈퍼맨? 누가 가장 예쁜 캣우먼? 같은 배역을 연기한 배우 중 가장 잘한 사람은?

### 수능 필살 신공

- 150 1교시 국어영역 무조건 10점 올려주는 신묘한 수능 시험의 기술

### Music

- 154 1993년부터 지금까지 메달만 하는 멋진 밴드 '디아블로'(게임 아니라고!)

###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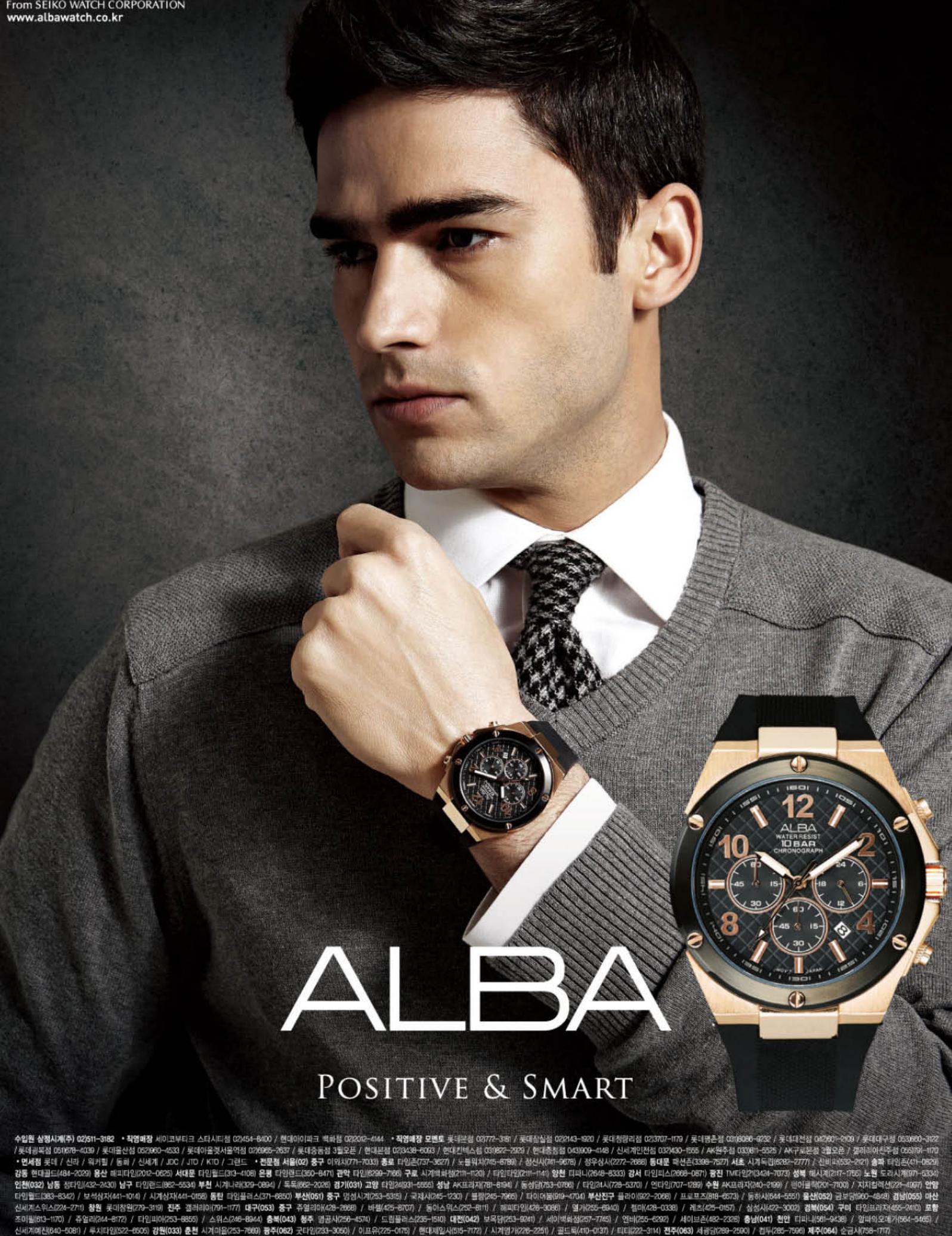
- 158 MAXIM 밸런타인데이 파티 후기: 이런 걸 완벽한 주자육림이라고 하지.
- 163 미친소: 미스맥심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맥심 파티를 찾은 미녀 1+4 이벤트
- 164 이달의 Hot DJ: '쫄' 그런 두 남자, 썸데프와 썸데의 디제이 유닛, Som Serious

### Smoke&Drink

- 168 술, 담배를 동시에? 지옥의 맛 '시가레노' 만들기
- 169 휴지와 담배로 하는 긴장 터지는 술자리 게임

### Unpicked

- 175 이달 편집부 쓰레기통에 쌓인 '몹쓸 사진'



# ALBA

POSITIVE & SMART



수입원 상형시계(주) 02)511-3182 • 직영매장 세이코부티크 스타시티점 02)454-8400 / 현대아이파크 백화점 02)2012-4144 • 직영매장 오렌토 롯데점 02)775-3181 / 롯데상실점 02)2143-1920 / 롯데청량리점 02)3707-1179 / 롯데명동점 03)6906-6232 / 롯데대전점 04)2601-2909 / 롯데대구점 053)820-3122 / 롯데광복점 05)1678-4009 / 롯데유신점 052)960-4533 / 롯데아울렛서울약점 02)6965-2637 / 롯데중점점 3원오븐 / 현대분점 02)3439-6033 / 현대킨세스점 03)9824-2323 / 현대충정점 04)3909-6148 / 신세계인천점 03)3430-1556 / AK원주점 033)811-5225 / AK구로문점 3원오븐 / 갤러리아신주점 06)3791-1170  
 • 명세점 롯데 / 신라 / 워커힐 / 동화 / 신세계 / JOC / JTO / KTO / 그린드 •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위시(771-7033) 종로 타임즈(737-3627) / 노블워치(745-6789) / 청신시(741-9078) / 청우상시(2272-2688) / 통대문 패션즈(3309-7827) / 서초 시계독립(6282-2777) / 진비리(6392-2121) / 송파 타임즈(411-0829) / 강동 현대골드(484-2029) / 용산 해피타임(2012-0525) / 서대문 타임월드(313-4108) / 은평 타임월드(350-8471) / 구로 타임(8299-7166) / 구로 시계독립(211-1120) / 타임라인(211-1141) / 양천 타임(2648-8333) / 강서 타임피스(2668-0871) / 광진 TMT타임(3424-7073) / 성북 해시계(17-755) / 노원 도라시계(971-5334) / 임천(032) 남동 청타임(432-2430) 남구 타임월드(852-5534) / 부천 시계나라(329-0894) / 도곡(862-2026) / 경기(031) 고양 타임(24931-5555) / 청남 AK프리카(781-8194) / 동성암(753-0766) / 타임(24시)(728-5370) / 인타임(707-1289) / 수원 AK프리카(240-2199) / 연이름(201-7100) / 지지점역선(221-007) / 안양 타임월드(383-8342) / 보석상자(441-1014) / 시계상자(441-0158) / 동원 타임플러스(371-9850) / 부산(051) 중구 명성시계(253-5315) / 국정시(245-1230) / 북명(245-7966) / 타이머(819-0740) / 부산전구 플라워(822-2088) / 프로프즈(818-8573) / 동해시(844-5593) / 울산(052) 금보탑(800-4848) / 경남(055) 마산 산시계스위스(224-2711) / 창원 롯데점(279-3111) / 진주 갤러리아(791-1177) / 대구(053) 중구 주얼리아(428-2688) / 바셀(425-8707) / 동아스위스(252-8111) / 폐미타임(428-3088) / 열개(255-8940) / 첼미(428-0338) / 레즈(425-0157) / 삼성시(422-3002) /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55-2410) / 포항 조이빌(813-1170) / 유열리(244-8172) / 타임피어(253-8855) / 스위스(246-8944) / 충북(043) 청주 영공시(258-4574) / 드림플러스(235-1510) / 대전(042) 보옥점(253-8041) / 세이브와칭(257-7745) / 연비(255-6232) / 세이브(482-2328) / 충남(041) 천안 타임(981-9438) / 일대이오메가(564-5465) / 신세계에천(840-5081) / 루시타임(522-8505) /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668) / 광주(062) 곳타임(233-3050) / 이프유(225-0175) / 현대제일시(515-7172) / 시계경개(226-2251) / 골드북(410-0137) / 티타임(222-3114) / 전주(063) 세봉점(289-2500) / 진두(285-7596) / 제주(064) 순경시(738-1777)

# MAXIM

www.maximkorea.net

## 편집장 이영비

### Editorial / 편집부

**편집 1팀**  
 에디터 김희성 대리/팀장  
 김소윤 사원  
**영상 에디터** 김상수 사원  
**디자이너** 전수진 인턴

### 편집 2팀

**에디터** 조용재 주임/팀장  
 박정욱 사원  
**디자이너** 김려은 인턴

### 편집 3팀

**에디터** 손안나 주임/팀장  
**뷰티 에디터** 장혜민 사원  
**디자이너** 이상윤 인턴

### 편집 4팀

**수석 에디터** 유승민 팀장  
**에디터** 김진욱 과장  
 정재식 사원

### 객원 에디터

격투 전문 칼럼니스트 이용수  
 <엑스포츠> 기자 김덕중  
 <마이데일리> 스포츠팀 기자 강산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기자 김민석  
 카툰 작가 공시니스트  
 카툰 작가 onesound  
 변호사 Felix Lee  
 펀드 매니저 Fred Kim

### 교열

신선경

### Finance & General Affair / 경영지원과

**재무 회계** 최인영 과장/팀장  
**유통** 안재만 사원  
 정광석 인턴  
**비서** 정석영 사원  
**법무** 방인식 대리

### Marketing / 마케팅과

김진욱 과장/팀장  
**홍보 마케팅** 정재식 사원  
**광고 마케팅** 박상준 매니저

### Web & Mobile Service / 웹·모바일

토렌 서정민 팀장 남원규 팀장

### Photography / 사진

**포토그래퍼** 정기수 실장  
 박 울 실장  
 이진호 실장  
 김도훈 팀장

### Circulation / 유통

송주승판유통 이용관 대표

### Printing / 인쇄·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인 이재수

### MAXIM Korea 발행인 / CEO 유승민

### MAXIM Contact

**독자 Q&A / 일반 문의** www.maximkorea.net 접속  
 상단 BOARD 메뉴 ▶ Q&A 게시판 이용  
 partner@maximkorea.net  
**광고 문의 / 사업 제휴** TEL. 070-4010-8994  
**정기 구독 / 대량 구매** joy@maximkorea.net  
 TEL. 02-323-1182

MAXIM에 귀사의 브랜드 및 이벤트, 인물과 콘텐츠 등을 소개하고 싶으시면 편집부 대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취재 문의 및 화보, 협찬: press@maximkorea.net** / 영화, 공연 홍보: movie@maximkorea.net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5가길 22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4년 3월호 통권 제47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 ALPHA MEDIA GROUP

PRESIDENT: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b>AUSTRALIA</b> Santi Pintado	<b>CZECH REPUBLIC</b> Jan Stepanek	<b>ITALY</b> Paolo Gelmi	<b>SOUTH KOREA</b> Young-Bee Lee	<b>UNITED KINGDOM</b> Alpha Media Group
<b>AUSTRIA</b> Boris Etter	<b>GERMANY</b> Boris Etter	<b>PORTUGAL</b>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b>SWITZERLAND</b> Boris Etter	<b>UNITED STATES</b> Dan Bova
<b>BULGARIA</b> Hristo Zapryanov	<b>INDIA</b> Vivek Pareek	<b>RUSSIA</b> Sasha Malenkov	<b>THAILAND</b> Surawong Krueafan	
	<b>INDONESIA</b> Ronald Adrian Hutagalung	<b>SERBIA</b> Dragan Otašević	<b>UKRAINE</b> Sasha Malenkov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4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Beza & Bell**  
 Butterfly on your wrist

베카인벨 | www.bekainbell.co.kr | 02.3397.7100

(주)가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 (031-738-2140) /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하이힐 (02-2136-9743)

[판매점]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 (051-678-4191) / 대구백화점 (053-422-3191)

[연세점] 제주 중문면세점 (064-780-7671)



가노코퍼레이션 공식 쇼핑몰 유료타임 www.eurotime.kr



Major League Baseball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used with permission of Major League Baseball Properties, Inc.

# PLAY HARD, STAY COOL.

THE 2014 NEW ERA 59FIFTY® WITH DIAMOND ERA TECHNOLOGY PROVIDES SUPERIOR BREATHABILITY AND IS ENGINEERED TO PERFORM.



NEWERA.COM/DIAMONDERA



**OPENING SERIES**  
SYDNEY • AUSTRALIA  
20  14

## MLB OPENING SERIES EVENT

호주 MLB 개막전 관람과 시드니 여행까지

- 방법 : NEW ERA FACEBOOK 이벤트에 참여 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증정(www.facebook.com/neweracapkorea)
- 기간 : 2/24 ~ 3/14
- 경품 : 1등 MLB 호주 오프닝 관람 및 여행(5명) / 2등 류현진 친필 사인+뉴에라 모자(2명) / 3등 LA DODGERS DIAMOND ERA CAP(10명)
- 후원 : 롯데관광



www.neweracapkorea.com

FLY YOUR OWN FLAG™



# Letter From MAXIM

## 연애편지를 쓰시오

"우리는 어느 별에서 내려와서 이제야 만난 거죠?" 가스 불 위에서 구워지는 쥐포처럼 사정없이 손발을 오그라뜨리는 이런 작업 멘트를 날린 사람은 다름 아닌 독일 철학자 니체다. "신은 죽었다"던 양반이 대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19세기 말, 니체를 비롯해 심리학자 프로이트, 시인 릴케 같은 대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미치게까지 만든 뮤즈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루 살로메'. 그녀는 미모와 지성, 신비로움을 겸비한 뛰어난 작가였다. 니체는 그녀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고, 얼마 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대작을 남겼다. 한편, 시인 릴케는 무려 열네 살 연상의 여인인 살로메를 보고 반해 그녀의 말투와 스타일, 심지어 필체까지 흉내 낼 정도로 미쳐버렸다. 그녀와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다 정신이상 증세까지 보인 릴케. 사랑은 너무 힘들었지만 릴케는 더욱 성숙하고 깊어진 눈으로 창작을 거듭해 굉장한 작품들을 후대에 남겼다. 아, 이런 지랄 같은 사랑의 힘여.

예술은 유혹이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창작과 창조물은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탄생한다. 베토벤이 '월광 소타나'나 '엘리제를 위하여' 같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든 배경엔 사랑의 열병이 있었다. 대상이 한 개인이든, 대중이든 누군가의 눈과 귀,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의도에서 모든 것은 시작된다. 때론 절망에서, 때론 환희에서, 그 죽일 놈의 사랑으로 인한 '정신병적인 상태'가 빼어난 무언가를 탄생시킨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갈한 방법은 역시 연애편지다.

나는 해마다 '연애편지를 쓰시오'라는 작문 문제를 MAXIM 편집부 에디터 정기 공개 채용 시험에 출제해왔다. 입사를 위해 치르는 필기시험에서 뜬금없이 연애편지를 쓰라니 너무 괴팍한가. '연애편지를 쓰라는 과제는 화려한 문장이나 수식, 유머 감각 등의 '글빨'보단, 글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보는 이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제하는 문제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의 출제를 계속 고집한다. 이번 달 편집장의 글은, 어찌 보면 MAXIM 공채 시험 족보라고 할 수 있겠다.

연애편지는 '본인의 감정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글이기도 하다. 채점을 하다 보면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글씨를 타고 전달된다. 가끔 채점자인 에디터들도 찡한 마음에 눈시울을 적시기까지 한다. 어떤 이는 헤어져 여자 친구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담담하고 먹먹한 편지를 쓰고, 어떤 이는 현재진행형인 러브 모드를 골아 아프도록 달콤하게 묘사한다. 어떤 이는 상상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 편의 소설 같은 편지글을 써내려간다. 어떤 답안자는 아주 너털너털하다. 하도 지우개로 백백 지우고 쓰고, 또 지우고 쓰길 반복해서다. 2교시 작문 시험이 끝나면 편지글 주인의 마음 역시 이 종이처럼 얇고 연약해져있을 것 같다. 어쩐지 미안하고 주책맞게 코끝이 찡하다.

지난 1월 25일이었다. 올해는 필기시험장에 직접 시험 감독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모인 20대 청춘들은 비록 시험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지하게 몰입해 연애편지를 쓰고 있었다. 골똘히 추억에 젖거나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 글을 쓰면서 점점 멍분에 휩싸이는 사람 그리고 시험장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연인이라도 있는지 피식 웃는 사람... 백인백색이다. 응시자들은 오랜만에 손 글씨를 써서 팔이 아픈 듯 연신 팔을 들어 허공에 흔든다. 손으로 쓴 연애편지. 단어 하나, 마침표 하나에도 쓰는 이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2014년 공채가 끝났다. 수백 명의 사람 중 단 몇 명의 합격자를 발표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다. 누군가'들'을 만나 아슬아슬 씬을 타는 설렘은 끝이다. 올해 사랑하고 싶은 대상은 유난히 많았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결국 다 가질 수 없는 비정한 선택의 시간. "가슴이 아파서 이 편지는 못 보내겠습니다"라는 이와이 순지의 영화 <러브레터> 마지막 대사처럼, 합격과 불합격 공지 글을 적어야 하는 손가락이 고통스럽다.

2014년 공채에 지원해주신 많은 여러 젊은이의 열정에 감탄했고 고마웠으며, 덕분에 뜨거워졌다. MAXIM도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2014년 3월 편집장

이영수

2014년 MAXIM KOREA 정기 공개 채용 2교시 편집부 에디터 직군 문제지

지원 직군	MAXIM 에디터
성명	김민
감독 확인란	16

[1] 아래 그림을 모티브로 하여, <자유롭게 주제를 정한 뒤 관련된 하나의 글을 쓰시오.>  
- 형식, 주제, 화자: 모두 자유  
- 분량: 답안지 2장 이내



[2] 아래 사진 중 자신이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골라 MAXIM에 들어갈 간단한 <장문> 글을 작성해보시오. - 분량: 답안지 1장 이내 - 제목, 완문을 반드시 올 것  
자동차, 기타, 연애, 문화(음악, 영화, 책, TV 등) 역사, 텔레비전, 각종 잡화 및 노취수

[3] 아래 1, 2, 3 세 문제 중 하나만 골라 작성하시오.

1. 아래 A, B 중 하나를 골라 000을 채우고, 그것을 주제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누군가에게 사과 또는 변명하는 워드 있는 글을 쓰시오. - 분량: 답안지 1장 이내  
A. 000에서 최승합니다. B. 내가 000 때문에 (호)입니다.

2. 연애편지를 쓰시오. - 분량: 답안지 1장 이내  
3. 당신이 자주 가는 곳에 대해 흥미롭게 소개해 보시오. - 분량: 답안지 1장 이내

creative partners



덴마크 한국 수교 55주년  
55 Years of Danish-Korean Relations

# THE BIGGER THE BETTER



## XXXL ?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코퍼레이션 [www.konocorp.com](http://www.konocorp.com) | [www.danishdesign.co.kr](http://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포티엄 [www.eurotime.kr](http://www.eurotime.kr)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031-738-2140) / 롯데백화점 미아(02-944-2130) / 하이월(02-2136-9743) [면세점] 제주 충무면세점(064-780-7671)  
[판매처] 세이브화점 대전(042-257-7745) / 서울(02) 이원(1) 명동(771-7033) / 타임라신(6388-2927) / 파션존(3398-7527) / 원타임(2200-1355) / 타임21(3424-7063) / 타임월드(3132-4108)  
경기(031) 시계상사(441-0158) / 사문죽업교(463-9788) / 유빈(658-6883) / 타임루트(487-9057) / 타임2(4931-5300) / 경기(032) 대성(325-7467) / 뽕끼롱(662-0686) / 타임댄스(504-8245) / 청주(043) 타임21(224-8851) / 북원사(223-1333) / 광주(062) 타임엔터테인먼트(222-3114) / 대구(053) 광주나루(256-0975) / 골드&워치(424-4442) / 레퍼(425-0157) / 스위스(639-5252) / 신세계몰스퀘어(66-3316) / 주얼리아(428-2668) / 해피타임(428-3086) / 부산(051) 명성시계 광복(253-5315) / 명성시계 남포(253-5334) / 명성시계 서면(667-7356) / 명성시계 신항(253-5354) / 월드타임(245-8359)



# MAXIM INSIDE

이번달 MAXIM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 MISS MAXIM CONTEST WINNER INTERVIEW SHOW

지난 2013 MISS MAXIM 콘테스트에서 대망의 1위를 차지한 김소희! 그동안 어떻게 자랐는지 다들 궁금했지? 우승 축하를 핑계로 촬영장이 아닌 흥대 앞 MAXIM 사옥으로 그녀를 초대했다. 촬영 중 있었던 에피소드 가장 기억에 남는 콘셉트! 1위를 차지한 후 주변의 반응! 그녀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물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김소희가 온다는 소식에 오프라 윈프리 뺀치는 명 MC로 빙의한 조용재 에디터가 진행하는 (어설픈) 토크쇼가 보고 싶나? 지금 당장 폰을 꺼내 QR을 스캔하라!



## → MAXIM ONLINE NEWS

사시사철 황당하고 골 때리는 온라인 기사가 올라오는 MAXIM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 지난 달, 톱 조회수 기사는 MAXIM 화보 여자 모델과 엉겨 있는 수컷 모델 중 남자들에게 북극 칼바람 같은 원한을 살 만한 '부러운 새끼들 TOP 10' 이었다. 여심도 좀 자극하기 위해 요즘 한창 질나가는 배우 김우빈의 모델 시절 MAXIM 화보도 살짝 끼어들었다. 새끼 잘생겼네... 특히 여자 모델과 어쩔 수 없이(?) 과감한 포즈를 취한 남자 스태프들의 모습은 보는 이의 부러움을 자아낸다. 근데 저것들 너무 흠여있는 거 아니야?

# SUPERSTARI

슈퍼스타아이



**365** on  
SALE

하루 하루 바뀌는  
유행과 스타일에  
지친 남자들 에게  
언제나 파격적인 가격과  
퀄리티 높은 옷을 위한 공간

[www.superstari.co.kr](http://www.superstari.co.kr)

맥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10% 할인혜택

9301-0EE8-A281-4BCC

슈퍼스타아이 홈페이지 방문 후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전상품 이용가능합니다.



# MAXIM INSIDE

## The MAXIM VALENTINE'S DAY PARTY

초콜릿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밸런타인데이! 불타는 사랑에 휘발유를 끼얹은 주지욕림 파티가 열렸다. 요즘 가장 핫하다는 클럽 신드롬에 훈훈한 남녀가 모여 어느 때보다 화끈한 금요일 밤을 보냈으니! 마감 원고를 쓰다 말고 파티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뛰쳐나가 버린 MAXIM 스태프들 또한 파티에 가서 육신을 새하얗게 불태웠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158페이지에 다 기록해놨다네!



MAXIM STAFF

MISS MAXIM 김소희, 이현지

**Info.**  
RSVP 010-9839-0529  
Cover Before 12am 10,000won / After 12am 30,000won  
Location Club Syndrome, Hotel Surpline B1, Sindong-gangnam-gu, Seoul, South Korea

**DJs**  
S2 / HOO / APLAY / FENNER / HIDE / BADAGE / VIPHEXXX / SCHEDULEY / JUNCOCO / MAXIMITE / BIG BAD NOSE / DR.GG / EQUINOXE / JUN / REIGN / SOO / EAR GRIN

**Dress Code**  
Pink & White

**MAXIM Party VALENTINE'S DAY**  
with FICHIMORI & d

**NOMINOR ALLOWANCE**  
이제 신청 받기 시작합니다. (158페이지 참조)

2014.02.14 FRIDAY PM 10:00 OPEN AT CLUB SYNDROME. More Information: http://maximonline.net  
f MAXIMKOREA www.clubsyndrome.com f THE MAXIM CLUBSYNDROME f FICHIMORICLUB

## 2014 MAXIM KOREA 신입사원 상반기 정기 공채,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

MAXIM의 연례행사 중 정기 공채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입사 지원서를 받기 시작해 근 3개월 동안 필기시험과 면접 전형을 거쳐 드디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다. 열정적으로 응시했지만 안타깝게도 함께 하게 되지 못한 많은 지원자님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뿐이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합격한 MAXIM 신입사원들, 고생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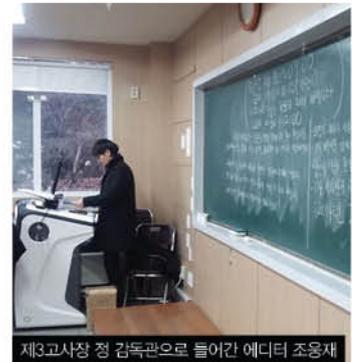
이제 신입을 위한 헬게이트를 열어볼까?



디자이너 3차 전형(면접)을 준비중인 편집부 수괴들



4년 전에도 MAXIM 필기 시험장이었던 건국대 법학관. 김희성 에디터가 그때 응시했었지 아미?



제3고사장 정 감독관으로 들어간 에디터 조웅재



본인의 사진을 붙이시오.

## MAXIM 독자를 위한 깜짝 선물! 엄상미와 사진 찍기



'사회 초년생을 위한 15가지 아이템(p.81)' 화보 촬영을 위해 2012 MISS MAXIM 준우승자 엄상미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조웅재 에디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MAXIM 야구 잠바를 입히더니 같이 사진을 찍었다. 좋은 건 나누라고 하지 않았나? 엄상미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도 선물한다.

**방법:**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오려 점선 부분에 붙이시오. 엄상미와 닮게 찍은(것 같은) 사진을 잘라내 액자나 지갑에 끼우면 완성!

# Subscribe

**최대  
5만 원  
할인!**



지난 1월호 완판에 이어 2월호 역시 품절 대열에 들어섰다. 이참에 정기 구독은 어때? 품절 걱정 없는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구독 중 가격 인상 없는 서비스, 푸짐한 사은품까지! 정기 구독을 신청하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6개월  
정기 구독시  
무료 증정

## 정기 구독 신청 안내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 MEGA TYCOON 안경

3개월	정가 17,700원	+
6개월	32,400원 (정가 35,400원) 3,000원 할인 + 1,000원 적립	+
12개월	63,800원 (정가 70,800원) 7,000원 할인 + 2,000원 적립	+
24개월	126,600원 (정가 141,600원) 15,000원 할인 + 4,000원 적립	+
36개월	182,400원 (정가 212,400원) 30,000원 할인 + 6,000원 적립	+
48개월	233,200원 (정가 283,200원) 50,000원 할인 + 8,000원 적립	+

###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 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 2 무통장 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 |        |                   |
|--------|-------------------|
| 하나은행   | 569-910012-00904  |
| KB국민은행 | 185801-01-004866  |
| 농협     | 355-0006-4797-03  |
| 신한은행   | 100-026-074070    |
| 우리은행   | 1005-701-637646   |
| 기업은행   | 208-107032-04-013 |
| SC제일은행 | 117-20-225316     |
| 우체국    | 012559-02-079161  |



※ 딱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딱=1원)

※ 사은품은 한정 수량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왼쪽 QR 코드 스캔 후 확인하세요!

# Letters

코끝을 훑으며 흘날리는 봄철 꽃가루처럼  
당신의 말초신경을 간질이는 MAXIM 고민 상담소!

페이스북  
MAXIM  
페이지  
방문하기



## 너의 세컨까지 생각했어! 워~

작년 가을부터 자주 가던 카페 일바에게 한 눈에 반해서 애만 태우다 얼마 전에 편지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 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더군요. 한창 잘 돼가는 와중에 그녀의 전 남자 친구가 등장했습니다. 역시나 전 남자 친구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군요. 솔직히 세컨이라도 좋으니 만나달라고 매달려보고도 싶을 정도로 좋아 죽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상문, 이메일 사연>

**에디터 손안나** TO. 독자사연 담당 박정옥 에디터에게. 정옥 씨가 나한테 편집부 모두 기피하는 찬찬한 독자 사연을 몇 달째 물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봤어. 이런 평범한 연애 사연에 답변하는 게 기사 쓰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 일잖아. 그릇도 으즈므니... 처음엔 선배를 멋덕이려는 의도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른 가능성이 있겠더라. 설마 매달 내 연애 팁 하나씩 모아서 나한테 어울리는 남자로 거듭내려고 그래? 그런 거야? 미안하지만 정옥 씨는 내 타입 아니니까 헛수고 하지 말자. ^^ 난 머리에 주먹만 한 땀방울 있는 남자는 좀 별로거든. (사연 주신 분께는 딱 한 마디만 할게요. 정신 차리세요.)

### 제 방에 나비가 들어왔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언제부터가 목 오른쪽 부분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사진은 제 방 모습입니다. <백현민, 이메일 사연>



**편집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이번 호 부록인 조현영, 최정문 양의 브로마이드를 왼편 벽에 붙입니다. 다음 달에도 MAXIM을 사서 새 브로마이드를 천장에 붙이고, 그 다음 달에는 바닥에 붙입니다. 이제 파곤할 때마다 한 여인 당 2~3초씩 눈을 마주치며 목의 피로를 푸세요.  
2. 종이에 다음과 같이 써서 브로마이드에 붙이세요. "뭘 봐. 공부나 해." 문장 앞뒤로 '시발', '병신아' 같은 말을 붙이면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 여친 교체 주기

여친을 1년 정도 만난 건장한 남성이라고. 그런데 학교에서 얼굴만 아는 한 여자가 연락을 해왔소. 그것도 페이스북으로! 계속 연락하고 지내다가 이젠 좀 아닌 것 같아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소. 그런데 문제는 요즘엔 그녀가 자주 생각이 난다는 것이요.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이 여인네를 만나야 하는 거요? 에디터는 이런 적 없소? 어떻게 대처했소? <간호사가될거야, 이메일 사연>



**에디터 조종재** 세상의 모든 건 감가상각을 합니다. 수명 주기가 다하면 교체해야 하죠. 물론 여자 친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자 친구를 1년 동안 사귀었는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온다면 그건 곧 교체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연애 기간은 1년 5개월이라고 합니다. 여친 교체 주기가 5개월 남으셨군요. 5개월 동안 고민해보세요. 과연 그 여인이 진짜 인연인지.

## MAXIM 페이스북 댓글 대화록

당신도 와서 한 마디 거뒀.

### >> 도합 자유 구역 MAXIM



**유승민** 아래층에 내려가다 보니 사무실에 상미가 와있네요 나도 모르게 폰카를 꺼내어. -에디터 송민-

**이재환** 상미 씨 뒷모습에 눈이 찌푸려지네요. 찌푸리면 잘 보이거든요.

**이영비** 을 회사가 매일 저랬으면 좋겠어.

**Hyo Kim** 경찰 아저씨!! 이 사람!! 이 사람 입니다!!

### >> 감독관과 수험생의 쉬는 시간 노가리



**유승민** 전 지금 2014 MAXIM 신입 사원 정기 공채 2차 전형(필기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건국대학교에 와있습니다. 필기 보시는 분들 모두 건승하시길!! -에디터 유승민-

**Junye Lee** 쉬는 시간? 아, 몇 문체 아리까리 하네요. 에디터님을 봤어요~

**조아라** 친구가 직년에 맥심 공채 봤었는데, 생각나는 질문이 뭐였더라? 다음 보기 중에서 성질이 다른 단어를 고르시오 1.오말 2.필라티오 3번부터는 들도 보도 못한 단어였음

→ MAXIM KOREA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maximkorea](http://www.facebook.com/maximkorea)



**R** Real **A** Automatic **W** Watch what you want

AR510SWS

**ARBUS**<sup>®</sup>  
New York

Automatic 시계의 새로운 A/S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보증기간 내 완전 무상교체”** 부품 수리가 아닌 새 부품으로 무상교체 해 드리겠습니다.

공식수입처: 글로벌타임 Tel 02.778.1590 [www.GlobalTime.co.kr](http://www.GlobalTime.co.kr)

서울 노원 위치룩 070-4136-5090  
 신촌 이타일월드 02-313-4108  
 종로구 전진상사 02-764-4716  
 테크노마트 타임21 02-3424-7063  
 두타 타임갤러리야 02-3398-5528  
 신도림 타임타임 02-2111-1141

가로수길 블랙브라운 1588-6768  
 수원AK 031-240-2277  
 안양1번가 시계상자 031-441-0158  
 안양1번가 사론 031-463-9788  
 일산 웨스트타운 타임24 031-931-5300  
 인천 구월동 위치보이 070-8632-5300

인천 부평 타임런 070-7516-4545  
 홍남 대천 대전마켓 041-935-4994  
 청주 복와치 043-223-1333  
 부산 광복동 명성시계 051-253-5356  
 제주 한림읍 부띠 010-9083-5706  
 제주도 티아라 064-745-3008

대구 엘가 053-255-6940  
 광주 시계이야기 062-233-9100  
 가산 오케이워치 02-2104-3883  
 서교 오케이워치 02-324-3880



## 그녀의 말할 수 없는 비밀

여자 친구 가방에서 한 알, 한 알 요일이 적혀있는 이상한 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 피임약인 것 같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그런 거 먹는다든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조금 기분이 이상하네요. 여자 친구와는 아직 합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왜 먹는 거죠? <쭉쭌, 이메일 사연>



생리 해봤어 이 새끼야?

## 사무실 여직원.avi

금요일에 사무실 여직원 한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둘 다 취해서 키스하고 모텔까지 갔네요. 몸매도 좋고 씩씩해서 남자 경험도 많겠다고 생각했는데, 스킵이 엄청 났습니다. 여자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생애 최고의 잠자리였네요.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서 그 직원 얼굴을 어찌 보나 걱정이 되네요. 얼굴을 못 들겠어요. <주화임마, 이메일 사연>



재 아직도 나 보냐?

**에디터 김희성** 여자친구의 몸은 남자의 몸과 달라서 남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을 거예요. 저도 남자들이 아침부터 힘들게 텐트를 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요. 피임약을 먹는 건 여러 이유가 있어요. 먼저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 주기를 일정하게 하려고 먹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는 스스로 빠주는 방법으로 몽정을 예방(?)할 수 있지만, 여자는 피임약을 먹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피임약은 생리통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그녀가 피임약을 먹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에디터 유승민** 걱정? 이거 왜 이러사나... 금요일 저녁, 그녀와 술 약속을 한 순간부터 저 상황을 머리 속에 그리고 바라고 있었으면서 불금에 모텔방은 마침 비어있던거? 굉장한 우연이군. 당신이 그녀와 하게 된 이유는 술이 아니다. 이유는 이미 당신이 말하지 않았다. '몸매도 좋고 씩씩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 경험도 많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아닌가? 얼굴 못 들 이유가 뭐 있어? 오피스 와이프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냥 즐겨



## 독자 사연 응모

**▶우편 접수**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7가길 22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사연이 실린 독자 모두에게 주는 이달의 독자 선물

사연이 잡지에 실린 독자 모두에게 다음의 선물을 랜덤으로 배송해 준다!

**랩시리즈 멀티-액션 웨이스 워시**  
봄이 왔다. 그런데 왜 당신 얼굴은 아직도 혼자 겨울이냐고? 랩시리즈 멀티-액션 웨이스 워시로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보자. 수분은 지켜주고 봄철 꽃가루는 효과적으로 닦아주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에도 화사하게 꽃이 필 것이다.



**엠도씨 안티 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  
햇살이 따사로워졌다. 별이 뜨거울 수록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미간에는 흉측한 팔자 주름이 남는다. 그럴 땐 엠도씨 안티 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미간에 살포시 발라주세요. 움푹 파인 내천(川)자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MAXIM 여성용 V넥 티셔츠**  
여자가 웃을 가볍게 하고, 겨우내 감춰왔던 하얀 속살을 공개하는 계절 봄이 왔다. 두터운 옷을 벗고 MAXIM V넥 티셔츠를 입자. MAXIM 을 이는 여자는 섹시해 보이니까.



## 궁금해요, MAXIM!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더 헛갈리게 해드릴게.



후배님 사랑하는 만큼!

**Q.** 이제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OT가 있었는데, 한 선배가 막걸리와 소주, 그리고 맥주를 섞어서 했습니다. 그래야 더 빨리 취한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새초롬, 이메일 사연>

**A.** 사실이 아닙니다. 영국의 일반 임상적인 사라 자르비스 박사는 "한 종류의 술이라도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즉, 술에 취하는 정도는 알코올의 절대량에 따라 결정되며, 술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MAXIM의 박모 에디터는 술자리에 함께 있는 여성의 외모는 숙취에 크게 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사에 따르면 "예쁜 여자와 술을 마실 때는 혹시나 중요한 순간에 안 설거봐 조금만 마시고, 못생긴 여자와 술을 마실 때는 나라 잃은 백성마냥 많이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 MAXIM 사랑방

MAXIM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



**2010 MISS MAXIM 우승자 최혜연**  
섹시한 화보로 MAXIM 독자들의 마음을 녹였던 최혜연 양이 한라봉을 들고 MAXIM을 찾았다. 혜연 양, 고마워 잘 먹었어요.



**랩퍼 닥터 심슨(Dr.Simpson)**  
군 복무 중인 인기 랩퍼 닥터 심슨이 군 생활에 힘이 된다고 하며, 휴가 나와 사진과 앨범을 MAXIM에 선물했다. 남은 군 생활 건강히 보내세요!

# WORLD GYM™



It Will be Great! 2014  
**WORLD GYM**



[www.asiaworldgym.com](http://www.asiaworldgym.com) 월드짐 일산 본점 031-932-7010

여의도점 02-782-1003 교대점 02-593-7766 강남점 02-2052-0096 대치점 02-538-0700 울산점 052-281-1122 부산연산점 051-758-5554

# Dear. Readers

## RAINBOW 조현영의 독자 고민 상담

레인보우의 막내 현영이 당신의 고민을 들어준다.  
몸매만 성숙한 줄 알았더니, 생각도 깊네

**Q.** 홍대 앞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에게 제 노래를 들려주는 게 좋아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런데 나이는 먹어가고, 꿈은 점점 멀어집니다.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버스킹, 이메일 사연)

**A.**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꼭 TV에 나오는 가수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직장인 밴드 같은 것도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도전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파이팅하셨으면 합니다!

**Q.** 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름 잘 생기고 매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 상사 분들은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데, 여자 상사 분들은 저에 대해 그렇게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 상사 분들의 예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지매, 이메일 사연)

**A.** 여자는 사소한 것에 감동을 느끼는 법입니다. 여자 상사 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자주 해주세요. 예를 들면, 화이트데이에 센스 있게 사탕을 하나씩 선물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Q.**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전 키우고 싶은데, 직원 한 명이 고양이를 극도로 싫어해서 제발 내쫓자고 하네요. 거래처 사람이 달라고 하는데, 너무 주기 싫어요. (Yulee, 이메일 사연)

**A.**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래처 직원에게 보내주세요. 고양이가 더 행복해질 거랍니다.



구두 슈즈원



대한민국 대표  
커플링은   
커플이야  
[www.couple2ya.com](http://www.couple2ya.com)

검색창에 **커플이야** 를 검색해 보세요.

# Dear. Readers

이 종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 이영돈 PD의 독자 고민 상담

고발 전문 이영돈 PD가 독자의 사연을 날낱히 파헤친다.  
“저도 야한 사연 참 좋아하는데요.”



수트 아르코발레노  
셔츠와 타이 제나비테일러

**Q.** 금욕 생활을 하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해서 금욕을 실천 중인 은행원입니다. 그런데 여자 손님을 보면 소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발기가 됩니다. 자꾸 야한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면 득도를 할 수 있을까요? <자축합시다, 모바일 사연>

**A.** 군대에 있으면 치마를 두른 사람만 보이면 발기가 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일입니다. 부끄러워 마세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쓰는 건데, 애국가를 부르면서 음란한 생각을 잠재우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마스터베이션을 하세요.

**Q.** 건장한 격투기 선수입니다. 여자 친구는 사권 지 1주년이 되는 날 순결을 허락하겠다고 하네요. 이제 데디이가 2개월 남았는데, 최근 갑자기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시도해도 될까요? <원펀치쓰리강냉, 모바일 사연>

**A.** 시도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2개월 기다려서 다시 여행을 가세요. 무조건 1주년이 됐을 때 정식으로 밤의 격투를 실현하는 게 낫겠어요. 여자 분이 같이 자고 싶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키는지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시도하지 않고 점잖게 있으면 더 신뢰가 쌓일 것 같아요.

**Q.** 꿈을 좇고 있는 대학 4학년생입니다. 아직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클럽에 문화에 반해서 디제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집에서는 반대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웨끼웨끼, 모바일 사연>

**A.** 요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즐겁게 하는 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진정 하고 싶다면 정말 승부를 걸어서 최고의 DJ가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겠죠? 만약 부모님이 집을 나가라고 한다면 집을 나가세요.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elldiverwatches.com>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09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490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롯데센텀점(부산점) 051-730-3198
N 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N C백화점(해운대) 051-705-5737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3108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노블리(일산점) 031-961-6795
헬로APM6F(동대문) 02-6388-2927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11	2001아울렛(중계점) 02-3399-8236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8	샤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타임런(부평점) 070-7516-4545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와와치(반포점) 02-537-8977	보석상자(안양점) 031-466-1014	행끼통(부천점) 032-662-0686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TIME 21(강변점) 02-3424-1210	탐타임(안산점) 031-413-7656	복와치(청주점) 043-223-1333
프로워치(남대문) 02-779-6964	타임루트(안산점) 031-487-9057	타임루트(안산점) 031-487-9057	타임봄(부산점) 070-7530-1219
이와치(명동점) 02-771-7033	테크노마트B1(신도림) 02-2111-1120	티파니(일산점) 031-931-5300	엘가시계(부산점) 070-7569-5766
			덕천시계(부산점) 051-333-8849
			M B K TIME(부산점) 070-8200-2234
			교보문고(대구점) 053-256-1575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엘가시계(대구점) 053-255-6940
			엘가시계(구미점) 054-451-6940
			더타임진주점 055-741-3072

# Circus M

A MAXIM VIEW OF  
THE WORLD

진심으로 보고  
싶다아...

일본의  
죽신들 명소?



# aximus

## 생전 미륵화의 실천 즉신불(卽身佛)

 이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도를  
알지 못한다. BY 조웅재

 불교 용어 중에는 '즉신불(卽身佛)'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도행이 높은 승려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공양하며 미륵이 된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부모가 낳아준 육신으로 살아생전에 보살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 일이 정말로 가능할까?

오랜 세월을 걸쳐 일본과 중국 등 불교권 문화에서는 이 즉신불을 몸소 실천하는 승려가 많았다. 궁극적 보살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육신의 고통을 잊어야 하는 법. 즉신불이 되는 과정의 끝에는 항상 죽음이 따른다. 육신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보살이 된다는 단어의 뜻과 달리 굉장히 아이러니한 수행 방법이다.

일단 즉신불이 되기 위해서는 6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처음 수행을 시작한 3년간은 나무 열매와 소량의 견과류를 섭취하며 온몸에 있는 체지방을 쫓는다. 선식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 이치와 같지만, 일반인이 3년 동안 삼시 세끼 선식을 쳐먹었다간 안상기와 함께 유니세프 투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3년에 걸친 체지방 제거 과정이 끝나면, 이후 3년간은 옷을 달인 물과 나무 껍데기를 먹으며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비소가 소량 함유된 물을 마시기도 한다. 인체에 흡수 해로운 물질인 비소는 사람이 꾸준히 섭취할 경우 근육이 이완되고, 피부가 검게 변하며, 탈모 증상이 발생한다. 수행이 끝날 즈음엔 파골이 상접해 사망 직전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채 방치되어 육신이 부패하면 수행 실패. 반드시 살아 있어야 성불(成佛)할 수 있다.

최후까지 살아남은 승려는 숨이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무덤에 묻힌다. 이때 관에 종을 함께 묻는 풍습이 있는데, 승려는 죽기 직전까지 이 종을 울리다 최후를 맞이한다. 종소리와 함께 성불하는 것이다.

중국의 주화산, 일본의 아미가타 현, 티베트의 르카쩌 등지에서는 이런 수행을 거쳐 즉신불이 된 승려들의 미이라를 볼 수 있다. 생불(生佛)의 경지에 오른 이들은 과연 숨이 끊어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에디터는 잠시 상념에 잠겨본다. 아, 시발. 배가 고파서 아무 생각도 안 나네. ☹

### 멍청한 마약범 8인

확실히 약 빠는 새끼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BY 박정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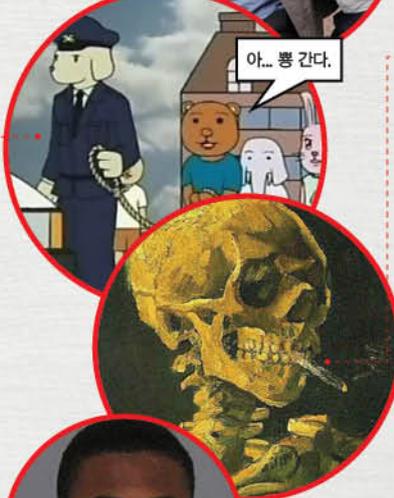
#### 1 폐북 허세질의 레전드

멕시코에서 미국 애리조나 주로 통하는 국경을 넘다 적발된 세라핀 잠바다 오르티스. 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뒤지던 미국 수사관들은 금과 은으로 도금한 AK 자동화기, 마리화나가 가득 담긴 가방, 산처럼 높이 쌓인 돈다발 등 스케일이 남다른 SNS 자랑질을 목격했다. 조사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오르티스가 멕시코에서 악명 높은 마약 범죄 카르텔 중 하나로 시카고 행 마약의 80%를 공급하는 시날로아 조직 부두목의 아들이었던 것. 이래서 퍼거슨이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라고 했나 보다.



#### 2 히로뽕 맞고 광명 찾자

술에 취한 듯 몸을 비틀대는 한 남자가 서울 성북경찰서 안암지구대에 들어섰다. 단순 취객으로 생각하고 난감해하던 경찰들은 "저 히로뽕 주사를 맞았습니까"라고 말하는 이 남자의 폭탄 발언에 강력팀을 출동시켰다. 태연히 자수한 이 남자는 마약 복용 혐의로 이미 전과가 8건이나 있는 상습 마약 사범이었다. 황당한 일은 다음 날이 되자 이 남성이 "내가 왜 경찰서에 있느냐"며 따져댄 것. 음주 운전을 하고 자수한 '자수성애자' 유세윤도 다음 날 아침 이런 기분이었을까?



#### 3 마지막 한 대만요

미국 신시내티 해밀턴 카운티에 거주하는 다메인 미첼은 마약 밀거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초범인 데다 전과 기록이 없는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판사는 "마리화나를 중단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며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지 물었다. 고민 끝에 미첼은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마 한 대만 파우면 안 될까요?" 뻑친 판사는 미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4 이봐, 짬새! 강한 걸 원해?

독일 북부 에슈베게 시의 경찰들이 동료 경관의 생일 파티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창 즐겁게 술을 마시던 그들에게 수상한 손님이 찾아왔다. 열일곱 살 소년인 이 불청객은 문을 열어준 경관에게 은밀히 제안했다. "강한 걸 원하시면 저한테 마리화나를 사세요." 소년의 황당한 호객 행위에 경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화기애애한 파티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소년 마약상을 밖으로 유인해 체포했다.



#### 5 저 마약 사기 당했는데요

미국 코네티컷 주 하트포드 경찰은 맥스 미네필드라는 남자를 마약 소지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했다. 마약판매상에게 대금 8달러를 지급했는데 마약을 못 받아서 화가 난 미네필드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되려 체포된 것. 판사는 미네필드의 황당한 신고 정신을 이해할 수 없어서 "경찰이 정말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전화를 걸었느냐?"라며 진지하게 되물었다고. 이 사람아, 안심 결제나 직거래를 해야지!

#### 6 죄송해요, 마약인 줄...

미국 테네시 주에 사는 윌리엄 캔트럴은 이웃 스티븐 메들리의 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백색 가루가 든 작은 상자를 발견하고 훔쳐왔다. 그런데 그 가루는 캔트럴이 찾던 코카인이 아니라 메들리의 어머니를 화장한 유골이었다. 다행히 마약사범이 아닌 단순 절도범으로 붙잡힌 캔트럴. 더 다행인 건 그래도 유골을 흡입하지는 않았다고.

#### 7 신제품 바나나 맛 코카인

지난 1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바나나로 위장한 코카인 140kg이 발견됐다. 누군가 배송 주소를 잘못 적는 바람에 코카인이 슈퍼마켓으로 배달된 것. 코카인을 잃어버린 마약 사범은 눈앞이 캄캄할 거다. 코카인 140kg은 암시장 가격으로 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87억 원어치니 말이다. 이 코카인 바나나를 남파 친구 대용으로 사용하려면 여자가 있었다면 "아... 이게 듀얼 오르가슴이구나!" 싶었겠다.

#### 8 뽕 가게 화끈한 시의원 후보

마약을 뿌리며 선거 운동을 하던 배짱 좋은 여자가 있었다. 브라질 이타코아치아라의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여성 후보가 선거 유세 도중 유권자들에게 코카인을 나눠주다가 딱 걸린 것. 순찰 중인 경찰이 인파에 둘러싸인 그녀의 자동차를 우연히 보고 접근했는데, 갑자기 자동차 주변에 몰려 있던 사람들이 파이어뱃을 만난 저글링처럼 순식간에 흩어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자동차를 검문하여 차안에서 소량씩 종이에 싼 코카인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당선됐으면 고담 시터 안 부러운 범죄 도시를 만들었겠지?

# 웰터급의 진정한 강자가 가려진다



웰터급 세계 챔피언전

# UFC<sup>®</sup> 171



3월 16일(일) 오전 10시 30분 슈퍼액션 독점 생중계

**SUPER  
ACTION**

약함  
WARNING!!

# Circus Maximus

## Sick Sweet

### 쇼킹! 화이트데이! 더러운 사탕들

 이거 선물했다가 여친에게 뽀맷았다고 MAXIM에 찾아오고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BY 손안나



야, 왜 아무도 뽀맷을 안 쳐주나?



#### 1 구더기 사탕

미국 캘리포니아의 핫틀릭스(Hotlifix)에서는 벌레로 만든 사탕을 판다. 모양만 본뜬 게 아니라 구더기, 귀뚜라미, 메뚜기, 독이 있는 전갈 등에 실탕 옷을 입혀서 만드는 영양 만점 리얼 벌레 사탕이다. 자취하는 그녀의 단백질 보충을 생각한다면, 꽤 괜찮은 선택이겠는데?



#### 2 반창고 사탕

어린 시절, 까진 무릎에 생긴 딱지를 뜯어내 입안에서 굴려본 적 있거나 반창고를 뜯어 상처를 활아본 적 있는 베테랑이면, 이 사탕이 딱이다. 반창고 타입으로 만든 이 사탕을 그녀의 무릎이나 팔꿈치에 붙이고 살살 활아 먹자. 물론, 놀란 그녀가 아직 도망가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말이지.



#### 3 기저귀 똥 사탕

기저귀 포장을 조심조심 풀면 시꺼먼 덩어리가 나온다. 그렇다. 똥 사탕이다. 여자아이 똥은 핑크색 상자에, 남자아이 똥은 파란색 상자에 따로 구분해 판다니 구입하기 전에 그녀에게 전화해 물어보자. "자기, 여자 똥 먹을래? 남자 똥 먹을래?"



#### 4 노란 코딱지 젤리

진짜 코딱지처럼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이다. 서역인들의 상품평을 보니 식감 역시 어렸을 때 먹어본(!) 그 노란 콧물과 흡사하다며 호평 일색이다. 그녀와 코딱지 한 일까지 공유하고 싶다면 이걸로 갯하자.



#### 5 여드름 젤리

몽글몽글 차오른 여드름이 "팻"하고 터지는 순간의 쾌감을 아는 이에게 추천한다. 얼굴에 몇 개 붙이고 손가락으로 여드름 짜듯이 젤리를 짜면 그 안에서 딸기 맛이 나는 액체 젤리가 터져 나온다. 서로의 얼굴을 여드름투성이로 만들어놓고 장난스럽게 활아 먹는 건 어떨까?



#### 6 CSI 사탕

조금 조약하지만 미드에 자주 나오는 혈액 샘플 채취 튜브와 닮았다. 세 개가 한 세트인데 노란색 액체는 소변, 빨간색 액체는 혈액, 흰색 액체는 타액을 상징한다고..

OD MUSICAL COMPANY, CJ E&M &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Book, Music & Lyrics by JIM JACOBS and WARREN CASEY

10th  
ANNIVERSARY



3월 14일! 화이트데이 준비 끝!  
대한민국 모든 커플들을 위해 태어났다!



스타일리쉬 펍 레스토랑  
식사 패키지

그리스 R석 1매 + 식사권 1매

~~약 92,000원~~ ▶ 68,000원

(VAT 포함)

화이트데이 주간(3.11~3.14) 식사패키지 구매 시 경품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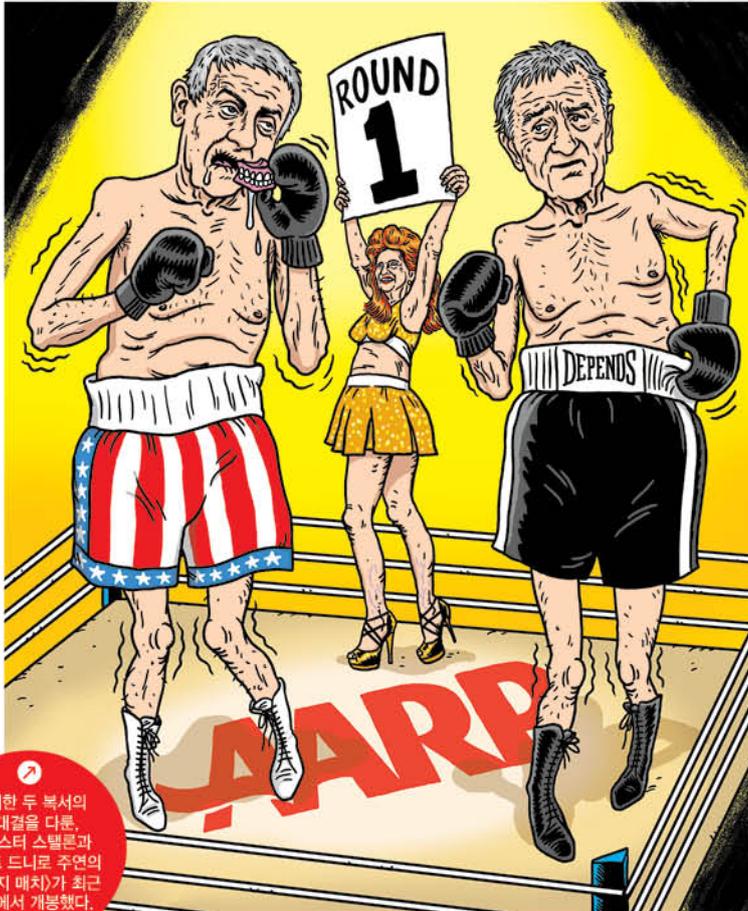
No.1 뮤지컬 그리스

2013.10.22~ OPEN RUN | 대학로 유니플렉스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 경로당 스맥 다운! 흰머리 휘날리며

미국 호놀룰루에서 재활 클리닉을 운영 중인 정형학과 전문의 버나드 포트너 박사에게 물었다. 백발성성한 두 노인네가 붙을 때 몸에 무슨 사달이 나는지.



2  
은퇴한 두 복서의 세대경을 다룬, 실베스터 스탤론과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그루지 매치>가 최근 미국에서 개봉했다.



**1 얼굴에 잼을 먹이면**  
“나이가 들면 관절이 움직이는 반경이 줄어듭니다. 팔을 제대로 휘두를 수 없으니 제대로 된 잼을 날리기도 힘들죠. 반면 뼈는 약해져 부러지기 쉽고요. 엉성한 잼이라도 코에 꽂히면 코뼈가 외작 부러질

겁니다. 만약 눈 주위에 주먹을 맞으면 피가 줄줄 흐를 거고요. 왜냐하면 노인의 피부는 마른 흙이 부스러지듯 상처가 생기기 더 쉽거든요.”



**2 보디에 라이트훅을 먹이면**  
“노인이 혼신의 힘을 실은 강펀치를 날리지만 쉽지 않죠. 나이 들수록 골밀도가 떨어지니 때리는 사람의 손목뼈도 온전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때리는 어르신보다 맞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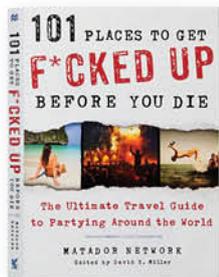
어르신의 부상이 훨씬 심각합니다. 갈비뼈에 정통으로 펀치를 맞으면 과자 부서지듯 뼈가 부러지면서 뼈의 날카로운 끝이 간을 비롯한 내장을 찌를 테니까요. 장기의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3 귀를 물어뜯으면**  
“물론 치아가 다 빠진 상태에서 잇몸만으로 남의 귀를 물어뜯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치아나 틀니가 있다면 이야기는 다르죠. 게다가 노화된 얼굴은 정말 잘 부러지거든요. 아, 그리고 심장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는 노인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혈관이 약해지고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니 상처가 과다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화가 나도 웬만하면 주먹질은 하지 마세요.”

### 웬지게 화끈한 여행지



흥미로운 여행 서적 <죽기 전에 가볼 만한 X나 빠센 여행지 101곳>의 저자가 손꼽는 지상 최대의 파티 타운 4곳에서 잘 적응하는 법을 알려준다.

**코펜하겐, 덴마크**  
전문가의 팁: “덴마크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벗는 것에 관대한 화끈한 국민들이다. 이 벗는 행위엔 ‘노상방노’도 물론 포함된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유흥가에 가면 노상방노 중인 남자를 무조건, 최소 한 명은 보게 될 거다. 그러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덴마크산 황금 분수를 조심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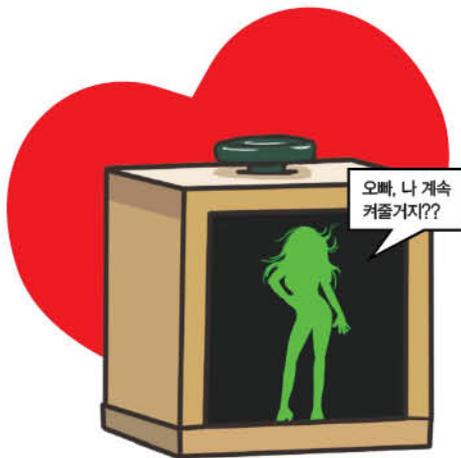
**푸에르토 바이라타, 멕시코**  
전문가의 팁: “연말 연초에 이곳을 방문한다면 특히 발음에 주의하라.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뜻의 인사말은 ‘펠리즈 아노 누에보(Feliz Año Nuevo)’다. 이걸 ‘펠리즈 아노 누에보(Feliz Ano Nuevo)’라고 잘못 읽으면 ‘새 향문을 축하한다’라는 뜻이 된다. 상대의 신선한 X구멍을 축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면 허를 조심히 놀리도록.”

**잔지바르, 탄자니아**  
전문가의 팁: “해변에서 섹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하지만 잔지바 협상을 거치면 20달러 정도 뇌물을 꽂아주는 걸로 끝난다.”

**푸켓, 태국**  
전문가의 팁: “목젖, 뒷입술 위 수염 자국, 낮은 목소리, 억센 손... 맞다. 그냐는 과거에 고추 달린 수능이었다.”

# 휴가 앞둔 김 상병, 너의 곡소리가 들려!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 많은 대한민국 남아들에게  
그린 라이트를 선물한다! BY 김진욱



## ‘봄’이 오니 ‘봄’ 향기가 더 그림군

군인에겐 겨울은 날씨 그 자체만으로 빠센 계절이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진짜 사나이를 의지하며 혹한기 훈련을 잘 버텨준 우리에게 봄 휴가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달콤한 선물(물론 원한다고 다 휴가를 갈 수 없지... 이런 쫄또마떼 쿠다사이요!) 다행히 천국으로 가는 선물, 휴가중을 손에 쥐고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휴가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나 낭창한 수분크림 대신 삭막한 위장크림을, 여자 작업 대신 계절작업을, 구스다운 대신 야전상의를 입고 겨울을 보낸 터라 피부는 동태와 다름없다. 내 생애 봄날은 곧 온됐는데, 언제 온됐는데, 분명 엄마가 그랬는데...

## 내 피부에도 봄날은 오는가!

휴가 나가면 대학교 여자 동기들과 파릇하고 어린 여자 사람 신입생을 보기로 약속했다. 생각만 해도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멋진 모습으로 그린 라이트 상황을 만들어 볼까? 나쁜 남자 컨셉트로 썸을 일으켜 볼까? 이런 저런 꿈을 꾸지만 까칠하고 멍게 같은 얼굴 때문에 자신감이 찔뚱에 빠졌다.

김 상병의 자신감을 찔뚱에서 구원해 줄 5분 대기조는 없는 걸까? 휴가 때 그린 라이트를 만나 제대 후에도 지속적인 썸을 일으킬 수 있도록 김 상병의 얼굴을 풀피부로 바꿔줄 구세주는 없을까?

봄이 오면 펜스레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운 남성들을 위해 MAXIM이 준비했다. 동태처럼 까칠하고 일어붙은 피부, 넓어진 모공, 여드름&여드름 흉터를 동시에 힐링할 수 있는 필살비법, SL흉터재생술! 봄날처럼 맑고 훈훈한 피부로 봄치며 마음에 불을 지펴보자!

### 도움말 주신 분

손철훈 원장  
한의원 전문의  
진료 분야:  
여드름, 여드름 흉터

- 한의원 원장
- 한의학 박사
- <피부 카리스마> 저자
- 前 대한스프츠 한의학회 회장
- 경희대 한의과 대학원 겸임 교수
- 에스킨아카데미 공동 대표



## 예한의원 손철훈 원장님이 말하는 봄날처럼 산뜻한 풀피부 비법 대공개!

Q. SL흉터재생술(치료)은 기존 박피치료와 어떻게 다릅니까?

A. SL치료는 기존에 피부를 깎아내는 레이저박피나 화학박피와 달리 흉터 부위에 직접 손으로 구멍을 뚫고 재생 유도물질인 SL109를 투입하여 흉터 부위에만 새살을 돋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한의원에서 10년 간의 연구로 개발한 SL109 물질은 단순히 구멍을 뚫었을 때보다 2~3배 많은 양의 새살이 나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또 기존에 박피처럼 깎아내는 방법이 정상 피부의 과도한 손상으로 인한 붉음증이나 화상 피부와 같은 번들거림을 방지할 수 있고, 표면 피부 손상을 최소화 해 자연스러운 원래의 피부를 보호하고 진피 깊은 곳에서 새살이 올라옵니다.

Q. 지금 여드름이 계속 올라오는데도 SL치료가 가능합니까?

A. SL치료는 다른 치료술과 달리 여드름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SL109는 흉터뿐만 아니고 피지선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한 번 시술만으로도 여드름을 확연히 줄여줍니다. 그러므로 흉터 치료뿐만 아니라 여드름 피부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게 합니다.

Q. 기존의 프락셀이나 MTS 치료법과 다른가요?

A. 피부에 일정 간격으로 피부에 구멍을 뚫는 프락셀, MTS는 얇고 넓은 흉터나 노화 피부에 효과가 있으나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흉터 부위와 정상 부위 관계없이 구멍을 뚫으면 흉터 부위에 살은 적게 올라오고 정상 부위는 더 강한 자극을 받아 더 많이 올라오므로 깊은 흉터의 편차를 줄이지 못합니다. SL치료는 좁고 깊은 흉터 부위에만 살이 올라오게 해서 빠르게 편차를 줄입니다. 즉, 흉터 치료의 핵심은 새살 만들기 아니라 편차 줄이기입니다.

Q. 군인들이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보통 시술을 받고 5일 정도 지나면 딱지가 떨어지고 선블러만 바르면 야외 활동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휴가 때 치료를 받는 군인들도 많습니다. 휴가 기간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휴가 마지막 날 시술을 받고 바로 귀대를 하더군요. 대개 이런 경우는 고참병들이 많아요. 말년 차는 마지막 휴가 때 시술을 받고 제대 하자마자 한 번 더 시술 받고, 이렇게 두 번만 받아도 웬만한 흉터는 해결되니까요.



### 오르가슴이 너무해!

즐길 수 없다면 피해야 하는 슬픈 오르가슴 이야기. BY 박정욱



**1 참아야 하느니라...**  
일본의 심야 쇼 프로그램 <오르가슴 위>에서는 한 포르노 배우 남성이 게이의 오컬 섹스를 받고 오르가슴을 참아낼 수 있는지 실험했다. 포르노 배우 사와이는 발가벗겨진 채로 중심 부위에 박스만 걸친 채 그의 상대인 게이 남성 다쿠야의 벨라티오(구강성교)를 받아야 했다. 다쿠야의 오컬 섹스에 사와이는 주먹을 깨물고 신음 소리를 참아야 했다. 사와이가 잘 참아내자 다쿠야는 손가락으로 사와이의 젖꼭지를 애무했다. 웃옷을 벗어던진 다쿠야는 심지어 브라를 하고 있어 사와이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고? 제한 시간을 얼마 안 남기고 박스 밖에 놓인 휴지 상자에 손을 뻗은 다쿠야는 당당히 사와이의 정액을 빨아냈다.

가... 기묘해!



**2 오 선생의 잦은 방문**  
평생 오르가슴 한번 못 느끼는 여자가 있는 반면, 오르가슴을 하루에 200번 넘게 느끼는 여자도 있다. 부러워 죽겠다고? 모두가 침통한 장례식장에서 몸을 부르르 떨며 환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상주와 맞절을 하는 상황을 떠올려보라. 미국 뉴저지에 사는 킴 렘시는 언제, 어디서 끌어오를지 모르는 오르가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지속성 생식기 흥분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부럽다고? 홍콩 왕복 마일리지 부자가 되는 팁을 알려주겠다. 간단하다. 그냥 계단에서 굴러라.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킴이 계단에서 구른 후 침착에서 여성의 오르가슴을 주관하는 부분에 낭종이 생겨 이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금도 느끼고 있다...



**3 오르가슴 이기주의**  
2012년 11월, 한 남자가 고추를 달고 태어나 평생 수치스러울 만한 폭행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데이비스는 자신의 애인인 곤질레스를 오르가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 죄로 그녀에게 두들겨 맞아야 했다. 섹스도 못하는데, 여자한테 맞고 사는 남자가

된 것이다. 철의 여인 곤질레스는 데이비스와 섹스 도중 그가 사정하자마자 사정없이 안면 파운딩을 감행했다. 이유는 데이비스가 치사하게 혼자만 절정에 도달하고 섹스를 끝냈기 때문. 데이비스는 눈과 코에 멍이 들고 상처를 입었으며, 후시딘을 발라도 아물지 않을 만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남자들이여, 매 맞는 남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섹스 실력을 연마하자! 아니면 이종격투기를 연마하든지.



**4 오르가슴 119**  
여자의 브라 컵은 넘칠수록 좋다. 여자의 오르가슴도 과연 마한가지일까? 미국 시애틀에 사는 리즈는 그녀의 애인 에릭과 성관계를 하던 중 오르가슴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녀가 절정에 머문 시간은 무려 3시간. 결국 그녀는 실 새 없이 나오는

3 HOURS INTO ORGASM

신음 소리를 멈추기 위해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 오르가슴 상태로 1시간 경과, 그녀는 신음 소리를 내며 "Oh! God!"을 외쳤지만, 불리도 대답 없는 무심한 주님은 리즈의 오르가슴을 멈추지 않았다. 오르가슴 상태로 2시간 경과, 리즈는 와인을 마시며 취해보기로 했다. 오르가슴 상태로 3시간 경과, 자신의 섹스 실력을 자랑스러워하던 리즈의 애인 에릭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리즈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 의료진은 리즈의 신음 소리를 듣고 처음엔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인 줄 알았다고.

### '오 선생'을 부르는 미친 방법 3가지



**① 하품 오르가슴**  
네덜란드의 볼터 조인텐스 교수는 하품과 섹스가 생물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카마수트라'의 나라 인도의 고대문학에서는 하품하는 느낌을 오르가슴으로 묘사한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고.



**② 수유 오르가슴**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젖꼭지가 콧물이 서게 돼 당장 젖을 먹일 준비가 된다. 성적으로 흥분한 여성 역시 젖꼭지가 딱딱해진다.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바로 오르가슴을 주관하는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점이다.



**③ 마인드 컨트롤**  
미국의 팝가수 레이디 가가는 "나는 마인드 컨트롤로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섹스를 사랑하는 여자>의 저자 지나 오그덴 박사 역시 "마인드 오르가슴은 호흡과 판타지, 그리고 집중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사랑은 사랑의  
발작한  
연애 교습소

# 오늘 밤 어때?



IT'S  
SO  
GOOD!!!  
유승민  
\*남성지 Maxim 에디터



HHO~  
서유리  
성우, VJ



AAARGH~  
가수 김동민



AH... AH...  
박은지  
MC, 전 KBS캐스터



MMM... 데니안  
영화배우, 가수

Sexy ...안영미  
개그우먼



AAHHH...  
박철민  
OSEN

OO...OO  
여연희  
모델



성인 인증 필수!!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트렌디에서 본방사수!!

### 麥心

### 레이디 고디바 승고한 알몸쇼

BY 굽시니스트

11세기 영국 코벤트리 지방의 영주 리어프릭 백작은 무거운 세금을 거둬들여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높았다.

백작의 아내인 레이디 고디바가 백작에게 세금을 좀 낮춰달라고 청하자-

나체로 말타고 마을 한 바퀴 돌면 그대주지



살려주세요 마님!!



레이디 고디바는 진짜로 나체로 말 타고 마을 한 바퀴를 돌았다!

윙? 날 별로 보고 싶지 않나?

마을 사람들이 문을 닫고 커튼을 쳐서 마님의 알몸을 보지 않기로 결의한 것.



마님의 선행을 욕보이지 말아야제



그러하여 백작은 개심하고 선정을 베풀었으며

레이디 고디바는 코벤트리의 상징이 되어 오래도록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물레 문 틈으로 레이디 고디바의 알몸을 엿본 옷가게 점원들이란 놈이 있었으니

하악 하악



몸은 천벌을 받아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Oh, my e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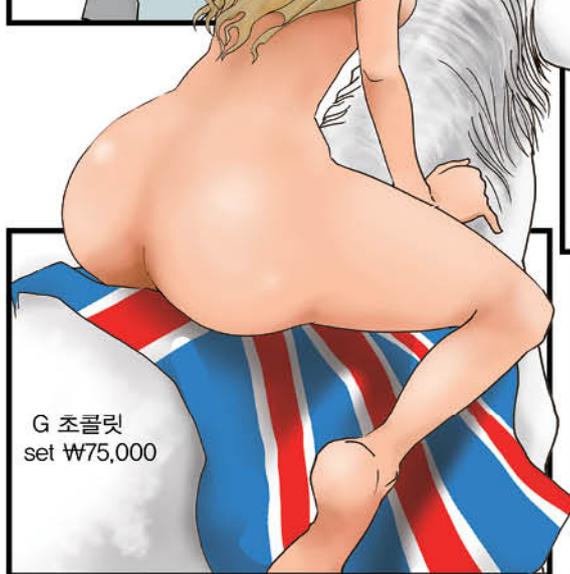


그러하여 영어에 관음증 변태를 뜻하는 '엿보는 몸'이라는 단어가 추가됨.

Peeping Tom



레이디 고디바는 벨기에 명품 초콜릿의 이름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G 초콜릿 set ₩75,000



반으면 절하고 먹자.

엄지손가락만한 한 조각이 5천 원이라는 꾀꼬리한 가격을 자랑한다.



서민들을 위해 희생한 레이디 고디바의 이름을 서민들은 맛보기도 힘든 비싼 초콜릿 이름으로 사용하다니! 아이러니 찌는구만!

맛있어서 좋기만 하구만.

나님은 원래 귀족이야.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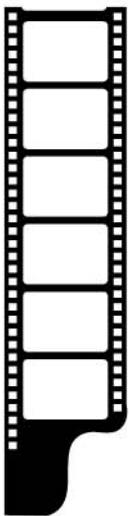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0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커집니다.
0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0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 [www.meddoctor.co.kr](http://www.meddoctor.co.kr) / 02-3445-4514



## 11 Greatest Action Movie Punchlines

 충칼을 휘두르기 전 내뱉는 말들이 때로는 사랑 고백보다 더 가슴을 후벼판다. 액션 신보다 더 죽여주는, 맛있는 대사들! 이런 거 몇 개쯤 암기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싸먹을 일이 있을 거야. 들을 일은 부디 없길... BY 김희성



### 1 테이큰(2008)

“이런 건 하청 줬었는데 숨씨가 영 마땅치 않더군. 스위치 켜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손톱을 뽑거나 살에 염산을 붓는데 그건 너무 비생산적이잖아. 한데 여긴 전기가 잘 들어와서 좋아. 스위치만 켜면 종일 들어오니... 스위치 켜놓고 갈게. 전기세 밀리면 까지겠지. 내 딸 어딨냐?”

딸을 납치한 일행 중 한 명을 찾아내 그를 전기 고문하는 전직 특수 요원 출신 아버지 브라이언(리암 니슨). 망할 노무 새끼가 남의 집 귀한 딸 납치해놓고 순순히 딸의 행방을 볼지 않자 허벅지에 못을 ‘뿅!’ 꽂아 전기 고문을 시전하면서 하는 말. ‘전기세 밀리면 까지겠지라... 클내가 진동하네그려.’

### 2 테이큰(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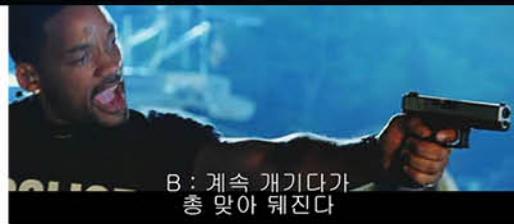
“빨리 말 안하면 네 자식들은 엄마 없이 살게 될 거야.”

〈테이큰〉은 눈을 어린 부정이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남을 해치거나 협박할 때 쓸 명대사가 가득한 영화기도 하다. 딸을 납치해 간 놈들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부탁을 잘 들어주려 하지 않자 친구 부인의 팔을 쓰며 하는 말.

### 3 나쁜녀석들2(2003)

“선택 A: 총 버리고 순순히 분다. 그럼 어깨만 살짝 아작내주지, 선택 B: 계속 개기다가 총 맞아 뒤통자. 난 재가 총 맞아 뒤통자 쪽이 훨씬 좋아.”

자신의 파트너를 인질로 잡은 KKK 단이 흑인 비하 발언을 하자 형사 마이크 로리(윌 스미스)는 두 가지 선택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한다. 어차피 마이크는 A를 해줄 생각은 없었고, KKK단은 마백에 터널을 개통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지. 땡땡땡.



### 4 아저씨(2010)

“애들이 죽으면 장기를 꺼냈지? 간은 충청도로, 눈은 경상도로, 심장은 서울로... 그렇지? 그 어린 것들이, 그렇게 죽어서도 구원을 떠돌게 된다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 해본 적 있어? (중략) 넌 지금 그 애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해. 소미를 찾아도, 너희 둘은 죽는다.”

유일한 친구 소미(김새론)를 납치해 간 조직을 태식(원빈)이 잡아 죽이면서 내뱉는 대사. 설경구나 최민식, 김윤석이 했으면 그냥 ‘아저씨’가 됐을 텐데, 원빈이 하나까 이건 뭐 고문하는 장면도 화보다. 화보...



### 5 피에타(2012)

“죽으면 보험금이 복잡해져. 그냥 여기서 날아.”

떼인 돈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받아내는 강도(이정진)는 “병신이 되면 엄마한테 짐만 될 뿐이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채무자에게 이 씨늘한 한마디를 남기고 그를 아래로 밀어버린다.



**6 킬빌(2003)**

“나랑 하고 싶지? 이래도 하고 싶어? 이래도 나한테 넣고 싶어? 아니면... 내가 너한테 넣은 거야?”

오랜 이시(루시 리우)의 부하 중 한 명인 고고 유바리(구리아마 치야키)가 자신을 유혹하는 남자의 배태기를 쑤시며 하는 말. 역시 10대는 무서워.



**7 킬빌(2003)**

“네 이름이 벅 맞지? 여긴 펍(fuck)하러 온 거귀 맞지?”

브라이드(우마 서먼)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신이 오랜 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을 때 병원 직원 벅이 자신을 강간한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 “내 이름은 벅, 여긴 펍(fuck)하러 온 거야”라고 읊조리던 장면이 떠오르자마자 문밖으로 대갈통을 후려친다. 펍



**8 데쓰프루프(2007)**

“이 차 타면 절대 안 죽는다는 말 기억하지? 이 차는 100% 안 죽는 차야.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내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거지.”

차로 여자들을 죽이는 걸로 쾌감을 얻는 스텐트맨 마이크(커트 러셀)가 옆자리에 예쁜 여자를 태우고 하는 말. 이렇게 예쁜 여자를 태우고 고작 하는 짓이 살인이라니, 사이코가 맞긴 맞구네!



**9 올드보이(2003)**

“누나하고 난 다 알면서도 사랑했어요. 너희도 그럴 수 있을까?”

오대수(최민식)에게 오랜 복수를 끝낸 이우진(유지태), 괴로워하는 오대수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자신의 머리에 총을 탕, 쏘고야 만다. 군만두 드립부터 “사랑해요 아저씨” 등 아직까지도 애용되는 떡밥을 많이 남긴 이 영화에서 가장 슬펐던 부분.



**10 레옹(1994)**

“폭풍이 오기 전의 이 고요함이 마음에 들어. 베트남이 연상되지.”

일가족을 몰살하기 직전치고 상당히 문학적이고 고상한 대사를 내뱉는 부패 마약 경찰 스탠스(게리 올드먼), 그의 반전 매력은 이게 다가 아니다.



**11 레옹(1994)**

“오, 시벨!!! 나한테 한 짓 좀 봐! 나한테 한 짓 좀 보라고! 내 옷을 망쳐놨잖아!!!”

자기를 향해서 쏜 총알 때문에 옷이 조금 망가졌으며, 온갖 쌍욕을 해대며 이미 죽은 사람을 향해 계속 총질을 한다. 자기는 일가족 몰살해놓고... 나쁜 사람...

# HOW TO



## Office Life Tip

### #13. 야근 안 하는 법



해도 해도 끝이 안 나고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귀신같은 일에서 해방되는 기본 원칙들. BY 김희성

MODEL 2012 MISS MAXIM TOP 4 김수아

아... 그냥  
야근할까?





PHOTOGRAPH YuD HAIR&MAKEUP 장혜민 VIDEO 김광수 ASSISTANT 박정옥

**❶ 야근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버려라**

아니,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많아서 야근하는 건데, 야근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버려라니? 억울하고 속상하게 느껴지겠다. 하지만 야근을 안 하려면 일단 자주 야근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게 우선이다. 당신이 거의 대부분 야근을 하는, 밤에 일처리를 하는 스타일의 상사라면 부하 직원은 별 거리낌 없이 오후 늦게나 자신의 퇴근 시간 즈음에 시킨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부하 직원은 어차피 당신이 야근하면서 그 일을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실제로도 당신은 부하 직원이 퇴근한 다음에야 그 일을 검토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아,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라며 피곤해 하겠지. 동료들과 함께 진행해서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야근 안 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개인마다 혼자서 처리해야 할 업무와 협업해서 끝내야 하는 업무가 있을 텐데, 당신이 재깍재깍 퇴근하는 이미지라면 동료들은 당신에게 결과물을 빨리 제출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야근하면서 일 처리를 하는 유행이라면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끝낸 후 가장 나중에 당신이 요청한 일의 결과물을 주겠지. 그러면 당신은

계속 야근해야 하고, 회사에서 나만 일이 제일 많다고 투덜거리게 될 것이다. 습관성 야근이 당신의 필자를 엇가락처럼 꼬이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 행복 지수는 맨틀을 뚫고 바닥으로 추락하겠지. 명심하자. 야근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동기든 모두가 일을 늦게 갖고 온다. 당신의 이미지가 회사에 서식하는 오피스 잉여로 굳어지면, 그때는 당신이 하고 싶지 않아도 야근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 당신의 이미지는 퇴근 후 라이프가 없는 무능하고 약속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❷ 업무의 재고량을 파악하라**

일은 해도 해도 줄지 않고, 출근해서 책상에 앉은 우리 앞엔 매일매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간다. 그 때문에 출근해서 그날 해야 할 일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마도 일에 치여 매일같이 야근을 해야 할 거다. 출근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라. 정리를 하다 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미칠 정도로 일이 급하고 많지 않다고 느낄 거다. 물론 오늘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만간 해야 하는 일까지 하면 더 좋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된 채 꼭 해야 할 일이 뒤로 밀리면 해도 해도 일이 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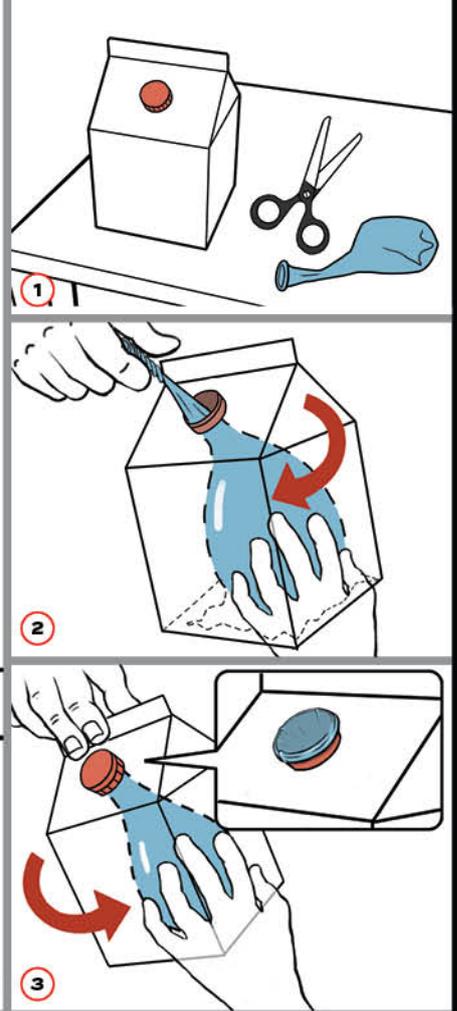
않는 거지 같은 상황이 매일 반복된다. 하지만 야근을 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의 절대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꼭 해야 할 일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일들은 그 일을 마무리한 후에 하나씩 해나가는 게 좋다. 퇴근하고 내일 해도 될 일과,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당신의 근무 시간 효율성을 놀랄 만큼 바로 잡아준다.

**❸ 머릿속을 정리하라**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정리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으면 멘붕에 빠진다.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을 하면서도 자꾸 해야 할 다른 일이 떠올라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일처리 속도는 한없이 느려지고 그나마도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없다. 그럴 땐 마인드 컨트롤부터 해야 한다. 머릿속을 다 비우고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일 하나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 짓고 다음 일로, 또 그 다음 일로 하나씩 차례차례 클리어해나가는 거다. 머릿속에 가득한 걱정을 버리고 평정심을 되찾아라. 생각에 관한 생각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

# How To

## Volcano Pack



# 친구 엿 먹이는 볼케이노 팩 만들기

※ 경고: 지나친 장난은 너무 재밌어 죽습니다. BY 박정욱 ILLUSTRATION 작



준비물 풍선, 종이로 된 음료수 팩(뚜껑 달린 것), 칼

- 1** 뜯는 곳 옆면에 둘러서 여닫는 뚜껑이 달린 사케나 냉장 주스 팩을 준비한다. 칼로 팩의 밑바닥을 뚫은 후 그 안에 물이 가득 담긴 풍선을 넣는다. 효과를 제대로 얻고 싶다면 신축성이 좋은 물 풍선을 준비할 것. 풍선의 조임이 좋을수록 물이 팔팔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다들... 일지?
- 2** 풍선 주둥이 부분을 팩 뚜껑으로 통과시켜 쪽 뺀 뒤, 배배 꼬아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한다. 풍선이 풀리게 되면 친구를 엿 먹이기 전에 셀프 엿을 먹을 수 있으니 주의. 풍선이 늙은 소 불알처럼 축 늘어지지 않도록 바짝 당겨준다. 팩 바닥에 뚫어놓은 구멍 사이로 풍선이 보이면 작전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
- 3** 첫 키스를 준비하는 소녀의 닭뚱집 같은 입술처럼 풍선 주둥이를 동그랗게 말아 팩 뚜껑을 덮고 뚜껑을 닫는다. 팩 밑바닥에 손을 넣어 풍선을 원래 꼬아놓은 방향의 반대로 돌려 주둥이가 꼬이지 않게 풀어준다. 자, 이제 풍선 안의 물은 뚜껑만 열면 뿜어져 나올 준비가 됐다.
- 4** 고생했다. 준비한 부비트랩을 식탁 위에 놓으면 끝이다! 친구에게 식탁 위에 있는 주스 한 잔만 달라고 부탁하자. 뚜껑을 여는 순간 풍선이 들어 있는 팩은 아동에서나 보던 엄청난 분수 쇼를 보여줄 것이다. 이제 당신은 몰래 숨어서 친구가 휴지를 찾기 위해 1990년대 테크노 댄스를 추는 모습을 감상하면 된다.

### 우유 팩에 라면 끓이기



☞ 걱정 마, 안 타  
종이가 불에 타는 온도(발화점)는 약 270°C 정도다. 그런데 우유팩 안에 물을 넣으면 종이로 전해지는 열이 물에 전도돼 종이가 발화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즉 종이팩은 연소되지 않고 가열된 물만 100°C 이상에서 보글보글 끓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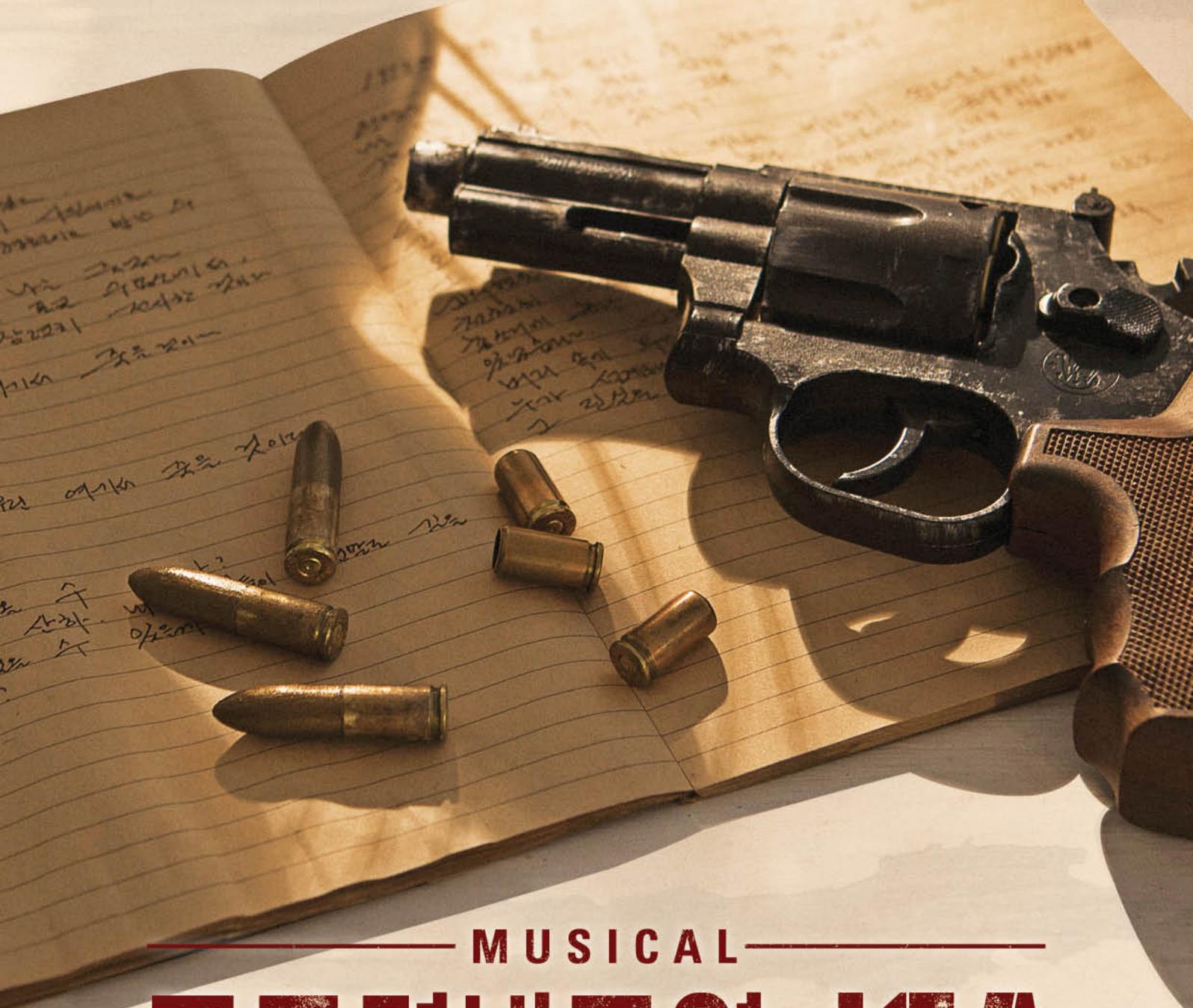
**준비물**  
500mL짜리 빈 우유 팩, 물 250mL, 라면, 젓가락, 그릇, 가위, 가스버너

**1** 젓비린내가 안 나게 우유 팩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윗부분을 가위로 자른다.

**2** 가스버너 위에 물을 넣은 우유 팩을 올리고 불을 켜다. 끓기 시작하면 라면과 스프를 각각 반만 넣는다.

**3** 면이 충분히 익도록 약한 불에 3분간 끓인다. 불이 세거나 너무 오래 끓이면 우유 팩이 터버릴 수 있으니 주의할 것.

한 발의 총성,  
기록되지 않은 그 날의 기억!



MUSICAL

# 공동경비구역 JSA

JOINT SECURITY AREA

2014. 2. 27(THU) ~ 4. 27(SUN)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이정열, 임현수, 정상윤, 강정우, 이석준, 최명경, 이기섭, 임철수, 전범준, 박종원, 장웅희, 최기언, 이윤성, 문남권, 이종원, 송인호

작/작사 이희준 작곡 맹성연 연출 최성신 음악감독 변희석 안무 김준태 편곡 피정훈 제작/기술감독 김미연 무대디자인 심재욱 조명디자인 김영빈 음향디자인 이형석 의상디자인 도연, 박소영  
소품디자인 강민숙 분장디자인 조미영 무대감독 구봉관 프로듀서 최민영 총괄프로듀서 박중수 주최  우란문화재단 제작 CenS 센스 홍보 마케팅 (주)창작컴퍼니 문의 02-749-9037

2013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구 창작팩토리) 우수작품제작지원 선정작 | 원작·박상연 소설 "DMZ" | 예매 - 인터파크, YES24

# How To Pencil Master



## 연필 깎기의 장인 되기

요즘처럼 기계가 뭐든 다 해주는 시대에 도대체 왜 칼로 연필을 깎느냐고? 모르는 소리! <연필 깎기의 정석>의 저자 데이비드 리스는 말한다. "연필 깎기는 장인 정신이다." BY 박정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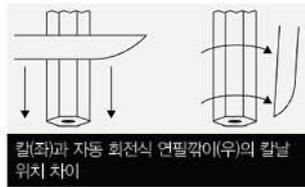
**1 단계** 칼 준비하기  
주방의 요리사부터 저자거리 망나니까지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바로 무딘 날이 날카로운 날보다 위험하다는 것. 무딘 날로 무언가를 벨 때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칼이 언타가거나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커터칼은 날을 자주 교환하고, 주머니칼은 솥들로 자주 갈아줘야 한다.



**2 단계** 집도  
주로 사용하는 손에 칼을 쥐고 다른 손에는 연필을 잡는다. 자동 회전식 연필깎이는 칼날이 연필과 평행을 이루고 축 위부터 나무와 흑연을 차례로 깎는 반면, 칼로 직접 깎을 때는 칼날이 연필과 사선을 이루고 축 아래부터 깎아나간다. 즉 축의 아랫단은 마무리가 아닌 시작점이므로 연필에 칼을 대기 전에 원하는 축의 길이를 정해야 한다. 성형할 때도 칼 대기 전에 얼굴에 그림 그리잖아? 그거랑 비슷해.



축을 길게 깎을 때는 축의 아랫단이 더 내려가며 각도는 더 완만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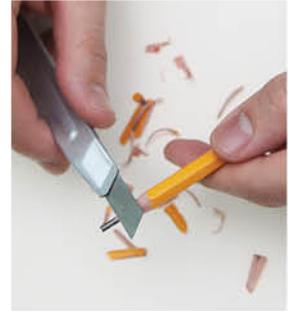


칼(좌)과 자동 회전식 연필깎이(우)의 칼날 위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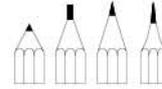
**3 단계** 깎기  
첫 칼질은 연필을 둘러싼 페인트를 벗겨내는 일이다. 연필 깎기 장인들 사이에서는 연필의 모서리를 먼저 깎는지, 평면을 먼저 깎는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다. 사실 상관없다. 둘 다 시도해보고 편한 방법으로 깎아라. 페인트를 벗겨내고 나무가 나오면 깎기는 수월해진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신이 나서 힘주어 깎다가 흑연을 건드리기 일쑤기 때문. 연필심의 움푹 팬 상처는 심을 약하게 만들어 쉽게 부러지게 하니 주의할 것.



**4 단계** 흑연 노출  
연필심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깎아라. 딸근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즈음 흑연이 보일 것이다. 흑연은 나중에 다듬는 시간이 있으니 나무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는데 집중하자. '전통 연필깎이로 깎은 연필이 아님'은 온 누리에 자랑하고 싶다면 조금 거친 상태로 뒤도 상관없다. 사용엔 지장이 없으니 말이다.



**5 단계** 흑연 다듬기  
흔히 흑연이 노출되면 칼날을 높혀 나무와 흑연을 함께 깎는다. 이는 흑연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깎으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 깎아야 하고 결국 연필은 몽당연필이 된다. 구레나룻을 직접 자르면서 균형을 맞추려다 '강제 투 블럭 컷'을 해야 하는 경우와 같다. 흑연을 다듬을 때는 반드시 칼을 세우고 심을 갈아내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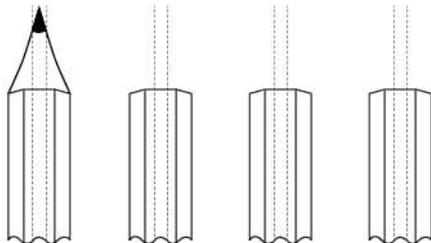
### → 직업에 어울리는 흑연 다듬기

- 1 목수**  
흑연을 다듬을 필요가 없는 유일한 방식이다. 아랫단에서 연필 끝부분까지 단칼에 깎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충대충'을 선호하는 이에게 추천한다.
- 2 건축가**  
흑연을 전혀 다듬지 않은 상태다.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면이 네 개나 되기 때문에 재빨리 스케치해야 하는 건축가나 화가에게 어울린다.
- 3 타이포**  
사포를 이용해 흑연을 다듬었다. 그래픽 디자이너처럼 섬세한 작업을 하는 이에게 어울리는 방식.
- 4 글쟁이**  
흑연과 나무 속살의 비율이 1:5이 되어 세계 놀러도 부러지지 않고 굵게 써진다. 글을 많이 쓰는 글쟁이에게 추천.



### 환상의 연필 축 그리기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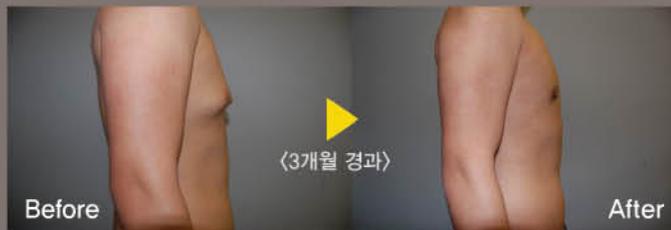
그림의 정선은 흑연 심을 나타낸다. 풀리는대로 멋진 작품을 구상해보라! 귀뚜캣은 어떨까?



**연필 깎기의 정석**  
저자 데이비드 리스  
출판 프로파간다  
가격 12,000원  
연필 깎기의 장인이 되고 싶나? 자타공인 'HB 연필 깎기 장인' 데이비드 리스가 저술한 <연필 깎기의 정석>을 읽어보자. 세상 모든 연필 깎기 기술이 이 안에 있다!



그가 그녀를  
잡을 수 없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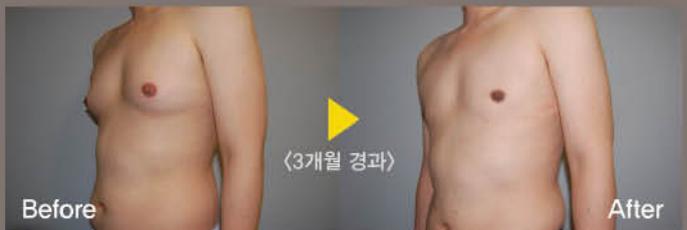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한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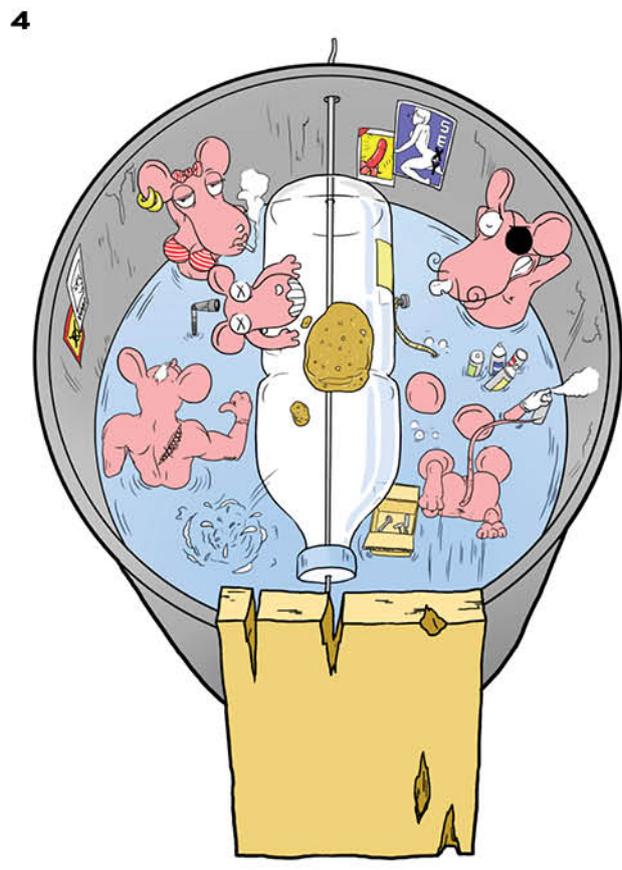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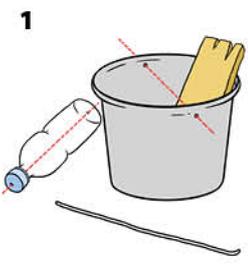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How To

## Mouse Trap

많이 흩지?



## 초간단 쥐덫 만드는 법

성가신 쥐새끼를 물지옥으로 인도하자. BY 김소윤 ILLUSTRATION 찬찬민



### 준비물:

- 20L 플라스틱 양동이
- 페트병
- 철사
- 나무판자
- 땅콩버터

**1** 페트병 뚜껑과 바닥 중앙에 작은 구멍을 뚫고, 양동이 뒷부분에도 두 구멍이 서로 마주 보도록 같은 크기의 구멍을 낸다. 양동이와 페트병에 뚫린 구멍이 수평이 되도록 놓은 뒤 네 개의 구멍에 철사를 끼운다. 꼬치에 끼워놓은 통돼지 바비큐처럼 병이 걸리는 부분 없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다.

**2** 이제 성가신 쥐새끼들을 지옥으로 인도할 헬게이트를 만들자. 나무판자를 페트병 입구 쪽에 기대어놓는다. 운동량이 부족한 쥐가 올라가다 지쳐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너무 가파르지 않게 세운다.

**3** 양동이에 물을 채우고 땅콩버터 등 쥐가 좋아하는 음식을 페트병 위에 발라 고소한 냄새를 풍긴다. 쥐를 익사시키고 싶지 않다면 양동이 안 물은 빨 것.

**4** 완성한 쥐덫을 평소 쥐가 자주 출몰하는 구역에 세워놓는다. 음식 냄새에 취한 녀석이 "웬 떡이야!" 하고 판자를 가로질러 페트병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뱅뱅 돌아가는 병 위에서 미끄러져 양동이 안으로 쏙 빠지게 된다. 멍청아! 그러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냐, 안 했냐!



## 돈 안 들이고 해충 퇴치하는 법

이 버려지 같은 것들 때문에 큰 돈 쓰기 아깝다면? 간단한 재료로 녀석의 무전취식을 원천봉쇄하라!



### 핫소스로 바퀴벌레 퇴치하기

피자를 시킬 때 달려오는 핫 소스를 먹지 말고 모아둔다. 어느 정도 모이면 분무기 안에 핫소스와 물을 1:1 비율로 섞고, 바퀴가 자주 나타나는 길목에 칩칙 뿌린다. 냉장고 뒤, 쓰레기통 주변 등에 중점적으로 분사하라. 얼마 안 가 핫소스의 매운 향을 싫어하는 바퀴벌레가 옆집으로 이사 갈 거다.

### 고무줄로 개미 퇴치하기

월세도 안 내고 당신 집을 제집인 냥 드나드는 개미가 골도 보기 싫다면 고무줄로 그들을 내쫓아보자. 실탕 그릇 아래에 고무줄을 감아두면 고무 냄새를 싫어하는 개미가 실탕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을 거다. 개미가 자주 출몰하는 길이나 단내가 나는 음식 근처에 고무줄을 놓아두면 어느새 개미가 싹 사라진다.

### 계피로 진드기 퇴치하기

온라인에서 600g에 3,000원 정도 하는 통계피를 사서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에탄올(60mL에 약 1,000원)에 넣어 숙성시킨다(계피와 에탄올을 약 2:8 비율로 하는 것이 좋다). 2주 후에 갈색빛이 도는 이 액체를 분무기에 넣어 침대나 소파에 분사한다. 모기 퇴치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여름철에는 외출 전에 뿌리고 나가자.

### 식초로 초파리 퇴치하기

먹다 남은 과일 찌꺼기를 식초에 투하한다. 식초가 담긴 컵을 랩으로 씌우고, 초파리가 입장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을 송송 뚫는다. 달콤하고 시큼한 향에 홀려 컵 안으로 들어갔던 초파리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결국 그 안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 How To

## Dunk



챌린저  
파슨스의  
신들린  
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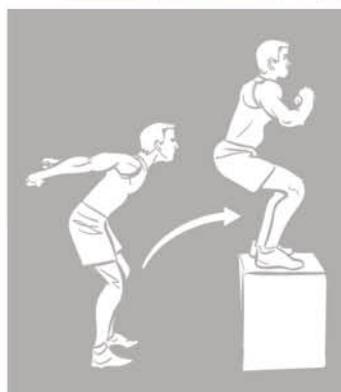


## 덩크슛으로 상대 선수 대가리 찍어 넘어뜨리기

**Step 1:** 상대를 찍어 내리려면 키가 커야겠지? 우선 25cm 정도 키를 키운다.



**Step 2:** NBA 휴스턴 로키츠의 득점 기계, 포워드 챌린저 파슨스에게 파워풀한 덩크슛 스킬을 배워라.



### 1 점프력을 높여라

점프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싶다면 박스 점프가 답이다. 먼저 본인 점프 실력에 맞는 적당한 높이의 박스를 뛰어오르고 내려오는 연습을 12번씩 총 4세트씩 실시한다. 익숙해지면 모래 조끼, 덤벨 등으로 체중을 올린다. 잊지 마라. 결과는 당신이 노력한 만큼 나온다.

### 2 근육과 폼 모두 연마하라

덩크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다. 파워풀한 근육 훈련에서 비롯된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일단 점프력과 근육을 키워도록, 물론 폼도 중요하다. 덩크슛을 할 땐, 한 발로 뛰어야 한다. 점프할 때 사용하지 않는 반대쪽 다리는 최대한 굽혀 점프한다. 점프한 상태에서 공을 든 손은 뒤로 시원하게 젖힌다.

### 3 험상궂은 표정을 지어라

상대의 머리 위로 덩크슛을 하는 건 코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무례한 행동이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좋으니 평소에 건방진 표정을 연습하도록. 2년 전, 내가 상대 선수를 제치고 덩크슛을 꽂은 뒤 코트 위에 엎어진 그를 뻔히 노려봤는데, 그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상대도 물론 그 옛같은 기분을 못 잊겠지?

# Comment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 환갑이 된 액션 스타 성룡 그리고 아버지



언제나 유쾌 상쾌 통쾌하던 성룡표 액션이  
달라졌다. 왜 이렇게 짙한 걸까? BY 손안나

성룡 액션  
명장면



### Jackie Chan TRIVIA

- 성룡의 아버지는 항일전쟁시기 국민당군 스파이였다. 성룡은 한동안 아버지를 따라 원래 성인 '방'씨가 아닌 '잔'씨로 살아야 했다.

- 그는 문맹이었다. 글을 읽을 줄 몰라 촬영을 위해 통째로 위문 영화 대본이 100여 편 이상이다.

- 성룡이 장발을 고수하는 이유는 촬영 중 머리에 생긴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다.

- 그의 크고 두꺼운 쌍꺼풀은 성형수술한 것이다.

- <용형호제> 촬영 중 추락사고로 오른쪽 청력을 잃었다.



- '살아있는 연기자 중 가장 스텐트 액션을 많이 한 사람(Most stunts by a living actor)'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크리스마스엔 케빈을, 명절엔 성룡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룡 영화는 우리에게 친숙한 텍스트다.

설이나 추석이면 TV에선 어김없이 <취권>, <폴리스 스토리>, <러시아워> 등의 성룡표 액션 영화를 틀어줬다. 그는 고층빌딩에서 자유낙하하고, 높은 빌딩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리며, 우산 하나로 버스에 매달려 도로를 질주했다. 하지만 나는 안심이었다. 어찌 됐든 마지막에는 이 아저씨가 나쁜 놈들을 통쾌하게 절단낼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 같은 게 있었다. 아빠도 옆에서 말씀하셨다. "성룡은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는 성룡이고, 성룡은 빨간 팬티를 입고 망토를 휘날리는 서역男보다 더 멋진 아시안 히어로니까.

1980~90년대는 그가 내놓는 영화마다 줄줄이 흥행 대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하던 호시절이었다. 각각의 작품보다 중요한 건 '성룡 영화'라는 카테고리였다. 1985년 홍콩 경찰청 특수기동대 진가구(성룡) 순경의 이야기로 시작한 <폴리스 스토리> 시리즈는 그중에서도 가장 '성룡 영화'다운 그의 대표작이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시리즈의 후속작 <폴리스

스토리 2014>가 개봉했다. "말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고군분투"라는 점에서 개봉 전부터 '성룡의 <테이큰>'이라 불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영화는 흥행에 대참패하며 어느 날 극장에서 소스소문 없이 사라졌다. 전매특허인 성룡의 화려한 액션이 빠진 게 부진의 원인이었다. 영화 속 성룡은 강력계 형사 '종 반장'으로 등장해 사건이 펼쳐지는 미로 같이 복잡하고 좁은 클럽 안을 낮은 포복으로 기어다닐 뿐이었다. 더 이상 성룡은 <폴리스 스토리 3>의 혈기왕성한 경찰 진가구가 했던 것처럼 헬기에 매달려 하늘을 날지 않는다. <홍번구>에서 보여주었던 현란한 무술 동작으로 타격의 통쾌함을 보여주는 일도 없다. 그 자리에는 조르기, 비틀기 등의 관절기로 상대방을 조용히 제압하는 베테랑 형사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폴리스 스토리 2014>에서 관객에게 가장 목직하게 다가오는 장면은 성룡이 누군가를 제압하는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누군가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딸과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 육각의 링 안에서 지는 싸움을 계속한다. 아크로바틱이나 주변 사물을 활용해서 상황을 뒤집는 <프로젝트 A>식 반전

같은 건 없다. 맞고 쓰러지고 맞고 쓰러지고... 특별히 잔인한 것도 아닌데, 성룡이 개 두드려 맞듯 얻어터지는 걸 보니 주먹에 불끈 힘이 들어간다. 구타를 당하는, 울해로 환갑을 맞은 성룡의 얼굴에 나와 당신의 아버지를 오버랩하고 그 구타 장면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서글픈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젊은 시절의 '히어로' 성룡은 네배다이었다. 명절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TV 속 그의 개고생을 지켜보는 일이 즐거울 수 있던 건 그가 불사신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폴리스 스토리 2014> 속 성룡은 언제 죽거나 다칠지 모르는, 가끔 우리를 하여금 그가 세상에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상상해보다가 이내 고개를 젓게 만드는, 늙고 평범한 우리의 '아버지'였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 한때 우리의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했던 그 남자가 언제까지고 건재하기를 바란다. 육각의 링 안에 쓰러진 성룡을 향해 이토록 안타깝고 뜨거운 응원을 전하고 싶어지는 건 그 때문이다. <폴리스 스토리>가 나온 지 30여 년이 흐른 지금, 2014년의 성룡이 보여주는 액션을 보고 울컥할 줄은 정말 몰랐다.

### 死神 치바



죽음은 때때로 우리를 위로한다. 박 김희성

천사들이 도서관으로 모인다면,  
우리는 음반 매장으로 모인다.  
나는 인간의 죽음에는 흥미가 없지만,  
인간이 다 죽어 음악이 없어져버리는 것만큼은 괴롭다.  
사람의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나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누가 언제 죽느냐에 흥미가 없다.  
하지만 나는 항상 상대를 직접 만나보고 철저히  
조사하고 결정한다.  
조사기간은 일주일이다.

내 이름은 치바. 사신이다.  
그러나 특별히 인간과 다를 바는 없다.  
한 번도 맑은 날을 본 적이 없다는 것 정도만 빼고는,  
내가 일을 할 때면 항상 비가 내린다.  
- 〈사신 치바〉, 프롤로그 중에서 -



1

### 〈사신 치바〉

이사카 코타로 지음, 김소영 옮김  
10,000원 / 웅진지식하우스  
7~8월 〈사신 치바2〉 발간 예정



누구에게나 그런 날들이 종종 찾아온다. 여러 가지 생각이 뒤죽박죽 돼 고민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날. 사람마다 여기에 대처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지만, 나는 그럴 때면 종종 북악스카이웨이에 간다. 한눈에 서울을 내려다볼 수 있어 오로지 내 자신의 마음만 들여다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믿을 수 없이 고요하다. 항상 바쁘고 그러느라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늘 밀리는 도로 위에서 약속시간에 늦을까봐 마음을 졸여야 했던 시간들. 불과 방금 전까지 내가 살던 세상이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굽어보는 그곳은 너무나 아득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복잡하고 거대하고 빠르고 치열하게만 느껴졌던 세상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고민이 뭐였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나를 채운다.

비슷한 측면에서 죽음은 때때로 우리를 위로한다. 무모해 보여서, 용기가 없어서, 주위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기 싫어서, 무언가를 잃을까봐 망설였던 것들이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죽음 앞에서 고려 대상이

되는 건 오직 자신의 마음뿐이다.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이라 했던가. 그래서 뭐든 해볼 만한 의지가 생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을 낭비한다.

이사카 코타로의 소설 〈사신 치바〉는 죽기로 정해진 사람에게 나타나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예정대로 그를 죽게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사신(死神) 치바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한다. 일주일 동안 상대방의 삶을 들여다보고 기(可)와 부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그의 임무다. 우리는 치바의 눈을 통해 총 여섯 명의 삶에 함께 동행하게 된다. 누군가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인간을 관찰하는 건 꽤 색다른 경험이었다.

치바가 첫 번째로 관찰하게 되는 여자는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여자 후지키 가즈에다. 그녀는 죽음이 코앞에 닥친 걸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살이 너무도 괴롭고 힘들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 그런 그녀를 관찰하고 있자니 당장이라도 그 인생에 난입해 삶을 바꿔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별다른 꿈과 희망도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후지키 가즈에가 자신이 곧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다르게 살지 않았을까?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일이라면 차라리 하고 후회할 것이고,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뵈었을 것이고, 더 열정적으로 배웠을 것이며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려 했을 것이다. 아무리 힘든 시련의 순간이 찾아와도 잘 버티고 이겨낼 것이며 극복하려고 인간힘을 쓸 것이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그녀는 왜 망각하고 있는 걸까? 왜 조금 더 용기를 내지 않을까? 나는 그녀가 매우 안타까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 작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다. 생(生)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저 살아 있으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사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한 발짝 물러나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작가는 반복되는 삶에 매몰돼 삶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를 자주 잊는 우리들이 스스로의 삶을 객관화시켜 조금 더 힘을 내길 바랐던 거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느끼도록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자기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준다. 적어도 '죽음'이 많은 순간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당신에게 지금 용기가 필요하다면 이 책이 반드시 힘이 되어 줄 거다. 치바는 누구의 결이나 있다. ☺

### 에디터의 마음을 훔친 구절들

“태어나기 전에 무섭거나 아팠나?”  
“아니.”

“죽는다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무서울 것도, 아플 것도 없어.”

- 〈사신 치바〉, 14p 중에서 -

지당하신 말씀, 그대의 인생은 흠뻑물이 뿜 정도로는 달라지지 않아. 일주일 뒤에는 죽을 테고 말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다.

- 〈사신 치바〉, 18p 중에서 -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생기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험악이 미소 짓더니 “죽고 싶을 지경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대의 소망은 곧 이루어진다고 입을 놀릴 뻔했다.

- 〈사신 치바〉, 23p 중에서 -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은 경우가 많다. 우리가 채근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죽음을 향한 두려움일 때도 그렇고 동경일 때도 그런데, 아무튼 울창한 덩굴 속에서 그보다 더한 암흑을 들여다보는 듯한 얼굴로 어눌하게 말을 걸어온다.

이는 사람들이 무의식중에 우리의 정체를 짐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수를 받을 때 그렇게 배웠다. 사신은 인간에게 죽음의 예감을 준다.

- 〈사신 치바〉, 25p 중에서 -

예전에 기회가 생겨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천사는 도서관으로 모인다”고 묘사되어 있었다. 그때 나는 ‘아하, 천사들은 도서관이로군’하며 감탄했다. 우리는 음반 매장이야.

- 〈사신 치바〉, 30p 중에서 -

잠시 뒤에 그녀가 “도대체 나의 인생은 무엇일까요”하고 말을 꺼냈다. 잠아왔던 무언가가 끊어 넘친 듯해서 나는 철렁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애원하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다.

- 〈사신 치바〉, 38~39p 중에서 -



350년 전 똑같은 근심 속에  
북벌(北伐)을 결심하셨을  
효종대왕의 뜻을 기리어...

Comics



민족의 정  
이려는 일  
가!

# 분석! 거장 3인방의 한국형 히어로

거 괜히 거장이 아니더만유.  
BY 조웅재

매년 3월 1일이 되면 관순 누나를 비롯한 독립 운동 열사들을 기리는 행사나 애국심 마케팅 이벤트로 세상이 떠들썩해진다. 특히 애국/반일 감정이 버프를 받아 막강해지는 요즘, 과거부터 최근까지 발간된 우리나라 레전드급 작가들의 작품 세계와 애국 코드, 그리고 그들이 창조한 만화 속 애국 히어로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MAXIMI 돌아보았다. 만세 외칠 준비됐나?



형한류라고 일본 삼류 만화가가 그린 건데, 내용은 사류 이하야! 완전히 엉터리야.

# 韓流

독도가 무주공산으로 아무도 없는 땅이라 자기네가 100년 전에 찍은 땅이라 자기네 거라잖아.



형한류? 한국을 형오 한다고?  
그리고, 나는 그 내용에 같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자타공인 한국 만화의 거장 3인

현재 수많은 웹툰 작가들이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한국 만화의 전성기는 1970~1990년대였다. 많은 소년 월간지와 주간지가 인기리에 발매됐고, 국내 인기 작가들의 단행본이 발매되는 날이면 책을 사기 위해 서점 앞에 팬들이 줄을 설 정도였다. 하지만 인기와는 반대로 당시 문화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전무했고, 만화는 유독 더 박해 받았다. 도우너를 때론아 취급하는 YWCA 나 심위위원회 끈대들 때문에 '만화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풍조도 만연했다. 심지어 남산 어린이 회관 앞에 만화를 쌓아 놓고 불태우는 어린이날 행사도 있었다(문광부와 여성부의 병맛짓은 이미 30년 전 예견된 것이었다). 현재 웹툰 작가들이 광선검으로 스톱 트루퍼를 상대하고 있다면, 당시 작가들은 활로 이슬람 무장 단체들과 싸우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김성모, 이현세, 허영만, 이 3인은 우리나라 만화 산업계의 분좌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수장들이다. 그들은 꾸준한 창작 활동으로 대중의 공감을 산 작품을 찍어냈고, <각시탈>, <남벌>과 같은 굵직한 작품들을 창작했다.

얼마 전, 에디터는 3.1절을 맞아 애국심 북돋는 한국 명작 만화들을 소개하기 위해 이 만화 거장 3인을 수소문했다. <각시탈>과 <남벌>, 그리고 비교적 최근작인 김성모의 <협일류>를 접할 좋은 기회였다. 세 작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애국심 코드를 풀어냈는데, 특히 서로 다른 개성있는 히어로 타입을 형성해 독자에게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하며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었다.

### 이현세의 <남벌> 속 / 오혜성: 상남자 마초 지휘관 타입

살아있는 극화의 전설, 이현세 화백의 <남벌>은 재일동포 오혜성의 한일전 참전 과정을 그리고 있는 만화다. 침략의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 인도네시아를 침략한 일본. 다시 일어난 일본의 제국주의적 만행에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지원하고, 결국 한일 양 국가는 갈등 상태에 들어간다. 이에 일본 내 반한 정책으로 재일동포들은 마치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유대인들처럼 수용소에 갇혀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된다. 작품의 주인공인 재일동포 오혜성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다혈질 캐릭터다. 소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면 참지 못하는 마초 중의 상마초. 일본인 형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녀가 입고 있는 기모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형의 아우창을 시원하게 날린다. 이런 면에서 그는 <떠돌이 까지> 속 오혜성이라는 인물의 외골수적인 면을 어느 정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벌>의 오혜성은 일본인 교관의 아이를 잉태한 동생에게 소총을 주며 자살을 권유하는 등, 행동에 너무 앞뒤가 없고 거침이 없다. 작가가 이 캐릭터에 조금 지나친 민족주의를 입힌 나머지, 실제로 이 장면 때문에 <남벌>이 반인륜적인 명예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대차게 까는 안티들도 많았다.

### 허영만의 <각시탈> 속 / 이강토: 신출귀몰 게릴라 히어로 타입

2012년 동명의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인기몰이 한 허영만의 1974년작 <각시탈>, 그의 주력 캐릭터인 이강토를 주인공으로 앞세워 만든 오리지널 한국형 히어로물이다. 친일파 행세를 하던 주인공 이강토는, 자신이 쏘아 죽인 조선의 의적 각시탈이 친형이었음을 알고 맨몸에 빠진다. 이강토는 스스로 2대 각시탈이 되기로 결심하고, 낮에는 바보 알바생, 밤에는 애국 히어로로 사는 이중생활을 한다. 요즘에야 흔하다흔한 플롯이지만, 나름 한국 최초의 계승형 히어로라 할 수 있겠다. 2대 홍길동, 4대 임꺽정 뭐 이런 거 없잖아. 이강토는 <바람의 파이터> 속 최영일처럼 맨손 격투에 최적화된 캐릭터다. 그의 격투 스타일은 택견과 태권을 적절히 조합한 파이팅 스타일. 홀로 칼을 든 일본인 경찰 수십 명을 가볍게 때려 잡는 실력파다. 하지만 이런 타입의 영웅물은 앞서 소개한 <남벌>만큼 스펙타클하진 않다. 이강토가 눈에서 빙을 쓰고, 폭풍우를 일으켜 중로경찰서를 날려버리지 않는 이상 폭격기와 소총이 난무하는 <남벌>의 스케일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대신 이강토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한 전형적인 한국형 히어로이기에 게릴라전에 강하다. 게다가 무리를 이끌고 철저한 계획을 통해 집단 테러를 가하는 어벤저스가 아니라, 모든 상대를 숙명처럼 혼자 해결하는 슈퍼맨형 히어로랄까. 이런 카리스마 때문에 이후 <섹시탈> (Sexy 아니다), <무쇠탈> 등 아류작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심위위원회는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영웅이 아이들의 정서상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며 다른 작품은 멀쩡히 냅두고 엄한 <각시탈>만 연재를 중지시켰다. 대단하십니다.

여담이지만, 만화 속 이강토는 신기할 만큼 드라마 <각시탈>에서 이강토를 연기한 배우 주원을 많이 닮았다. 어허, 보고 그랬을리는 없는데...

### 김성모의 <협일류> 속 / 김한수: 지능형 전략가 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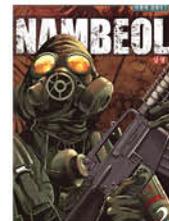
<협일류>는 제목에서 느껴지듯 괴짜 만화가의 아이콘, 김성모 자신의 목소리를 직설적으로 담았다. <협한류>를 읽고 이해할 수 없던 이야기에 하나하나 카운터로 날리며 답변하는 형식이다. <협일류>엔 지능형 주인공이 등장한다.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해 통역 일을 하고, 일본에 관심이 많은 남자 김한수. 특히, 아르바이트생 주제에 일본인 거러쳐 부장과 술잔을 기울이는 장면은 백미 중의 백미. "한국인들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본 부장의 말에 분노를 금치 못한 주인공은 주요 거러쳐 임원에게 일본인들의 그릇된 역사 인식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앞뒤 구분 못할 것 같지만 김한수는 <협한류>에서 비판적으로 그린 꼭 막힌 한국인들과는 다르다. 작가는 김한수의 입을 통해서 '너네 일본은 다 개새끼'가 아니라, '너네가 이래이래 잘못했으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는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게 잘 먹혔는지, 작품은 추진력을 얻어 <협한류>를 출판한 일본 신유사와 계약, 일본에서만 2만 부 정도가 팔렸다.

이것도 여담이지만, 앞서 김한수가 일본의 만행을 비판하며 말하는 장면이 있다. 분명 그는 일본어로 말하고 있는데, 옆에 앉은 일본어를 못하는 한국인 전무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자식, 완전히 미쳤구나!'라며 놀라는 장면은 여전한 김성모식 웃음 코드.

### 한국 만화판 <익스펜더블>?

알다시피 허영만의 이강토, 이현세의 오혜성은 70~80년대 우리나라의 잘나가는 히트 만화 작가라면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던 '돌려막기형' 주인공이다. 아마 당시 한국 만화를 즐겨 보던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당시 이름을 떨치던 '독고탁', '오혜성', '이강토', '강간마' 같은 주인공들은 한 작품에 나오는 특정 주인공이 아니라, 일종의 배우 같은 개념이었다. <까지>에서는 야구를 하고 <지옥의 링>에서는 복싱을 하던 오혜성이 <남벌>에서는 람보가 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기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다. 언젠가 이런 작가들의 대표 캐릭터들이 마치 <익스펜더블>처럼 한 작품에 모여 대활약을 펼치는 만화가 나오면 어떨까? 강간마와 오혜성이 하니를 두고 피터지게 싸우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김성모 형님, 아이디어가 혹시 맘에 드시면 싸게 넘길테니 전화 줘... ☎



▶ 남벌(이현세 클래식 시리즈) 작가 이현세 가격 10,000원 완결여부 발행 중(2권) 학산문화사



▶ 각시탈(한국 만화 걸작선 시리즈) 작가 허영만 가격 12,000원 완결여부 완결(전 1권) 거북이북스



▶ 협일류 작가 김성모 가격 9,500원 완결여부 완결(전 1권) 자유구역

# SM으로 돈 벌기

 각각 대며 EXO 오빠들 따라다니는 여동생을 한심하게만 볼 게 아니다. 그놈의 오빠들 회사 주식 애길 들으면 앞으로 당신 눈에도 EXO가 달리 보일 거다. BY FRED KIM(www.twitter.com/kimmanager)

볼 순 있지만 만질 순 없어.



홀로그램 콘서트가 뭐냐고



## EXO의 진짜 초능력은 음반 판매

2013년 연예계 최고의 블루칩은 누구였을까? 단연코 EXO다. 섹시미, 청순미로 무장한 아리다운 걸그룹이 아닌 이상 MAXIM 독자분들께서 눈길을 줄 리가 없지만, 그래도 "EXO가 뭐야, 무슨 도끼 브랜드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다. SM에서 키운 12인조 꽃미남 아이돌 그룹 EXO는 2012년 'Mama'라는 곡으로 데뷔했다. 처음엔 멤버들이 영동력, 비행, 치유, 공간이동, 빛과 물, 번개, 불을 다루는 등의 초능력을 쓴다는 이상한 맞춤형 초능력자 콘셉트를 내세워 EXO 팬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었다 (심지어 멤버 본인들도 웃음을 참지 못하더라). 그러던 EXO는 2013년 '으르렁'을 대히트시키며 그

해를 기어이 자신들의 해로 만들었다. EXO가 10대 소녀 팬 사이에선 최고의 아이콘이라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EXO엔 중국인 6명이 포함되어 있어 태생부터 중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기획된 그룹이다. 이로써 EXO는 한국을 넘어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권에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소위 글로벌 아이돌로서 한류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진짜 놀라운 점은 바로 2013년 누적 음반 판매량이 무려 100만 장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0을 하나 실수로 더 센 것이 아닌지 눈을 의심했으나 사실이었다. 말이 100만 장이지, 과거 지금처럼 디지털 음원이 없던 시절에 김건모, 신승훈, HOT 정도나 가능했던 밀리언셀러를 놀랍게도 2013년 EXO가 재현한 것이다. 음반 매출은 일정 규모 이상을 넘어가면 높은 영입 레버리지가 나오는 비즈니스다. 겨우 데뷔 2년 차인 EXO는 이미 소속사인 SM의 매출과 이익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 에스엠의 성장세는 하드코어하다

이렇게 SM은 2013년 성공적으로 한 보이 그룹을 히트시켰다. 이로써 SM의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EXO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매년 6개 이상의 톱 아이돌 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 한국에도, 국제적으로도 SM이 유일무이하다. SM 소속의 아이돌 그룹은 한류 확산의 주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미 2012년부터 SM은 국내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가 안 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다. 올해의 경우 중국 매출이 급증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SM이 올해 데뷔시킬 걸그룹은 데뷔 전부터 큰 기대와 관심이 쏠리는 게 당연하다. 다른 기획사가 아닌 SM이 만든 그룹이라면 상대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SM이라는 회사를 2009년부터 지켜봐왔지만 시선을 빼앗긴 건 소녀시대의 각성미도, F(X)의 신기방기한





한때 홀로그램은 영화에서만 보던 최첨단 기술로 여겨졌으나 이제 한류 장사의 강력한 무기로 쓰인다.



일본의 가상 보컬 아이돌 하츠네 미쿠의 홀로그램 콘서트는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콘서트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았다.



CNN의 홀로그램 뉴스 인터뷰. 근데 저 여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



홀로그램은 사망한 레전드 아티스트들의 공연 등에도 쓰였다. 위 장면은 죽은 투박의 홀로그램과 스눅독의 합동 공연.



올해 1월 강남역 일대를 마비시켰던 소녀시대의 홀로그램 콘서트 장면.

노래와 춤도,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탈지구인 급 꽃미모도 아니었다. 진짜 놀라운 것은 매년 이 회사가 드라마틱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작년은 SM의 사업다각화 원년이었다. 드디어 SM이 보유 콘텐츠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판단된다. 명동 롯데백화점의 '소녀시대 팝업 스토어'나 가로수길의 'EXO 콜라보레이션 숍' 등을 설치하는 시도를 하며 스타 관련 상품 판매를 직접 시작하고, 이는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었다. 향후 이러한 스타 관련 다양한 제품 판매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 자회사 SM C&C를 통해 드라마 제작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그들은 최근 윤아 주연의 KBS2 17부작 드라마 <총리와 나>, MBC에서 방영 중인 이연희 주연의 20부작 드라마 <미스코리아>를 이 자회사에서 제작했다.

### 아이돌이 애들 장난? 에스엠은 장난이 아니다

최근 SM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는 것이 등장했다. 실제 출연자 없이 영상과 사운드만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홀로그램 공연'이다. 홀로그램 하면 놀이동산이나 애들 스티커에서 볼 수 있는 엉성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일본에서는 홀로그램 전용 공연관이 따로 있을 만큼 홀로그램

콘서트는 이미 익숙한 개념이다. 최근 한류 사업에서 이 홀로그램 공연은 왕성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소녀시대는 서울 강남역에서 홀로그램 공연인 V콘서트를 진행했다. 아무리 그럴싸해도 요즘 세상에 홀로그램 따위가 먹힐 리 있느냐고? 소녀시대의 홀로그램 콘서트는 그 일대가 마비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언론에 따르면 이날 관람객 수는 무려 20만 명이었다.

SM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스타, 즉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람이기에 매력적이지만, 사람이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활동능 늘 제한이 생긴다. 예를 들면, 소녀시대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동안은 국내나 중국, 동남아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SM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가 바로 동방신기의 입대다. 둘 중 하나가 입대를 하면 동방신기는 활동이 어려워진다. 홀로그램 기술은 SM이 가진 연에 기획사가 지닌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어준다. 소녀시대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국내에서, 중국에서, 남미에서 홀로그램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팬들은 마치 영화를 보듯 입장료를 내고 그녀들의 공연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조금 과장하자면, 동방신기의

군 입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유노윤호가 입대하더라도 유노윤호 홀로그램과 최강창민이 얼마든지 같이 공연할 수 있다. 반대로 유노윤호가 제대하고 최강창민이 입대하면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의 홀로그램이 같이 공연하면 된다. 이렇게 홀로그램은 SM이 지닌 태생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SM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아티스트들을 계속 늘려가면서 한류 확산의 주역으로서 최대 수혜를 가져가는 중이다. 더 이상 한국 회사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회사로 거듭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낯설고 미녀들의 허벅지와 사랑스러운 춤사위에만 정신 팔려 있을 게 아니다. 빠순이 여동생들 역시 오빠, 언니들만 졸출 따라다닐 게 아니다. 용돈 모아서 현재 최고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사놓는다면 눈과 귀가 즐겁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지 않겠나? 여차하면 거대 팬클럽이 보유 주식을 모아 주주총회를 소집해 소녀시대와 EXO 공연을 눈앞에서 관람할 수도 있겠다. 근데 주주총회 공연장에 소녀시대 홀로그램이 오면 무효야, 알지?

# 서울 강남 한복판 코스프레 열전

지난 2월, 강남에 위치한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아마추어 만화인들을 위한 축제 (제122회 서울 코믹월드)가 열렸다.  
게임, 만화, 영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별별 캐릭터로 변신한  
코스튬 플레이어들을 만나 그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봤다.  
그거 도대체 왜 하는 거요? BY 김소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 강호에서 만난 코스프레 고수들

실내에 들어서자 아까보다 많은 코스튬 플레이어들이 눈에 띄었다. 실외에는 아이언맨처럼 로봇이나 두꺼운 갑옷을 입은 코스튬 플레이어가 많았던 반면, 안에는 드레스나 얇은 소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도 사람인지라 춥긴 한가 보다고 생각하던 찰라 인형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소녀가 땅에 끌린 치맛자락을 훌렁 들더니 얇은 옷차림 그대로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닌가. 그녀에게 달려가 춤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괜찮다'는 시크한 대답이 돌아왔다. 소녀는 추운 것보다 거리가 살짝 녹은 눈 때문에 치마가 더럽혀지는 게 더 걱정이라고 했다. 아가씨... 추운 데 그렇게 멋 부리면 독감 걸려서 개고생해요. 에디터의 걱정 어린 눈빛도 코스프레를 향한 그녀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다.

### 성지순례 필수 코스

두 달에 한 번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재밌게 논다는 소리를 들었다. 1999년 시작하여 올해로 122회를 맞는 <서울 코믹월드> 이야기였다. 만화를 좋아하는 아마추어 만화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소개하고 서로 공유한다. 직접 그린 팬시를 전시해 판매하기도 하고,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만화 덕후들의 성지인 거다. 도대체 얼마나 재밌기에 15년 동안 계속 열리는 거야? 장수의 비결이 궁금해진 에디터는 그 비밀을 파헤치러 갈 파티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전국 각지의 만화 동아리 사람들이 모여 자신이 그린 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동아리 판매전'이 열렸고,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만화 퀴즈 대회'와 '만화 노래자랑 대회' 등의 꿀잼 행사들이 이어졌다. 아침부터 붐볐던 행사장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 그날 가장 간지났던 코스튬 플레이어를 뽑는 '코스프레 콘테스트' 등의 여러 가지 시상식을 즐겼다. <코믹 월드>는 말 그대로 만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레일 '만화 세상'이었다.



행사 당일, 학여울역 근처에 위치한 강남무역전시장(SETEC)에 늦지 않게 도착했는데도 이미 주차장은 만차였다. 인파를 뚫고 입장표를 사기 위해 입구를 기웃거리던 중,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수근대기 시작한다. "왜 아이언맨이다." 고개를 돌리자 마크7을 차려입은 아이언맨이 손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발사하고 있다. 쩌는 퀄리티에 감탄한 에디터는 괜히 그에게 말 한마디 걸어보고 싶어졌다. "아이언맨을 코스프레 한 이유가 뭐죠?" 그는 에디터의 질문에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었다"는 심오한 말을 남겼다. 인터넷에 아이언맨 도면이 존재하지만, 오로지 사진만 보고 100만 원을 들여 직접 제작했다는 거다. 아, 누가 감히 이들을 '아마추어'라 부르는가!



## 코믹월드에서 코스프레 하는 법

### → 코스프레 등록하기

코믹월드에서 코스프레를 하려면 사전에 '코스프레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처에서 등록비 1,000원을 내고 손목 띠를 찬 후 실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 된다. 코스튬을 입은 상태로 등록처로 가면 등록이 거부되고 코스프레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절대 까먹지 말 것!

### → 갠플? 팀플? 취향대로 즐기기

또 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코스프레 콘테스트'나 '코스프레 무대 행사'에 참가해보자. 콘테스트에 참가하면 입장객 투표를 거쳐 그날의 퀸 또는 킹으로 뽑힐 수 있다. 단체로 코스프레하는 팀은 10분 내외의 독창적인 작품을 구성해 무대를 꾸미는 행사에 참가할 수도 있다.

### → 노출은 삼가기

진행진이 과도한 노출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의상을 즉시 갈아입어야 하거나 귀가 조치될 수도 있다. 특히 가슴이나 골반 부위에 노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투명한 소재의 속옷을 챙겨 입어야 한다. 쯤..

# 코스프레, 왜 그렇게 좋은고?

당신에게... 코스프레란?



이제준(19) 외, <기동전사 건담-역습의 샤아>  
건담을 선정한 이유가 뭔가? 신체를 많이 가릴 수 있어서  
무겁지 않나? 어깨가 너무 아프다.  
좋아하는 만화는? <천원돌파 그렌라간>

좋아하는 명대사:  
형은 죽었애 더 이상 없어.  
하지만 내 등에 이 가슴애  
하나가 되어 계속 살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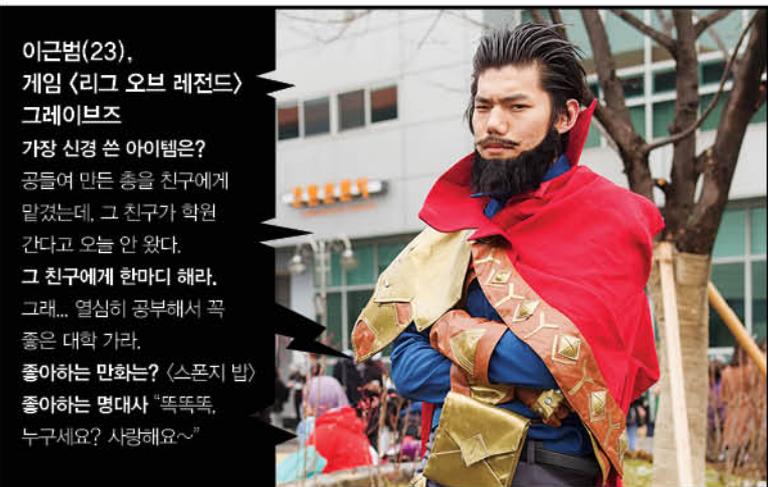


박신철(24),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리신  
춤지 않나? 안 춤다.(덜덜) 머리는 실마 민 건가? 원래  
민머리다. 당신에게 코스프레란? 친구. 코스프레하는  
게 마치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편하니까.



좋아하는 명대사:  
너의 죄를 세어라!

김도연(26), KBS 박대기 기자  
미안하지만 가면이 낡아 보인다.  
빌써 4년째 같은 아이템으로 코스프레하고 있다.  
제작 기간은? 한 시간  
좋아하는 만화는? 특촬물, 특히 <가면라이더>.



이근범(23),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그레이브즈  
가장 신경 쓴 아이템은?  
공들여 만든 총을 친구에게  
맡겼는데, 그 친구가 학원  
간다고 오늘 안 왔다.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해라,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대학 가라.  
좋아하는 만화는? <스폰지 밥>  
좋아하는 명대사 "뚝뚝,  
누구세요? 사랑해요~"



은이(16) 외, <러브 라이브!>  
가장 신경 쓴 디테일은? 레이스, 7만 원 이상 들었다.  
제작 기간은? 2개월 좋아하는 명대사 "유-즈, 유-젝! 스타트!"

오현민(23), <소울이터> 엑스칼리버  
가장 신경 쓴 디테일은?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제작 비용은? 5,000원



좋아하는 명대사:  
망장이

김혜현(19), 게임 <메이플 스토리> 라니아  
머리 색이 참 잘 빠졌다. 중국에서 구매 대행한  
기발이다. 코스프레 잘하는 법이 있나? 캐릭터의  
성격이나 포즈, 말투를 캐치하려고 노력한다.  
좋아하는 만화는? <쿠로코의 농구>  
좋아하는 명대사 "나를 이길 수 있는 건 나뿐이다."



좋아하는 명대사:  
늙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다.



리나(19), <겨울왕국> 엘사  
엘사 뽀뽀하게 아름답다. 원작과 최대한 비슷하게  
화장했다. 당신에게 코스프레란? 내 삶의 이유다.  
현실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출구다.  
좋아하는 만화는? <썬더일레븐>  
좋아하는 명대사 "같이 죽구하자."

미브(22), 김성민(22),  
<은하철도 999> 철이와 메텔  
메텔과 정말 닮았다. 메텔: 얼굴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 제작하는 데 얼마나 들었나? 철이:  
누더기라 얼마 안 들었다.

## 코믹월드100% 즐기는 법

거기에 가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 1 일러스트 콘테스트

그림 좀 그린다는 만화인이자라면  
코믹월드에서 솜씨를 뽐내보자. 미리 그려 온  
일러스트를 제출하면 전시를 통해 행사장을  
방문한 사람들의 투표를 받는다. 득표를  
가장 많이 얻은 작품은 소정의 상품과 함께  
그 날의 최우수작으로 선정된다는 최고급  
자부심을 얻을 수 있다.

### 2 만화 퀴즈 대회

"나보다 만화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공부는 못해도 퀴즈에는 자신 있다?!"  
오직 만화를 주제로 한 <도전! 골든벨!>이  
코믹월드에서 열린다. 참가자 20명이 모여  
앉아 화이트보드에 퀴즈를 푸는 만화 퀴즈  
대회에서 문제를 가장 많이 맞힌 사람은  
퀴즈왕으로 등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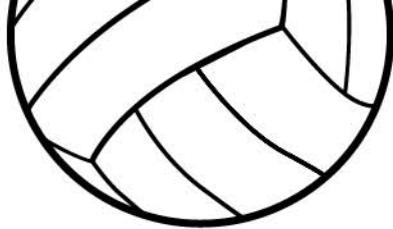
### 3 만화 노래자랑 대회

가라오케 반주에 맞춰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르는 노래자랑 대회다. 꼬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국어로 된 주제가를 열창하면  
심사위원단이 가창력을 심사해 대상과  
인기상을 시상한다. 1등은 코믹월드 1년 무료  
입장권과 과자 선물 세트를 받을 수 있다고!

### 4 동아리 부스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자랑하고, 캐릭터 관련 상품을 제작해 판매할  
수 있다. 관람객과 작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인맥도 넓히고, 동아리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아마추어 행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업체나 상업적 성격을 띤 모임은  
참가할 수 없다.

<서울 코믹월드>는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행사였다. 다른 축제처럼  
아이들의 축하무대나 화려한 불꽃놀이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아도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참가자가 주인공이 되는 이벤트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깐. ☺



## 미모에 실력까지! 볼수록 아름다운 여자 배구 톱스타 10인

여자 프로 배구 시즌이 한창인 지금, 6개 구단 선수들은 오로지 팀의 승리를 위해 코트 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호에는 미모와 실력 모두 겸비한 아름다운 여자 프로 배구 선수 열 명을 소개한다!

BY 강산(마케팅리 스포츠 기자)

모델이 아니라 선수라고!



### 박정아 (화성 IBK기업은행)

1993년 3월 26일생(22세)

187cm 73kg

포지션 : 레프트

지난 2011~2012 시즌에 신인왕을 차지하며 헤성처럼 등장한 박정아는 이제 팀의 '삼각 편대'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지난 시즌, 팀의 통합 우승에도 기여하며 입지를 단단히 다진 그녀는 올해도 소속팀 IBK기업은행이 선두를 질주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입단 첫해부터 3년 연속으로 경기당 평균 두 자릿수의 득점을 올리며 활약해온 그녀. 박정아는 앳된 얼굴로 못 남성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지만, 코트 위에서는 배구공을 터뜨려버릴 듯한 강력한 서브를 자랑하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다.

### 한송이

(평택GS칼텍스)

1984년 9월 5일생(31세)

186cm 65kg

포지션 : 레프트

V리그에서 '미모' 하면 빠지지 않는 한송이는 각종 국제 대회에도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늘씬한 몸매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 게다가 2010~2011 시즌에 'V리그 베스트 드레서상'을 받았을 정도로 패션 감각도 뛰어나다. 어느새 리그 10년 차로 최고참 급에 속하지만 아름다운 외모는 여전하다. 그녀는 매 시즌 꾸준히 경기당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찍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점으로 지적되던 리시브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다. GS칼텍스의 흥경기장인 서울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올해는 경기도 평택에서 흥경기를 치르니, 그녀를 보려면 발품 좀 팔아야 할 거다.



### 이소영 (평택 GS칼텍스)

1994년 10월 17일생(21세)

176cm 69kg / 포지션 : 레프트

지난 시즌 신인왕을 차지한 이소영은 귀여운 외모로 남성 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21세 소녀의 풋풋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눈웃음이 매력 포인트!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이어가진 못하고 있으나, 그녀의 비중은 여전히 대단하다. 팀의 주포인 베티나 한송이의 플레이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공격에서 큰 역할을 해줄 선수는 이소영이다.



### 엘리사 바실레바 (인천 흥국생명)

1990년 5월 13일생(25세)

193cm 76kg

포지션 : 레프트

불가리아에서 낳아온 바실레바는 한국 무대에 데뷔한 첫해부터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중흥무진 활약하고 있다. 비록 소속팀 흥국생명은 골짜로 처져 있지만, 그녀의 활약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7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경기당 평균 득점이 30점을 넘으니 말이다. 바실레바는 국가대표 차출로 불가리아에 다녀온 뒤에 노로바이러스에 걸려 제 컨디션이 아님에도 팀을 위해 경기에 나서는 투혼을 발휘했다. 올스타전 행사에서 'Dancing Queen'을 열창해 남성 팬들의 애간장을 녹인 동유럽 미녀 바실레바. 미모와 실력, 거기가 인성까지 전곡인 그녀는 100점 만점에 100점!



### 백목화 (대전 KGC인삼공사)

1989년 8월 30일생(26세)

177cm 62kg / 포지션 : 레프트

'목화'라는 이름이 매우 잘 어울리는 청순한 외모의 소유자다. 올해는 용병 조이스의 합류로 한층 부담을 덜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는 팀을 혼자 먹여 살리다시피 했다. 백목화는 서브 직전에 마치 다람쥐처럼 4걸음 정도 통통 뛰는 자세를 취하는데, 리그 4위에 해당하는 강력한 서브의 위력은 이 귀여운 준비 자세에서 나온다. 공격과 수비, 리시브, 서브까지 중흥무진 활약하는 그녀는 팀의 상승세를 이끄는 주역이다.





**니콜 파셋 (성남 도로공사)**

1986년 12월 16일생(29세)

193cm 82kg

포지션 : 라이트

특정력 하나는 리그 최고라 할 수 있는 금발 미녀 니콜은 현직 미국 국가대표다. 한국 무대 첫해인 지난 시즌, 득점상과 서브상을 휩쓴 그녀는 두 시즌 만에 트리플크라운을 7차례나 기록했다. 경기당 평균 33점을 올리고 있는 그녀가 미국 국가대표 차출로 잠시 결장했을 때, 팀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소속팀 도로공사가 '니콜공사'라고 불릴 만도 하다. 니콜의 아버지는 주한미군 출신으로 한국과 인연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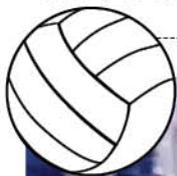


**양효진 (수원 현대건설)**

1989년 12월 14일(26세)

190cm 72kg / 포지션 : 센터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옛날 얼굴의 양효진은 블로킹으로는 따라갈 자가 없는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센터다. 2009~2010 시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블로킹상을 놓친 적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한 경기에 무려 9개의 블로킹을 해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올해는 프로 최초로 개인 통산 600블로킹을 달성했다. 게다가 깔끔한 매너로 페어플레이상까지 받은 그녀는 팬 서비스도 최고. 모든 걸 다 갖춘 선수 양효진은 'V리그 연봉 퀸(2억 5,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의 소유자다.



**황민경 (성남 도로공사)**

1990년 6월 2일생(25세)

174cm 62kg / 포지션 : 레프트

2011~2012 시즌 '서브상'을 수상한 그녀는 한마디로 팀의 에너지다. 2010~2011 시즌 '기량발전상' 수상을 기점으로 배구에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올해 첫 시즌에는 세 번째로 200점을 돌파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까지 도로공사의 토종 선수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녀는 팬들 사이에서 '밍키'로 통한다. 그런데 올해는 더 젊은 광우화와 고예림의 등장으로 위기 의식을 느낀다. 걱정할 거 없다! 아직은 당신이 팀의 주연이다. 그녀는 올해 1~2 라운드에서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이뤄내며 중흥무진 활약하고 있다.

**황연주 (수원 현대건설)**

1986년 8월 13일생(29세)

177cm 63kg

포지션 : 라이트

미모 얘기하는데 황연주가 빠질 수 없다. '꽃사슴'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녀는 2005년 신인상을 비롯해 후위공격상, 서브상, 올스타 MVP, 페어플레이상, 정규 리그 MVP, 챔피언 결정전 MVP까지 안 받아본 상이 없다. 팀의 주장까지 맡고 있는 그녀에 대해 올해 초반에는 부진하다는 평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야 팀이 이긴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 책임감 강한 리더. 남성 팬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김주하 (수원 현대건설)**

1992년 4월 24일생(23세)

174cm 68kg / 포지션 : 레프트

김주하의 가치는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다. 아이처럼 코트를 뛰어다니며 팀에 활력을 불어넣는 V리그 공식 '귀요미'다. 온몸을 던져 상대 공격을 받아내는 그녀를 보면 저절로 아빠 미소가 지어진다. 시즌 초반에는 주전 리베로 김연경이 부상으로 결장하자 줄곧 리베로로 나섰다. 그녀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도 상대 공격을 받아내느라 정신이 없다. 온 힘을 다해 경기를 치른 뒤 허리 통증 때문에 평평 우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주하는 세트당 평균 3개 이상의 디그\*에 성공하며 팀의 수비 라인 강화에 엄청난 힘을 보태고 있다.

\*디그 : 몸을 앞으로 날려 길게 떨어지는 공을 받아내는 기술

# Sex

## 그 남자의 사정



섹스할 때마다 늘상 하는 게 사정이지만, 참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게 사정이기도 하다. 익명을 보장해 달라는 MAXIM 남자 직원들에게 “이번 달 섹스 피처는 사정에 대해 쓰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어?”라고 딱박을 던지자, 줄줄이 사정에 대한 질문을 해왔다. 아마 당신이 궁금했던 이야기도 많이 있을 거다. 당신의 사정에 관한 여자들의 적나라한 속마음을 공개한다.

BY 김희성



## WHEN



**꼭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남자들이 궁금해 하나가 물어보는 건데, 과연 언제 싸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언제 싸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이즈의 문제만큼이나 남자들이 심오하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여자들에게도 이 이슈는 마찬가지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길이와 굵기 (합쳐서 사이즈) 이상으로 '언제 싸느냐'도 매우 중요하거든. 많은 남자들이 최대한 오래할수록 파트너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아, 물론 빨리 끝내는 게 좋다는 건 당연치 아니다. 섹스도 연애편리 특정 이론이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주의 것이고, A에게는 통했던 것이 B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싸라'라고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도 없다는 게 문제다.

지표가 있기는 하다. 다음은 여자가 섹스에서 만족했을 때 하는 행동이다. 그녀가 섹스 도중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반응을 보인다면 '좋았어'라는 신호. 당신이 싸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바로 이 때다.

1. 섹스 도중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
  2. 신음을 참으려고 애쓴다.
-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신음 소리가 새어 나온다.
3. 반대로 신음 소리를 크게 낸다.
  4. 눈물을 흘리거나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
  5. 몸을 댄다.
  6. 입이 벌어진다.
  7. 아랫배에 저절로 힘이 들어간다.
  8.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해 어쩔 줄 몰라한다.
  9. 젖꼭지가 단단해진다.
  10. 온 몸에 식은땀이 난다.

## MAY I?



**대놓고 물어보는 건 너무 찌따 같나?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놓고 물어보는 쪽이 여자 입장에서는 훨씬 좋다. 남자가 혼자 흥분하다가 갑자기 싸면 자신이 단순한 성욕 해소 대상일 뿐이라는 생각에 섭섭한 감정이 들기도 하거든. 어느 정도 댔다 싶으면 '이제 썰까?', '더 하고 싶어?'라고 그녀에게 다정하게 물어봐라. 당신이 자신의 성욕만 채우는 것이 아닌 여자의 성욕도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 고맙고, 그래서 더 흥분된다.

## IF



**파트너가 만족할 때까지 할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 뭐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자들은 침대에서 하는 행위들을 모두 '섹스'라고 생각한다. 삽입 자체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흥분보다는 전후로 수반되는 행위들 때문에 더 흥분하기도 하고 덜 흥분하기도 한다. 실제 삽입 시간이 10분이더라도 삽입 전 50분 동안 당신의 온몸으로 그녀를 예열시켰다면 당신은 러닝타임 10분 짜리 남자가 아니라 1시간 하는 남자로 기억된다는 거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오직 삽입 시간에만 신경을 쓴다. 자신이 사정 시간과 타이밍 조절에 있어 자신이 없다면, 삽입 외적으로 파트너를 만족시켜주면 된다. 좁게는 전회와 후회를 들 수 있다. 여자친구가 만족할 때까지 피스톤 운동을 하지 못하겠다면 애무를 더 열심히 해준다거나 입으로 더 정성들여 해주면 되는 거다. 섹스가 끝나고 사정을 하고 나서도 여자들은 아직 흥분 상태기 때문에 가슴을 애무한다거나 하는 행위가 만족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삽입 전후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이 섹스다. 같이 술을 마시고 샤워를 하고 아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의 과정 말이다. 이 과정에서부터 여자들의 몸은 조금씩 예열되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삽입 후에 '사랑해'라고 하는 말, 따뜻하게 안아주기, 잠들 때까지 팔베개 해주기 등의 행동도 만족감에 포함된다. 여자들은 이 모든 행위로부터 섹스에 대한 정신적 만족감을 얻는다. 반대로 말하면 당신이 아무리 피스톤 운동을 잘한다고 해도 단지 그것만 중요시 한다면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거다.

## BLACK or WHITE



**굴이 고르지면... 조루와 지루 중 뭐가 더 낫나? 내가 조루나 지루라는 말은 아니다.**



음... 어려운 질문이다. 끝투기와 오징어 중 누가 더 못생겼냐는 질문을 받은 것 같다. 당신은 아마 빨리 싸는 쪽보다는 그래도 오래하는 편이 낫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물론, 성적인 자극이나 쾌감 측면에서는 지루가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자들은 섹스에서 신체적인 쾌감만큼이나 정서적인 만족을 중요시 한다. 파트너가 지루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는 게 여자다. '아무리 지루라고 해도, 내가 조금 더 섹시하거나 스킵이 더 좋다면 싸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다. 여기에는 상대방에게 늘 특별한 여자가 되고 싶은 여자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기저에 있다.



자신이 신체적으로 쾌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사정을 하지 못했다는 건 여자에게 상당한 자괴감을 심어준다. 남자가 사정을 하는 순간이 여자에게 특별히 더 육체적인 쾌감을 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섹스를 했는데 남자가 사정을 하지 않았다는 건 섹스가 끝나지 않은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쾌락을 느낄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저 남자를 사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저런 스킬들을 시도하기도 한다. 뭐, 그 편에서는 지루가 더 낫다고 할 수도 있겠네.(웃음)

## WHERE

**'언제 싸느냐'만큼이나 궁금한 게 또 있다.**  
**여자들은 어디에 싸는 걸 좋아하나?**  
**독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대신 질문하는 거다.**

**사실 이걸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배에 싼다고 해서 좋고,**  
**가슴에 싼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이다.**  
**정액이 발사돼 몸에 닿는 순간 어떤 쾌감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개개인의 취향의**  
**문제다. 무난하게 배에 싸는 걸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제발 얼굴에 싸달라고 애원하는 여자도**  
**있는 법이다. 이 주제는 '어디에 싸는 걸**  
**좋아하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다가 싸는 걸**  
**좋아하냐'로 바꾸는 게 더 낫겠다.**

## WARNING

**혹시 발사 순간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  
**아니, 독자님들께서 사정하다가 위험에**  
**빠지면 안되니까...**

**여성 상위 자세에서 사정 각도를 잘**  
**조절하지 못해 빠는 순간 자신의 정액이**  
**자기 얼굴에 튀는 일. 그걸 보는 건 좀 별로거든.**  
**당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에게도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아, 얼굴에다 할 때는 상대방의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라. 정액이 눈에 들어가면**  
**윤이 나쁜 경우 설명할 수도 있다. 얼마 한번**  
**해봤다가 트라우마로 발기 부전을 얻고 싶지**  
**않다면 발사각을 주의해!**

## CUMS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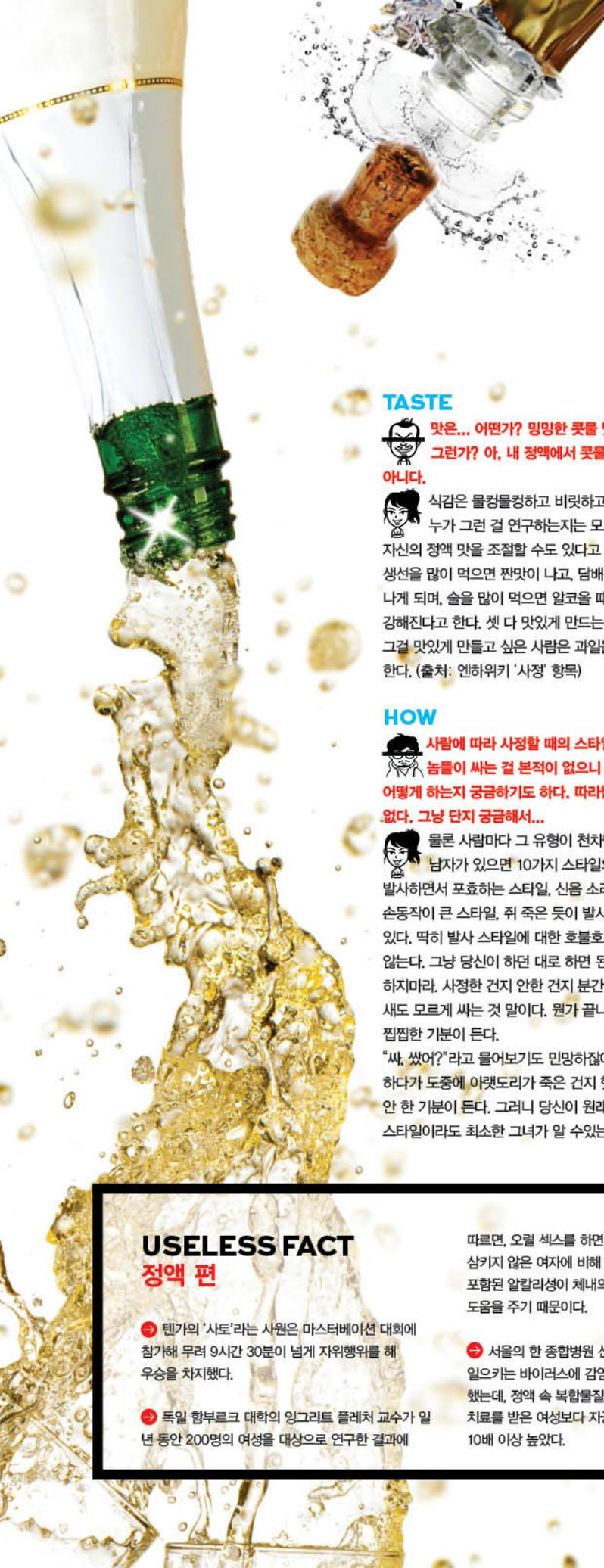
**얼굴이나 입 안에다 싸고 싶는데 말을**  
**못하겠다. 혹시 나를 정신병자나 변태로**  
**보면 어쩌지? 내 얘기는 아니지만 편의상 '나로**  
**칭하겠다.**

**얼굴이나 입 안에 사정하는 걸 용인할 수**  
**있는 여자는 두 종류다. 섹스 성향이 M**  
**이거나 그렇지 않지만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싫거나. 그녀가 당신을 정말 좋아한다면 싫어도**  
**일단 당신의 제안을 수락할 거다. 자, 그렇다면**  
**상대의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인데, 이 얘기를**  
**대체 어떻게 꺼내냐고 고민일 거다. 일단 그 말을**  
**하는 타이밍은 섹스를 하기 전이 가장 좋다. 섹스**  
**도중에 물어보는 건 갑작스러워서 거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네.**  
**"아름에서 봤는데 진짜 해보고 싶어"라는 식으로**  
**너무 솔직하게 말하기 보단 "내걸 입에 물고 있는**  
**널 상상만 해도 마칠 것 같아"라고 여자의 외모를**  
**칭찬하면서 말하는 게 성공률이 높다. 상상만**  
**해도 마칠 것 같다는 단언이 들어줘야지!**  
**이것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최고의 여자가 되고 싶은**  
**여자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다.**  
**여자의 섹스 판타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섹스할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거 있어?"**  
**혹은 "섹스 판타지가 뭐야? 궁금해"라고 말이다.**  
**수줍은 듯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겠지만, 당신이**  
**"괜찮아, 말해보"라고 기다려주면 분명 뭔가**  
**하나를 말할 거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물겠지.**  
**"오빠는?"**  
**그럴 때 "사실 난 섹스에 특별한 판타지는 없지만,**  
**네 입이 너무 예뻐서 그 안에 한 번 싸보고는**  
**싶어" 정도의 멘트를 날리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계획은 성사될 거다. 그리고 당신도 그녀의**  
**섹스 판타지를 현실로 이뤄주는 걸지. 그녀에게**  
**당신은 섹스 판타지를 현실로 만들어준 최고의**  
**남자가 되는 거고, 당신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좋겠지.**

## POSITION

**어떤 자세로 하다가 싸는 게 좋은데? 뭐**  
**굴이 따라하려는 건 아니다.**

**다 다르게 좋다. 여자가 아래에 누워있고**  
**남자가 위에 있는 남성 상위 자세에서는**  
**사정하기 직전에 빨라지는 피스톤 운동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남자가 사정하는**  
**순간을 눈으로 볼 수 있어 거기서 오는 정신적**  
**만족감이 크다.**  
**반대로 여성 상위 자세에서는 '내가 싸게**  
**만들었다'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 자신이 더**  
**섹시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만족감을 느낀 그녀가**  
**자신감을 얻어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테니.**  
**그리고 후배위 자세에서 등이나 엉덩이에 발사할**  
**때는 어떤지 강압적인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다. 당신이 사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부끄럽다면 이 자세로 발사해보자 좋을**  
**거다. 그러니까 사정할 때 매번 같은 곳에 하지**  
**말고, 자세를 번갈아 가면서 해보도록.**



## AFTER

**사정하고 난 직후 뒤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 그 방면에 있어 나는 흠잡을 것 없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물어보는 거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단 닦아줘야겠지. 휴지만 건네준다거나 닦아줄 때 대충하면 섹스만이 목적인 남자처럼 보이니 최대한 정성들여 닦아줘야 한다. 어차피 정액 범벅이 된 채로 누워있는 게 여자 입장에서도 민망하니, 당신이 어느 정도 닦다보면 그녀가 스스로 "내가 할게"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닦으면 아프기도 하고 또 닦기 싫어서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강약조절은 알아서 할 것. 그리고 MT가 아닌 그녀의 집에서 했다면 콘돔이나 휴지는 반드시 휴지통에 버려라. 거긴 모텔이 아니라 그녀의 집이다. 아무데나 콘돔이나 휴지를 던져놓으면 기본적인 예의나 배려가 없는 인간으로 보일 수도 있다. 다음 날 아침, 방바닥이나 침대 위에 허영계 말라블은 콘돔뚜껑을 치우며 그녀가 간밤의 당신과의 섹스에 대해 과연 '좋았다'고 생각할까? 천만에. 사정 직후의 뒤처리 모습은 당신과의 섹스에 대한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거 내가 맨날 덮고 자는 이불이거든요?

## COOL SHOOTER

**어떻게 사정하는 남자가 멋있나? 끝마무리를 하는 질문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욕실에 들어가 혼자 딸딸이 치다가 분출하는 순간 거울을 보도록 해라, 멋있나? 사정이라는 행위 자체는 어떻게 해도 모양새가 잘 안 난다. 사정 자체보다는 사정 직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멋진 남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녀에게 팔베개를 하거나 안아주거나 키스를 하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이불을 덮어줘라. 섹스하고 나서 획 돌아서는 남자만큼 섭섭한 존재도 없거든. 사정 전에도 사정 후에도 당신을 한결같이 대해주는 남자를 여자들은 멋있다고 느낀다. 어쩌다 섹스까지 하는 사이가 된 그녀를 여자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이 방법만큼 그녀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없다. 사실 여자들은 섹스를 하고 나면 상대방의 마음이 식어버리진 않을지 내심 두려워하고, 같은 이유로 섹스를 거부하기도 하니까, 당신이 사정 전에도 후에도 그녀에게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자라면 분명 멋있는 사람일 것이다. ☺

## TASTE

**맛은... 어떤가? 민망한 쿨을 맞이한다면 정말 그런가? 아, 내 정액에서 쿨맛이 난단 얘기는 아니다.**

식감은 물컹물컹하고 비릿하고 민망하다고 한다. 누가 그런 걸 연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신의 정액 맛을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고기나 생선을 많이 먹으면 짠맛이 나고, 담배를 피우면 쓴 맛이 나게 되며,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 때문에 신맛이 강해진다고 한다. 셋 다 맛있게 만드는 쪽은 아니지. 혹시 그걸 맛있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한다. (출처: 엔하위키 '사정 향목')

## HOW

**사람에 따라 사정할 때의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 판놈들이 싸는 겁 본적이 없으니 다른 수컷들은 그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따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냥 단지 궁금해서...**

물론 사람마다 그 유형이 천차만별이다. 10명의 남자가 있으면 10가지 스타일의 사정 방식이 있다. 발사하면서 포효하는 스타일, 신음 소리를 내는 스타일, 손동작이 큰 스타일, 쥐 죽은 듯이 발사하는 스타일 등이 있다. 딱히 발사 스타일에 대한 호불호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냥 당신이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단, 한 가지는 하지마라. 사정한 건지 안한 건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쥐도 새도 모르게 싸는 것 말이다. 뭔가 끝나긴 끝났는데 매우 짹짹한 기분이 든다.

"싸, 썼어?"라고 물어보기도 민망하잖아. 사정을 한건지 하다가 도중에 아랫도리가 죽은 건지 헷갈릴 때면 하고도 안 한 기분이 든다. 그러니 당신이 원래 조용히 사정하는 스타일이라도 최소한 그녀가 알 수 있는 선에서 해라.

## USELESS FACT 정액 편

→ 덴가의 '사토'라는 사원은 마스터베이션 대회에 참가해 무려 9시간 30분이 넘게 자위행위를 해 우승을 차지했다.

→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잉그리트 플레처 교수가 일 년 동안 2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오월 섹스를 하면서 정액을 삼킨 여자는 삼키지 않은 여자에 비해 살이 덜 찼다. 정액에 포함된 알칼리성이 체내의 칼로리를 연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 서울의 한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을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정액 속 복합물질로 치료받은 여성은 일반 치료를 받은 여성보다 자궁경부암이 치료될 확률이 10배 이상 높았다.

→ <약간 더 위험한 방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밤꽃 냄새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들은 밤꽃 냄새를 역겹다고 한 반면 여자들은 은은하고 좋다, 향긋하다고 답변했다.

→ 정액 알려지는 실제로 있는 질환이다. 정액이 달은 부분에 두드러기가 나가거나 구토, 설사 심하면 호흡곤란, 쇼크사까지 올 수도 있다. 남자가 물을 많이 마셔서 정액을 희석시키면 그나마 증상이 경미해질 수 있다는 게 개그.



## 야동으로 배우는 남자들의 SEX 판타지!



오해하지 마. 미안하지만 우리들은 이걸로 섹스를  
처음 배웠어. BY 조용재



### Why?

남자들은 한창 성에 눈 뜰 10대 시절에 야동을 보기 시작한다. 물론 슬기로운 생활도 아직 못 댄 어린 아이가 딸감을 찾기 위해 야동을 보는 건 아니다. 이 무렵, 야동을 보는 남자 아이들 역시 '호기심' 때문에 야동을 본다. 에디터의 경우, 중학교 때 처음으로 '성교육'이라는 걸 받았다. 물론 누구나 그렇겠지만, 당시 에디터가 받았던 성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들로 곁게 포장된 것이었다. 예컨대, "아이가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원초적인 질문에도 선생님들은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지 않았다. "응, 그거? 존나 섹스하면 돼."라고 쿨하게 말해주는 선생님이 어디 있던가? 그저 한두 번 헛기침을 한 뒤 얼랑똥똥 넘어가거나 백이면 백, 주구장창 사족만 늘어놓다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결합되면..."이라는 식의 잠 오는 얘기만 늘어놓을 뿐이다. 다음은 뻘하다. "마찰을 하다 보면 남자의 몸에서 정액이 분출되고, 그것이 여자의 질을 타고 들어가 난자와..." 지루하기 짝이 없다. 백문이 불여일견. 호기심으로나마 야동을 몇 차례 본 여성 독자들도 마친가지겠지만, '정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려준 것은 양호 선생도, 부모님도 아니요, '진정한 섹스의 프로'인

AV 배우들이었다. 그들은 끼우고 흔드는 것 외에도 수많은 전희와 테크닉을 서사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번거로운 설명 하나 없이 섹스를 배웠다. 당신이 남자를 섹스로 기쁘게 해 주는 데 있어, 야동만큼 설득력 있고 훌륭한 선생은 없다. 당신과 당신 애인의 원활하고 흥미로운 성생활을 위해, 야동을 보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일이라 말해주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들이 야동을 보며 꽃힐 수 밖에 없는 몇 가지 섹스 판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자 한다.



옷을 전부 벗고 하는 섹스가 제일 편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주변인들에게 “옷을 입고 하는 섹스는 어때?”라고 물어 보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아동이나 영화 속 베드신이 보여주는 착의 섹스의 아련한 분위기 때문이다.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채, 혹은 창고에서 교복이나 정장을 입은 채 하는 착의 섹스는 ‘언제, 누구에게 들릴지 모른다’는 긴박감을 준다. 솔직히 옷을 입고 하는 섹스는 결코 편하지 않다. 주요 집합 부위(?) 근처에서 걸리거나 천 조각이라도 귀찮고, 한창 흔들다 보면 더워서 땀으로 옷을 적시는 기분도 전혀 유쾌하지 않다. 존나 긴 오리털 파카를 입고 격렬하게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살면서 한 번쯤은 아동 속 남자 배우가 되는 판타지를 꿈꾸는 남성들에게, 착의 섹스는 불편하지만 ‘한 번쯤 해 보고 싶은’ 행위다.

## 착의 섹스

“예전에 같은 농구부 동아리 여자애랑 체육관 창고에서 섹스를 하다 타과생 애들한테 걸릴 뻔 했어. 다행히 여자애가 치어리더 스커트를 입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K대 강백호

### 난이도 ★★☆☆☆

착의 섹스는 어지간한 AV에서 한 번씩은 꼭 다루는 플레이 방식이다. 여자의 블라우스 앞살을 풀어헤친 남자가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다. 여자의 허반신으로 옮겨간 그의 손길은 곧 치마 속 스타킹을 찢고, 크고 아름다운 그의 물건을 그녀의 은밀한 곳에 조심스레 삽입한다. 그리고 피스톤 운동을 시작한다.

**TIP** 착의 섹스는 언제나 사람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공간에서 하는 섹스를 떠올리므로 무척 짜릿한 기분을 느끼게한다. 이런 착의 섹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역시나 차 안. 여차피 오늘 밤 집기로 한 날이었으면, 아예 앉은 자리에서 해결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남자는 아마 무척 당황해하면서도 당신의 대담함에 너무나도 반갑게 응해 줄 것이다.

## 비속어가 난무하는 섹스

“난 원래 섹스할 때 욕을 하는 습관이 있어. 여친도 그걸 이해해 주는데, 어느 날 하면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여친이 왜 오늘은 욕 안 하나며, 빨리 해달라고 하더라?” - 아이픈혁명

### 난이도 ★★☆☆☆

대부분의 일본 AV에서, 남자는 여자의 몸을 살살이 애무하며 귀찮을 정도로 말을 건다. “여기는 어디?”, “XX를 건드리면 어떨까?”, “XXX 먹어 줘”. 하지만 이런 말을 듣는 여자의 기분은 전혀 불쾌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일일이 수줍게 대답한다. “XX를 활아 주세요”, “맛있어요”.

며칠 전, 에디터는 친구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오래 전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잠자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평소 그녀가 우리와도 친하게 지냈던지라 그 이야기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내용인즉, 이 녀석은 섹스를 할 때 기분이 몹시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욕설을 퍼붓는 버릇이 있었다. 전



여친과 처음 잠자리를 가질 때까지만 해도 정신줄을 붙잡고 있어 무사히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번에 일어났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열심히 피스톤질을 하던 친구는 입에서 “씨발”이라는 단어를 뱉고 만 것이다.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눈이 휘둥그레진 여자친구의 아랫도리가 붓물 터지듯 축축해진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친구는 계속해서 욕을 뱉었고,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는 점입가경의 흥분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TIP** 욕설이 난무하는 섹스를 즐기는 커플은 생각보다 많다. 비공개 섹스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여자친구의 누드를 올리고선 “우리 암캐에게 욕을 좀 부탁드린다”며 아예 욕을 대놓고 갈구하는 커플들도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욕설 플레이에 부담이 없다면 먼저 그에게 이런 역할 놀이를 제안해 보는 것도 좋다. 혹은 특정 부위(?)를 지칭하는 속어를 사용하며 이런 저런 요구를 해 보자. 아마 당신과 그의 숨겨져 있던 성적 취향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Sex / For Ladies

## 주객전도 섹스

“여친이 입으로 해 줄 때, 마치 내 반응을 살피는 것처럼 나랑 눈이 마주치지 않아?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살짝살짝 웃는 게 미치도록 귀여워서 그대로 눈깔에 싸버릴 뻔했어.” - 분사왕 강숙구

### 난이도 ★★★★★

여자가 섹스를 주도하는 '치녀' 혹은 '팬텀'이라 불리는 장르에서 여자는 마치 서큐버스처럼 남자를 공략한다. 거칠게 남자를 쓰러뜨린 여자는 남자에게 키스를 퍼부으며 손을 남자의 아랫도리로 가져간다. 실 틈도 주지 않고 남자의 속옷을 벗긴 여자는 뽀뽀하게 선 남자의 물건을 자신의 아랫도리에 넣고 격렬하게 움직인다.

남자라고 항상 섹스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건 아니다. 만일 여성에게 '남자들이 자신을 리드해 주길 바라는' 피학적인 성적 판타지가 있다면, 그건 남자 역시 마찬가지라 말하고 싶다.

남자들의 피학적 섹스 판타지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아동 작명 센스로 확연히 드러난다. '형수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노처녀 담임과의 하룻밤', '자는데



누나가...' 등. 이런 제목들에는 자신보다 연배가 높거나 경험이 많은 여자가 자기를 리드해 주길 바라는 남자들의 성적 판타지가 잘 드러나 있다. 동만대 감독도 말했지만, 남자는 여자와 하는 섹스에서 '나'를 버려야 한다. 여자가 만족해야 흡족한 섹스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해 주는 적극적인 여자는 무척 반가울 수밖에 없다.

**TIP** 섹스를 주도할 때, 가급적이면 눈을 자주 마주쳐라. 격렬한 섹스 중 남자가 가장 흥분하는 순간은 상대의 가슴을 애무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격렬하게 키스를 나눌 때도 아니다. 섹스 중에 흥분한 여자의 동공은 자연스럽게 팽창되고, 이를 지켜보는 남자는 여자가 별다른 스킬을 구사하지 않아도 더욱 흥분하게 된다. 하지만 이걸 잘 모르는 여자들은 그저 부끄러워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려버린다. 눈을 맞추라고 이것들애!



## 욕실 플레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샤워기를 잡고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씻겨 주는 재미가 쏠쏠해. 그동안 그녀는 뭘 하냐고? 내 샤워기를 갖고 놀지.” - 스티브

### 난이도 ★★★★★

거품이라는 뜻의 '소프(Soap)'에서 이름을 딴 '소프물' 장르는 이미 많은 매니아들을 갖고 있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 온 몸에 바디 샴푸를 바른 여자가 욕실에서 멀뚱히 있는 남자의 몸에 비누 거품을 발라 준다. 미끈하게 빛나는 몸으로 정성껏 애무하는 여자. 남자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탄식이 흘러나온다.

**TIP** 비누 거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그에게 굉장한 촉각적,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줄 수 있다. 굳이 더 설명이 필요한가?

중세 유럽 이전, 고대 로마 말기에는 목욕탕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혼욕과 퇴폐 문화가 성행했다. 1950년대 이후 일본에서도 여중임원이 수영복을 입고 남자 손님을 씻겨 주는 문화가 있었고, 이것은 이른바 '터기탕'이라 불리는 퇴폐 업소로 국내에 들어와 크게 유행했다. 여자의 젖은 몸을 보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이다. 가끔 섹스는 하면서 샴푸를 씻겨 주는 이유로 함께 목욕하기를 거부하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욕실은 포토윈더 뺨칠 정도로 당신을 섹시하게 만들어 준다. 잔뜩 물을 먹어 매끈해진 피부, 섹시하게 젖은 머리칼은 분명 평소와는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한다. 게다가 서로의 몸을 씻겨 주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전희가 될 수 있으니, 빨간 받으면 아예 욕실에서 끝을 볼 수도 있다.



## 회음부 애무(X까지)

“어디서 들었는데, 똥까지 해 주는 여자 친구야말로 진짜 날 사랑하는 거라더라.”  
- 모태솔로

### 난이도 ★★★★★+@

AV 배우들도 자주 보여주지 않는 고난이도의 테크닉. 어지간한 비위 없이는 받기 힘든 기술이다. 주로 하드코어한 작품에서 등장한다. 의자에 몸이 묶인 남자를 상대로 하반신 애무를 하는 여자. 다리를 쭉 벌린 남자의 중심으로 다가가 애무를 하는데, 허가 점점 내려간다.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고 있자니 고환 아래쪽까지 내려간다. 어...어...?

판타지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 밤 업소 등을 통해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은 '접근 가능한 절대 영역' 중 하나. "항문 애무해 주는 게 뭐 어때서? 해 주고 손 씻으면 되잖아."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 아니, 허로 해 주는 테크닉이거든(아마 이를 닦아도 안 될 거야).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섹스 얘기를 하면 다섯 명 중 한 명 정도는 이를 최고의 테크닉이자 흥풍 투어의 지름길이라며 극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많은 남자들이 '회음부는 남자의 G-스팟'이라고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회음부'라는 것은 '항문'이 아니라 항문과 고환 사이에 있는, 음모가 나 있지 않은 부위를 말한다. 사실 잠자리를 갖기 전에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오는 커플이라면 크게 거부감 없이 애무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TIP** 회음부 애무를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오일 섹스를 할 때 한쪽 손으로 감싸듯 회음부를 어루만져 주는 테크닉도 있다. 이쪽이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경우. 어차피 강하게 눌러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손을 갖다 대듯 스쳐 어루만져주지만 해도 남자의 쾌감이 두 배로 증폭된다. 제대로 시전하면 남자가 끝나고 삼보일배를 해 줄 거다.

## 취침 중 섹스

“모텔에서 눈을 딱 떴는데 시계를 보니 새벽 다섯 시더라고. 무심코 옆에서 자는 여친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스프룩 안기는거야.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 새벽에 일을 저질렀지. 나중에 물어보니 자기도 그때 깨어 있었대나?” - 현D

### 난이도 ★★★★★

나이트비전을 켜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침대 위에 여자가 죽은 듯 누워 있다. 카메라가 다가가자 남자는 자고 있는 여자의 치마를 들추고 이곳저곳을 애무하기 시작한다. 아무런 반응도 없던 여자는 결국 하반신의 극심한 통증에 잠을 깨고 마는데...

AV장르에는 '갑작스러운 삽입'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꽤 있다. 한창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난입해 갑자기 삽입해 버리는 Alice Japan의 <4 초 합체> 시리즈나 아이포케의 <갑자기> 시리즈. 자고 있는 여자를 성가시게 만들어 급 섹스를 하는 물가 시리즈도 이런 '갑작스런 섹스'를 하는 장르다. 김진표가 그랬듯 '남자들은 7초에 한 번씩 섹스를 생각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런 갑작스런 섹스에



대한 환상은 누구나 당연히 갖고 있는 판타지가 아닐까 싶다. 특히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즐기는 섹스는 굉장히 흥분된다. 일다시피 남자들의 거시기는 아침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므로, 너무 늦은 밤보다 이른 아침 새벽에 하는 섹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TIP** 밝은 빛이 들어온다는 이유, 그리고 아침 일 넘새가 신경 쓰여서 모닝 섹스를 하기

민망하다는 여자들이 많다. 하지만 그건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 하지만 아침 햇살을 받은 당신의 나체는 당신 생각과는 달리 훨씬 자극적일 수 있다. 부은 얼굴을 봤으면서도 그가 당신에게 달려들려 한다면, 분명 당신을 충분히섹시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드는 그를 받아들이자. 혹시 넘새가 신경쓰신다면, 잠시 화장실에 가서 가글을 하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흑백처리된 커버의 율호는 품질을 의미합니다.

**MAXIM**  
과월호  
충알 배송!  
(충알을 드리진 않아요.)

→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도, 인터넷 서점에서도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챙취하시길!  
\*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비 / 봉만대 129호 2014. 02

# Game



CHARACTER OF THE MONTH

## 반전이 있는 여자 나이트(Knight)

마시멜로 같은 몸속에 종마 같은 파워를 숨긴 여자. 너라면 사귄래?

BY 조웅재

### ← 나이트

어두운 숲 속에서 괴한들에 둘러싸인 아이유. 칼과 방패를 든 채 가녀린 다리를 휘청이며 괴한들과 전투를 벌인다. 힘이 부친 듯 허한 입김을 뱉어내며 방패로 괴한의 일격을 막아낸 순간, 클루즈업된 방패가 서서히 열어로 몰려나고 무시무시한 신봉선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녀는 유저들의 안구로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곧 영화 <300>의 레오니다스처럼 괴한들을 모조리 쓸어버린다.

넥슨은 1년 전 오리지널 캐릭터 중 한 명인 귀검사의 여성 버전을 내놓아 크게 히트를 쳤다. 클래스별로 남녀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특징은 여러 온라인 게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상벌이 캐릭터의 성격과 결장치는 시스템은 <던파>만이 지닌 강력한 특징이다. 던파 외에 "여자 공수 등장", "여자 대장장이 신규 업데이트" 같은 카피를 쓰는 게임을 본 적이 있나? 블랙 티를백과 검장색 피 그리고 망사 스타킹을 착용해 농염한 매력을 풍기던 여귀검사와 달리, 나이트 쪽은 좀 더 색기 발랄하다. 중세 기사풍의 중후한 분위기와 같은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핑크색 머리와 의상? 차라리 마법 소녀라고 하지 그래? 분명 우리 머릿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나이트'의 이미지와는 다르다. 그리고 넥슨은 이렇게 이미지와 클래스가 상반되는 반전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연약한 아이유와 신봉선을 더듬 캐스팅했다. '달았다. 달았다.' 생각만 했지 이걸 진짜로 티저 영상에 써먹을 줄이야 매우 적절한 무리수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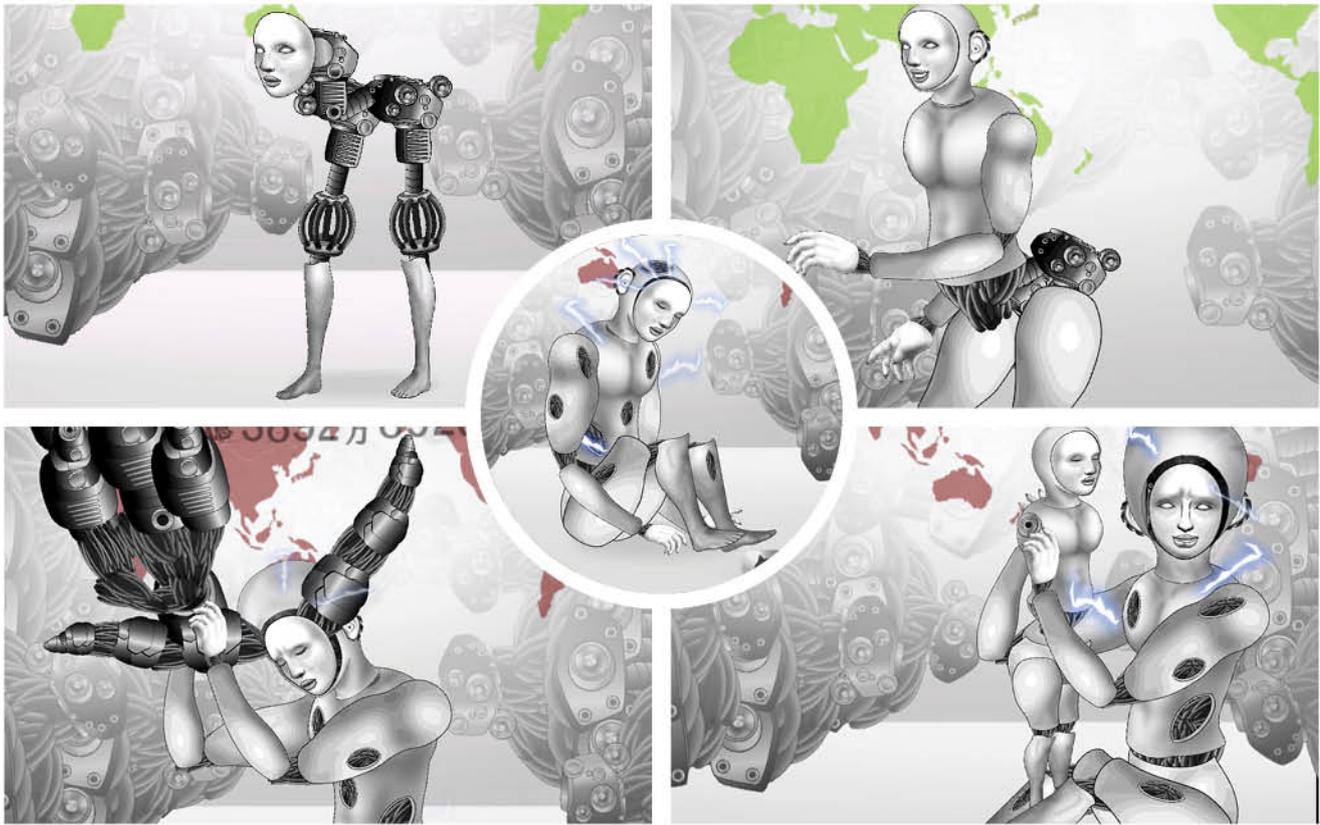
요즘 한 드라마에서는 비리비리한 김수현이 초능력으로 자동차를 들었다 놔다, 전지현을 들었다 놔다 한다. '안 그래 보이는'놈이 지닌 의외의 매력, 그놈의 '반전 매력'은 현실에서나 게임에서나 꾸준히 먹히는 코드인가 보다. ☹

던전 앤 파이터	
장르	RPG, 액션
등급	12세 이상 이용가
플랫폼	온라인
개발/유통	네오플/넥슨

약 째 기획  
종결판



# Game / Too Crazy



## 괴작의 명가, 코코소라의 <로봇을 그만두고 싶어>

 **희대의 괴작, <알파카 형님>을 제작한 모바일 게임 제작사 '코코소라'가 후속작을 내놓았다. 근데 뭔가...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BY 조웅재**



**ロボットやめたい(영문 제목: Robot)**  
 제작사 PlayCreek LLC  
 플랫폼 iOS/Android  
 가격 무료  
 등급 전체 이용가

### 1 꿈도 희망도 없는 전개

2013년, 인간에 의해 다리와 얼굴만 가진 병신 로봇이 탄생한다. 인간이 되고 싶다는 로봇의 허무맹랑한 꿈을 위해 전 세계 학자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로봇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준다. 뇌를 얻자 '생각하는 능력'이 생긴 로봇은 자신의 모습을 증오하며 우울증에 빠진다. 실상가상, 그가 가진 인공 심장은 거대한 전파를 일으켜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인류는 멸종 위기에 빠진다. 곧 죽어도 혼자자 되기 싫었던 로봇은 결국 자신을 담은 아기 로봇을 만들기로 결심하는데...

### 2 원터치형 컨트롤

휴대용 게임이 <타마고찌>도 버튼이 네 개인데 <로봇을 그만두고 싶어>(이하 로봇)는 모바일 게임 주제에 조작 버튼이 고작 한 개다. 화면 중앙의 에너지가 찰 때마다 버튼을 한 번씩 눌러 신체 부품을 개조하는 방식이다. 화면 구석에는 시간 때우기용 어플을 다운 받는 버튼도 있다. 이렇게 친절할 수가 쿵쾅 쿵쾅 리듬 게임이면 다행이지, 이건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무슨 재미냐고? 이 게임의 백미는 팀 버튼도 하다가 자살할 만큼 암울한 스토리 라인이다.

### 3 기괴한 비주얼

<로봇>에는 혐오 비주얼이 난무한다. 얼굴과 다리만 있는 로봇이 무표정하게 입술을 뺄때는 모습, 허리 파츠가 떨어지면서 고통스럽게 산산조각 나는 장면, 특히 머리에서 더듬이 같은 신경이 빠져 튀어나오는 모습은 그로테스크의 결정판. 알파카를 험파카로 만들어 버린 제작사의 작품답다. 하지만 자극적인 것에 환장하는 현대인들의 취향 덕인지, 반응은 나쁘지 않다. 많은 이가 '다음엔 얼마나 더 기괴하게 변할까'하는 기대에 차서 버튼을 눌러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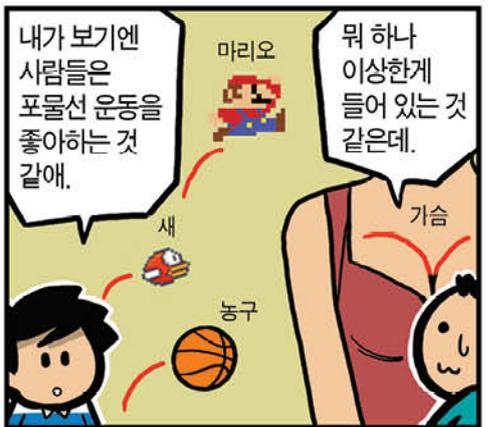
### 4 비참한 결말

인류를 몰살시킨 로봇은 심장을 인간의 것으로 대체한다. 스스로 만든 아기 로봇과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방전이 된 아기 로봇이 정지한다. 인간의 심장으로 자식 잃은 슬픔을 느낀 로봇은 결국 스스로 작동을 멈춘다. 게임 오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사라진다는 에필로그로 마무리된다. 재실행해도 로봇은 여전히 정지해 있다. '처음부터 하기!'라는 명랑한 아이코닉이 떠 있을 뿐, 알파카 시절부터 수상했는데, 아무래도 이 제작사는 마약상을 검열하는 것 같다.



### 총평: 괴작 중의 괴작!

30초마다 버튼을 꾸준히 누르면 클리어 할 수 있는 이 게임은 '괴작' 중의 괴작이다. 음울한 분위기와 기괴한 비주얼, 버튼 하나만 주구장창 눌러대면 엔딩을 보여주는 등 비난 받을 요소도 충분하다. 하지만 코코소라 특유의 엽기성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략 그리고 애뜻한(?) 스토리는 유저들을 묘하게 유혹한다. 이미 10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했으니 말이다.



## 이달의 걸다리 게임 뉴스

썩랩도 알 권리가 있는 게임판 소식 이모저모.



**1 빨리 떠나자**  
야야야 바~다로 >  
10여 년 전, 세계를 돌며 교역을 하고 악탈을 일삼으며 해적 왕을 꿈꾸게 했던 게임 <대항해시대>를 기억하는 게이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IBHSoft와 Ne2on가 공동 개발한 항해 전략 RPG <모두의 대항해>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티스토어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두의 대항해>는 <대항해시대>의 향수를 그대로 간직했지만 더 진화된 게임 방식으로 <대항해시대>의 옛 팬들을 그대로 흡수할 계획이다. <모두의 대항해>에서는 기사와 용자 세력 간의 해상전투와 무역, 던전, PvP 시스템을 통해 해적들을 소탕하거나, 해적이 되어 다른 유저들을 악탈할 수 있다. 그리고 게임 속 현실 시스템은 아마 당신의 주머니를 탈탈 털고 있겠지.

**2 아이온에 등장한 엘사**  
디즈니 <겨울왕국>의 패러디가 온라인게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MMORPG <아이온>의 유저들이 게임 속 캐릭터를 이용해 저마다 자신만의 팬픽\*을 만들고 있는 것. 주로 패러디되는 장면은 주인공 엘사가 산 속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큰 목소리로 'Let It Go'를 부르는 부분이다. 유저들은 커스터마이징으로 엘사와 똑같은 캐릭터를 만들거나, 영화 속 배경과 비슷한 곳을 찾아 영화 속 명장면을 재현했다.  
**\*팬픽: 팬이 직접 대중적인 소재를 패러디하거나 새로운 문화로 재창조한 팬픽션(Fan Fiction)의 줄임 말. 왜, 그런 거 있잖아. 여자 팬들이 남자 아이돌을 게이로 만들어서 서로 연애시키는 소설 (미트스핀들) 같은 거... 그것도 팬픽의 일종이다.**

**3 비싼 차**  
마구잡이로 사기  
일렉트로닉 아츠가 레이싱 게임 <니드 포 스피드: 라이벌>의 신규 자동차 라인업을 공개했다. 유저는 2월 19일부터 한 달간 새로운 자동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페라리 팩'은 출시 당시 최고의 스포크를 자랑하던 F40 1987과 F50 1995의 기념 에디션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등장한 '재규어 팩'은 XJ220와 75주년 C-X75 프로토타입이 포함되어 있다. 곧 개봉하는 영화 속에 등장할 차들로 구성된 '무비 팩' 역시 어마어마하다.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레멘토, GTA 스파노, 메르세데스 벤츠 맥라렌 SLR 722과 같은 드림 카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가 말이다. 자, 이제 애인과 플스방으로 드라이브나 떠나볼까?.

## 이달의 도전 정신: 롤쟁 vs. 연희몽상

일단 만들고 보겠다는 그들의 도전 정신!



**김성모 화백의 <LOL> 만화 <롤쟁>**  
레전드가 레전드를 만났다! 인터넷 짤방 "드" "리" "군"으로 유명한 만화가 김성모가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모티브로 한 웹툰 <롤쟁>을 2월 18일부터 연재했다. 평소 게임을 즐겨 하는 김성모 화백은 게임 만화를 연재하고 싶다는 소망을 계속 드러냈었다. 그는 이미 블리자드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만화 <스타크래프트>를 연재한 바 있다. 참고로 롤의 철자는 LOL이 아닌 ROLE이 쓰였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모에화부터 수위까지, 제대로 야한 <연희몽상>**  
일본 PC게임 <연희몽상>을 원작으로 하는 모바일 기반의 카드 배틀 게임 <연희몽상>은 삼국지 속 영웅들이 연희가 되어 유저와 하렘 왕국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연희몽상>은 T스토어 출시 이후 니를 만에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올랐으며, U플러스 스토어에서도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다. 보통 제작자들은 유저 확보를 위해 등급을 낮추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연희몽상>은 성인등급으로 출시되되 과감하게 수위를 더 높이기도 한 것. 아... 할벗은 관우를 보고 꿀릴 줄이야!

From MAXIM INDIA 

# THE CHOSEN ONE

2013년 인도 남성들이  
'가장 핫한 여성'으로 뽑은 글로벌  
스타 프리안카 초프라. 미녀가  
많기로 유명한 인도에서 넘버원으로  
뽑혔으니 말 다했다. 인도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별로 떠오르는 그녀를  
만나보자. 나마스떼!

PHOTOGRAPH ABHAY SINGH

Blazer MANGO

MARCH 2014 · MAXIM 73

“

**If she's a strong woman,  
she's likely to respect you  
even if you disagree**

강인한 여성일수록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남자를 존경하고 따른답니다.

”

*Daddy's lil girl*

## PRIYANKA CHOPRA

귀여운 얼굴, 도발적인 매력의 글로벌 엔터테이너 초프라. 그녀는 전 세계에서 영화, 음악, 모델 활동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바쁜 여인이다. 왜 다들 그녀만 찾느냐고?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이 수컷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Shirt NISHKA LULLA

그녀의  
무비를  
감상하라





Dress MARKS & SPENCER  
Earrings GIVENCHY  
Bracelet GEHANA  
Gold bangles RENU OBEROI  
Shoes ZARA

**축하한다! 2013년 인도 MAXIM이 세계 100대 미녀를 총망라해 선정한 'HOT 100' 순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그것도 2년 연속으로 뽑히다니 대단하다!**

고맙다. 최상위권에 두 번이나 오르다니...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소식을 듣고 무척 감격스러웠다. 그동안 노력한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HOT 100'의 1위로 선정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잘 모르겠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크게 노력한 적이 없어서...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내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나를 뽑아주다니 감사할 따름이지.

**인도 출신 무명 배우에서 글로벌 스타가 되기까지 어려움은 없었나?**

물론 무척 어려웠다. 사람들은 인도에서 온 신인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나 자신을 모두 내던지고 더욱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영화, 음악, 모델, 자선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힘들지 않나?**

일이 많아서 힘들기보다 요즘은 다른 점 때문에 고민이다. 영화나 음악 등의 활동은 반드시 결과물이나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일이지 않나. 예를 들어 음악을 만들었다면, 그 음악이 나고, 내가 그 음악이어야 하는 거지. 작업을 하면 할수록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모델 일은 어떤가? 현재 게스의 글로벌 모델이라며? 매우 재미있다. 일다시피 게스는 그들만의 광고 아이덴티티가 뚜렷하고, 창의적이니까. 역대 게스 모델을 보면 정말 섹시하고 아름답지 않나? 그들과 같은 선상에 놓였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지만 해도 섹시함이 묻어난다. 평소엔 섹시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나?**  
아니. 난 평소에 섹시한 사람이 아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돌변하는 거다.(웃음)

**화면 속 당신의 넘치는 '섹시미' 때문에 당신의 음악이나 영화의 작품성이 묻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묻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한다. 아빠를 향한 마음을 표현한 곡 'Daddy's Little Girl' 같은 경우에도 많은 팬이 사랑해주고 있다. 아빠의 병이 재발했을 때 일 때문에 아빠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게 아직도 가슴 아프다. 아빠는 나의 모든 것이었고, 항상 나와 함께해줬는데... 지금도 하늘에서 날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다. 겉보기엔 매우 강인하고 독립심이 강한 여성으로 보이거든.**

맞는 말이지 하다. 어릴 때부터 연에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보는 게 익숙하다. 하지만 이런 나도 가끔은 지치고 외로울 때가 있다고!

**당신 같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너무 들이대지 말고 천천히 어른스럽게 다가서라. 나 같은 여자의 특징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남자를 존경하고 따른다는 거다.

**존경할 수 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성취욕이 강하고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 아닐까? 나보다 열심히 일하는 남자를 보면 마구마구 존경심이 샘솟는다.

**좋다. 그렇게 당신과 연인이 됐다고 치자. 연인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만난 기간보다 서로에게 얼마나 정직하고 충실한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서운한 일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표현해야 한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땐 회피하는 편인가?**  
아니. 회피하는 사람은 정말 최악이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대화로 풀어나가야지! 스스로 이견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이별을 결심하더라도 혼자 결정하지 말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좋은 조연이다.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가?**  
위트 있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좋다. 마치 MAXIM 처럼. 



“  
**A man must  
smell good.**

남자에겐 좋은 향이  
나야 해요.

”



**Priyanka  
Chopra**

프리안카 초프라

고향: 인도

생일: 1982년 7월 18일

키: 169cm

몸무게: 53kg

Bralette **LA SENZA LACE**  
Earrings **GIVENCHY**  
Bracelets **RENU OBEROI,**  
**GEHNA PANTHERE,**  
**BVLGARI CHARM**  
Gold bracelet **AQUAMARINE**



“

**If you can be witty and banter,  
you're intelligent. But, really,  
I can't stand a man who can't even  
hold a conversation.**

*위트있고 농담을 잘하는 남자는 지적으로 보여요.  
반면에 대화 하나 제대로 못 이어가는 남자와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



HAIR&MAKEUP DANIEL BAUER / ARTIST FACTORY INDIA STYLING MANEKA HARISINGHANI

Blazer **MANGO**  
Shorts **NAMRATA JOSHIPURA**  
Earrings **KENNETH JAY LANE**

# STUFF

GEAR OF THE MONTH



## 극한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야, 저거 뭐야? 쪼가리 아냐?” 걸그룹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BY 조용재



### SPEC CHECK

#### LG 65LA9700

화면 크기 1451(가로)x838(세로)x40.8(두께)mm  
해상도 울트라 HD(3840x2160)  
사운드 4.1채널 / 울트라 서라운드  
디자인 이동 스피커, 매직 스탠드 포함  
가격 700만 원대



NHK와 BBC는 이번 소치 동계 올림픽을 HD 화질의 8배에 달하는 UHD 8K로 송출했다. 국내의 경우 지상파가 아닌 일부 IPTV를 통해서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어쨌든 올림픽 특수를 교묘히 이용한 덕에 LG는 전년 대비 80%나 늘어난 UHD TV 판매율을 기록했다. 가장 많이 팔린 LG UHD TV의 해상도는 풀HD(1080p)의 4배인 2160p다. 그뿐 아니라 178°의 넓은 광시야각 덕에 상하좌우, 심지어 브라운관에 한쪽 광대를 붙이고 봐도 왜곡 없는 고화질을 감상할 수 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즐겨 보는 720p, 1080p의

HD 콘텐츠도 충분히 '고화질'이다. 'Heyzo'나 'Tokyo hot nXXX' 같은 단어가 익숙한 수컷이라면 모공까지 보이는 1080p의 위엄을 이미 알리라. UHD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 화면에서 재생되는 콘텐츠는 실사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일 정도다. 벽에 새시 프레임과 UHD TV를 박고, 마치 바깥 풍경 같은 영상을 틀어 사람들을 낚은 유튜브 광고 영상은 이미 화제였다. 그래서 상용화는 언제냐고? 성질 급하신 IPTV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4월 전용 채널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7년까지 총 6,500억 원 규모의 UHD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HD 만큼 상용화가 되는 데 3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어린 시절, '울트라'라는 수식어는 전대를 혹은 로봇물에서나 쓰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존나'라는 의미가 강한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은 '울트라하게' 강렬했기에 현실성이 도무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만화 같은 단어는 전자 기기들이 더 이상 그 성능을 기존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실제로 쓰이기 시작했다. 아마 향후 10년 내로 16K, 약 7680x4320의 어마어마한 디스플레이가 상용화 될지도 모른다. '울트라'를 써먹었으니, 이제 Hyper HD라 부르게 되려나. 유치하다고? 누가 일애! 이 글이 언젠가 존나 울트라한 성지가 될지. 🍌

# 세련된 사회 초년생을 위한 15가지 아이템

장비빨이 받쳐줘야 의욕도 생기는 법. 당신의  
신입 사원 라이프를 신명나게 만들어줄 센스  
넘치는 아이템을 소개한다.

BY 조웅재

MODEL 2012 MISS MAXIM 준우승자 엄상미

PHOTOGRAPH Zho



## For Easy life

### 1 JOT 스크립트 에버노트 에디션 스타일러스

무려 블루투스 4.0을 지원하는 터치펜. 일반적인  
6.0mm 팁 터치펜과 달리 1.9mm의 초소형 팁으로  
보다 정확한 필기를 구사할 수 있다.

79,500원 / 에버노트([evernote.com/support](http://evernote.com/support))

### 2 에이수스 미모패드 FHD10

묵직한 노트북이 부담스러운 직장인들에게 태블릿  
PC는 필수. 580g의 무게와 9.7mm의 콤팩트한  
두께를 자랑한다.

300,000원대 / 더 가치(1577-4745)

브라 칼라짐

상미의  
MAXIM  
어택!



For Kitchen

3 쿠진아트 카운트다운 4구 토스터

이름 그대로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빵을 구울 수 있는 전기 토스터. 몸체를 이루고 있는 클래식한 알루미늄 소재가 당신의 칙칙 밥상을 운치 있는 애리조나 농장의 브런치 식탁으로 바꿔줄 거다.  
138,000원 / 쿠진아트(02-2631-9390)

4 치보 카피시모 듀오

바쁜 아침에도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한 직장인에게 커피 머신은 필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이 캡슐 커피 머신은 당신의 아담한 원룸에 딱 맞는 귀여운 바리스타가 되어준다.  
159,000원 / 치보 카피시모(1577-7026)



3

4

## For Style

### 5 Stone Island Card Wallet

맨디한 감성과 캐주얼한 느낌을 동시에 주는 스톤아일랜드의 카드 지갑. 탈착이 가능한 동전 지갑이 있어 팔팔이를 보관하기에도 용이하다. 500,000원 / 스톤아일랜드(02-3446-9949)

### 6 C.HOMME George Briefcase

막내일수록 거무죽죽한 소가죽 일수 가방은 피할 것. 젊은 감성이 담긴 컵케이크 옴므의 토트백은 당신을 EXO 같은 신입 사원으로 만들어줄 거다. 탈착 가능한 어깨 스트랩을 제공하니 슬더백과 크로스백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다.

349,000원

밴드 오브 플레이어스(080-202-2002)

### 7 헬다이버 1942SB2C

목직한 메탈 시계가 부담스럽고, 캐주얼한 가죽 스트랩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면 이 제품을 선택하자. 회중시계 같은 프레임이 당신을 18세기 영국 신사처럼 만들어준다.

325,000원 / 헬다이버(1644-3885)



### For Workaholic

#### 8 WD 마이 클라우드

이제 번거롭게 외장 하드를 모시고 다닐 필요 없다. WD의 마이 클라우드는 개인 웹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무형 외장 하드 기능을 수행한다. 게다가 맥, 노트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으니... 아, 이걸로 AV 장사를 해봐? 4TB 269,000원 / ㈜도우정보(02-2120-3415)

#### 9 로지텍 블루투스 스피커 Z600

아근이 잦다면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홀로 헤드뱅잉을 해보자. 데스크톱, 노트북, 넷북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순백의 블루투스/유선 호환 스피커. 좌우 각각 3개의 드라이버를 탑재해 탁월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249,000원 / 로지텍([www.logitech.co.kr](http://www.logitech.co.kr))

8

9

구두 슈즈원  
브라 칼라핀



## For Clean Room

### 11 롬바 620 로봇 청소기

첫 회식 날, 술에 취한 여자 동기를 지저분한 당신의 원룸으로 끌고 갈 순 없는 법. 출근하기 전에 작동 버튼만 눌러놓자. 바닥 재질과 낭떠러지를 인식하는 똑똑한 녀석이라 귀가 후 신발장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병신 같은 꼴을 볼 일도 없다.

598,000원 / 아이로봇(1577-4253)

### 10 다이슨 DC45 디지털 슬림 청소기

몸통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주장스러운 일반 청소기는 그만! 손에 쥐면 무쌍난무를 펼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녀석이 나타났다. DC45는 원심력을 이용한 강력한 사이클론 기술로 방구석에 깔린 미세 먼지까지 확실하게 흡입해준다.

599,000원 / 다이슨(1588-4253)

### For Smart Life

#### 12 소니 핏 멀티 플립 PC

4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지포스 드라이버를 탑재한 소니의 슈퍼 노트북.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므로 디스플레이를 뒤집으면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고시양의 태블릿 겸용 노트북을 찾는 직장인에게 강추!

2,249,000원 / 소니코리아([www.sony.co.kr](http://www.sony.co.kr))

#### 13 필립스 미니 LED 스탠드 시그마

스탠드, 손전등, 휴대폰 충전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3 in 1 제품. 안경집처럼 보이는 본체를 위아래로 잡아 늘리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로 변신한다. 가볍고 발광이 좋아 자기 전 머리맡에서 잡다한 일을 할 때 유용한 제품.

39,000원 / 필립스 소비자센터(080-600-6600)



12

13

속옷 칼라집

14



15



16



## For Grooming

### 14 스웨거 페이스 옵티마이저

토너의 촉촉함, 에센스의 탄력, 로션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선사하는 3 in 1 제품. 매일 출근버스를 향해 질주하는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더없이 효율적이다.

30,000원 / 스웨거([swagger.kr](http://swagger.kr))

### 15 AXE 바디 스프레이

수컷 냄새 전문 브랜드 'AXE'의 보디 스프레이 시리즈. 상큼한 시트러스 향, 깔끔하고 프레시한 향, 나쁜(Vice) 남자의 향까지 다양하게 구비해놓았으니 원하는 콘셉트에 맞춰 골라 사용하자.

10,900원 / 맥스(080-041-7100)

### 16 바디샵 화이트 머스크 포맨

영동 포도즙처럼 짙은 보라색 병 속에는 은은하고 강한 남자의 향이 가득하다. 오늘 밤 시내 썸녀와 술자리를 하기 전에 분사하면, 잠시 후 그녀에게 맡겨 보사(?)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34,000원 / 더바디샵(080-759-7700)

HAIR&MAKEUP 장혜민 LAYOUT 김태은 ASSISTANT 김태은 박정숙 VIDEO 김상수 COOPERATIONS 슈즈웬(02-518-4180) 필라핀(02-547-9707)



→  
BEXEL ACTIVE BEAM Flashlight  
광화문 교보문고 핫트랙스에서  
12,000원에 구매

## 그거 왜 샀어? #14

 새순이 움트는 봄 날씨에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편집부의 지갑도 열리기 시작하는데...

BY 손안나 MODEL 장혜민 이상윤

편집부 인턴은 이런 일도 합니다.



### BEXEL ACTIVE BEAM Flashlight

-  승민 선배, 이 등기 같은 물건은 뭐예요?
-  랜턴이야. 비상시를 대비해서 질렀지. 왜 지난여름에 나 감전돼서 죽을 뻔한 적 있잖아. 그때 랜턴의 필요성을 절감했거든.
-  폭우 때문에 회사 옥탑 창고 구멍 나고 사무실 온통 물바다 된 그날요?
-  내가 한밤중에 그 컴컴한 창고에서 혼자 구멍 막아보려고 웅쓰는데... 휴대폰 플래쉬로 비추다가 폰도 침수되고, 시발 그때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는데 전기 콘센트가 물에 잠겨 있어서 아주 죽다 살아났지.

-  쯤. 그때 아무도 옥탑으로 안 올라갔으면 몇 달 뒤에 썩은 시신으로 발견됐겠네요.
-  너 어쩐지 아쉽다는 표정이다? 아무튼 이거 물건이야. 군 작전용으로 쓰는 거라 엄청나게 튼튼한가 봐. 표면을 두툼하게 고무로 처리해서 방수도 잘 될 것 같고, 렌즈 부분도 두께가 1cm는 족히 넘는 두툼한 볼록렌즈라서 송곳 아니라 송곳 할머니로 쏘셔도 안 깨지겠어.
-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니까 깜빡거리네요?
-  신호 보낼 때 쓰는 섬광 기능이지. 내 인생에 또 한 번 위기상황이 생긴다면, 그땐 이걸 이용하겠어. 이 제품은 전구가 반영구적이거든. 사실 손전등을 쓰다 보면 배터리가 다 돼서 안 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구 수명이 다 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 그럴 때 그 전구 갈려면 존나 귀찮거든.

- 대부분 그냥 버리고 새 손전등을 사지.
-  손전등도 딱 전구 수명만큼만 쓰는 소모품인 셈이네요.
-  그렇지. 그런데 이 녀석은 전구 수명이 1만 시간도 아니고 무려 10만 시간!!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지.
-  근데 이거... 불량 아니예요? 빛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  나도 그게 이상하더라고. 분명 제품 설명에는 가시거리가 1.6km나 된다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200m 앞에 있는 건물도 비추지 못하는 거야.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니... LED 전구를 감싸고 있어야 할 반사경이 없더라고! 제품 상세 정보에는 분명히 있는 반사경이 내가 산 제품에는 없더라... 이런 빌어 처먹을. 원래 이렇게 불량이 많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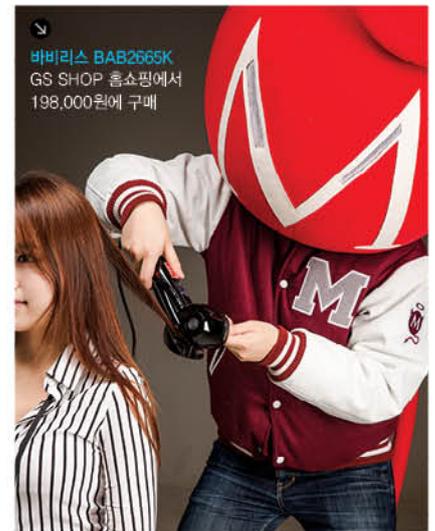
**SKIL 3.6V  
충전드라이버드릴 KIT\_2436**

-  웅재 씨랑 안 어울리게 웬 공구야? 그냥 평소처럼 미소녀 피규어나 사지.
-  남자라면 누구나 공구에 대한 로망이 있는 법. 지난달 홈플러스에서 이걸 본 순간, 사지 않을 수 없었어. 옆에 있던 경쟁 브랜드 계양 공구나 블랙앤데커보다 저렴하길래 32,000원 주고 샀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최저가가 21,160원이네. 시발.
-  스킵?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  생소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전동 공구 1등 브랜드 보쉬(BOSCH)에서 만든 보급형

라인이야. 가격이 저렴해서 가정용으로 쓰기에 괜찮지.

-  그나저나 이걸로 뭘 할 생각인데?
-  볼트 체결이 많은 PC 조립/해체나 DIY 같은 작업이지. 전동 드라이버를 쓰면 작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거든. 원래 큼지막한 해머 드릴이 하나 있긴 한데 워낙 힘이 세고, 회전 속도가 빨라서 제품을 망가뜨리기 일쑤거든. 해머 드릴이 잘 쏘시고 잘 뚫는 놈이라면 전동드라이버는 잘 돌리는 놈이야. 요렇게 자그마한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는 힘도 적당하고 회전 속도 조절도 쉬운 편이라 PC 같은 섬세한 전자제품 수리에 딱이지.
-  아악!...

-  갑자기 왜 머리를 쥐어뜯는 거지?
-  조금 전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너를 멋있다고 생각했어. 이런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  최하하. 하긴 멋진 팔뚝을 드러내고 공구를 거침없이 다루는 상남자를 여자들이 좀 끌려하겠잖아. 이 제품은 수십 가지 형태의 비트가 세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형태의 볼트, 너트를 다룰 수 있지. 육각 렌치나 스패너로 해야 하는 작업도 문제없어. 여튼 좆 달린 남자라면 이거 하나쯤은 있어야 해. 내 고추에도 다양한 여자에게 적합한 드릴비트를 장착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할 수 없어진다.



**바비리스 BAB2665K**

-  헤민 씨.. 왜 망치를 들고 있는 거야. 무서워.
-  어머. 이거 고데기예요. <갯잇뷰티>에 나온 걸 보고 사고 싶었던 차에, 홈쇼핑에서 할인하길래 하나 질렀어요. 머리할 때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야 하는 일반 고데기와 달리, 이건 머리카락을 잡고 "삐" 소리가 울릴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자동으로 저 동그란 부분에 빨려 들어가면서 웨이브가 완성되는 거죠.
-  우어! 완전 신세겐데? 근데 헤민 씨 같은 헤어 메이크업 전문가도 이런 도구에 혹하는구나... 그게 더 신기하다.
-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다잖아요. 아무리 뷰티 에디터라도 제 머리 세팅하는 건 불편하고 귀찮거든요. 게다가 광고 모델인 클라라가 칠랑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눈웃음을 치는 걸 보고 뽀뿌가 마구 자극됐어요.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열 번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좀 부담되긴 했지만, 저걸로 내 머리 백 번은 말아서 본전 뽑으리라 다짐하며 카드를 긁었죠.



근데 정말 망치 같이 생겼다. 집에 도둑이 들면 저걸로 후려치면 되겠어.



인터넷 후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로 어린 딸에게 머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딸이 왜 망치로 자기 머리를 자르려고 하나며 울었대요.



푸핫. 열판이 저 망치 안에 숨어 있어서 화상 입을 염려는 없겠다.



네. 문제는 웨이브가 안 예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름신이 들려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 <갯잇뷰티>에서 한 머리도 이상하더라고요. 저 미친년 산발하고 소개팅까지 나갔는데... 그 남자가 절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오 쪽팔려!



### 노벨뉴 NS780 블루투스 스피커



편집장님, 블루투스 스피커 지르셨군요!



내가 요즘 밤에 혼자 운전하고 쓰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잖아. 야외에서 음악 틀어놓고



남들한테 페 끼치기 좋은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괜찮아 보이더라.



노벨뉴라니. 회사 이름도 매우



지니어스하네요. 보기보다 꽤 묵직한데요?



백화점에서 파는 큼지막한 배 한 개 무게 정도라고나 할까? 요게 지름이 8~8.5cm로



사이즈는 한주먹인데, 보다가 강철로 되어 있어서 무거운가 봐. 높은 데서 떨어뜨려도 괜찮대.



정말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나한테 들키지만 마라. 아무튼 난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 출력이 꽤 훌륭하거든. 책상 위에 두면 울림이 느껴질 정도야. 노이즈도 적고, 우퍼도 뱅뱅하고 이만하면 사운드도 괜찮지 않나? 분위기 잡고 연인이랑 아웃도어 러브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어. 바닥에 깔기엔 진동 방지 패드가 있어서 어디든 흔들림 없이 딱 붙어 있거든. 생활 방수 되고... 아니, 내 말은 호. 혹시 뭘 쏟을지도 모르잖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역시 이런 게 연륜인가요? 오늘도 한 수 배우고 갑니다. 그나저나 '한글 음성 지원' 기능이 있네요? 아이폰의 시리(Siri) 같은 건가?



블루투스 연결할 때, 전원 끌 때, 배터리 없을 때 등등에서 차분한 한국 여자 목소리가 나와. "블루투스 연결 준비 완료" 뭐 이런 식? 전원 끌 때 나오는 "전원 꺼짐" 멘트가 제일 웃겨. 전부 다 꺼지라는 것 같잖아! 아주 냉정한 여자라니까.

### ASUS H100TA-DK009H



정육 씨, 이 촌스럽게 생긴 넷북은 왜 산거 아? 내가 한 5년 전에 쓰던 200,000원짜리 넷북이랑 비슷한데?



넷북이라뇨, 이게 트랜스포머 북이라고 요즘 다나와 죽들이들은 다 탐내는 아이템이라고요. 저도 물건을 받아보고 좀 당황했어요. 맥북처럼 간지나는 화이트를 원했건만 이 칙칙한 검은색 좀 봐요. 정떨어져서 그 흔한 보호 필름이나 파우치도 안 샀어요. 그냥 힘하게 막 다루려고요.



와... 근데 정말 무겁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든 거지?



후훗. 키보드가 500기가 하드가 심어져 있기 때문이죠. 운영체제도 존나 무거운 윈도예요. 에러도 많고 윈 놈의 액티브 엑스를 그렇게 깔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업할 때는 윈도우만 한 게 없지 않아요? 게다가 키보드를 떼면 태블릿으로, 키보드를 결합하면 노트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녀석이에요. 아이튠즈 같은 거 없이도 화보 촬영 때 마구잡이로 시간 넣기 편하고, 회사 밖에 있는데 편집장이 갑자기 원고를 독촉해도 급하게 두드릴 수 있는 키보드가 떨어져 있어서 편해요.



요즘 카페에서 에디터 놀이하는 데 재미 붙인 거 같더라? CPU 사양은 어떤데?



아름 프로세서요. 쫓 구린 성능으로 인텔의 실패작이라 불리던 놈이죠. 그래도 이번에 베이트 레일 아톰 프로세서라는 이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꽤 빨라요. 문제는 CPU보다 이 쫓만 한 시프트 키예요. 너무 쫓만 해서 자꾸 옆에 있는 방향키를 누르게 되거든요. 오타를 부르는 키보드라고나 할까요. 젠장. ☹



노벨뉴 NS780 블루투스 스피커 11번가에서 31,900원에 지름

ASUS H100TA-DK009H 하이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599,000원에 지름

# MAXIM 봄부질

춘심월 새싹처럼  
나의 지름 본능도 쑥쑥!

## 소니 NWZ-ZX1으로 궁극의 음질을 즐겨라!

소니코리아가 고해상도 오디오인 HRA(High Resolution Audio)를 지원하는 최상급 워크맨 NWZ-ZX1을 출시한다. HRA를 통해 노래를 들으면 스튜디오와 콘서트홀에서 직접 듣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소니 NWZ-ZX1은 128GB의 뽕뽕한 용량을 탑재해 800곡 이상의 노래와 동영상을 재생한다. 또 안드로이드 4.1 운영체제를 탑재해 웹서핑과 게임까지 가능하다.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와 가죽재질의 고무 소재로 만들어져 튼튼한 내구성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한다.

799,000원 / 소니스토어(store.sony.co.kr)



## 나의 건강 매니저, 핏비트(Fitbit)

손목 밴드형 기기로 건강을 챙긴다? 내 몸의 활동량과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스마트 손목 밴드 핏비트(Fitbit) 5종이 한국에 상륙한다.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와 연동해 체계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핏비트를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친구의 핏비트와 공유할 수 있다. 다양한 색상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하기 좋다. 그나저나.. 내가 힘들게 운동해야 건강해지는 건 마찬가지잖아?!

Fitbit Force™ 가격 미정, Aria™ 가격 미정

Flex™ 139,000원, One™ 139,000원, Zip™ 79,000원

Fitbit(www.fitbit.com)



## DSLR 필요 없어! 올림푸스 STYLUS1

등산 같은 활동량이 많은 야외 활동을 즐기거나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올림푸스 STYLUS1을 추천한다. 장착된 렌즈 하나가 초점 거리 28-300mm로 광각과 망원을 모두 아우른다. 조리개는 최대 밝기 f2.8로 주요 부분을 남기고 원하는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는 아웃포커싱 효과까지 문제없이 구현한다. Wifi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종까지 가능하다. 무게는 배터리 포함 402g으로 가벼운 여자사람도 쉽게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색상은 검은색 한 종류로 출시된다. 자기가 거기 서봐!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 조금만 더 두(질박으로)로~ 더더더더.

799,000원 / 올림푸스 강남직영점(02-6002-3500)



## 아이폰이 게임기로 변신? 로지텍 G550 파워셸

아이폰 5와 5S는 물론 5세대 아이폰 터치까지 호환되는 게임 컨트롤러 로지텍 G550 파워셸이 출시됐다. 배터리 충전 기능까지 탑재되어 아이폰의 토끼 같은 배터리 정력에 구애받지 않고 오랜 시간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일반 보호 케이스에 넣는 것처럼 폰을 컨트롤러에 가볍게 삽입만 해주면 즉시 연결된다. 제품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카메라와 MP3 등 기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폰, 토끼에서 민승 정력만 게임기로 변신 완료!

가격 미정 / 로지텍 코리아(www.logitech.co.kr)



## 에이모션 미니벨로 제브라 라인 3종 출시

국내 대표 자전거 제조사 에이모션이 세련된 디자인의 접이식 자전거 미니벨로 제브라 라인 3종을 출시한다. 3종 모두 유선형으로 제작되어 주행하면서 받는 공기 저항이 적다. 특히 고급 모델인 ZF20 A1은 알루미늄 부품을 사용해 초등학교도 쉽게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 특징. ZF20 F1은 7단 변속기가 있어 어떤 지형이든 쉽게 주행할 수 있다. ZF20 S1은 V브레이크를 탑재해 정확한 제동이 가능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자전거 열심히 타면 침대 위에서든 전설이 될 수 있다는데?!

ZF20 A1 380,000원대, ZF20 F1 280,000원대,

ZF20 S1 240,000원대 / (주)에이모션(www.a-motion.co.kr)

# Style

## 까먹고 싶어지는 팬티

화이트데이에 사탕보다  
맛있는 그걸 꺼내 선물하자.  
그녀의 침생을 자극할 예쁜  
팬티말이야. BY 김소윤

### 1 풀인

화려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언더웨어 브랜드 풀인의 복서.  
검은 바탕과 대비되는 빨간색 딸기  
그림이 그녀의 시선경을 자극하고,  
어느새 군침까지 돌게 만들 거다.  
54,000원 / 풀인(pull-in.co.kr)

애독자  
선물 증정!  
이 팬티  
너 가져





**2 락애프레쉬**

반바지도 아닌데, 팬티에 벨트를 끼울 수 있는 구멍과 뒷주머니가 달려 있다. 디테일 짚어!  
23,000원 / 락애프레쉬(rocknfresh.com)



**3 오노레**

다양한 색깔의 스펠링이 생크림 케이크 위에 뿌려진 데코레이션처럼 알록달록 예쁘다. 보기보다 짱짱해서 몸의 라인도 잘 잡아준다.  
23,800원 / 오노레(onore.co.kr)



**4 엠포리오 아르마니 언더웨어**

암전한 체크무늬 팬티 위에 형광 오렌지색 밴드가 눈에 확 띈다. 바지 틈으로 슬쩍슬쩍 보이는 밴드가 여자들의 상상을 자극할 거다.  
89,000원  
엠포리오 아르마니 언더웨어(6011-0804)



**5 프리건**

화이트데이에 딱 프랑스 언더웨어 브랜드 프리건에서 슈퍼츄러스를 소재로 한 팬티를 내놨다. 사랑 안 사왔느냐고 징징대는 여친에게 "짜잔!" 하고 보여주자. "진짜 사랑은 이 안에 있어!"  
23,500원 / 프리건(freegun-korea.com)



**6 크레이지본**

자극적인 색깔로 포인트를 준 크레이지본의 드루즈, 검정색 팬티 위에 그려진 스트라이프의 빨간색과 주황색 배열을 보니 맛좋은 베이컨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  
19,500원 / 크레이지본(crazybonesshop.com)



**7 르페 옴즈**

상큼한 오렌지 팬티에 그려진 생선 가지 모양의 패턴이 재미있다. 이걸로 고양이 같이 앙큼한 그녀를 유혹해 보자.  
14,500원 / 르페 옴즈(1544-6101)



**8 코데즈 컴바인 이너웨어**

호랑이 가죽을 벗겨서 만들었나? 호피무늬 팬티를 입고 숨겨진 야수 본능을 마음껏 표출하자.  
22,800원  
코데즈 컴바인 이너웨어(codes-combine.co.kr)



**9 칼라짚 옴즈**

앤디 워홀의 명작을 팬티 위에 감각적으로 옮겨놓았다. 통조림처럼 단단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겠지?  
8,900원 / 칼라짚 옴즈(1544-6101)

## 외출을 부르는 가방

빨리 들고 나가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 하게 만드는 멋진 가방들.

PHOTOGRAPH BEN GOLDSTEIN 옮긴이 김소윤

### 1. 허엘 서플라이 윌트 더펠백

하단에 신발을 넣는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여행갈 때 쓰기 좋은 센스 있는 가방이다.

106,000원 / 노드스트롬  
(nordstrom.com)

### 2. 버튼 메신저백

가방에 다양한 크기의 주머니가 많아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은 바쁜 사람들에게 딱이다.

53,000원 / 버튼(burton.com)

### 3. C6 라지 토트백

내부에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고정할 수 있는 밴드가 있다. 17인치의 노트북까지 들어간다.

196,000원 / C6(c6life.com)

### 4. 푸마 시티블록

조깅이나 등산 갈 때 가볍게 메기 좋다. 가방 끈이 널찍해서 오래 메고 있어도 어깨가 편하다.

74,000원 / 푸마(shop.puma.com)

### 5. 어그 포 맨 브랜포드 레더 워켄더백

가족 여행 가방은 오래될수록 간지를 더한다. 쳐다보기만 해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가을 유발 아이템.

584,000원 / 어그  
(uggaustralia.com)

### 6. 에버레인 스웨이드 워켄더백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의 가방은 멋있는 동시에 실용적이다. 여행 중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때 노숙자처럼 잠깐 베고 자기에도 안성맞춤.

207,000원  
에버레인(everlane.com)

### 7. 윌레더굿 캔버스 레더 더펠백

식물성 성분으로 가공한 가죽으로 만들어서 내구성이 장난이 아니다.

372,000원 / 윌레더굿  
(leathergoods.com)





**8. 피엘라반 No.4 방수 더럼백**  
 넉넉한 길이의 손잡이는 한 손으로 들거나, 한쪽 어깨에 걸 수도 있고, 심지어 양 팔을 각 손잡이에 끼워 등에 짊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159,000원 / 피엘라반 (fjallraven.us)



**9. 투미 알파 브라보 몬터리 슬링백**  
 지퍼가 위에서 아래로 열리는 독특한 디자인의 슬링백. 등 쪽엔 태블릿 PC를 넣을 공간도 있다.  
 267,000원 / 투미(tumi.com)

**10. 캘빈클라인 어반 트래블백**  
 먼 혼방 소재의 그레이 컬러 가방은 언제 어디에나 어울리는 만능 아이템. 도서관, 헬스장, 공항 등 가리지 말고 들고 싸돌아 다니자.  
 189,000원 / 캘빈클라인 (calvinklein.com)



**11. 케네스 콜 뉴욕 롤링 더럼**  
 위와 옆에 짧은 손잡이가 달려있어 나르기 편하고, 필요할 때에는 뒷부분에 긴 손잡이를 쭉 빼서 아래쪽의 바퀴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실용적인 캐리어.  
 292,000원 / 케네스 콜 (kennethco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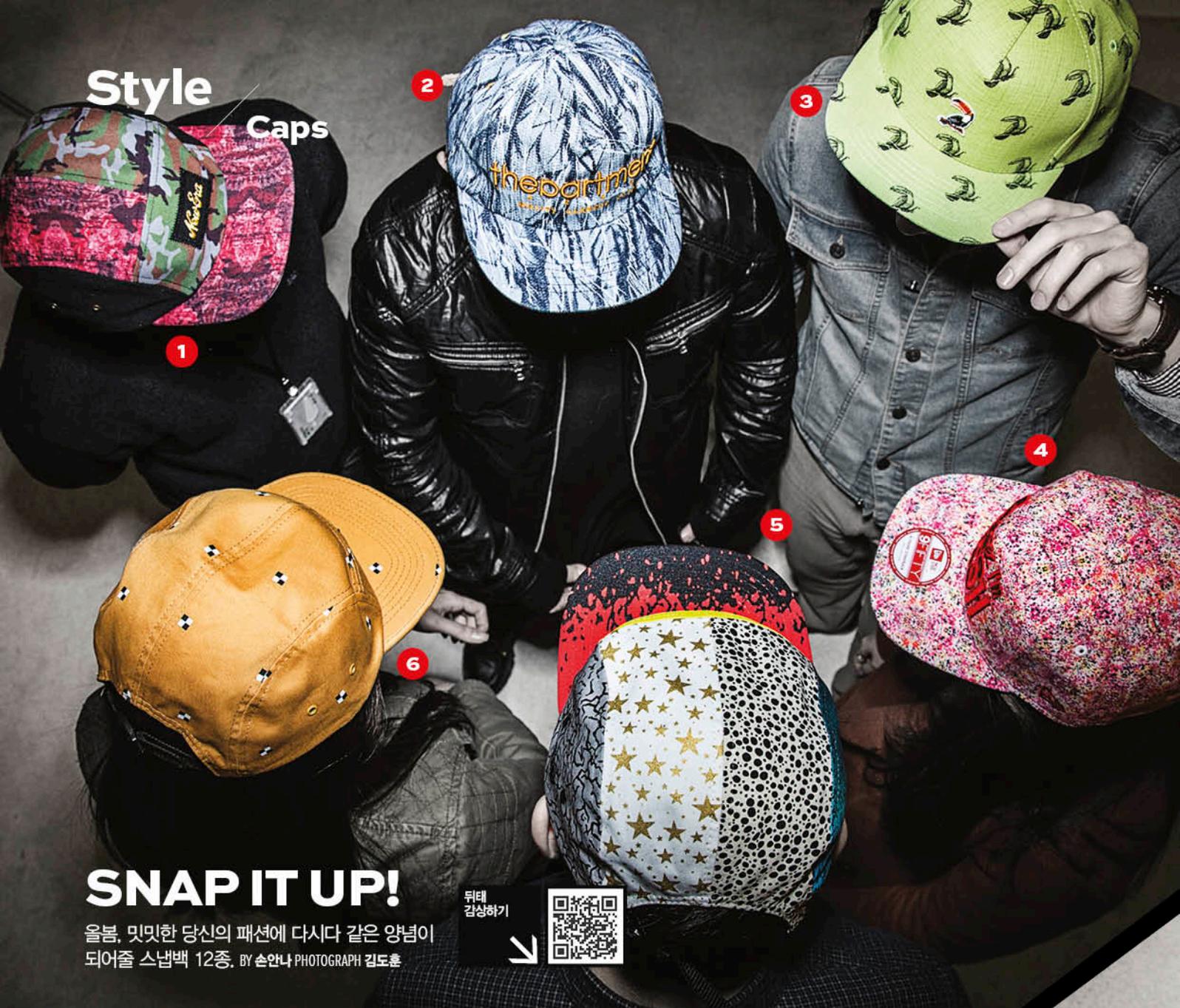
**12. 브렌하벤 울린즈 테크팩**  
 모든 버전의 아이패드도 꼭 맞는 사이즈로, 딱 필요한 것만 넣고 다니는 깔끔함을 위한 심플한 가방.  
 53,000원 / 브렌하벤 (brenhaven.com)



**13. 빅토리우스 트래블 기어 알파이너백**  
 가로, 세로, 깊이가 각각 38cm, 78cm, 28cm로 소지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을 수 있는 진격의 캐리어다.  
 266,000원 / 빅토리우스 (swissarmy.com)

**14. 코치 맨 머서 레더 백커 브리프**  
 이탈리아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브리프 케이스.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직장인에게 추천한다.  
 636,000원 / 코치(coach.com)

# Style Caps



## SNAP IT UP!

올봄, 맛있는 당신의 패션에 다시다 같은 양념이 되어줄 스냅백 12종. BY 손안나 PHOTOGRAPH 김도훈

뒤태 감상하기



### STRING SNAP

#### 1 NEW ERA CAMPER FLORAL CAMP FASHION COLOR

카무플라주와 야시시한 꽃무늬가 묘한 조화를 이루는 아누스적 스냅백. 53,000원

#### 2 THEPARTMENT NATURE 5 PANEL CAP NAVY

한겨울 북유럽의 자작나무를 연상시키는 나무껍질 패턴이 포인트다. 쿵쿵... 어디서 향 냄새 안 나요? 42,000원

#### 3 LESS TOUCAN LOGO WORK HAT

아가리가 얼굴만 한 큰부리새를 프린트한 민트색 캡. 구김이 안가는 능직 소재라 가방에 처박아두었다가 여친 만나러 가는 길에 살짝 눌러 쓰기 좋겠다. 55,000원

#### 4 NEW ERA 95OAF NE ENDLESS SUMMER BEERTOOT SPRAY

스프레이가 흩날려진 그래피티 이미지를 모티브로 했다. 앞엔 "Sorry I'm FRESH(미안, 나 간지나지)", 뒤에는 "But You're NOT(근데 넌 아니잖아)"이라고 쓰여 있다. 기분 나쁘면 너도 써. 59,000원

#### 5 NEW ERA CAMPER ULTRA HOOK FASHION COLOR

캡에는 작열하는 태양을, 머리통 부분에는 다양한 행성을 형상화한 뺑상 st.의 우주적 아이템. 이걸 쓰면 어쩐지 나메크성에서 온 초사이언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만 같아. 53,000원

#### 6 STUSSY MINI CHECK CAMP CAP

미니멀한 체크무늬를 모자 곳곳에 새겨 넣은 캠프 캡. 챙이 좁고 디자인이 아기자기해서 여자가 써도 잘 어울린다. 이번 화이트데이에는 커플 모자 어때? 52,000원

**PLASTIC SNAP**

**7 NIKE**  
**ERDL MESH TRUCKER**  
 현란한 카무플라주 메시 캡. 예비군 모자를 이렇게 바꾸면 한여름에 통풍도 잘되고 얼마나 좋을까?  
 39,000원

**8 CROOKS & CASTLES**  
**MENS WOVEN SNAPBACK**  
**CAP SULTAN**  
 당장이라도 <아라비안나이트> 속의 무희들이 튀어나와 양옆에서 벨리 댄스를 출 것만 같은 양탄자 st. 스냅백. 소재는 보들보들 실크 재질이다. 아아, 그녀들의 살결도 이런 감촉일까?  
 55,000원

**9 HUF**  
**SNOWLIFE**  
**SNAPBACK**  
 마리화나 패턴으로 유명한 뉴욕의 스트리트 브랜드 허프의 스냅백. 그래서인지 눈꽃송이 무늬조차 자꾸만 마리화나로 보인다. 블랙, 레드, 그린, 블루 네 가지 색상으로 만날 수 있다.  
 49,000원

**10 THE HUNDREDS**  
**SUPER SNAP**  
 1980년생이라면 이 모자가 어떨까? 모자 전면에 숫자 1,980을 의미하는 라틴어 MCMLXXX이 박혀 있거든. 녹색 캡에 와인색이 경쾌하게 어우러져 중후한 노안도 한 열 살쯤 더 어려 보이게 만들어준다.  
 39,000원

**11 THE HUNDREDS**  
**BUSTER SNAP**  
 어디에나 어울리는 부드러운 울 소재에 슈퍼히어로스러운 글씨체가 포인트인 귀여운 스타일의 모자. 이걸 머릿통에 장착하면 당장 어딘가로 출동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겠는데?  
 43,000원

**12 TTOMA**  
**NEW ERA**  
 SBS <런닝맨>에서 송지효가 자주 쓰고 나오는 그 모자 기억나나? 프랑스 팝 아티스트 토마 뷔유가 만든 노란 고양이 캐릭터 '토마'가 그려진 스냅백으로 비비드한 컬러 조합이 생기발랄하다. \*주의: 챙이 상당히 좁은 편이다. 얼큰한 머리 사이즈를 가졌다면 피하지.  
 59,000원

VIDEO 김상수 LAYOUT 이상훈 ASSISTANT 정재민 이상훈 COOPERATION 뉴에라캡코리아(www.newercapkorea.com) THEPARTMENT(02-333-8188), 도미(02-223-5983), 나머지 제품 모두 카시나 프리미엄샵(02-3443-8144)

## 사내에서 먹어주는 오피스 룩



봄. 바야흐로 상반기 공채 시즌이다. 지원할 회사의 연봉, 복지 다 중요하지만, 모름지기 회사 물이 좋아야 다닐 맛이 나지! MAXIM이 취업준비생 독자들을 위해 서울시내 오피스 스폿 수질 조사에 나섰다. 첫 번째 타깃은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BY 정혜민

PHOTOGRAPH 김도훈



힘준 아이템: 스네이크 패턴 원피스



힘준 아이템: 20분 걸려서 만진 머리

정승희 / 35 / 소니코리아 직원  
이성의 매력 오피스 룩: 좋은 향이 나는 칼다림질 된 슈트.  
직장 동료가 이상으로 느껴질 때: 회의 시 다수가 만족할 좋은 결과를 도출할 때.

박종복 / 33 / ING생명 보험설계사  
이성의 매력 오피스 룩: 성숙한 매력이 느껴지는 회색 투피스.  
직장 동료가 이상으로 느껴질 때: 회식할 때 술 마시면서 나를 쳐다볼 때.



힘준 아이템: 빨간 넥타이

전덕환 / 31 / 재무설계사  
이성의 매력 오피스 룩: 몸매가 드러나는 딱 붙는 원피스.  
직장 동료가 이상으로 느껴질 때: 다정다감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을 볼 때.



힘준 아이템: 여성스러운 흰색 코트

신미정 / 27 / 통신사 영업관리직  
이성의 매력 오피스 룩: 몸에 잘 맞는 니트.  
직장 동료가 이상으로 느껴질 때: 업무적으로 잘 챙겨줄 때.



힘준 아이템:  
머플러

◀ 김대건 / 29 /  
재무설계사  
이성의 매력 오피스 룩:  
유니폼이 좋다.  
특히, 백화점 유니폼.  
직장 동료가 이성으로  
느껴질 때:  
숏컷한 여자가 유니폼  
입고 입할 때.



김효경 / 28 /  
금융감독원 직원 ▶  
이성의 매력 오피스 룩:  
몸에 잘 맞는 팽팽한 흰색  
와이셔츠.  
직장 동료가 이성으로  
느껴질 때: 선배가  
업무적으로 잘 도와줄 때.

힘준 아이템:  
다리 라인을  
살려주는 압박  
스타킹

▶ 박지원 / 28 / 서비스업

이성의 매력 오피스 룩: 슬림핏 검은색 슈트.  
직장 동료가 이성으로 느껴질 때: 새로운 아이디어로  
회의를 주도하는 모습을 볼 때.

▶ 왕연상 / 29 / 금융감독원 직원

이성의 매력 오피스 룩: 타이트한 흰색 셔츠.  
직장 동료가 이성으로 느껴질 때: 그 셔츠에서 좋은  
향이 날 때.

▶ 정우리 / 30 / 증권업

이성의 매력 오피스 룩: 회색 슈트, 반짝거리는  
은감치는 제외.  
직장 동료가 이성으로 느껴질 때:  
맘 흘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 볼 때.



힘준 아이템:  
핏 되는 검정  
블레이저



힘준 아이템:  
뽀뽀하게 세운 깃



힘준 아이템:  
허리 라인을  
살려주는 벨트

# Style news

## 이스트쿤스트와 스타일리스트 박만현이 만나 탄생!

### stadium jacket

이스트쿤스트와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박만현이 만나 Re: Styling Project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선보이는 한정판 콜라보레이션 재킷은 어깨와 팔 이음새에 지퍼를 달아 탈부착이 가능해 조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팔 부분에는 고급 소가죽 소재를 사용했고 몸판에는 모직을 사용해 요즘 같은 간절기에 실용적으로 착용하기 좋은 패션 아이템이다. 낮이 익다 했더니 학교 다닐 때 입던 과잠바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 잠바 꺼내서 스윽쩍 리폼하곤 콜라보라고 뺨쳐볼...

249,000원 / (주)이스트쿤스트코리아(www.istkunst.com)



### 태양을 피하는 방법! 액티비스트 Model 10.01를 써봐

뉴욕 브록클린 감성의 안경 브랜드 액티비스트(ACTIVIST) 아이웨어가 멋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선글라스 Model 10.01을 선보였다. Model 10.01은 안경다리 부분을 두 갈래로 나눠 무게를 분산했고 가벼운 특수 고무 소재로 만들어 오랜 시간 착용해도 편안하다. 특히 액티비즘™ 렌즈를 사용해 자외선을 완벽히 차단해 시력을 보호하고 넓은 시야를 확보한다.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그러다 비를 만났지. 헛.

585,000원 / 불잉(02-3443-1703)



### 봄 분위기가 물씬!

### 로버스(ROVERS)의 빅토리아 데님(VICTORIA-DENIM)

단정한 멋이 있는 신발 브랜드 로버스가 데님과 가족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킨 매력적인 신발 빅토리아 데님을 선보였다. 신발의 가장자리와 밑창을 연결하는 웰트 스티치와 밑창에 단무지 같은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줘 화사함을 극대화했다. 빅토리아 데님 신고 훈훈한 향기를 풍기며 봄기운에 마음이 싱싱해질 봄처녀들을 매력시키자. 가까운 로버스 매장과 신발 전문 매장 레스모아에서 빅토리아 데님을 만날 수 있다. 봄처녀~ 재 오시네~

69,000원 / ROVERS(02-3489-5735)



### 새 학기 유티칭 백팩 메고 힘차게 앞으로 앞으로!

학교 가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유니온유니크가 내놓은 유티칭 백팩(U Touching N001)을 메고 힘차게 신학기를 맞이해보자. 4가지 색상의 캔버스에 가죽 소재를 접목해 고급스럽고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젊은이들의 패션 감각을 자극한다. 앞면에는 포인트로 가죽 포켓을 달아 디자인의 재미와 실용성을 더했다. 가방 내부에는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내부 포켓이 있고 가방의 뒤를림을 방지하는 소재를 이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78,000원 / 유니온유니크(www.unionuniq.com)



### 화이트데이엔 게스 커플 속옷 입고 로맨틱 나이트!

섹시 캐주얼 대표 브랜드 게스 언더웨어가 화이트데이를 맞아 섹시하고 발랄한 커플 속옷 2종을 출시했다. 프리미엄 커플라인은 단색 고급 원단에 레이스를 매치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화이트데이 밤을 뜨겁게 달구기에 좋은 아이템이다. GUESS 레오파드는 화려한 노란색에 표범무늬 패턴을 섞어 귀엽고 상큼한 이미지로 상대를 유혹하기 좋다. 이번 화이트데이에는 표범무늬 팬티 입고 침대 위의 타잔과 제인이 되는 건 어떨까? 아이참, 자기야, 그거 꼬리 아니라니까.

여성 브라 68,000원, 여성용 팬티 32,000~35,000원

남성용 드로즈 35,000~45,000원 / 게스코리아(www.guesskorea.com)

# Watch out!

## 자스페로의 섬세함이 살아있는 스쿠도(SCUDO)

남자라면 문득 '너네 아버지 뭐하시노?' 하며 시계를 거칠게 풀어놓으며 은근히 시계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주목하라! 스위스의 고품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자스페로 모데르노(MODERNO)라인의 새로운 시계 스쿠도(SCUDO)가 출시된다. 스쿠도는 자스페로의 대표 색상인 블랙 로즈골드로 디자인되어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일반 야광보다 100배 밝은 수퍼 루미노스로 코팅된 시계침은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으로 스쿠도를 환하게 비춘다. 왕관 모양이 각인된 용두는 돌려서 풀고 잠그는 스크루 방식을 이용해 방수 기능까지 높였다.

650,000원 / 자스페로([www.zaspero.co.kr](http://www.zaspero.co.kr))



## 소중한 그녀에게 드림(Dream) IN7202WH로 꿈같은 시간을!

다가오는 화이트데이, 소중한 그녀에게 사랑과 함께 건넨 선물로 이보다 더 좋은 아이템은 있을까? 잉거솔의 드림(Dream) IN7202WH는 이름만큼이나 환상적인 비주얼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시계다. 5기압 방수 기능과 함께 요일, 날짜 24시 표시 기능이 있어 활용도 또한 높고 시계의 내부가 보이는 시스루 백으로 디자인됐다. 베젤 위에 박힌 스와로브스키 스톤과 백색의 가죽 밴드는 그녀를 순백의 천사로 만들어 줄 것이다. 사랑만 졌다가 넌 악몽을 꾸게 될 거야! 드림 꼭 드림!

575,000원 / 잉거솔([ingersoll.kr](http://ingersoll.kr))

## 아웃도어 시계의 최강자 루미노스 Dive Chronograph 8362

특수 군용 시계로 신뢰와 전통을 쌓아가고 있는 아웃도어 시계의 최강자 루미노스가 젊은 혈기와 강인함이 느껴지는 루미노스 다이브 크로노그래프(Dive Chronograph) 8362를 내놓았다. 200m 방수 기능과 자기발광형 마이크로 가스 캡슐을 내장해 깊고 어두운 바다 속에서도 밝은 빛으로 시계를 비춘다. 무광택 검정의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강렬한 빨강 버튼을 매치해



젊은 남자의 강인함과 혈기를 표현했다. 당신의 수컷다움을 온 지구에 자랑하고 싶어? 이 녀석을 차고 손목 좀 건어봐~  
1,250,000원 / 미림시계([www.luminoxwatch.co.kr](http://www.luminoxwatch.co.kr))

## 클래식의 마침표를 찍었다.

### ALBA Modern Classic AS5037X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패션시계 브랜드 ALBA가 진정한 클래식의 기준을 보여주는 시계 Modern Classic AS5037X를 출시했다. 시계 전체가 백색과 은색으로 디자인 되어 격이 다른 품위를 느낄 수 있다. 고급스러운 로마자 인덱스는 우아함의 마침표를 찍었다. 시간에 따라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있는 해와 달 문양 표시판은 멋과 실용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옛날엔 백마 탄 왕자가, 요새는 백(白)시계 찬 왕자가 대세지.

240,000원 / 삼정시계(02-511-3182)



## 새 학기는 헬다이버 SB2C-4001SIL과 함께 출발!

산뜻한 디자인으로 남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헬다이버의 SB2C-4001SIL을 소개한다. 비행기 계기판처럼 생긴 문자판은 밝은 오렌지색을 이용해 시계를 직접 착용한 사람이나 보는 이에겐 경쾌한 기분을 들게 한다. 밝은 갈색의 천연 가죽 밴드와 큰 용두는 단정한 멋이 있다. 은은한 파란빛을 내는 미네랄 블루코팅 글라스로 포인트를 살렸다. 새 학기는 헬다이버 SB2C-4001SIL 차고 산뜻하게 시작해보자. 오렌지색 산뜻함에 기분은 하늘 위로~뿔!

325,000원  
헬다이버([www.helldiverwatches.com](http://www.helldiverwatches.com))



## 승리를 향한 집념! 아부투스 AR606-BQQ

스포츠를 즐기는 남자라면 아부투스 AR606-BQQ를 손목에 감아보자. 강렬한 오렌지색이 돋보이는 실리콘 재질의 밴드는 운동을 즐기거나 땀이 많은 남자에게 최고의 착용감을 선사한다. 손목에 차고 움직이면 자동으로 태엽이 감기는 기계식 무브먼트를 적용해 활동량이 많은 남성들에게 안정맞춤인 시계다. 날짜와 요일을 표시하고 50m 기본 방수 기능을 갖췄다. 활동량이 많아지는 지금이 아부투스 AR606-BQQ를 착용할 타이밍이다. 어서 날 흔들어주세요!  
488,000원 / 글로벌타임([www.globaltime.co.kr](http://www.globaltime.co.kr))



# 2014 MISS MAXIM CONTEST

세계적인 남성 잡지 MAXIM에서  
모델 데뷔의 기회를 잡아라!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 MAXIM 스태프들과 함께 판타스틱한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 온라인 예선 통과시  
MAXIM 한국판 정규 월호 촬영

◆ MAXIM PARTY 포스터 모델 및 MAXIM의  
PARTY GIRL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2014년 콘테스트 총 상금 700만 원  
(온라인 예선만 통과해도 상금 10만 원)

◆ 4강 진출 시 MAXIM 특별판 매거진  
표지 모델로 발탁

◆ 우승 시, 2015년 MAXIM 매거진 정규 월호  
(1월~12월호 중 하나) 표지 모델로 선정

2013 MISS MAXIM  
최종 우승자 김소희

## 참가 신청 방법

MAXIM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섹시함을 잘 표현한 사진을  
10장 이상 업로드 한 뒤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쓴다.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

벌써 투표  
시작했다고?

MISS  
MAXIM  
신청하기



## 콘테스트 진행 방식

MISS MAXIM 콘테스트 온라인 예선에서는 본인이  
올린 사진이 MAXIM을 통해 공개되며, 다른  
참가자와 1대 1 인기 투표 대결을 벌이게 된다.  
9일 간의 인기 투표 배틀에서 더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참가자가 예선을 통과한다.  
예선 통과자에겐 즉시 상금이 지급되며, '이달의  
MISS MAXIM'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화보  
촬영에 들어간다. '이달의 MISS MAXIM' 화보는  
MAXIM 한국판 정규 월호 매거진에 실린다.

이어, 2014 MISS MAXIM 콘테스트 16강전에  
진출하여 우승을 위한 토너먼트를 시작한다.  
16강부터는 상금액수도 더욱 높아지니 숨은  
매력녀들의 뜨거운 참가 신청 바란다!

## 문의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missmaxim@maximkorea.net

# Motor

CAR OF THE MONTH

## INFINITI Q50 2.2d



이건 뭐랄까? 독일 맥주 집에서 사케를 파는데 제법 괜찮은 느낌? BY 박정욱

4,350 만 원



SPEC CHECK	엔진 형식	배기량	최고 출력	최대 토크	연비
	직렬 4기통	2,143cc	170마력	40.8kg.m	15.1km/L

볼구덩이에 뛰어드는 Q50

→ 일본은 디젤차의 무덤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디젤 엔진의 거친 소음과 진동은 정숙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일본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둘째는 디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 도지사는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디젤차의 도쿄 진입을 금지해 도쿄에서 디젤차의 씨를 말릴 정도였다. 그 결과 독일 차가 디젤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일본은 하이브리드에만 전념했고 일본에서 디젤차는 맥을 못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디젤 모델인 2.2d를 선행으로 내세운 인피니티 Q50의 선전은 조기축구회에서 메시지를 만난 것과 같은 사건이었다. Q50은 지난 2월 11일, 국내에 상륙하자마자 하루 만에 200대가 넘게 계약됐다. 월 목표량을 하루 만에 달성한 것이다.

공들인 만큼의 성과였다. Q50은 강력한 주행 성능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F1 4연속 챔피언인 세바스찬 베텔이 개발에 참여해 직접 퍼포먼스를 테스트했다. 승차감도 포기하지 않았다. 인피니티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다이렉트 어댑티브 스티어링' 기술을 통해 스티어링 휠의 진동을 줄여 운전 피로를 줄였다. 특히 주력인 디젤 모델 Q50 2.2d의 엔진룸에는 인피니티 최초로 최대 출력 170마력에 최대 토크 40.8kg.m을 발휘하는 2.2L 직분사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섰다.

한국닛산은 Q50 전체 판매의 대부분이 디젤 모델인 2.2d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차가 강점을 보이는 하이브리드 모델 3.5h도 있지만 독일 디젤차의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과감하게 디젤 모델을 주력으로 내세운 것이다. 인피니티는 앞서 M30d, FX30d 등 디젤 모델을

링 위에 올렸지만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제대로 만든 디젤차로 제대로 한 따까리 해볼 기세다.

가격 역시 공격적으로 책정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Q50 2.2d의 가격은 4,350만 원. 인피니티가 경쟁 차종으로 지목한 벤츠 E클래스의 디젤 모델 220 CDI보다 2,000만 원 가까이 저렴하다. 벤츠의 엔진을 얹은 Q50 2.2d는 출력과 토크 모두 E220 CDI와 같다. 게다가 동급 차량이 5,000만 원을 웃도는 유럽 차에 비해 700만 원 이상 저렴하다 (국내 기준). BMW 520d와 벤츠 E220 CDI의 독보적인 양자구도로 긴장감 없던 수입 디젤 세단 시장은 Q50 2.2d의 참전으로 한층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디젤 세단 시장을 주무르며 정상에서 웃고 있던 BMW와 벤츠도 이번에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을 것 같다. 🍷

COOPERATION 한국닛산(080-010-2323)

# Motor

## This is My Car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9

# GENESIS COUPE 380 GT

독자의 애마로 화보를 찍어 추억을 선물하는 화제의 코너 <독자의 차> 프로젝트. 아홉 번째 행운의 주인공으로 제네시스 쿠페를 타는 젊은 사업가 육진규 씨가 선정됐다. 개성 넘치는 그의 애마만큼이나 특독 튀는 매력의 2013 MISS MAXIM 김소희. 그녀가 눈을 헤치고 대전에서 달려온 그에게 보답하기 위해 옆구리가 뺑 뚫린 짧은 원피스 차림으로 추운 촬영장을 후끈 달궜다!

BY 박정욱 PHOTOGRAPH YuD

MODEL 2013 MISS MAXIM 우승자 김소희



### TUNING POINT

카본 9구 보닛: 100만 원  
데이라이트: 20만 원

“스포츠키타려면 모름지기 간지가 가장 중요한 법. 자동차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보닛을 멋지게 꾸미고 싶어 9구 보닛으로 튜닝했다. 그리고 낮에 누가 내 애미를 박을까 봐 데이라이트도 달았다.”

소희의  
아찔한  
옆트임





**TUNING POINT**  
 카본 D컷 스티어링 휠: 45만 원  
 천연 가죽 리무진 냉풍 온열시트: 70만 원  
 사무트 천장 및 내장: 50만 원  
 스포츠카라면 당연히 D컷 스티어링 휠은 기본이겠지? 천연 가죽 냉풍 온열 버킷시트는 차 안에서 아한 것을 할 때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준다. 천장에는 '제네시스 쿠페'라고 자수가 놓여 있다.



MISSION COMPLETE!

**유진규 / 온유기 사업**  
 활동 중인 통화호: BK 매니저  
 애마닉네임: 전쿵  
 추천 드라이브 코스: 대청댐 코스  
 드림카: 벤츠 S600 AMG

**→ 폭설에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다. '독자의 차 확보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지원했나?**

자타 공인 MAXIM 애독자다. 독자의 차 코너를 보면서 내 애마에게도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촬영을 위해 함박눈이 내리는 날 이렇게 대전에서 달려왔다. 세차를 미리 해놨는데 눈이 온 건 재앙이었다.

**제네시스 쿠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에 탔던 코란도가 사고로 대파해서 폐차를 해야 했다. 그래서 차를 알아보면 중 "심장이 쎈다"는 전쿵 광고를 보고 멧달아 심장이 뛰는 바람에 바로 구입했다. 그런데 여자 친구가 쿠페의 날렵함보다는 세단의 승차감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 아쉽다. 그래도 디자인은 잘 빠졌다고 하더라.

**제네시스 쿠페를 구매할 때 같은 가격대에 고민한 차가 있다면?**  
 사실 제네시스 쿠페 외에는 사고 싶은 차가 없었다.

지금 다시 자동차를 구매하라고 해도 아마 이 녀석을 선택할 것이다. 전에 탄 차가 SUV였기 때문에 기아 모하비에 살짝 눈이 들어간 적도 있지만 난 일편단심 전쿵 뿐이다.

**사실 제네시스 하면 대부분 세단을 떠올린다. 세단과 비교했을 때 쿠페만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  
 당연히 스포츠카라서 출력이나 핸들링 면에서 퍼포먼스가 좋다. 대신에 승차감은 세단이 낫다. 그리고 문이 두 개라 불편한 점도 있고.

**제네시스 쿠페의 안정감에 대해 많이 많다. 반론을 한다면?**  
 사실 맞는 부분도 꽤 있다. 스포츠카의 핸들링은 저속에서 가볍고 고속에서 묵직해야 한다. 그런데 제네시스 쿠페는 정반대다. 스티어링 휠이 저속에서는 엄청 무겁고 고속에서는 가볍다. 그래도 가성비를 감안하면 최고의 차가 아닐까 싶다.

**제네시스 쿠페를 타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좀 있다. 양아치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소위 '양카'라고 하지 하지만 오너의 문제지 차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힘겹하고 '앙스럽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있다. 제네시스 쿠페는 젊은 사람이 선호하다 보니 운전 습관이 거친 운전자가 많은 것 같다.**

**튜닝을 많이 했는데, 연비는 어떤가?**  
 사실 순정 상태에서는 시내 주행에 연비가 5~6km/L 나오는 것 같다. 그런데 내 차는 슈퍼차저를 달아서 시내 주행 시 4km/L 정도 나온다. 제원상의 평균 연비는 9.2km/L다.

**슈퍼차저를 달면 속도는 얼마나 나오나?**

슈퍼차저를 장착하면 속도가 300km/h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은 268km/h까지만 밟아봤다. 물론 일반도로에서 그렇게 밟은 건 아니다. 난 규정 속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전에는 코란도를 몰았는데, SUV에서 스포츠카로 차종을 바꾼 이유는 뭔가?**  
 출력에 대한 욕망이다. 그리고 디자인도 참 잘 빠졌잖아.

**제네시스 쿠페의 라이벌은?**  
 닛산 370Z라고 본다. 출력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코너링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욕심 같아서는 BMW M3를 라이벌로 꼽고 싶지만 욕 먹을 것 같으니 못 들은 걸로 해달라.

**제네시스 쿠페는 어떤 사람을 위한 자동차인가?**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즐길 줄 아는 멋진 남자를 위한 차다.

**달리는 걸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셔킷도 타 봤을 것 같다.**  
 2010년에 영암 셔킷을 타 봤다. 자동차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곳이 셔킷인데, 그때 출력이 조금 불만족스러워서 슈퍼차저를 달게 됐다.

**당신이 제네시스 쿠페 개발자라면 어느 부분을 개선하고 싶나?**  
 일단은 사륜으로 개선하고 싶다. 물론 사륜을 적용하면 운동 성능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 대신에 겨울을 편하게 날 수 있을 것 같다. 제네시스 쿠페는 후륜이라 겨울에 쥐악이다.



구두 슈즈원



### TUNING POINT

HKS 슈퍼차저 볼트온킷 / 500마력 대응 인터쿨러 / HKS 오픈 흡기: 약 800만 원  
서킷을 달려보고 부족한 면이 느껴져 퍼포먼스를 많이 향상시키고 싶었다. 출력은 335마력, 토크는 40kg.m까지 향상시켰다. 이제는 내가 가고자 하는 타이밍에 가고자 하는 곳까지 나를 데려다줄 수 있다.

나도 MAXIM  
광팬이야



### 자동차 토탈 케어샵 아우토티러스가 추천하는 봄철 차량 관리 TIP



**3 겨울철에 사용한 스노우 타이어 교체하기**  
겨울에 사용한 스노타이어는 눈이 내리지 않을 때에는 효과가 커녕 단점이 더 많다. 연비 효율성과 차량의 운동 성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레이디얼 타이어 (고속 주행용 타이어)로 짝새 교체해야 한다.



**1 염화칼슘으로 인한 부식 방지 세차**  
제설 작업에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도로 위 결빙이나 눈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차에는 큰ダメージ를 입힌다. 고압의 물이나 스팀으로 세차하자.



**2 겨우내 멈춰있던 에어컨 필터 점검하기**  
겨울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가득 낀다. 이런 먼지는 악취를 동반하니 여름이 오기 전에 점검해야 한다.



**4 배터리 체크하기**  
낮은 온도에서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방전이 잦았던 차량이라면 가까운 정비소를 찾아서 배터리 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특히 터미널(배터리와 엔진의 연결부) 부근에 부식이 있다면 꼭 점검을 받아야 한다.



**5 혹사당한 와이퍼 체크하기**  
앞 유리가 얼어 있는 상태에서 와이퍼를 작동하면 와이퍼의 고무 부분에 경화나 손상이 생긴다. 따라서 봄철에는 와이퍼를 반드시 점검해서 다가오는 장마철에 와이퍼 효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This is My Car**

맥시 스태프  
항시 대기



오너드라이버 독자를 위한 특급 이벤트는 계속된다. MAXIM 화보로 당신의 애마에게 지상 최고의 호강을 시켜줘라!

**“타 본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는 뭐예요?”**

지난 5년간 수십 종의 신차를 시승해 온 MAXIM의 자동차 전문 에디터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바로 ‘내 차’입니다.

배기량, 최고속도, 마력 등... 수많은 기준을 놓고 서로 최고의 차라며 떠들어대지만 ‘내 차’라는 특별한 존재 앞에선 모두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다. 나와 함께 울고 웃고, 수많은 추억을 담고 달리는 ‘내 차’. 심지어 나를 먹여살리는 것도 ‘내 차’ 뿐이니까. 이 화보의 주인공은 어느 자동차 잡지처럼, 자동차 회사의 신차 홍보를 위해 제공된 ‘남의 차’가 아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실 새 없이 달려준 바로 ‘당신의 차’다.

**MISS MAXIM을 만나다!**

잡지로만 만났던 미스맥시를 양팔에 끼고 잊을 수 없는 기념 촬영을! 간직해 뒀다가 아들에게 보여줘라.

**당신의 차를 MAXIM 화보에!**

레이싱걸을 거느린 모터쇼 슈퍼카처럼! MAXIM에 영원히 남겨주마.

**당신의 자동차를 전국에 뽐내라!**

튜닝하고 꾸민 당신의 자동차를 자랑해라!

**이게 정말 내 차 맞아?!**

최고 수준의 MAXIM 포토그래퍼, 조명팀, 에디터가 당신의 차를 멋진 화보로 남긴다!

**덤으로 1년 정기 구독까지!**

차가 공짜 구독 혜택도 안겨준다. 당신의 애마가 실린 호가 MAXIM 정기 구독 첫 권!

**응도 요령**

- 당신의 자동차를 직접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차종(모델명)/ 구입연도도 적어라.
- 메일 보낼 곳: [event@maximkorea.net](mailto:event@maximkorea.net)

**당첨 확률을 높이는 Tip**

- 당신 차에 얽힌 재미진 사연을 적으면 더 유리하다.
- 양전한 차보다는 당신만의 개성으로 튜닝한 차가 더 유리하다. 갓 뺏은 새 차라면 튜닝 안 해도 된다.
- 같은 차를 모는 동호회 친구가 있다면 함께 신청해도 좋다.

### 이달의 결다리 모터 뉴스

토크니, 마력이니 관심 없는 사람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자동차 핫 이슈.



콜벳을 집어삼키는 싱크홀



#### → 사망차 명단

- 1962 Black Corvette
- 1984 PPG Pace Car for the Indy 500
- 1992 White 1 Millionth-built Corvette
- 1993 Ruby red 40th Anniversary Corvette
- 1993 ZR1 Spyder
- 2001 Mallett Hammer Z06 Corvette, a One-off Tuner Model
- 2009 White 1,5 Millionth-built Corvette.
- 2009 ZR1 Blue Devil



#### 1 구멍과 함께 사라지다

오호통재래! 미국의 대표적인

머슬카 웨보레 콜벳 광팬이라면 눈물을 흘리며 애도해야 할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월 13일, 미국 콜벳 박물관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며 큰 웅덩이가 생기는 싱크홀(sinkhole) 현상이 일어난 것. 콜벳을 생산하는 이 지역은 원래 지반이 약해 싱크홀이 자주 생긴다고. 싱크홀의 크기는 깊이 8~10m, 지름 약 12m 정도였고, 그 박물관에 전시된 콜벳 8대를 그대로 집어삼키기 충분했다. 애인과 처음 1박2일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마법에 걸렸다고 말하면 이런 기본일까? 콜벳 박물관은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아 오는 9월에 '2014 코벳 캐러밴' 국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게다가 하필 구멍에 자유낙하한 불쌍한 콜벳들은 콜벳의 성장 과정과 인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한 몸들이었다. 아무튼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빌도록 하자.

#### 2 3억 5000만 원짜리 홀리! 데이비슨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로 받았다가 기부하여 경매에 부처진 할리데이비슨 바이크가 감정가의 20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돼 '홀리 데이비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난 2월 6일, 파리의 그랑 팔레 경매장에서 교황이 기부한 할리데이비슨 '1585cc 다이나 슈퍼 글라이드커스텀'이 약 3억 5천 2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바이크는 할리데이비슨이 지난해 6월 창립 110주년을 맞아 교황에게 속도 110주년을 맞아 교황에게 선물한 것으로 연료통에는 교황의 사인이 새겨져있다. 이 오토바이를 기증받은 자선단체 '카리타스 로마'는 판매수익을 빈민 급식시설 공사에 사용하기로 밝혔다. 그밖에도 할리데이비슨이 오토바이와 함께 교황에게 선물한 재킷은 8,400만 원에 낙찰됐다. 그 재킷 살 돈이면 이번엔 여섯 대를 살 수 있어...

#### 3 개념 충만한 웨어러블 바이크

구글 글래스와 아이워치, 그리고 갤럭시 기어와 같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유행하고 있는 요즘, 이에 뒤질세라 입는 바이크까지 등장했다. 웨어러블 바이크 'XOR - Exoskeleton Rider'의 콘셉트 디자인은 인도의 디자인 학생들의 작품.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전거는 전기 배터리의 파워로 작동되며, 양손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컨트롤러를 통해 방향과 속도 등을 조종할 수 있다. 또한 이 웨어러블 바이크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대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개념 충만한 녀석이다. XOR을 디자인한 비발라자판은 영화 <아이언 맨>과 <로보캅>을 보고 이 같은 바이크를 만들어야겠다는 영감을 얻었다고. 이 친구한테 <세계>를 보여줬다면 색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줬을 텐데... 아쉽네.

### 2014 시카고 오토쇼에 등장한 국위 선양 국산 자동차



#### 현대 2014 제네시스

미국 자동차 매체 <카엔드라이버>가 선정한 '2014 시카고 오토쇼에서 주목해야 할 10대 차'. 2014 디트로이트모터쇼에서 미국 시장에 첫 선을 보였으며 2014 시카고모터쇼를 통해 미국 동부에 처음 소개됐다.



#### 기아 니로

<USA투데이>가 선정한 '2014 시카고 오토쇼에서 꼭 봐야 할 3대 자동차'. 지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모터쇼에서 공개하려 했으나 차량 고장으로 불발된 바 있다.



#### 현대 벨로스터 리플렉스 에디션

2014 시카고 오토쇼에서 처음 공개된 벨로스터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 북미 시장에서 3,000대만 한정 판매된다.



#### 기아 소울EV

미국 <야후 오토스>가 선정한 '2014 시카고 오토쇼에서 주목받을 그린카'. 2014 시카고 오토쇼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 Motor news

## 완벽 변신, 더 뉴 아반떼 튜익스(TUIX) 에디션 출시

더 역동적이고 날렵해진 라인이 돋보이는

더 뉴 아반떼 튜익스 에디션 바디킷을 만나보자. 세련된 디자인의 스커트는 차체 하단부에 흐르는 공기량을 줄이고 타이어 접지력을 높여 차의 주행 성능을 높인다. 또 앞바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캘리퍼는 강렬한 빨강색이라 더욱 액티브하고 개성있다. 그

외의 디테일한 부분 역시 여러 색상과 디자인을 제공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켰다. 차량 구매 시 추가 주문하거나, 이미 구매한 차량은 현대 자동차 정비망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튜익스... 갑자기 초콜릿 땡기네.

바디킷 750,000~850,000원, 17인치 다크 그레이힐 400,000~900,000원

17인치 반광 블랙 크롬 휠 600,000~1,100,000원, 캘리퍼 400,000원 / 현대자동차(www.hyundai.com)



THE NEW BMW R 1200 GS ADVENTURE  
THE NEW BMW R 1200 RT  
BMW MOTORRAD MEDIA LAUNCH 2014

## BMW NEW R 1200 GS 어드벤처, NEW R 1200 RT

최고의 모터사이클로 자리매김한 R 1200 GS와 연인과의 편안한 여행을 위한 R 1200 RT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BMW NEW R 1200 GS 어드벤처는 관 모양의 강철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자갈길과 흙길에서도 거침없는 주행이 가능하다. BMW NEW R 1200 RT는 안락한 여행을 위해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키가 작은 운전자들도 쉽게 탈 수 있다. 두 모델 모두 최고 출력 125마력의 힘은 기본이다. 뒷자리 그녀는 당신의 능력에 따른 옵션이다!

BMW NEW R 1200 GS 어드벤처 3,190만 원, BMW NEW R 1200 RT 2,910만 원  
BMW Motorrad(www.bmwmotorrad.co.kr)



## 내 가족을 위한 자동차, All New 오딧세이 출시

현대코리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자랑하는 패밀리카 All New 오딧세이를 출시한다. 사각 지역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레인 와이치 시스템과 타이어 공기압 저하를 확인하는 TPMS 기능 등 다양한 안전 성능을 탑재했다. 또 All New 오딧세이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 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 등급인 TOP SAFETY PICK+를 받은 최초의 미니밴이다. All New 오딧세이의 넉넉한 승차와 적재 공간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떠나보자. 맥주랑 고기는 챙겼고... 으악! 케빈을 또 두고 왔어!

5,190만 원 / 현대코리아(www.hondakorea.co.kr)



## 렉서스 하이브리드 전용 해치백 CT 200h, 세련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다!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 해치백 CT 200h가 4월 2일 더 예쁜 모습으로 단장하고 국내에 들어온다. 렉서스만의 특징인 스피들 그릴과 후면부의 날렵한 라인 그리고 두 가지 색깔을 매치한 투톤 컬러 디자인을 더해 우아하고 세련된 멋을 잡았다. 또 다양한 편의 장치와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을 통해 젊은 고객들에게 어필할 예정이다. 18.1km/L의 우수한 복합 연비는 CT 200h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성형 미인이 한국에서 얼마나 먹힐지 주목된다.

가격 미정 / 렉서스(www.lexus.co.kr)



## 가벼워진 가격에 다양해진 피아트 친퀘첸토

이탈리아의 세련된 감성을 담은 피아트가 국내 출몰 1주년을 기념해 모든 모델의 가격을 17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한다. 2월에는 친퀘첸토와 프리몬트 구입 시 선수금을 받지 않는 선수금 제로 프로모션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더욱 화려해진 외관의 친퀘첸토 이탈리아(500 Italia) 스페셜과 오리지널 모델인 누오바 친퀘첸토의 복고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친퀘첸토 레트로(500 Retro) 특별판이 출시되어 다양한 친퀘첸토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왜 FIAT는 연중 내내 세일 하는 것 같지?! 기본 탓일거야...

500 POP 2,270만 원, 500 Lounge 2,570만 원

500C 3,130만 원, 프리몬트 4,490만 원 / FIAT(www.fiat.co.kr)

**Motor** / **Hot Girl**



# THE HOT ONE

PAULINA GRETZKY

NHL(북미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 최고의 레전드 웨인 그레츠키의 딸이자 셀카 여왕 폴리나 그레츠키가 MAXIM을 찾았다. 오늘은 셀카 안 찍어도 돼. 우리가 섹시하게 찍어드릴게.

BY STEPHANIE RADVAN PHOTOGRAPH EMILY SHUR



그레츠키라는 이름을 들으면 당신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 아이스하키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웨인 그레츠키일 것이다. ESPN과 CNN 설문에서 조던을 크게 따돌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운동 선수로 뽑혔으며, 'Great One'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가 딸에게 전세를 역전당했다.

2011년, 그의 딸 폴리나 그레츠키가 짧은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덕분에 아버지보다 더 많은 유명세를 치렀으니 말이다. 자, 그녀가 트윗을 잠깐 놓고 MAXIM을 뜨겁게 데우러 왔다. 그것도 섹시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슈퍼카 맥라렌 12C 스파이더를 대동하고 말이다.



# Motor

Hot Girl

“

I've definitely been nice, with  
just a sprinkle of naughty.

저는 정숙한 여자에요.  
야한 걸 살짝 끼얹었을 뿐이죠.

”





## PAULINA GRETZKY

폴리나 그레츠키

출생 1988년 12월 19일 (미국)

가족 아버지 웨인 그레츠키, 어머니 자넷 존스  
약혼자 PGA 선수 더스틴 존슨

**MAXIM 화보 촬영을 축하한다! 이제 당신도 명실공히 섹시스타 반열에 올랐다.**

무척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번 MAXIM 촬영은 저에게 도전이기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자동차 맥라렌과 함께 서 있어야 하다니! 차 옆에서 꾸구리처럼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자동차나 기어를 좋아하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형제가 셋이나 되고, 심지어 엄마와 여동생도 윌가닥이니까요. 그런데 우린 모두 기어보다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래도 멋진 자동차 옆에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얼마 전, PGA 골프 스타 더스틴 존슨과 약혼했다. 아이스하키가 아닌 다른 종류의 운동 선수를 데려왔는데, 아버지 그레츠키의 반응은 어땠나? 대한영? 아님 실망?**

좋아하시던데요? 아버지는 아이스하키 선수지만 골프에도 환장해요. 둘 다 비슷한 막대기를 사용하잖아요. 확실히 그게 좀 먹힌 것 같아요.

**아버지의 아이스하키와 약혼자의 골프 중 어디에 더 빠져있나?**

열두 살 때부터 골프를 쳤어요.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 필드에서 홀을 돌 정도로 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관전하는 걸 좋아해요. 전 여전히 열렬한 아이스하키 팬이에요. 어느 도시든 아이스하키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도시에 제가 있다면, 아마 경기장에서 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전 아이스하키와 함께 자랐어요. 아버지의 팀이었던 L.A. 킹스의 경기와 1992년 올림픽에서 보여준 경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뿌리는 캐나다다.**

아버지의 고향 캐나다다 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이지요. 물론 전 미국인이고, 어릴 때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지만요. 요즘엔 가족이 있는 L.A.와 약혼자가 있는 플로리다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어요.

**왜 맨날 SNS에 비키니 사진만 올리는지 좀 알 것 같다. 일부러 더운 곳만 돌아 다니는 거 아닌가?**

정확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은 제가 트위터에 수영복 사진을 올리는 데 불쾌감을 느껴요.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전 제가 책을 읽는 모습의 사진은 트위터에 올리진 않아요. 소셜 네트워크는 재미있게 즐기라고 있는 거잖아요? 즐거운 인생을 추억하기 위한 사진을 올리는 곳이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수위가 낮아진 당신의 사진들을 향한 불만 역시 온라인에서 쏟아지고 있다.**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언제나 인터넷에서 불만을 터뜨릴 만한 주제를 찾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번 저의 MAXIM 화보를 본다면 분명 행복해질 것이라 확신해요. 전 제 인생을 살 뿐이에요. 별로 그런 걸 고민하고 싶진 않아요. 제 가슴을 터트릴 스웨터로 모두 가려버린 사진이 제 마음에 쏙 든다면, 전 그 사진을 트위터에 올릴 거예요. 간단하죠?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은 독자들에게 팁 좀 준다면?**

글쎄... 제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를 많이 만드는 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 소셜 네트워크 친구들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달라고 부탁하곤 해요. 그렇게 하면 제 다른 친구들과 친구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소셜 네트워크 친구들은 거의 다 남자고, 그 분들이 서로 친구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사실 전 소셜 네트워크에 여자 친구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소셜 네트워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근황을 좀 알려 달라.**

원래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은 자주 못 하고 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은 계속 약혼자 더스틴과 보냈으니까요. 아, 오늘은 MAXIM 화보 촬영이 끝나자마자 동생 생일 파티를 위해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에요.

**마지막 질문이다. 당신은 외설적인 여자인가? 정숙한 여자인가?**

원래 전 정숙한 여자지만 오늘은 야시시한 걸 살짝 끼었죠. 이런 여자, 상당히 괜찮지 않나요?

# ICON

## MAXIM이 한 번 만나 보겠습니다. 이영돈 PD



그는 '좋아하는 것'은 먹어 봐야 하고, '알고 싶은 것'은 파고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진짜 수컷이었다. BY 조웅재 PHOTOGRAPH YuD

수트와 타이 아르코발레노  
셔츠 제나비테일러

참 좋아하는  
인터뷰!





**반갑다. MAXIM과 촬영한 소감은 어떤가?**

다른 잡지에서 하는 촬영 혹은 인터뷰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촬영 아이디어도 뭔가 색다르고 기분이 좋았다.

**의외로 흔쾌히 OK를 해서 우리도 놀랐다.**

워낙 호기심이 많다. 내 이미지와는 굉장히 상반되지만 MAXIM이라는 잡지가 궁금하기도 했다.

**스케줄이 빡빡하던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일단 회사 임원 겸 PD를 하고 있으니 바쁘긴 하다. 그래도 역시 난 PD가 적성에 맞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데, 직책이 높아지니 바빠서 잘 안 된다.

**채널 A 상무님이 아직도 PD일부터 프로그램 진행까지 맡고 있다. 그럴 짬밥이 아닐 텐데?**

'당연한 것'은 없다. PD는 늘 현장에 있고 임원은 책상머리에만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은가. '새로운 형태의 임원 스타일을 제시한다'고 표현하면 되려나?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바쁘다 보니 쉽지 않다(웃음).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도 당신 손에서 나왔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마이더스의 손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직접 제작했다. <추적 60분>도 내가 CP(관리 프로듀서)로 책임자 역할을 한 건데, 내가 워낙 현장 스타일이라 후배 PD들과 아이템 결정 등 기획 단계까지 함께 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흑역사 중 하나인 <박중훈 쇼>는...**

하...(웃음) 일단 변명을 좀 하자면, 원래는 '퍼스널리티 토크쇼'를 만들고 싶었다. 카리스마 있는 진행자 한 명이 한 게스트와 1대1로 진행하는 정통 토크쇼 말이다. 전에 내가 SBS에서 만든 <주병진 쇼> 같은... "MC를 누가 하느냐?"는 질문에 떠오른 인물이 박중훈이었다.

**당대 최고의 MC 유재석이나 강호동을 버리고 충무로에서 MC를 데려오다니 대담하다!**

고민이 많았다. '과연 유재석이나 강호동이 게스트 속 깊은 이야기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제작자 입장에서 'NO'라고 생각했다. 제이 레노, 데이비드 레터맨 같은 진행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섭외한 건데 잘 안 됐다. 이걸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통 토크쇼 진행자를 키우지 못한 우리 방송계 전체가 반성할 문제다.

**그런 진행자 감이 국내엔 전혀 없는 건가?**

정통 토크쇼를 진행하려면 지성과 순발력이 필요한데, 둘 다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똑똑한 사람에게 드립을 가르치거나, 말뭉치 되는 사람에게 지성을 심어줘야 하는데 요즘 어느 연예인 소속사가 그런 걸 하나. 예능 진행자들 대부분은 대본에 의존한다. 그나마 신동엽 정도는 나중에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ICON

행커치프와 타이 아르코발레노  
셔츠 제나비테일러  
프라이팬 테팔



**이영돈** →

출생 1956년 9월 22일(음력)  
신체 171cm / 73kg

소속 채널A(상무)

시식 이력 바퀴벌레 튀김, 귀뚜라미 쿠키,  
사마귀, 3개월 된 햄버거, MSG 멸치,  
중국산 묵은지, 병든 돼지 바비큐,  
불량 새우젓, 군대 짬밥, 쓰레기 고기,  
인산염에 불린 새우, 중금속 장어탕 등등...

토크쇼를 만들고 싶어했지만, 히트시킨 프로그램은  
**최다 고발성 프로그램이다. 당신 성향인가?**  
 맞다. 추리를, 퍼즐처럼 감춰진 걸 까발리는 게 좋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 번 먹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작년 최고의 유행어다. 이젠 어떤 의도였나?  
 의도라니? 그냥 내 말투대! 아마 신동엽이 SNL에서  
 ‘이영돈 PD’ 연기를 한 덕에 화제가 된 것 같다. 나는  
 음식을 먹는데, 동업자는 여자를 먹는다잖아(웃음).

SNL쪽에서도 당신을 섭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지?  
 개인적으로는 나가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말리더라.  
 MAXIM이랑은 또 다른 얘기다. 창의적이고 재미있고  
 색수업한 건 좋은데, SNL의 ‘이영돈PD’는 완전  
 노골적으로 여자를 먹으려 하잖아. 솔직히 나가고는  
 싫지만 고민이 없진 않다. 사람들이 내 신뢰성  
 있는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런 곳에 나가서  
 이미지를 깨버리면 앞으로 내 프로그램의 신뢰성도  
 깨지는 게 아닐까 두려운 거다.

〈먹거리 X-파일〉을 보면 밥 사먹기가 무섭다는  
 의견이 많다. 정작 본인은 어떤가?

덕치는 대로 잘 먹는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식을  
 워낙 잘 먹었다. 멸치, 미역 같은 수산물엔 아직도  
 사족을 못 쓴다. 이런 걸 소개해야겠다 싶어서 만든  
 게 〈먹거리 X-파일〉이다. ‘가공되지 않은 건강식’을  
 시청자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말이다.

하지만 네티즌의 디스를 피할할 순 없었다. ‘MSG를  
 쓰면 다 나쁜 식당이냐’는 얘기가 많은데?

내가 말하려는 건 “MSG가 몸에 나쁘다”가 아니다.  
 음식을 한 그릇 만들려면 정성이 들어가는 법이다.  
 하지만 MSG는 맛을 왜곡시켜 노력 없이도 맛을  
 낸다. 비싼 음식에 MSG가 들어가는 건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얘기다. 정성들여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외면 받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게 이 방송의 본래  
 목적이다.

안 가리고 잘 먹는다는 당신도 방송에 나온 음식들 중  
 진짜 못 먹겠다 싶었던 음식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통돼지 바비큐. 원래 어린 돼지로 만드는 건데, 농가  
 입장에서 어린 돼지를 싼 값에 파는 건 큰 손해다.  
 그래서 병든 돼지나 암 걸린 돼지 등을 싼 값에  
 업자에게 넘기는데... 아, 그건 도저히 못 먹겠더라.

벌레라고 얘기할 줄 알았다.

맞아! 방송 중에 귀뚜라미, 말뚱, 바퀴벌레를 먹었는데  
 나쁘지 않았다. 귀뚜라미는 정말 맛있다. 말려서  
 술안주로 먹어도 좋겠다. 슈퍼 밀웬도 고소하다.

바퀴벌레 맛이 가장 궁금하다. 엄지손가락만 한 걸  
 우적우적 씹어 먹었잖아!

아... 그건 먹기 싫었는데,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웃음). 튀겨 먹어서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다. 문제는 다리가 길어! 그게 자꾸 목에서  
 걸리더라. 집혀 있어서 몰랐는데, 귀뚜라미보다 더  
 다리가 길다. 여러 번 꺾꺾했다. 날개는 가늘어서 잘  
 안 씹힌다. 사마귀도 먹었는데 그건 더 길고(웃음).

혼자 먹었나? 스태프들이랑 나눠 먹지 그랬나!

하도 흥측해서 권해도 절대 안 먹더라. 인상 찡그리고  
 정색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어디 가서 밥 사먹으면 식당 주인이 엄청 경계하겠다.

아주 비상이 걸리지(웃음). 예약을 하면 어떤 곳에서는  
 그 이영돈이냐며 다시 전화가 온다. 주방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메뉴도 신경 쓸 테니 다음에 오라며.

당신과 같이 가면 더 맛있고 깔끔한 음식이 나오나?

실험을 해 봤다. 스태프랑 복어 집에서 테이블을 따로  
 잡고 각각 복국을 시켰더니 내 쪽이 복어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부위도 더 좋고 MSG도 덜  
 넣었는지 맛이 달랐다(웃음). 그래서 주인을 불러다  
 물어 보니 “신경을 좀 썼죠”라고 하더라. 알고 보니  
 내 것은 베테랑 주방장이, 스태프 것은 막내가 만든  
 거였다니?

“

원래 미친 놈들이  
 성공하는 법이다.

”

민중의 짓가락 같은 건가? 어딜 가면 당신이랑 함께  
 가면 본전 이상은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비싼 곳뿐이 아니다. 거제도 외진 곳에 있는  
 튀김집에서 치킨을 시킨 적이 있었다. 사장님이  
 팬이라며 엄청 반갑게 맞았는데 아니, 20분 넘도록  
 안 나오더라고. 주방에 가 보니 기름을 다 갈고 있는  
 거대! 어유, 새 기름으로 튀겼는데 조금 감동이었다.

고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수나 다름없다.  
 밥길이가 무섭진 않은가?

예전에 영생교 교주의 암매장 살인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었다. 교주가 교단을 이탈하려는 자 20명  
 가량을 파문은 사건인데, 방송 나가고 나와 부장 편사  
 그리고 구형 검사 모두 신변 보호를 받았다. 그때  
 영생교에서 처단조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들었지.

〈그것이 알고 싶다〉 시절 같은데... 설마 최근에도?

얼마 전 집에서 걸어 나오다가 괴한들에게 쫓긴 적이  
 있었다. 형님이 보자고 하면서 팔짱을 딱 끼는데, 앞에  
 있는 봉고차를 보니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나? 내가 당신이었다면 조금  
 지렸을 거다.

근데 알고보니 그게 〈젠틀맨〉 스태프들이 만든  
 몰카였다. 봉고차가 열리니까 카메라가 딱 하고  
 나오는데... 아, 진짜 패죽일 뻔 했다. 실었다는  
 안도감도 느끼고, 웃긴 건 끌려가는 순간에도 ‘대체  
 누구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다.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을 하나씩 떠올리며(웃음).

당신을 ‘고발의 아이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탐사 보도’형 PD의 아이콘 정도가 아닐까. 분명 이  
 영역에선 혁혁한 업적을 쌓아왔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로, 1999년도에 간접 흡연을 다룬 다큐를 만들었다.  
 방영 다음 날부터 방송 3사에서 대대적인 사내 금연  
 캠페인에 들어갔지. 이젠 교과서적인 탐사 보도다.  
 아마 이게 요즘 실내금연법에 큰 영향을 끼쳤을 거다.

출연자의 적이 여기 있었군!

젊었을 땐 하루에 세 갑씩 피웠다. 끊은 지 벌써 20  
 년이지. 담배는 정말 역대급 미스테리다. 발암 물질이  
 들었다는 걸 알면서도 사서 피운다는 게 신기하다.  
 심지어 발암 물질 든 식품은 최다 수거하면서 담배는  
 합법적으로 판다. 아마 발암 물질 든 고등어 100마리  
 먹는 것보다 담배 한 갑 태우는 게 더 위험할 텐데.

실득력이 너무 강해서 반박을 못 하겠다. 기혼인  
 당신에게 요즘 맘에 드는 여자 연예인이 있는지  
 물어봐도 되려나?

그... 허허. 예를 들어 효린이나 강민경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 호리호리하고 마른 스타일보다는 선이 예쁜  
 여자를 보면 기분이 좋더라. 강민경은 그런데 참 예쁜  
 것 같다. 효린은 단... 탄탄한 느낌? 건강미 넘치는  
 여자라는 게 좋다는 얘기가.

보는 눈이 우리랑 잘 통하는 것 같다.

성공하는 프로그램에는 늘 생존과 번식처럼 본능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다. 먹거리도 생존이라는 본능에  
 가까운 자극 요소지. MAXIM 역시 번식(?)의 본능을  
 건드리는 가식 없는 잡지라는 점에서 마음에 든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남자란?

자성미와 섹시함을 가진 남자. 꼭 야성 넘치는 것만이  
 섹시한 건 아니다. 자성미가 가진 섹시함은 차원이  
 다른 섹시함이다.

전국 PD 지망생에게 좋은 PD가 되는 팁을 주시면?

창의성과 열정이 필요하다. 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안 된다. 창의성이 있으나 열정이 없으면 현실화에  
 문제가 있고, 열정만 있으면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 열정은 후천적일 수 있지만 창의성은 어느  
 정도 타고 나는 거라 세상을 뒤집어 보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모두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걸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원래 미친놈들이 성공하는  
 법이니까. ☹



# Over The Rainbow

Chottynnyoung





관능적이고 본능적인 섹시함으로 남심을  
녹이는 걸 그룹 레인보우 블랙. 그 중에서도  
MAXIM이 만난 메인보컬 **조현영**은 폭발적인  
가창력은 물론 귀여움과 섹시함을 아우르는  
매력으로 단연 돋보인다. 팀의 막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섹시한 몸매를 보노라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겠지.  
“오, 무지개 위를 걷는 것 같아!”  
BY 김희성 WORDS 박정욱 PHOTOGRAPH Zho



구두 슈즈원

조현영  
포텐 터졌던  
그날





**오늘 촬영 콘셉트는 어땠나?**

오늘 콘셉트는 레인보우 블랙 활동을 하면서 보여줬던 본능적이고 관능적인 색시와는 조금 다른 귀엽고 발랄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약간 어색했지만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난 얼굴이 발랄하고 귀여운 상이어서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렸나?

**귀여움과 색시함이 황금비율로 어우러진 환상의 조합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다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의상은 뭐였나?**

반짝반짝거리는 하늘색 의상이 멋있었다. 다른 의상들은 귀엽고,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의상이지만 사이버틱한 의상은 보기 힘들잖아. 평소에 내가 입을 수 없는 의상에 끌린다.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보고 전문 모델인 줄 알았다. 평소엔 색시한 포즈를 연습하니?**

지속 언니와 함께 방을 쓰는데, 가끔 지속 언니가 방에 없을 때, 심심하면 문을 닫아놓고 전신 거울을 보며 연습해 보곤 했다.

**얼마 전 '레인보우 블랙'의 굿바이 무대가 있었다. 활동 중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아깝게 2위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게 제일 아쉽다. 다음 앨범 활동 때는 반드시 1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레인보우 블랙 활동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나?**

아무래도 일곱 명이 다 같이 활동할 때는 언니들에게 물어가려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그런데 레인보우 블랙 활동을 하면서는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많이 했다. 네 명이 활동을 하니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더 커지더라. 그래서 일에 더 열중하고 집중할 수 있었다. 내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시간이었다.

**아직 해 보지 못했는데, 올해엔 꼭 해 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만약에 대비해 연기를 배우고 있다. 노는 언니 역할을 해 보고 싶다. 매니저 오빠가 그런 역할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다. 그렇다고 학창 시절에 일진이었던 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 달라. 난 짜구리였다. 광고도 찍고 싶다. 여자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화장품 광고를 찍고 싶다. 화장품 광고가 들어오기만 해준다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 광고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능은 MBC '우리 결혼했어요'가 딱

좋겠다. 파트너는 김수현 씨가 해줬으면 한다.(웃음)

**레인보우 완전체는 언제 다시 만나볼 수 있나?**

이제 유닛 활동이 끝나고 레인보우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앨범을 준비하면서 예능이나 연기, OST를 통해서도 팬들과 만나도록 하겠다. 레인보우의 앨범은 4월쯤 나올 것 같다.

**레인보우에서 가장 성적인 지식에 해박하다고 들었다. 그런 지식은 어디서 얻나?**

그건 다 멤버들이 날 놀리려고 과장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사실 성적인 지식이 아예 없진 않다. 오빠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털털했다. 생긴 거와는 달리 완전 남자애였다. 주변 친구들이 다 남자였고, 그 친구들은 날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내 앞에서 야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자주 주위 듣다 보니까 다른 언니들보다는 해박한 편이다.

**많은 19금 동영상에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다. 처음 아동을 본 건 언제인가?**

아동은 보지 않는다! 다 멤버들이 지어낸 말이다. 사실 TV에서 19금 영화를 틀어주면 혼자 몰래 보기는 한다. 그러다 걸린 것 같기도 하고..

“  
눈이 마주쳤을 때 강렬한 눈빛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느낌이 너무 섹시하다.  
”



서츠 데님앤서플라이  
랄프 로렌  
구두 슈즈원



억울하다면 복수할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 폭로의 시간이다. 음담패설이 가장 심한 멤버는 누구인가? 다 비슷하긴 한데, 우리 언니와 재경 언니가 제일 심하다. 나보다 훨씬 강하다. 거의 25금 수준?

그 애길 들으니 레인보우가 더 좋아진다! 그나저나 소자실에서 김수현으로 이상형이 바뀌었다고? 남자다운 사람. 나를 지켜주고 챙겨주는 스타일을 좋아한다. 내가 잘못하면 혼낼 줄 아는 남자! 아빠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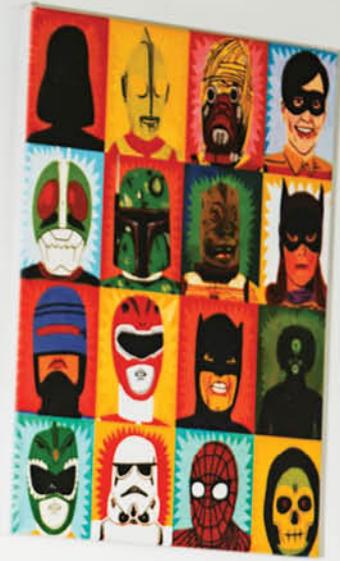
아이들 중에도 이상형이 있나? 빅뱅의 탑이 이상형에 제일 가깝다. 아직 친하진 않지만 너무 친해지고 싶다. 강렬한 눈빛이 너무 좋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먼저 고백하는 타입인가? 이상하게 내가 먼저 좋아해 본 적은 중학교 때 딱 한 번밖에 없다. 그때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서 좋아한다는 표현도 한번 제대로 못했다. 결국 사귀지도 못하고 끝났다. 그 이후로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은 없다. 고맙게도 내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같이 좋아해주더라.

애인이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데이트는? 놀이동산에 가고 싶다. 놀이동산을 좋아하는데, 2년 전 행사 때문에 간 걸 마지막으로 못 가고 있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놀이동산에 놀러간 적이 없다.

이번 밸런타인데이에 누군가에게 초콜릿을 줬나? 나도 누군가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초콜릿을 주고 싶은데, 아쉽게도 아직 그럴 수 있는 남자가 없다. 밸런타인데이 같이 쓸데없는 기념일은 누가 만들었는지 몰래! 그거 알고 있나?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다. 이번 밸런타인데이는 경건한 마음으로 보냈다.

평소에도 무대 의상처럼 섹시한 옷을 즐겨 입을 것 같다. 어떤 옷을 즐겨 입나? 평소 스케줄을 다닐 땐 무조건 갈아입기 편한 옷을 입는다. 오늘도 후드를 입고 왔는데 안에는 속옷밖에 없다. 후다닥 갈아입을 수 있어서 편하다. 어디 놀러 다닐 때는 귀엽고 발랄한 옷을 입는다. 섹시한 옷은 무대 위에서나 입지 평소에는 전혀 입지 않는다.





“  
레인보우에서  
내가 섹시 서열 1위다  
”



HAIR&MAKEUP 더 레드카펫(02-516-8502) VIDEO 김상수 LAYOUT 이상윤 ASSISTANT 김소윤 정혜민 전수진

필피 액세서라이즈  
구두 슈즈원



구두 슈즈원

**레인보우에서 섹시 서열 몇 위라고 생각하나?**  
당연히 내가 1등이지. 사실 우리 멤버들 모두 섹시함의 장르가 다르다. 나는 '큐트 섹시'를 맡고 있다.(웃음)

**큐트 섹시라면 귀엽고 섹시하다는 건데, 귀여운 이미지와 섹시한 이미지 중에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나?**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니 너무 힘들다. 그냥 귀여움과 섹시함을 아우르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귀여웠다가 순식간에 섹시해지는 그런 변신이 가능한 여자로 말이다.

**막내라서 장난기 많은 언니들이 자주 괴롭힐 것 같다. 누가 가장 심하게 괴롭히나?**

재경 언니네! 재경 언니가 자주 나를 놀린다. 짤다고 놀리고, 꼬맹이라고 놀리고, 내가 성적인 자식이 풍부하다고 방송에서 거짓말하고... 유연비어를 퍼뜨리고 다닌다! 심지어 내가 예쁘게 나온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 여지없이 못생겼다고 멘션을 던다.

**송곳니를 최고의 매력 포인트로 뽑았다. 사인에도 송곳니 문양을 그리던데, 송곳니 말고 다른 매력 포인트는 없나?**  
귀가 굉장히 예쁘다. 귀 끝이 풍긋 서 있어 요정 귀 같다고들 해주신다.

**지금 보니 정말 엘프 같다. 방금 머리를 쓸어 넘기고 귀를 보여줄 때 심장이 멎을 뻔했다. 다이어트 이후 점점 예뻐지는 것 같다.**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 많은 남자 분들이 내가 통통했을 때의 모습이 더 매력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다시 살을 찌워야 하나 생각도 해봤다. 그런데 다시 찌우는 것도 힘든 일이라 관두기로 했다.

**다이어트 비법을 조금만 소개해 달라.**

간단하다. 운동을 엄청 해야 한다. 난 줄넘기를 하루에 1,500회 했다. 그리고 쉬지 않고 30분 동안 출라후프를 돌렸다. 빨리 걷기도 도움이 많이 된다.

**당신과 함께 걷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

한강공원을 자주 걷는다. 잠원지구로 오시면 날 만날 수 있을 거다.

**Ok, 입력했다. 잠원지구. 그렇다면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어디인가?**

종아리와 등 라인이 예쁘다. 척추기립근이라고 하나? 등 한가운데가 일자로 움푹 파여서 뒤통이 예쁘다.

**에이젝스의 '미처가' 뮤직비디오에서 간호사로 변신했다. 많은 남성들이 그걸 보고 정말로 미처갔다. 간호사 말고 또 해보고 싶은 코스프레가 있나? 당신은 어떤 게 좋나?**

**난 경찰이 좋다! 하얏...  
그럼 경찰로 하는 걸로!**

**<탐 기어 코리아 5>에 출연해서 운전 실력을 뽐낸 바 있다. 평소 운전하는 걸 좋아하나?**

아직 차가 없어서 운전은 자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차를 좋아한다. 특히 벤츠 G바겐이나 레인지로버 같이 각지고 육중한 차를 좋아한다. 단단해 보이고 멋있잖아!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보자. 섹시한 남자라면 필수로 갖춰야 할 조건은 뭐가 있나?**

탄탄한 엉덩이...? 아니 하체라고 적어 달라.

**굳이 신체 부위를 말하라는 건 아니었다. 그런 거 있잖나. 자기 일에 열중하는 남자가 섹시하다거나 뭐 그런 거.**

아! 그런 걸 말하는 거였나? 거 참. 민망하네... 난 눈이 마주쳤을 때 강렬한 눈빛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느낌이 너무 섹시하더라고.

**지금부터 이글거리는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려 했는데, 질문이 다 떨어져버렸다. 젠장! 인연이라면 한강에서 볼 수 있겠지?**



→  
**조현영**

출생: 1991년 8월 11일  
신체: 160cm, 41kg  
데뷔: 2009년 레인보우  
EP 앨범 〈Gossip Girl〉

**내 인생의 영화:**  
릭 베송 감독의 〈제5원소〉  
를 열 번도 넘게 봤다.  
**내 인생의 음악:**  
리틀 믹스의 'DNA'



# 당신이 호르몬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이유

 당신은 지금 왜 <마리끌레르>가 아닌 <MAXIM>을 입고 있는가? 당신의 얼굴이 한때 여드름밭이 되어버린 이유는, 혹은 언젠가 대머리가 될 거라는 공포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모두 여성 호르몬, 즉 안드로겐 또는 남성호르몬이라 부르는 물질 때문이다.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고추 달린 여자



 호르몬이란 일종의 명령서, 혹은 전령사이다. 인체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연락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호르몬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단것이나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해 혈당이 올라가면 체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방출하고 간은 인슐린이 전달한 명령서에 의해 당을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바꾸어 저장한다. 반대의 경우, 즉 영양물질의 섭취가 한동안 끊어져 혈중 포도당 농도가 계속 감소할 때는 체장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간에 축적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꿔 혈당을 높인다. 많은 호르몬이 이렇게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몸속의 모든 것이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도록 적절히 관리되는 것은 바로 호르몬에(그리고 신경계에) 제 기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호르몬이 내부적인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색스를 돕는 테스토스테론

저글링의 업그레이드 중에는 '항상된 아드레날린 분비샘'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 미네랄 100과 가스 100을 투자하면 저글링의 공격 속도가 대폭 업그레이드된다. 고등동물뿐 아니라 심지어는 지그 등 외계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사냥, 전투, 도망 등의 행위에는 언제나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관여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사권 지 얼마 안 돼 아직 잠자리를 한 적 없는 여자 친구와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사나우면서 무척 배가 고파 보이는 하이에나와 산기슭에서 마주쳤다고 가정하자. 당신의 동공은 확대되고, 심박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손과 발바닥과 겨드랑이에 땀이 차오를 것이다. 내장기관으로 가는 혈액이 차단되는 것과 동시에 근육과 뇌로 피가 몰리며 근력과 스피드가 폭발적으로 향상될 테고, 신경계가 활발하게 활동해 정확한 동작을 기민하게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드레날린의 역할이다. 이 물질은 신체의 향상성을 일시적으로 붓고시킨다. 당장 전투나 도망에 필요 없는 장기는 잠시 쉴 틈이 없고 그 덕분에 확보된 여분의 에너지를 뇌와 근육에 집중한다. 하이에나와 적대적으로 대면한 상황에서 아드레날린은 당신을 더 빨리, 더 안전한 방향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한다. 당신은 당신의 여자 친구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으며, 아마도 하이에나는 당신을 놓아주고 당신의 여자 친구를 섭취할 개연성이 크다. 당신에게

남성호르몬이 없다면 말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 당신의 고환은 빌어먹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을 사실상 평생 분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물질은 당신과 당신의 여자 친구가 하이에나를 만났을 때 당신더러 "여자 친구를 먼저 도망치게 하고 내가 대신 하이에나를 상대해"라는 명령을 내린다.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대부분 호르몬은 본체의 안녕을 위해 존재한다. 왜? '나'는 소중한니까. 그런데 이 남성호르몬이라는 높은 위기 상황에서 곁에 있는 이성을 위해 본체에 위험을 감수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왜일까? 만약 당신이 여자 친구를 먼저 보낸 후, 하이에나를 유인해 삼십육계 출행량에 성공해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치자. 당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자 친구와 재회했다. 그날 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렇다. 바로 이 때문이다. 모든 안드로겐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며 여드름과 대머리는 그 물질 군의 조그만 부작용일 뿐이다.

### 다만 호르몬을 탓하라

여기서 잠깐 리어나나 디캐프리오가 케이트 윈슬렛에게 보트를 양보하고 차가운 북대서양의 바닷물 속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어간 것은 남성호르몬보다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일 확률이 높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상대방을 위해 거룩하게 희생하는 상황, 이 대목에 작용하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은 이미 깊은 사랑에 빠진 개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희생정신을 이끌어낸다. 이것은 이미 생식행위를 마치고 수정란의 착상 단계에 도달한 두 개체가 2세를 위해 그리고 종족의 보존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만드는 물질이다. 하이에나에게 쫓기는 아직 안 한 남녀의 케이스와는 조금 다르다. 하이에나의 위협으로부터는 살아남을 확률이 꽤 높고 또 살아남는다면 엄청난 보상이 따를 개연성이 높으므로 남성호르몬이 "도박을 걸어 강하게 배팅해" 그래서 '응응응'을 '응응응'하게 해 버리는 거야"라고 본체를 자극하는 것이다. 미묘한 차이지만 헛갈리면 곤란하다. 남성호르몬은 생식 행위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를 위한 물질이고 옥시토신은 생식 행위 이후 2세의 보존을 위해 작용하는 호르몬이다. 인간 남성의 경우 옥시토신의 작용 기간은 한 상대에게 약 3년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3년이면 여성이 임신 후 출산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다. 남성은 옥시토신의 작용 기간만큼 철저히, 확실하게, 완벽하게 희생한다. 여성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남성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인체의 내부에 장착된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일 뿐이다. 대부분 남성은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여성에게 사랑을 느끼기 힘들다. 옥시토신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남자가 변심(變心)했다고 말하지만, 기술적으로 그것은 변심이 아니다. 마음은 그대로지만 몸이, 호르몬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변심이 아니라 변체(變體), 또는 변신(變身)이라고 하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같은 데 가서 전능하신 여호와께 따지는 수밖에 없다.

### 용기있는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

남성호르몬이 정신에 끼치는 가장 주요한 영향은 본체를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로 만든다는 것이다. 혈중 남성호르몬의 농도가 높은 사람, 즉 고환(정확히는 정소)의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리스크 테이커 성향이 강하다. 그런 사람은 하이에나를 만났을 때 여성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하이에나에게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응응할 기회를 노린다. 당신이 만약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여성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치자. 고백에 대한 상대방의 거절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이다. 고백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하지만 고통이 두려워 고백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오랫동안 솔로로 지내야 할 것이다. 매우, 매우, 매우,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거의 평생일 수도 있다. 당신의 문제는 무엇인가? 성격? 외모? 능력? 유머?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바로 남성호르몬이다.

필자는 정말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 후배를 한 명 알고 있다. 정상적인 아동을 보며 딸 잡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게이도 아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고백했다 끼이는 것을 너무 두려워서 지금껏 솔로다. 반대로 완전히 눌러놓은 만두같이 생겨서 능력도 별로 없고 유머도 유치하건만 상당히 괜찮은 여자를 많이 만나는 후배도 있다. 이 친구의 특징은 일단 만나면 되도록 빨리 고백을 한다는 데 있다. 못생긴 그 친구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까일 것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면 성공확률은 0%다. 여자 쪽에서 먼저 다가와 꼬이지 않는다면 영원히 솔로인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허접해도 고백을 하는 한 확률은 언제나 50 대 50이다. 하루에 여자 세 명을 만나 세 번씩 고백하고 한 달 열흘을 달리면 1%의 성공확률일지라도 한 명은 분명히 건진다. 리스크 테이커의 승리법은 이토록 명쾌하다. 거절의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면 외모나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쓸데가 없다. 이성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근원적 능력은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 성향인지도 모른다. 소극적인 당신은 자신의 외모나 능력, 유머, 패션 감각을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이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일지도 모른다.

1889년, 하버드 대학의 교수 브라운 시퀴드는 인체의 신비를 파헤치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내시들의 특징에 주목했다. 어릴 때 고향을 제거당한 내시들의 육체 능력이 대부분 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에 착안한 그는 '고환 속에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는 개와 기니피그의 고향에서 세 가지 시료를 추출했다. 첫 번째는 고향의 혈관에서 뽑아낸 혈액, 두 번째는 정액, 세 번째는 고향에서 짜낸 국물이었다. 시퀴드 교수는 각각을 약간의 물에 희석해 자신의 혈관에 주입했다. 당시 72세이던 그는 실험 전까지만 해도 일과를 마치고 나면 피로감을 많이 느꼈고, 몸을 움직이는 데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세 가지의 시료를 주사한 후 몇 시간씩 걸어 다녀도 피로를 느끼지 않았으며 계단을 뛰어오를 수 있을 만큼의 근력과 지구력을 회복했다. 그의 동료들은 시퀴드가 생명의 정수를 발견했다고

떠들어 됐다. 시퀴드가 알아낸 것은 바로 테스토스테론의 존재였다(그런데 불알을 발라버리면 남성성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고대의 누군가가 사실은 더 대단한 게 아닐까?).

그러나 시퀴드의 발견은 당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미국 각지에서 '생명의 정수'를 주제로 실험했지만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의 투약 결과와 다를 바가 없다는 설이 힘을 얻으면서 그의 발견은 그대로 묻혀버렸다. 이것을 다시 재조명한 건 20세기 초반이다. 시카고 대학의 프레드 코흐 교수가 소의 고향에서 추출한 물질로 거세한 닭의 2차 성징을 발현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시퀴드가 발견한 생명의 정수가 실존하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명명도 이 시기에 생겨났다.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탄생

1930년대 세계 의학계는 호르몬 전반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1935년 독일의 학자 아돌프 부테난트는 콜레스테롤을 화학적으로 처리해 테스토스테론을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신세탁(합성) 테스토스테론, 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탄생한 것이다. 1939년 노벨 평화상은 부테난트와 그의 동료에게 노벨 화학상을 수여했지만, 히틀러는 부테난트가 그 상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 노벨상을 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부테난트의 업적으로 남성호르몬 부족에 따른 질병은 대부분 정복되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스포츠계는 스테로이드 남용이라는 새로운 질병적 상황을 맞이한다.

근육의 크기가 커지고 더 강한 힘을 내는 과정은 카카로트나 베지터 등의 사이어인이 한계를 초월하는 원리와 동일하다.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근육을 구성하는 근섬유가 늘어나고 찢어진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테스토스테론이 작용해 근섬유를 복구하고 재생시키는데, 다음번과 같은 수준의 자극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가지 않도록 더 크고 더 튼튼하게 강화된다. 이렇게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변하는 과정을 단백질 동화 작용, 영어로는 아나볼릭리즘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란 '단백 동화 작용을 촉진하는 스테로이드'를 말한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테스토스테론은 몸속에서 거의 같은 기능을 한다.

즉 매우 빠른 속도로 단백질을 합성해 손상된 근육을 더욱 크고 강력하게 재생시키는 것이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은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소화한 이후 더 빨리 회복해 더욱더 강한 트레이닝을 견딜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사용자들에 비해 빠르게 근육량이 증가하고 파워가 상승한다. 게다가 앞서 설명한 정신적 기능, 즉 리스크에 대한 공포심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특히 스포츠에서 굉장한 실력을 발휘한다. 벤 존슨, 마크 맥과이어, 랜스 암스트롱, 알리스타 오브레임 등 스테로이드를 남용한 운동선수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페이지가 부족하다.

### 호르몬은 여자도 남자로 만든다

테스토스테론의 기능은 이게 다가 아니다. 애시턴 콜비라는 인물은 2011년까지 여성이었다. 외모도 썩 나쁘지 않던 그녀는 본인이 여자라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콜비는 본인을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성을 좋아했다. 2011년 3월, 콜비는 머리를 짧게 깎고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일주일도 지나자 콜비는 드디어 자신 본연의 기분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21일째가 되자 피부가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팔뚝에 근육이 볼기 시작했다. 70일째에는 목소리가 걸걸해졌고, 91일이 되자 턱선이 남성적으로 변했다.

121일째, 콜비의 입술 위에 수염 비슷한 것이 자라났다. 구레나룻도 생겼다. 165일째에는 턱수염이 자라기 시작했고 일통이 커졌다. 6개월 후에는 남자 옷이 아주 잘 어울리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11개월째에는 수유 기관 제거 수술을 받았다. 남성형 성기를 장착하는 수술까지 받으면 이제 콜비는 완전한 남자로 거듭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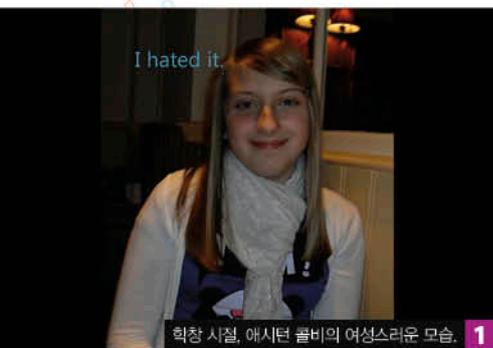
테스토스테론의 위력은 이 정도다. 여자도 남자로 만들어버린다. 콜비는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다. 여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여성의 모습 그대로 다른 여성을 만났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하기에 더 좋았겠지만, 뭐 할 수 없다. 그런데 남자를 좋아하는 헤테로섹슈얼이면서 남성호르몬을 사용하는 여성도 있다. 스포츠 우연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크리스티앙 '사이보그' 산투스를 들 수 있다. 그녀는 격투 판에서 통칭 '사이보그 형남'으로 불린다. 남성적 파이팅 스타일로 누구와 붙든 상대를 아주 못쓰게 만들어버린다. 그녀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가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되었다. 일설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호르몬을 사용할 경우, 음핵이 거대해진다고 알려졌다. 음핵이 귀두만큼 커진다는 말이다. 사이보그 형남은 기혼자인데, 그녀의 남편은 매일 밤 어떤 기분일까? 🍷

## 남성호르몬으로 마초남 되는 법

이제 호르몬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최근 UFC에서 화두는 TRT (Testosterone Replacement Therapy) 요법이다. 남성호르몬 치환 요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치환'이라는 괴이한 단어를 사용하니 무척 어려운 의술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다. 그냥 남성호르몬을 주사로 때려 붓는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이라고 보면 된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맞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얘기가. 오히려 더 쉽다. 이 요법을 받으려면, 즉 남성호르몬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의사의 처방전 하나만 있으면 된다. 연령별 평균치에 비해 혈중 남성호르몬 농도가 낮다는 의학적 소견만 있으면 당신도 테스토스테론을 살 수 있다. 주사제가 두려운가? 고농도 테스토스테론을 맞고 피부에 여드름이 폭발한다든지, 대머리가 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가? 현대 의학계는 그런 걱정이 있으면서 남성호르몬 증강 효과를 누리고 싶은 이들을 위해 심지어 젤 타입 신제품까지 출시했다. 안드로젤이라는 물건으로, 이 역시 의사의 처방전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아성이 있는데 도저히 고백을 못 하겠다면, 평소와 달리 터프한 매력으로 여성을 확 휘어잡고 싶다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은 안드로젤인지도 모른다. 성격, 능력, 유머감각은 돈 주고 살 수 없지만, 축복받은 21세기 남성은 돈으로 남성호르몬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학창 시절, 애시턴 콜비의 여성스러운 모습. 1



테스토스테론 주입을 막 시작할 무렵의 그녀. 2



호르몬 투약 6개월 째. 3



호르몬 투약 11개월 째, 그는 완전한 남자로 거듭났다. 4

Who's That Girl?

YOUNG  
and

BEAU-  
TIFUL

“아아, 이런 여자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그녀를 보고 남자들이 가장 많이 내뱉는  
탄식이다. '포스트 김태희를 넘보는 스물셋  
서울대학교 공대여신 최정문을 MAXIM이  
만났다. BY 손안나 PHOTOGRAPH YuD



얼룩말이  
되고  
싫어라





오늘 촬영 현장에서  
보니까 웃음이 참  
많은 것 같다.

원래 잘 웃는 편이에요. 썰렁한  
개그를 쳐도 예의상 웃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웃겨서 크게 웃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나보고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제일 나으니까  
웃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무슨 소리! 당신이 웃으니까  
남자 스태프들이 일제히 아빠  
미소 짓는 거 못 봤나?

그런가요? 남자들은 도도하고  
섹시한 여자를 좋아할 거로  
생각해서... 사실 저는 그런  
이미지랑은 거리가 멀거든요. 웃는  
걸 매력으로 봐주다니 감사합니다.

**MAXIM에서 섭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어땠나?**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MAXIM  
은 워낙 유명한 남성지이고, 섹시한  
언니들이 많이 나오는 잡지라서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재미있게 잘 끝난 것  
같아요.

«  
일룩말 인형 한사토이  
러그 러그마켓

»  
팔찌 액세서리이즈

# Who's That Girl?

## She Was In...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에 출연,  
5회 만에 탈락했지만 '서울대 공대 여신'  
이라는 강한 인상을 남기며 시청자의  
시선을 끌었다.



2007년, KBS 〈오천만의 일곱비밀〉에서  
고1을 가르치는 중3 과외 선생님이로  
등장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영재 어린이 선발대회에는 어쩌다가 나가게 된 건가?**  
어릴 때 집에서 어린이 신문을 받아 봤는데, 어느 날 영재 어린이 선발대회 공고가 뜬 거예요. 처음엔 오빠만 신청했는데, 그걸 보고 질투가 나서 엄마한테 자랑했어요. 나도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이큐 156이 나왔으니 부모님이 깜짝 놀랐겠다.**  
저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라고.(웃음) 엄마가 처음에는 너 같은 애는 보는 거 아니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최종 꿈이 방송 MC라고 들었다. 그런데 왜 방송 관련 학과가 아닌 공대에 진학한 건가?**  
사실 신방과는 상징적인 거니까요. 현장과의 차이도 크고, 공학을 아는 방송인도 한 명쯤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과학 같은 분야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앞으로 공학과 대중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나?**  
재미...있다고 말하면 너무 이상하게 들리려나?(웃음) 학기가 되면 과제가 너무 많아서 바쁘긴 하지만요. 이상하게 학과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자기 과목만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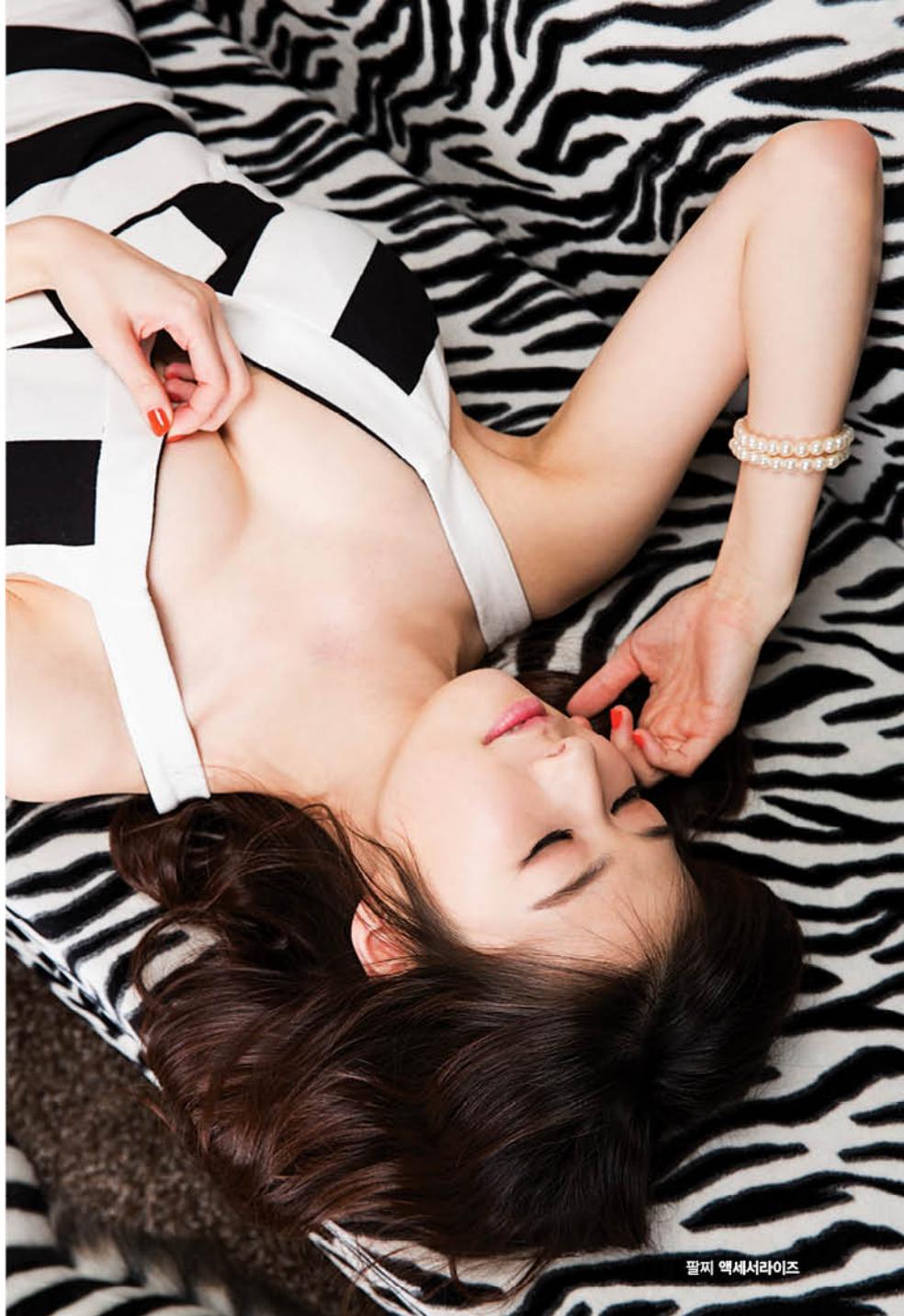
**글을 잘 쓰는 문과형 남자,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이과형 남자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둘 다 좋지만, 특히 수학을 잘하는 남자는 정말 멋있어 보여요.

**또 어떤 남자에게 끌리는지 말해 달라.**  
건강한 남자가 좋아요. '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활발하고 생기 넘치는 인상을 가진 그런 사람!

**이제 곧 3월 14일 화이트데이다.**  
사실 작년 화이트데이에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집에 가는데 길거리 모든 여자들이 사탕을 들고 있길래 서러워서 혼자 초파졸스 사 먹었어요. 올해는 꼭 받을 수 있기를♥

**<더 지니어스> 시즌1에서 내내 러브라인을 형성하던 최창엽의 뒤통수를 친 게 인상 깊었다.**  
사람들은 <지니어스>를 보면서 멤버들끼리 굉장히 끈끈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많이 약했어요.(웃음) 계다가 최창엽 씨는 그전부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김새가 있었거든요. 좀 더 믿었으면 둘 다 오래 살아 남았을까요?

**<지니어스>가 현실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배웠을 것 같다.**  
연륜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리지, 잘 모르지, 거기서 저는 완전 최약체였거든요.



팔찌 액세서리리즈

**얼마 전 시즌2에 깜짝 등장해서 '떡방'을 보여주던데...**

시즌1 때도 모니터를 하면서 "왜 나는 저기서 저렇게 먹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모습이 방송에 나갈 줄은 몰랐어요. 사실 녹화도 길고 제작진이 음식도 금방 치워버려서 있을 때 빨리 먹어야 해요.

**외모, 두뇌, 인기 이 셋 중에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음... 그냥 셋 다 가지면 안 되나요? 외모가 있으면 당연히 인기가 따라올 테고, 인기가 있으면 돈을 벌 것이고 그럼 외모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두뇌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두뇌를 선택할게요.

두뇌로 돈을 벌어서 외모를 가져온 다음에 인기를 얻어야지!

**서울대생다운 논리적인 답변 감사하다. 도대체 단점이 있긴 한가?**

욕심이 많다는 거? 게임할 땐 승부욕이 강하고, 뭘 먹을 땐 식욕이 넘치고, 아, 질투도 좀 많아요.(웃음)

**당신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 팁을 달라.**

낙성대역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어요. 학교 가는 길에 거기서 자주 빵을 사 먹어요. 만나면 아는 척해도 돼요. 먹방도 이미 많이 나왔는데요. 뭘! 🍞

**Who's That Girl?**



“  
수학을 잘하는 남자는  
정말 멋있어 보여요!  
”



### 최정문

생년월일: 1992년 7월 15일

신체: 164cm, 43kg

학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재학 중

혈액형: A형

별명: 공대여신, 콩서퐁

### 자주 가는 곳

학교 도서관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오락실 망치게임

# 당신이 몰랐던 노랫말 속 숨겨진 이야기 12



알고 들으면 더 재미있는 노래 가사의  
진짜 의미를 알려 주마, BY 조웅재

\*강렬한 의미 전달을 위해 더 강력하게 의역이 되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들으면서  
읽어야  
재밌지!



## 1 문워크에 가려진 친자 소송 사건

Micheal Jackson - Billie Jean  
(Thriller, 1982)



마이클 잭슨의 첫 번째 메가 히트 앨범 <Thriller>에 수록된 명곡. 중력을 거스르는 마법의 문워크 덕에 당시 많은 소녀 팬들이 클레멘타인처럼 입에 게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하지만 이 신나는 8비트의 댄스곡은 분위기와 달리 조금 섬뜩한 가사 내용을 담고 있었으니...



Billie Jean is not my lover  
빌리 진은 내 마누라가 아니야.

She's just a girl who claims that I am the one  
내가 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미친 년이지

But the kid is not my son  
애도 내 새끼가 아니라고.

과거에 클럽에서 만난 여자가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주인공 앞에 나타난다. "애가 당신 아들이야!"라고

우기는 여자, 울고 있는 현 여친, 그리고 결백을 호소하는 주인공까지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둘이 춤만 했는데, 씨발 애가 왜 생겨?", "법원도 저 생년의 편을 들다니, 계략에 넘어갔어"라며 주인공은 주구장창 결백을 호소한다. 하지만 이야기에 늘 반전은 있는 법. "솔직히 너무 갑작스럽게 방으로 끌려간 거야"라고 독백하며 개새끼임을 결국 인정한다. 많은 음모론자들은 마이클 잭슨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얘기라 주장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잖아? 마이클 잭슨인데.

역시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내용이 아닐까 싶지만, 사실은 정 반대다. 이 노래는 '재기'의 노래가 아니라 '사건사고, 죽음'을 소재로 한 노래다.



We're heading for Venus  
우리는 금성으로 가고 있어

With so many light years to go  
수 광년이 걸리는 거리를 떠나

And things to be found  
미지의 것들을 발견할 거야

I'm sure that we'll all miss her so  
우리 모두 그녀를 분명 그리워하겠지.

It's the final countdown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야

## 2 시합 전에 울리는 장송곡

EUROPE - The Final Countdown  
(The Final Countdown, 1986)



영화 <록키>의 OST로 쓰인 'Eye of a Tiger'와 함께 권투나 스포츠 중계 방송 오프닝으로 자주 쓰이는 노래. 제목에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바람에 노랫말

이 노래는 1986년 1월 28일, 발사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한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민간인 교사 1명을 포함한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했고, 이 모든 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아무리 멜로디가 웅장하다고 시합 전에 추모 곡부터는 새끼들이 어딴어? 항간에는 <록키4>의 OST로 쓰였기 때문이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사실 무근이다. 해당 OST 목록을 뒤져 보면 이 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만 착각한 게 아니었는지, 해외 사이트에서도 네티즌들이 이 딱박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 줘도 못 먹니 이 병신새끼야

Beatles - Norwegian Wood  
(Rubber Soul, 1965)



'Let it be', 'Yesterday' 등 올트라급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전설의 그룹 비틀즈. 우리에게 좀 생소한 노래 '노르웨이의 숲'은 주인공이 처음 만난 여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내용인데,



*She showed me her room, isn't it good?*  
그녀는 날 자취방으로 끌고 갔어. 오오, 흥렌?

*She asked me to stay*  
"라면 먹고 갈래?"라고 하더라고

*"It's time for bed"*  
이제 자자.

*She told me she worked in the morning*  
그녀가 말했지. "아침 일찍 일 가야 되는데?"

*I told her I didn't and crawled off to sleep in the bath*  
"안해" 난 욕실로 기어들어가 자버렸지.

결국 아침이 되자 여자는 보이지 않고, 이 짜질남은 괜히 뻥쳐 집에 불을 지른다. 이 곡은 훗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제목 <노르웨이의 숲>의 모티브가 되었는데, 국내로 들어오며 <상실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번안되었다. 거 참, 묘하게 통하는군.

**4** 쓸데없이 경쾌한 색정광 이야기

QUEEN - Don't Stop Me Now  
(JAZZ, 1978)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가장 유명한 팝 넘버. 마치 빨간 컨버터를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기분이 든다. 듣기평가를 통해 영어를 귀동냥으로 배운 우리는 "레이싱 카(racing Car)"나 "날 누구도 막을 순 없어(there's no stopping me)" 같은 가사 덕에 '희망의 질주'를 그린 노래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이 가사의 본질은 후반에 등장하니...



*I'm a sex machine ready to reload*  
나는 샷 준비가 되어 있는 섹스 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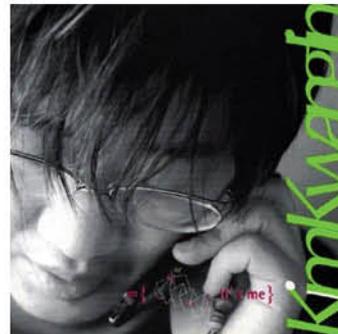
*Like an atom bomb about to oh oh oh oh explode!*

원자탄처럼 말이지. 오 오 오 오! 싸... 싯닷!

심지어 '싯닷' 부분에서는 아예 다중 코러스를 입혀 비장미까지 더했다. 장렬하게 정액을 분출하는 이 노래는 한 때 공중파의 심야 토크쇼에서 시그널 송으로 쓰였으며, 모 기업의 휴대폰 광고에도 삽입되었다. 배경음악은 씩니다, 싸요 하면서 왜 휴대폰은 안 싸?

**5** 뮤지션에게 여자를 뺏긴 남자의 슬픔

김광진 - 편지  
(It's Me, 2000)



<마법의 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더 클래식의 멤버 김광진의 솔로 히트곡. 침착하게 읊조리는듯한, 그리고 품위있는 남자의 어투로 이별을 고하는 슬픈 내용의 가사는 대중들에게 성공적으로 어필했다. 하지만 이 가사는 김광진의 아내가 받은 한 통의 편지에서 모티브를 따 온 내용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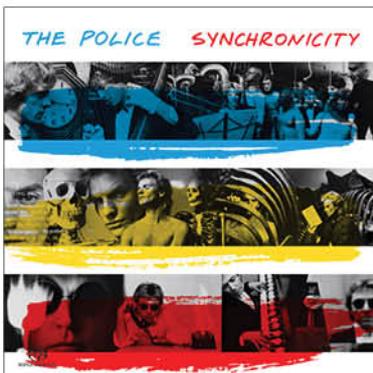


역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 두고서 혹시나 기대고 포기하려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가난했던 김광진과의 결혼을 반대한 김광진 아내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강제 맞선을 보게 했다. 그녀가 마음에 들었던 맞선남은 그녀에게 함께 유학길에 오를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김광진을 택했고, 그녀를 놓아주기로 결심한 맞선남이 보낸 편지를 김광진이 노래로 만든 것. 심지어 그 남자는 이 노래를 가사로 쓰려 했던 김광진의 요청을 쿨하게 받아들였다고. 오오, 대인배.

**6** 두근두근 단골 BGM? 그러나 실상은...

Police - Every Breath You Take  
(Synchronicity, 1983)



팝 밴드 폴리스는 영화 <레옹>의 수록곡 'Shape of My Heart'로 훗날 유명세를 떨친 스팅(sting)이 몸 담고 있던 밴드다. 달달하고 잔잔하게 흐르는 기타와 스팅의 부드럽고 애절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명곡.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씬을 타는 남 녀가 등장하거나 고백의 순간에 자주 쓰이는 BGM인데, 그 실상은...



*Every breath you take / Every move you make*  
당신의 모든 숨결과 행동들

*Every bond you break / Every step you take*  
당신이 어긴 모든 약속과 당신의 걸음이 닿는 곳

*Every smile you fake / Every claim you stake*  
당신의 모든 거짓 웃음과 모든 불만들

*Every word you say / Every game you play*  
당신의 모든 말투, 당신이 할 하고 노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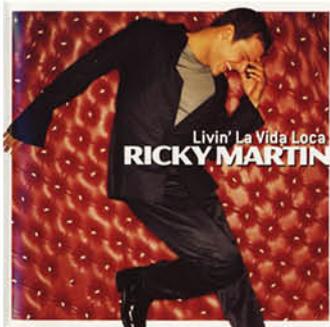
*Every night you stay / I'll be watching you*  
당신이 밤마다 할 하는지 내가 전부 지켜볼 거야.

이 노래를 부른 밴드 이름이 Police라서 더 기괴하다. 가사 속 스토리는 여간 독한 놈이 아니다. 스팅은 한밤중에 자다 깨서 이 노래를 쓰기 시작했는데, 가사가 주는 독하고 부정적인(스토킹) 느낌은 의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긍정적 사랑 노래로 해석하는 바람에 김이 섰다고 한다. 스팅의 지인이었던 어떤 커플은 그를 만나 "우리 결혼식 때 당신의 노래를 틀었다구요!"라고 얘기했는데 "아, 뭐 그랬구만." 정도로 별 반응 없이 넘어갔다고.

# Fun Lyrics

## 7 술 사주고 돈까지 털린 호구의 노래

Ricky Martin - Livin' La Vida Loca  
(Livin' La Vida Loca, 1998)



신나는 라틴 스타일의 음악과 섹시한 춤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리키 마틴의 데뷔곡. 그는 이 노래로 4주간 빌보드 싱글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이에 1998년 그래미 최우수 라틴 팝 부문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적으로 6천 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신나는 비트에 맞춰 몸을 흔드는 그가 입에서 뱉어내는 가사는 퍼포먼스와는 달리, 사실은 좀 찌따같은 남자의 이야기였는데...



*Woke up in New York City in a  
funky cheap hotel*

뉴욕의 존나 싸고 구린 호텔에서 깨어 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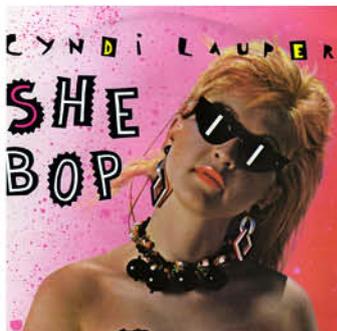
*She took my heart and she took my money*  
그 년이 내 마음 뿐 아니라 돈까지 훔쳐 갔네.

*She must've slipped me a sleeping pill*  
분명 수면제를 타 먹인 게 틀림 없어.

한마디로 묘한 매력의 클럽녀를 만나 밤새 민라장성을 쌓고, 깨어 보니 망할 년이 싸그리 갖고 튀었다는 얘기가. 물 대신 프랑수안 삼페인을 마시는 된장녀에게 똥통 당한 사연인데, 아마 본인 얘기는 아닐 듯. 참고로 리키 마틴은 2010년에 본인이 게이라며 커밍아웃을 한 바 있다. 어라? 설마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 혐오증이 생겼던가...

## 8 귀여운 여인이 원래 섹녀였다고?

Cyndi Lauper - She Bop  
(She Bop, 1984)



80년대를 풍미한 섹시발(지)랄의 아이콘 신디 로퍼의 히트곡. 어디서 듣보잡 노래를 끌어다 소개하거나 짱들 줌기 전에 일단 한 번 들어나 보자. 이 노래는 왁스가 불러 공전의 히트를 치고, 어머니 노래교실의 단골 플레이리스트로 자리잡은 '오빠'의 원곡이다. 번안곡 버전인 '오빠'에서 화자는 그저 '나만 바라봐'라고 조르는 철부지 귀여운 여자이지만 원곡에서는...



*IN THE PAGES OF A BLUE BOY MAGAZINE*  
성인 게이 잡지를 보다가

*HEY I'VE BEEN THINKIN' OF A NEW SENSATION*  
이게 새로운 자극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지

*I'M PICKIN' UP GOOD VIBRATIONS*  
존나 좋은 말감을 구했어

*OOP - SHE BOP - SHE BOP*  
우우! 그녀가 가버렸! 그녀가 가버렸!

뮤직비디오에도 성적인 은유가 가득하다. 신디 로퍼가 김이 서린 차창 안에서 몸을 배배 꼬거나, 크고 아름다운 경찰관의 바이크를 만지작거리거나... 심지어 후렴구의 가사는 더 가관이다. 그녀도 가고 (She bop), 그도 가고(He bop), 우리 모두 가버린다 (We bop)! 오르기쯤은 공공재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모양이다.

## 9 데스메탈 뺨치는 군가

The Sun Harbor's Chorus -  
Blood on the Risers  
(4th of July Patriotic Favorites, 2009)



한국군이 즐겨 부르는 '진짜 사나이'나 '열공의 핏물' 같은 군가처럼, 미군에게는 '낙하산 줄에 묻은 피 (Blood on the Risers)'라는 군가가 있다. 미군의 군가 따위를 어떻게 야냐고? 모르는 소리, 이 노래는 바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로 잘 알려진 찬송가 'Battle Hymn Republic'을 개사한 군가다. 하지만 가사는 어지간한 데스메탈 뺨치는 고어물인데...



*There was blood upon the risers,  
there were brains upon the chute,*  
낙하산 줄에는 피가 묻었고, 낙하산에는 뇌가 튀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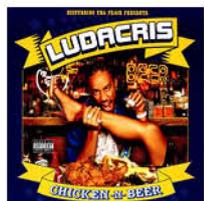
*Intestines were a-dangling from  
his paratrooper suit,*  
낙하산복에는 내장이 걸려 달랑거리고 있었지,

*Gory, gory, what a hell of a way to die*  
피투성이, 피투성이, 참 좇같지도 죽는군만.

*He ain't gonna jump no more!*  
아마 다시는 낙하산을 타지 못할 거야!

내용인즉, 미국 공수부대원 신병이 낙하산 전개에 실패해 추락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점프해서 주인공이 죽는 순간까지의 참혹한 장면을 무려 8절에 걸쳐 표현한 진정한 패륜가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Glory, Glory Hallelujah!)'라는 후렴구를 말장난처럼 바꿔 '피투성이, 피투성이(Gory, Gory)'라고 표현한 것이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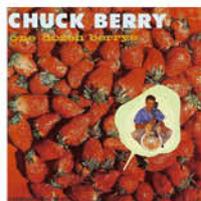
## 병신 같은 앨범 커버들 이렇게 만들어서 얼마나 팔았니?



**Ludacris -  
Chicken-n-Beer**

메이저 힙합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루다크리스의 2003년도 앨범. 어마어마한 치킨 닭다리를 쌓아 놓고 여자

다리를 들어 양념을 치는 콘셉트라니,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Chuck Berry -  
One Dozen Berrys**

60년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로큰롤 기타리스트 척 베리의 1958년도 앨범. 이름이

'베리'라서 딸기들 사이에 자기를 파묻은 모양이다. 대단히 창의적이시네요!



**Millie Jackson -  
Back to the Shit**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력파 R&B 가수로 이름을 날린 밀리 잭슨의 앨범. 한쪽 손에는

왜 하이힐을 들고 있는 것일까. 제목 그대로 똥을 싸고 앉았다.

**10** 동심으로 떠창하는 장송곡

민요 클레멘타인  
 〈John Ford's My Darling  
 Clementine OST, 1946〉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한채~’로 시작하는 동요 클레멘타인. 우리가 초딩 때 배운 이 미국 민요는 퍼시 몬트로즈가 1884년에 작곡했다. 노래의 화자는 1800년대 골드 러시에 눈이 멀어 금광을 찾아 서부로 이주한 광부. ‘넓은 아버 혼자 두고 영영 어딜 갔느냐’라는 노랫말은 원곡이 더욱 디테일하고 섬뜩하다.



*Hit her foot against a splinter,  
 Fell into the foaming brine.  
 그녀의 발이 나뭇가지에 걸려,  
 파도치는 바다로 고꾸라졌어.*

*Ruby lips above the water,  
 Blowing bubbles clear and fine;  
 물 위에 떠오른 루비 같은 입술,  
 맑고 순수한 거품을 일으키고 있었지.*

*But alas, I was no swimmer,  
 So I lost my Clementine  
 하지만 씨발, 나는 수영을 못 했어.  
 그렇게 내 클레멘타인은 죽고 말았지.*

*In my dreams she still doth haunt me.  
 아직도 내 꿈 속에서 그 아이가 나를 쫓아와.*

*Robed in garments soaked in brine  
 물에 흠뻑 젖은 겹옷을 입은 채로*

**11** 춤을 부르는 폭군의 행진곡

Dschinghis Khan - Genghis Khan  
 〈Rocking Son of  
 Dschinghis Khan, 1979〉



70년대 말, 젊은 감성의 디스코 음악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당시 보니 엠(Boney M)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린 헤성같은 혼성 그룹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칭기즈칸(Dschinghis Khan)이다. 요즘 세대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칭~칭~칭기즈칸!”이라는 후렴구는 예나 지금이나 사기급 중독성을 자랑한다. 하지만 뭐라 씨부리는지 알 수가 없는 독일어 가사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으니...



*Und jedes Weib, das ihm gefiel, das nahm er  
 sich in sein Zelt  
 그(칭기즈칸)는 마음에 드는 년들을 모조리 자기  
 천막으로 데려갔다.*

*Er zeugte sieben Kinder in einer Nacht  
 그는 하룻 밤에 7명이랑 떡을 쳤다.*

악탈과 강간을 일삼는 폭군의 이야기에 엉덩이를 흔들어대는 7080의 정서. 게다가 이 가사는 근본적으로 몽골리안, 즉 동양인의 야만스러움을 비판하는 옥시덴탈리즘에 기반한 노래다. 온갖 비판과 욕설이 난무하는 요즘 힙합 씬과는 다른 차원의 문화적 디스를 담은 노래. 그래서 그렇게 신나게 불렀구나.

**12** 여자들 뿔 가게 만드는 찌파의 노래

Radiohead - Creep  
 〈The Bends, 1995〉



스쿨 밴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거쳐 간다는 바로 그 명곡. 똥침을 맞은 듯 힘이 빠진 발음과 목소리로 불러 줘야 분위기가 산다. 웬지 모르지만 “존나 귀찮으니까 다 꺼져”같은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부르면 듣던 여자들이 밤에 “자니?”라며 당신의 안부를 묻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사실 그저 병신에 불과한 한 찌파의 이야기였는데...



*But I'm a creep, I'm a weirdo  
 하지만 난 병신이야, 벼테새끼라고*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내가 여기서 뭘 짓을 하고 있는 거지?*

*I don't belong here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She's running out again  
 저 여자가 또 도망가요*

태어날 때부터 왼쪽 눈이 마비되어 안대를 하고 다녔던 보컬 톰 요크는, 어느 날 대학에서 이상형을 발견하고 계속 그녀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자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그런 더러운 감정을 노래로 만들어 낸 것이 바로 1991년 첫 싱글로 대 히트를 친 ‘Creep’이다. 아마 그 여자는 지금쯤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겠지?



**Mayhem - Dawn of the Black Hearts**

노르웨이의 실천파(?) 블랙메탈 밴드 중 하나인 메이헴의 전설적인 앨범 커버. 엄청난로 자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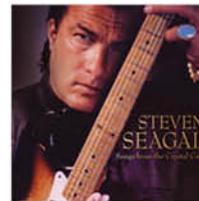
보컬 Dead의 시신을 찍어다 앨범 커버로 사용했다. 지금은 다들 중년이 되어 멀쩡한 모습으로 투어를 다니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돼.



**Pooh-man - Funky as I wanna be**

90년대에 이름 좀 날렸던 갱스터 랩 아티스트 푸맨의 두 번째 앨범. 주인공이면서 몹시

어정쩡한 표정이 압권이다. MC POOH라고도 읽는다며 친절하게 괄호까지 달아주는 센스 차라리 a.k.a MC POOH라고 작게 적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Steven Seagal - Songs from the Crystal Cave**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기? 스티븐 시갈 성명의 문어발식 영역 확장 욕심이 대놓고

보이는 앨범. 〈크리스탈 동굴에서 온 노래들〉이라는 중2병 똥은 앨범 제목이 압권이다. 노래를 듣지 않으면 저 표정 그대로 목을 꺾어 죽일 것 같다.

# MISS M

## 2014 MISS MAXIM CONTEST

16강

세 번째 예선 통과자

김고은

수줍게 스튜디오에 들어선 세 번째 도전자 김고은은 조명이 켜지자마자 카메라 앞에서 거침없이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다. 현대 무용을 전공했다더니...

역시 급이 다르네!

BY 김소윤 PHOTOGRAPH 김도훈

속옷 원더브라  
구두 슈즈원



김고은

생년월일 1990년 12월 26일

주향 소주 반 병

서식지 인천

이상형 상남자 스타일

아슬아슬한  
포즈  
감상하기



# AXIM

OF THE MONTH

MISS MAXIM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별명은?

윙덕이?? ㅁ

선호하는 속옷 스타일은?

섹시한 브라의 목

가장 기억에 남는 화이트 데이 선물!

반지라 편지

들어본 작업 멘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너가 차음이야

클럽에 갈 때 주로 어떻게 입고 가나?

섹시한 하체는 원피스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속 명대사는?

나 때리 들어갈래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노래가 들렸어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첫인사!

이렇게 봐주세요 ㅁ\*~



팬티 원더브라

MISS MAXIM

# 2014 MISS MAXIM CONTEST

16강

네 번째 예선 통과자

정현희

구릿빛 피부에 탄탄한 몸매!  
등산과 조깅을 즐겨 한다는 건강  
미녀 정현희의 상큼한 매력에  
현장에 있던 남자 스타프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정현희

생년월일 1989년 9월 25일

주량 맥주 300cc 한 잔

서식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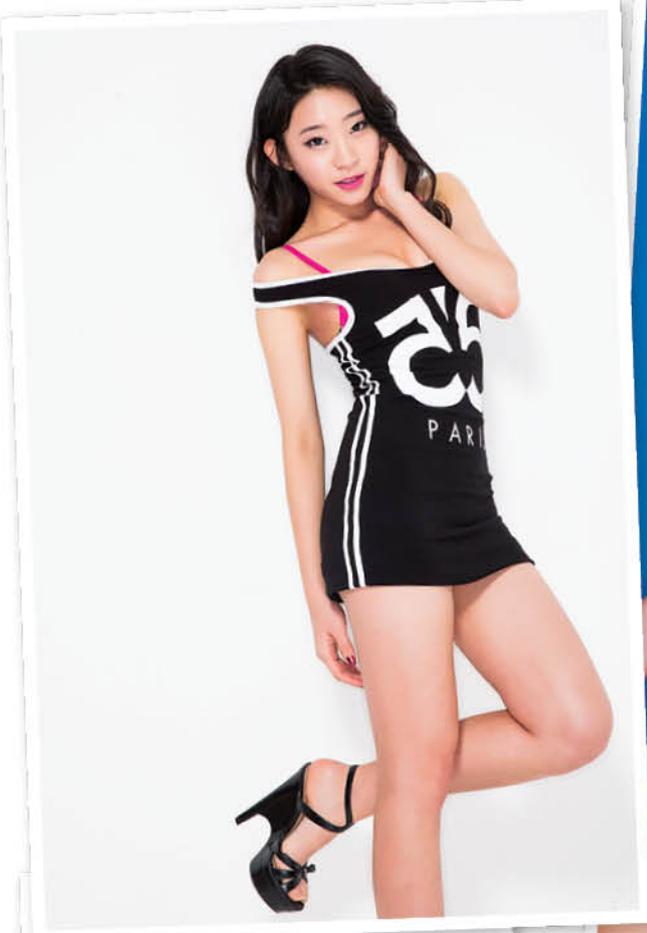
이상형 인경이 잘 어울리는

차가운 남자

속옷 키스리퍼블릭  
구두 슈즈원

날 보고 옷는  
건가?





**MISS MAXIM에 도전한 계기는?**

섹시한걸 좋아해요 ~ 빅토리아 시크릿의 아드리아나처럼 멋진 화보를 찍어보고 싶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화이트데이 선물!**

사랑이 싫다했더니 화이트 초코렛을.. ㅎㅎㅎㅎ

**별명이 있나?**

덜렁이, 오리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서민국, 지아 - 이별남녀

**선호하는 속옷 스타일은?**

블랙! 섹시해보이니까!

**가장 좋아하는 술은?**

머드셰이크 초코맛

**들어본 작업 멘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친구처럼 차라 알아가고 싶어요.. ㅠㅠ..

**섹시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등산! 뛰기!

**금요일 밤, 당신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집? ㅎㅎ

**MISS MAXIM 콘테스트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맥심에서 섹시한 화보 한번더 찍고싶어요  
잘봐주세요. 먹심오빠 짱짱맨~♡

사골 국물보다 친하게 우려진 할리우드의 대표 아이콘 캐릭터들. 스크린 속에서 그 캐릭터를 연기한 수많은 배우 중 배역을 가장 잘 소화해낸 사람은 누구일까? 율킨이 김소윤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  
vs.  
헨리 카빌

제임스 본드

손 코네리  
vs.  
대니얼  
크레이그

who

누가 누가 잘했나?

PLAYED

악마

알 파치노  
vs.  
잭 니콜슨

it

앤 해서웨이  
vs.  
미셸 파이퍼

갯 우먼

BEST

크리스천 베일  
vs.  
조지 클루니

배트맨

소름 돋는  
연기 대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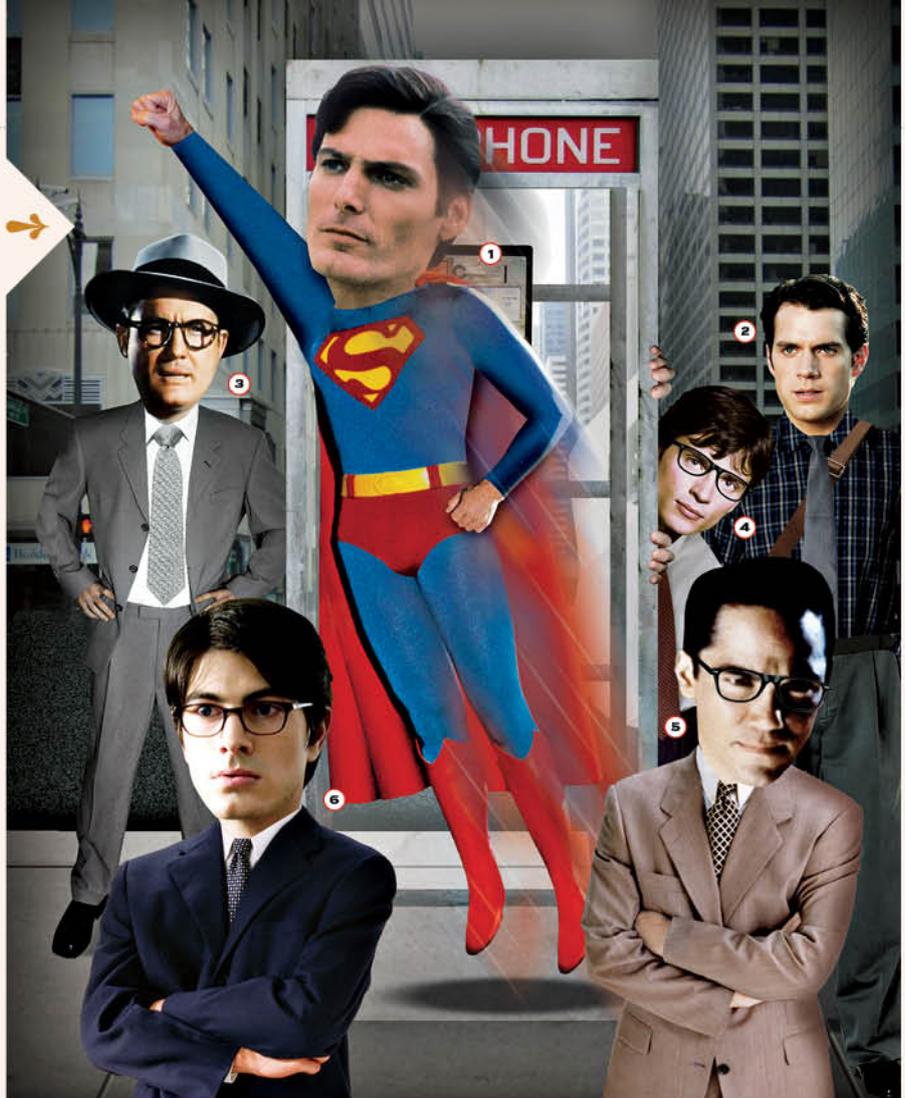
John  
Ueland

ILLUSTRATIONS BY

## Best 슈퍼맨

낙마 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되어 고생하다 2004년 숨을 거둔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는 생전에 영화 <슈퍼맨>에 출연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는 X-레이로 사물을 뚫어 보는 능력, 자구의 계도를 움직이고 기울어진 피사의 탑을 똑바로 세우는 무시무시한 힘, 거기다 언론사에 취직할 정도로 똑똑한 두뇌까지 두루 갖춘 이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1978년도의 영성환 CG 수준에도 '슈퍼맨=크리스토퍼 리브'라는 공식을 세울 정도로 명연기를 펼쳤으니 가히 역대 최고의 슈퍼맨이라 할 수 있겠지?

1.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 (1978)-IV>
2. 헨리 카빌  
<맨 오브 스틸(2013)>
3. 조지 리브스  
<슈퍼맨 어드벤처(TV, 1950년대)>
4. 톰 윌링  
<스몰빌(TV, 2001~2011)>
5. 딘 케인  
<로이스 앤 클라크(TV, 1933)>
6. 브랜든 라우스  
<슈퍼맨 리턴즈(2006)>



## Best 헐크

1977년, 미국에서 헐크를 소재로 한 TV 시리즈 <두 얼굴의 사나이>가 방영되었을 당시엔 부르스 배너 박사 역의 빌 빅스비와 헐크 역의 루 페리그노가 번갈아가며 번신 전과 후를 연기했다. 190cm의 거대한 덩치로 이널드 슈워제네거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던 보디빌더 출신의 루 페리그노는 온몸에 초록색 침을 하고 나와 이성의 꿈을 놓아버린 괴물 헐크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이후 그는 2000년 <인크레더블 헐크>와 2003년 <헐크>에 경비원 역의 카메오로 출연하며 시리즈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1. 루 페리그노  
<두 얼굴의 사나이 (TV, 1977~1993)>  
헐크 역
2. 마크 러팔로  
<어벤저스(2012)>
3. 에드워드 노론  
<인크레더블 헐크 (2008)>
4. 빌 빅스비  
<두 얼굴의 사나이 (TV, 1977~1993)>  
부르스 배너 역
5. 에릭 바나  
<헐크(2003)>



## Best 제임스 본드

007 시리즈가 1962년 <007 살인번호>로 시작해 총 23편이나 제작되며, 전 세계적으로 50억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를 벌어들인 흥행작이 된 건 초대 제임스 본드, 손 코네리의 영향이 크다. 능글맞은 눈빛과 보디빌더 출신의 탄탄한 근육으로 첫판부터 인기 만발 터프가이 캐릭터를 제대로 만들어낸 거다. 원작자 이언 플레밍조차 그를 '제임스 본드의 이미지에 가장 흡사한 배우'라며 칭찬했을 정도라고.



## Best 드라큐라

영화 <드라큐라(1992)>의 캐스팅 당시 물망에 오른 니콜라스 케이지, 휴 그랜트, 안토니오 반데라스 등의 경쟁한 후보를 제치고 게리 올드먼이 드라큐라 역으로 선정돼, 한 여성과 지고지순한 사랑에 빠진 400년 묵은 흡혈귀를 완벽히 소화했다. 하지만 스크린 속에 펼쳐진 그 애절한 감정은 연기가 아니었다는 사실. 당시 그는 두 번째 아내였던 우마 서먼과 이별한 뒤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던 중이었다고 한다. 이후 게리 올드먼은 "영화의 모든 감정은 드라큐라가 아닌 나 자신의 것"이라고 밝혔다.

1. 게리 올드먼  
(드라큐라(1992))
2. 벨라 루고시  
(드라큐라 백작(1931))
3. 맥스 슈렉  
(노스페라투(1979))
4.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  
(드라큐라(TV, 2013~2014))
5. 레슬리 닐슨  
(못말리는 드라큐라(1986))



## Best 마릴린먼로

여배우에게 있어 역대급 미모의 섹시 아이콘을 연기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또 있으랴. "실제 인물만 못하다"는 욕만 안 먹어도 이미 반은 성공한 거다. 그동안 수많은 여배우가 마릴린 먼로 역에 도전했는데, 그중 <마릴린 먼로와 함께한 일주일>의 미셸 윌리엄스만큼 득을 본 경우도 드물다. 그녀는 이 영화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2012년 제69회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1. 미셸 윌리엄스  
(마릴린 먼로와 함께한 일주일(2011))
2. 애슐리 주드  
(노마 진 앤 마릴린(1996))
3. 제임스 프란코  
2011 오스카 시상식
4. 미라 소베노  
(노마 진 앤 마릴린(1996))
5. (최속부터)케서린 맥피, 우마 서먼, 메간 힐트스매쉬(TV, 2012~)



## Best 배트맨

1989년, 과기스러운 연출로 유명한 팀 버튼 감독은 당시 코미디 영화에서 활약하던 마이클 키튼을 차기 배트맨으로 지목해 전 세계 배트맨 덕후들을 멘붕에 빠뜨렸다. 여기저기서 감독의 결정을 애용해하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으나, 마이클 키튼은 음침한 이웃사이드 브루스 웨인 역을 깔끔하게 소화했고, 이후 '가장 배트맨다운 배트맨'을 연기했다는 호평을 들었다.

1 마이클 키튼  
《배트맨(1989)》  
《배트맨 리턴즈(1992)》



2 크리스틴 벨린  
《배트맨 비긴즈(2005)》  
《디크나이트 라이즈(2012)》 등



3 에덤 웨스트  
《배트맨 (TV, 1966-68)》



4 밥 길머  
《배트맨 코어버 (1985)》



5 조지 클루니  
《배트맨과 로빈 (1997)》



## Best 캣우먼

할리 베리는 영화 《캣우먼》에서 '고양이상 섹시녀'의 살벌한 매력을 잘 모사했지만, 영화 자체가 동양이라 안타깝게도 5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할리 베리는 변신 전이 훨씬 예쁘다. 반면, 미셀 파이퍼는 소심하고 찌질한 여비서 셸리나 카일과 고양이로부터 9개의 목숨을 얻은 캣우먼의 백팔십도 다른 성격을 잘 표현했다. 요염한 몸짓에 따라 번쩍번쩍 광채를 뿜어내는 라텍스 의상은 뭇 남성들의 패티시를 자극한다. 누.. 누나! 혼내줘요!

- 1 미셀 파이퍼  
《배트맨 리턴즈(1992)》
- 2 줄리 뉴머  
《배트맨(TV, 1966-67)》
- 3 앤 헤서웨이  
《디크나이트 라이즈(2012)》
- 4 어사 키트  
《배트맨(TV, 1967-68)》
- 5 할리 베리  
《캣우먼(2004)》



## Best 악마

사탄, 루시퍼, 마몬. 이름이야 어찌 됐든 영화 속 악마 역할은 당대 최고의 연기력을 가진 쟁쟁한 배우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건 영화 《데블스 애드버킷》의 악마 알 파치노. 주연 키아누 리브스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위트 넘치는 악마를 연기한 그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알리고 사악해 보인다. 이 캐릭터를 통해 '가장 알 파치노다운 연기'의 역사를 새로 쓴 그에게 영혼을 바치는 심정으로 'BEST 악마' 타이틀을 선사한다.

- 1 알 파치노  
《데블스 애드버킷(1997)》
- 2 로버트 드니로  
《엔젤 하트(1987)》
- 3 엘리자베스 헐리  
《일곱가지 유혹(2000)》
- 4 잭 니콜슨  
《이스트윅의 악녀들(1987)》
- 5 하비 케이텔  
《니름 니키(2000)》

# 修能神功

수능신공

왜 이렇게  
수금이 늦어

Chapter.5 국어 영역





대학생  
만나니까  
좋나



MAXIM 편집부의 양대 수능고수가 1교시 국어 영역 정복법을 알려주며 '언어 영역' 아니냐고? 명칭 바뀐 지가 언제든... 늙은 티 내냐? BY 유승민 이영비

MODEL 에디터 김희성 박정욱 손안나 김소윤 김상수 김진욱 조용재 장혜민, 비서 정석영, 미스맥심 김수아 김지혜 PHOTOGRAPH YuD, Zho



담뱃이 죽구하라그래



〈수능 산공〉 다섯 번째 달이다. 지난 호엔 올해 바뀐 입시 제도에 맞춰 '수시 모집'의 비밀을 까발렸지? 그걸 읽었다면 넌 니가 왜 닥치고 수능을 피야 하는지 잘 알고 있겠군. 이번 달부터 본격 1교시 국어 영역이야. 공부 전혀 안 해도 10점 이상 올려 줄 테니까 눈갈 크게 떠.

**80분? 우리의 목표는 60분 타임어택!**

〈수능 산공 제1장: 포기 산공〉 기억해!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려운 문제는 포기하고, 쉬운 놀라 골라 풀면서 최단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한 번 정주행하는 기술'이었어. 자세한 게 궁금하면 과월호 사서 봐. 형도 책 필자 입에 풀칠하니깐.

국어 영역은 총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해. 하지만 우리 지난 12월호에서 배운 시간 배분법대로 전 문항을 60분 내에 끝내 보자고. 모르는 문제는 패스하고, 풀리는 것만 후딱후딱 풀면 20분을 남길 수 있다고는 했지만, '시발 말이 쉽지 이걸 어떻게 60분 안에 다 푸냐...'라고 생각했지? 자, 이제부터 형이 국어 영역을 최단 시간 내에 작성내는 디테일을 알려줄게.

**머리에 손, 눈갈은 시험 시작?**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 감독관이

"문제지 얹어놓고 머리 위에 손 올리고 있으라"는 그 몇 분의 시간. 예전에는 문제지를 얹어 놓으면 맨 마지막 지문이 보였어. 그리고 머리에 손을 올린 채, 눈갈로만 마지막 지문을 존나 읽기 시작하는 것... 수능 고수라면 반드시 사용했던 이 기술(물론 반칙이지)이 2009년부터 완전히 불가능해졌어. 마지막 지문 미리 읽기 공수를 시전하는 수험생이 많아지면서 나라에서 이를 원천 봉쇄한 거지. 어떻게 했냐고? 수능 시험 문제지 앞뒤에 걸표지를 장착해버렸거든. 어느 쪽으로 얹어놓든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게 말이야. 하여튼 나라에서 입시제도는 X같이 만들면서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가차게 돌아가요. 제길.

**순서 파괴! 맨 마지막 지문을 먼저 풀러라**

자, 어느 과목이든 '눈갈로 미리풀기'는 이제 불가능해졌어. 그럼 남들처럼 1번부터 차근차근 풀까? 아니야. 미리 읽기 공수는 이제 안 되지만, 마지막 지문 먼저 풀어야 할 이유가 또 있거든. 문제 푸는 순서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있지. 그렇게 하면 몇 가지 심리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거든. 국어 영역 마지막 지문에는 44번, 45번, 이 두 개의 문제가 달려 있어. 언제나 시간이 부족한 대부분의 수험생은 특히 이

마지막 두 문제를 거의 찢다시피 하지. 지문은 거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말야. 어쩌다 시간이 재수 좋게 5분쯤 남았다 해도 그래. 감독관 놈들이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이제 답안지 작성하십시오!" 하고 앞에서 설레라비 치기 시작하면 지문이 제대로 눈에 읽히겠어? 바지에 똥이나 안 지리면 다행이지.



이게 작빈 수능 국어 영역 마지막 페이지다



**실력 차이를 뒤집으려면 변칙 기술을 써라**

남들처럼 고지식하게 1번부터 순서대로 문제를 푸다는 건, 1번~45번까지 모든 문제를 경쟁자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푸다는 걸 의미해. 존나 정정당당한 거지.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싸워선 딱 니 실력만큼밖에 점수가 나오지 않아. 죽어도 니보다 원래 공부 잘하는 새끼들을 이길 수 없다고. 앞쪽 문제를 조금증 때문에 망치는 녀석은 없어. 니가 그렇듯 경쟁자들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땐 차분한 독해가 가능하거든. 한마디로 앞쪽 지문에서 경쟁자들과 차이를 내기 쉽지 않다는 얘기야. 하지만 뒤쪽 지문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말할 확률이 높아져. 실제 통계에서도 뒷 번호로 갈수록 오답률이 높아진대. 뒤쪽 문제가 더 어려워서가 아니야. 철저히 심리적인 이유인 거지. 제일 초조한 상태에서 풀게 될 마지막 지문의 두 문항(44번, 45번). 우리는 이걸 가장 먼저 풀도록 하자. 시간이 많고 차분한 상태에서 푸니 당연히 정답률도 높겠지. 남들 다 틀릴 문제를 너는 맞히면서 시작한다는 것.. 경이 초반부터 너의 국어 영역 스코어는 경쟁자들을 앞서나가는 거야.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참, 그리고 덤으로 말야, 내 경험상, 맨 뒷 장을 이미 풀어놨다는 사실이 시험 시간 내내 묘한 안도감과 침착함을 선사하더라고. 마치 끝인 지점에 우리 아군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닐까?

**1번부터 풀면 쓸데없는 속도 경쟁에 말려들어**

수능 고사장 안에는 보통 30명 정도를 앉혀놓고 시험을 보는데, 그 30명이 마치 100미터 달리기 하듯 “요아~ 땡!” 하며 동시에 개떼같이 1번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는 쓸데없이 주변 녀석들의 속도를 의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 국어 영역 첫 페이지에는 보통 2~3번 문항까지 나와있어. 만약 니가 아직 첫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는데 옆 새끼가 “팔락”하며 종잇장 넘기는 소리를 내면 너는 갑자기 존나 초조해지는 거야. 뒤쳐지기 시작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지. 적막에 휩싸인 수능 시험장 안에서는 이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기 때문에 교실 안 다른 녀석들의 첫 장 넘기는 소리가 “팔락” “팔락” “팔락” “팔락”하고 귀에 꽂히거든. 여기서 자칫하면 초창부터 멘붕에 빠질 수 있어. 시험 시간 내내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푸는 거지. 앞서 알려준 대로 마지막 지문 먼저 풀면 자연히 이 병신 같은 레이스에도 말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지. 유독 주위가 산만하거나, 주변 소리에 방해를 많이 받는 타입이라면 꼭 시험장에서 이어플러그 같은 걸로 귀구멍을 틀어 막아. 형이 고3 때 그렇게 했는데 마치 적막 속에 혼자 있는 듯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올라가더라고. 어차피 국어 영역에 듣기 평가도 없어졌잖아. 네 귀는 잠시 접어 댕. 시계만 잘 보고 있으면 감독관이 하는 말도 들을 필요 없거든.

**MAXIM의 국어 영역 3분법**

가슴 B컵에, 허리는 가늘고, 힘이 뱅뱅한 형국

지문의 내용	문항수	문항 번호
두 기편의 협상 문답	3개	1, 2, 3
한 학생의 수업 시간 발표	2개	4, 5
논설문 자료와 초고	2개	6, 7
유적 답사 보고서	1개	8
도서편 소개글	2개	9, 10
맞춤법 문제	1개	11
표준 발음 문제	1개	12
주술 호응 문제	1개	13
대명사 파악 능력 문제	1개	14
높임말 문제	1개	15
한글 변천 문제	1개	16
고전 신문	2개	17, 18
철학 이론에 관한 분석글	3개	19, 20, 21
간접광고에 관한 설명문	4개	22, 23, 24, 25
과학 이론에 관한 설명문	2개	26, 27
베토문 교향곡에 관한 평론	3개	28, 29, 30
고전 문학 (옥루몽)	4개	31, 32, 33, 34
현대 소설 (소문의 벽)	3개	35, 36, 37
고전 시조 3가지	3개	38, 39, 40
현대 시문학 2가지	3개	41, 42, 43
이상의 수필 (권태)	2개	44, 45

2014 수능 국어 영역(B형) 출수형 지문 분석

**공략 순서는 엉덩이 ▶ 가슴 ▶ 허리**

국어 영역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긴 지문에 2~4개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야. 한 지문에 많은 문제가 달려있을수록 지문을 독해하기가 더 어려워. 지문을 읽을 때 더 많은 논점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하거든.

자, 맨 마지막 지문(44, 45번 문항)을 해치웠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순서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 앞 장에 보면 형이 국어 영역을 3가지 색깔로 구분해 놓은 거 보이지?

1. 맨 아래 **빨간색** 영역은 한 지문에 대략 3~4 문제가 달려있는 것들이야. 지문도 길고 어렵지.
2. 그 다음은 **앞쪽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하나의 지문이 대략 2문제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지문의 길이가 빨간 쪽보다는 훨씬 짧고 쉬워.
3. 끝으로 **파란색** 영역은 모두 짧막한 한 개짜리 문제들이야. 긴 지문 없이 객관식 보기만 있어 빠르게 풀 수 있는 녀석들이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빨강 ▶ 초록 ▶ 파랑**의 순서대로

풀어야 해. 가장 오래 걸리는 걸 시간 여유 있을 때 풀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뒤로 배치하는 거지. 우리의 당초 목표는 60분 내에 모든 문제를 푸는 거였지만, 만약 80분도 부족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가정해보자. 시험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문제가 4개씩이나 딸린 대형 지문을 독해하는 게 정답률이 높을까, 1개짜리 짧은 문제를 푸는 게 정답률이 높을까? 당연히 후자겠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 조용재 에디터와 손안나 에디터가 작년 수능 국어 영역 시험을 보고있다 치자. 종료 시간이 딱 2분 남은 상황에서 조용재는 **31, 32, 33, 34번** 문제가 남았고, 손안나는 **11, 12, 13, 14** 문제가 남아어. 아마 조용재는 지문을 읽는 데만도 2분이 휙 지나가버릴 거야. **31~34번** 네 문제를 몽창 틀리게 되겠지. 하지만 손안나는? 남은 2분 동안에 **최소한 11번, 12번** 두 문제는 건질 수 있다 이거야. 문제 푸는 순서만 조금 달랐을 뿐인데 손안나는 조용재보다 2문제나 더 맞힌 거지.

자, 이번 달 <수능 산공>은 1교시 국어 영역의 문제 풀이 순서를 알려줬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MAXIM은 공부하라는 잔소리 따윈 하지 않아. 그냥 시험 볼

때 문제 푸는 순서만 이렇게 하란 말야. 좀 숙달되면 진짜 60분 안에 모든 문제 훑을 수 있어. 그 다음부터 전에 알려준 <수능 산공>의 기술들 국어 영역에도 그대로 써먹으면 돼. 1교시에서만 10점이 딱 오를 테니까 의심하지 말고, 형만 믿고 따라와. MAXIM 에디터질이 뜬금 없는 일들의 연속이지만 어쩌다 이전 수능 시험까지 분석하고 있질 않나... 진짜 백세다.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 한 달에 한 번 우리 미스 맥심이란 후배들에게 교복을 입혀볼 수 있는 거겠지? 그 대가가 생각보다 너무 크지만 꼭 참고 좀 더 힘내 볼게. 다음 달엔 국어 영역 2탄 간다. MAXIM의 수험생 독자들 이번 달도 파이팅! 



**수석 에디터 유승민**

수능 점수: 396점 (400점 만점)  
주특기: 1교시 언어 영역  
서울강서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편집장 이영비**

수능 점수: 393.5점 (400점 만점)  
주특기: 4교시 외국어 영역  
광주과학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효응~  
남친한테 걸려



**강준형(베이스)**

'서태지 밴드'를  
겸업하고 있는 부산  
사나이. 멤버 장학과는  
언제나 티격태격한다.

**추명교(드럼)**

원년 멤버1. 팔뚝에  
가득한 문신과  
대비되는 나긋나긋한  
말씨가 반전 매력이다.

**장학(보컬)**

그로울링과 클린 보컬  
둘 다 잘하는 떠오르는  
'락앤롤 정자'.

## 대한민국 메탈의 '큰형님'들 디아블로



온몸에 문신이 가득해도 착한  
오빠들이예요... BY 손안나

블리자드 아니아~  
메탈 밴드야~



드럼 스틱  
잘 돌리는 법



이 밴드의 이름이 게임 <디아블로>에서  
유래했을 거라 오해하는 이가 많지만, 이  
밴드는 동명의 게임이 처음 나온 1996년  
보다 무려 3년 전인 1993년에 결성됐다. 그렇다.  
디아블로는 올해로 데뷔 '21주년'을 맞이한 '헤비메탈'  
밴드다. 이 한 문장만으로 지금껏 이들이 겪어온  
힘난한 역사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리라.  
'록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몽친 꼬꼬마 메탈헤드(메탈  
광팬)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 좋아하다 보니 어느새  
대한민국 헤비메탈을 대표하는 거석이 되어 있더라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



**최창목(기타)**

뮤직아카데미 원장님,  
과거 '서태지 밴드'에서  
'Rock'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다.

**김수환(기타)**

원년 멤버2, 어쩐지  
'브이 폰테라' 가면이  
떠오르는 수염이 매력  
포인트다.

시나위, 백두산 등 19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헤비메탈 밴드의 전성시대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를 기점으로 그 인기가 급격히 사그라졌는데, 당시랑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김수환:** 그땐 그랬지. 좋은 시절이었다.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메탈이 죽어가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나. '로드페스트'라고 메탈 밴드들을 모아 록 페스티벌도 개최하고, 우리 음악을 알리기 위해 게임을 만드는 등 메탈의 붐업을 위해 이것저것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게임의 백 뮤직으로 음악을 만드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게임을 만드는 경우는 처음 봤다.

**장학:** <미스터 브레이크>란 게임이다. 우리가 방송에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헤비메탈을 더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었다. 주인공 미스터 브레이커가 헤비메탈로 좀비들을 처치하고 공연장으로 질주하는 내용이다.(웃음) 거기 들어가는 배경음악이 우리 음악이다. 다음 달에 4개 국어로 변환해서 전 세계에 발매된다.

해외에는 메탈 팬이 많으니깐 왜 쏠쏠하겠군. 유독 우리나라에는 헤비메탈 팬을 찾아보기 어렵다. 왜일까? 시끄러워서?

**장학:** 시끄러워서 싫은 게 아니라 안 들어봐서 생소할 거다. 노출이 안 되잖아. 방송에서 볼 수 없고, 길가다가 들을 수도 없고, 공연도 많이 없고.

반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우매우매우 열정적이다. 잘나가는 아이돌한테나 불한다는 사생 팬도 있다며?

**장학:** 예쁜 여성 팬이 많다. 그런데 다들 공통적으로 날티가 좀 있다거나 할까.(웃음) 나이 좀 있으신 40~50대 아주머니 팬은 공연장에 흉삼이나 양주 같은 걸 싸온다.

메탈을 사랑하는 중년의 아주머니라니... 상상만 해도 폭풍 간지군. 하지만 일반적인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행사장에서 디아블로 음악을 나오면 당황할 것 같다.

**장학:** 그럴 것 같지? 막상 공연 보면 다들 난리도 아니다. 처음에 한두 명 뛰기 시작하면 슬쩍 눈치보다 다 같이 된다. 공연장에 가면 곳곳에 팬들을 심어 놓거든. 농담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을 음악은 그루브가 넘치지 않나. 그런 면에서 판테라\*와 유사해 보인다.

**추명교:** 처음엔 그들의 음악은 물론 무대 위 쇼맨십까지 닮고 싶었다. 지금은 좀 더 많은 사람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악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판테라:1983년에 데뷔한 세계적인 그루브 메탈 밴드. 전 세계적으로 2,0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했고, <Far Beyond Driven> 앨범은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

너무 멜로딕한 사운드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

**장학:** 중요한 건, 멜로디 싫어하는 리스너는 없다는 점이다. 예전부터 해오던 우리의 헤비하고 하드한 사운드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올해로 결성 21주년을 맞았다. 해체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김수환:** 간단하다. 음악을 그만두는 게 더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로 중도 하차하는 밴드가 참 많은데, 우리처럼 아예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된다.

아까부터 살펴보니, 뒤늦게 합류한 두 동생이 계속 형들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다.

**장학:** 형들이 좀 더 늙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하하.

임재범과 한 콜라보 무대를 봤다. 장학이 표범 같았다면, 뒤에 등장한 임재범은 정말 호랑이처럼 포효하더라. 묵직함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장학:** 지금 나 맥이는 건가? 사실 처음 봤을 땐 그분의 기에 좀 놀라긴 했는데, 무대 위에서만큼은 음악 하는 '동료'라고 생각한다.



**강준형:**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러던데? 임재범이 '락앤롤 대디', 윤도현이 '락앤롤 베이비'라면 장학은 '락앤롤 정자'라고.(웃음)

평범치 않은 외모도 그렇고, 독특한 헤어스타일에 무시무시한 문신까지... 동네에서도 예사롭게 보진 않겠다.

**최창록:**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단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 집으로 전화가 온다. 택배가 없어지면, 몇 동에 몇 호에 사는 사람이 머리로 노랏고... 하면서 수군대는 거지.(웃음) 여자분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탈 일이 있으면, 항상 그녀들은 계단으로 올라가더라.

20년째 이 음악을 하지만 가끔은 당신들도 헤비메탈이 시끄러울 때가 있지?

**김수환:** 맞다. 얘기하려고 모였는데 막 헤비메탈 음악이 나오면 "아, 그 시끄러운 것 좀 꺼 봐!" 이른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헤비메탈 들어주는 슬립이다.(웃음) 얘기하러 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를 못 하겠잖아.

디아블로 곡 중에서 MAXIM 독자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강준형:** 최근에 나온 앨범... 중에...

왜 그러나?

**강준형:** 제목을 까먹었다. 그 노래가 뭐였지? 그 덩딩딩딩딩~

**김수환:** ...미안하다. 애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됐다.

**최창록:** 가장 좋아하는 곡은 데뷔 앨범 <Desirous Infection>에 수록된 'Mr. Breaker Part 1'이다. 그걸 들었을 때 난 다른 밴드에서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놀랐다. 10년 전 노래지만 지금 들어도 최고다.

**김수환:** 그 곡을 연주할 때 가장 디아블로다운 음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헤비메탈 레전드 곡 3

인터뷰를 보고 나니, 잘 모르던 메탈에 어떤지 관심이 생겼다고? 그럼 일단 이 곡들로 입문해볼 것.



### 1 Judas Priest의 'Painkiller'

자칭 타칭 'METAL GOD' 주다스 프리스트의 대표곡. 시작부터 터지는 신들린 드럼 솔로와 화려한 기타 리프, 거기에 메탈계의 전설 록 헬포드의 사우팅이 더해졌다. 불륜 최대로 올리고 한 곡 듣고 나면,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 2 Pantera의 'Cowboys From Hell'

'면도날 피킹'으로 유명한 다임백 데럴의 천재적인 기타 연주가 매력적이다. '역대 최고의 기타 리프' 하면 이 곡이 단연 짱 먹을 듯. 초고음을 아무렇지 않게 소화하는 필립 안젤모의 스크리밍도 놓치지 말자.

### 3 Iron Maiden의 'Hallowed Be Thy Name'

1980년대 주다스 프리스트와 함께 헤비메탈 장르를 개척한 영국 국민 밴드 아이언 메이든의 7분짜리 대곡. 요즘 메탈에 비하면 심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에 유행하던 정통 헤비메탈 스타일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묵직한 곡이다.



# Party

## the with & FICHIMORI MAXIM Party Valentine's Day PARTY at SYNDROME



왔노라, 놀았노라, 그녀들과 즐겼노라!

BY 박정욱

엄마나  
몰이  
좋았나면...



2013 MISS MAXIM 우승자 김소희



이런 걸 시너지라고 하는 걸까? 올해 밸런타인데이에는 황금 같은 금요일이었다. 밸런타인데이와 금요일의 교집합. 이날은 섹시한 미녀와 함께해야 한다는 송고한 의무감으로 불타오르던 나는 3월호 MAXIM 파티 후기 기사를 쓰겠노라고 자청했다. 2월 14일, 강남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클럽 신드롬에서 MAXIM 밸런타인데이 파티가 열리는 날이다. 매년 밸런타인데이마다 "초콜릿 보기를 둘 같이 하리"며 징징대던 새끼, 웬맨이 되어줄 그냥저냥 적당한 놈, 이빨 끝내주게 터는 놈 등 충실한 취재원(?)들을 소환했다. 불타는 학익진을 펼쳐기에 좋은 구도였다. "야, 오늘 다들 주력으로 입고 나와라."



파티가 벌어지는 클럽 신드롬 앞엔 지난 크리스마스 날 MAXIM 파티 때만큼이나 긴 줄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미친 듯 놀고 싶은 사람들의 열정이 차가운 겨울 공기를 달구었다. 초콜릿 보기를 돌 같이 한다던 친구놈은 가자마자 하이에나처럼 플로어를 어슬렁거렸다. 그는 그렇게 바람처럼 왔다가 미녀 한 명을 옆에 끼고는 아슬처럼 사라졌다. 괜찮다. 미녀 한 명 사라진 게 뭐 대수인가. 아직도 이곳은 섹시 미녀들로 충만한 걸.



2013 MISS MAXIM TOP4 이현지

# Party



2013 MISS MAXIM TOP8 박선혜



“왔노라, 놀았노라, 즐겼노라.” 불세출의 영웅 카이사르가 전투로 지친 심신을 달래러 MAXIM 밸런타인데이 파티에 들렀다면 이런 명인이 탄생했겠지. 실컷 놀다 보니 새벽 2시, 펄펄 나는 피꼬리처럼 암수 서로 정답게 짝을 지어 나가는 남녀가 점점 많아진다. 불안함에 갈증이 났다. 나만 혼자 돌아가게 될까봐, ‘시원함의 끝 d’를 실 틈 없이 들이켰다. 클럽을 둘러보니 못 보던 미녀들이 계속 등장한다. 술고래 김 과장님이 빈잔 채우는 속도로 미녀는 계속 충원되고 있었다. 그래, 걱정할 거 없어!



다음 파티 때  
또 만나요!



드디어 미스맥심들이 플로어에 오르는 순간, 신드롬이 떠나갈 듯 환호성이 들렸다. 프리미엄 클럽 와인 빼끼모리 한 병씩 들고 나간 아리따운 그녀들이 와인을 한 모금씩을 하시하시니, 그녀들을 따르는 이들은 아기 새처럼 입을 벌린 채 성수를 경건히 받아마셨다.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자던 친구는 뻤은 지 40분 만에 부활하시어 어느새 섹시 미녀와 함께 커플댄스를 추는 기적을 행하셨다. 성 발렌티누스가 여기서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흐뭇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겠지. "오, 주여. 여기가 바로 당신이 말했던 천국인가요?"

# Party



고백한다. 사실 이날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날의 열기를 생생하게 기사에 담아야 하는 송고한 목적은 클럽 안 열기와 술기운 그리고 토블론 초콜릿을 들고 내 옆에 앉은 그녀의 미니스커트 속 허벅지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다. 기억 나는 거라곤 이날 드레스코드였던 화이트와 핑크 배색의 타이트한 셔츠와 핫팬츠뿐... 출근하니 선배가 이것 좀 보라며 폰카 사진들을 보여준다. 미스맥심과 러브샷을 하며 입이 귀에 걸린 내 사진만이 메멘토 처럼 남았다. 사무실에 앉아 대가리를 굴리며 파티 후기 기사를 쓰고 있는 지금. 후회는 없다. 그래, 다음 MAXIM 파티 때는 컨디션을 미리 챙겨야겠다.



# 미친소: **미스 맥심**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다. 미녀 옆에는 미녀 친구가 있는 법. 똑똑한 에디터는 MAXIM PARTY에 갈 때 이 점을 절대 놓치지 않지.



## ← 이은지

- 1. MAXIM 밸런타인데이 파티를 찾은 이유는?**  
MISS MAXIM 현지가 친동생이다. 현지가 저번 MAXIM 파티 때 물이 너무 좋았다고 자랑해서 얼마나 물이 좋은지 확인하러 왔다.
- 2. 오늘 힘준 아이템**  
골반 라인이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청바지에 신경을 썼다.
- 3. 클럽에서 재밌게 노는 법**  
맨 정신으로 클럽에 가기도 하지만, 확실히 취해 있어야 주위 신경 안 쓰고 더 재밌게 놀 수 있다.
- 4. 내 동생 현지는?**  
현지는 허리가 잘록하고 골반과 허벅지가 완전 섹시하다. 그런데 의외로 털털하고 귀엽다.



## MISS MAXIM 이현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 지난 12월 MAXIM 크리스마스 파티는 에디터에게 강렬한 깨달음을 주었다. MAXIM PARTY가 물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바로 파티를 빛내는 미스맥심과 그 주변의 미녀 친구들 때문이라는 것. 그래, 아버지는 말씀하셨지. 행동하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고. "편집장님, 이번 파티는 제가 다녀올게요!"



## ↑ 정승희

- 1. 오늘 힘준 아이템**  
새빨간 입술 메이크업
- 2. 가장 좋았던 작업 멘트**  
포카리스웨트 광고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 3. 애인 유무**  
공식입니다. 외로워요.
- 4. 클럽에서 재밌게 노는 법**  
춤 출 수 있는 공간, 술, 음악 다 있으니 내숭 잠시 접어두고 신나게 달리는 거다.



## ↑ 김시은

- 1. MAXIM 밸런타인데이 파티를 찾은 이유는?**  
MAXIM 파티니까 당연히 재밌을 것 같아서 참석했다.
- 2. 가장 좋았던 작업 멘트**  
작업 멘트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리저리 치이는 곳에서 내 뒤에 붙어 보다가드처럼 말없이 날 지켜줄 때.
- 3. 클럽에서 재밌게 노는 법**  
눈치 안 보고 신나게 춤추는 것



## ↑ 조연우

- 1. 오늘 힘준 아이템**  
왕관 머리띠
- 2. 애인 유무**  
있으면 참 잘 할 텐데... 초콜릿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 3. 클럽에서 재밌게 노는 법**  
다 내려놓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춤추며 즐기는 것.
- 4. 내 친구 현지는?**  
자적인 섹시함은 현지가 최고, 은근 애교도 많다. 🍷

# Party DJ of the Month #8

## Som Serious

방배동의 한 레코드 숍에서 진지하게 턴테이블을 돌리고 있던 두 남자에게 물었다. 와이 썸 시리즈? BY 김소윤



대낮에  
얼린  
파티



## DJ 릴레이 인터뷰

START!



2013년 5월호  
DJ KOO



6월호  
SHUT DA MOUTH



7월호  
MAZESTIK&SIONZ



8월호  
ARIKAMA



9월호  
KINGMCK



11월호  
CONAN  
NOW!



2014년 1월호  
JINBO



3월호  
Som Serious



반갑다! 작업실이 있는 방배동 동네가 너무 조용해서 의외였다. 릴레이 인터뷰의 다른 디제이들처럼 클럽이나 이태원의 작업실을 기대했는데!

**썸원:** 룸 360에 온 걸 환영한다. 여기는 우리가 소속한 360사운즈에서 운영하는 레코드 숍이다. 원래는 레코드만 파는 곳이었지만, 요즘 판이 잘 안 팔려서 점점 옷이나 모자 같은 다른 상품들이 많아졌다. 그래도 멋있지 않나?

**썸데프:** 디제이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끔 들러서 레코드판은 안 사고 음악 얘기만 하다 가기도 한다. 사랑방 같은 거지.

아주 멋지다! 여기서 파티를 열어도 좋을 정도로 간지나다. 가끔 놀러 와도 되나?

**썸원:** 물론이다. 360사운즈의 간단한 행사는 주로 여기서 한다. 파티도 자주 해서 술이나 음식도 많다. 우리의 아지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360사운즈와는 첫 만남이다. 크루를 소개해달라.

**썸원:** 360사운즈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제이 크루다. 하지만 디제이 말고도 포토그래퍼, 모델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가 소속돼 있다.

**썸데프:** 각각 활발하게 활동 중인 디제이들이 모여서 파티를 기획하거나 디제잉 믹스 세트를 만들기도 한다. 지금은 8주년이나 된 중견 그룹이다.

다들 모이면 뭐 하고 노나?

**썸데프:** 만나면 주로 음악이나 파티 기획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 술 먹고 노는 건 일할 때 많이 하니까.

그럼 맨 정신일 때 디제이 일과는 어떠한가?

**썸원:** 평일에는 일어나자마자 외국 사이트에 올라오는 신곡을 확인한다. 밥 먹으면서 그것들을 들어보고, 오후에는 주로 작업을 하거나 이곳 룸 360에 나와 일을 한다.

**썸데프:** 생활 패턴이 보통 사람들과 180도 다르다고 생각하면 된다. 남들은 쉬는 주말 밤에 일을 하니까 밤낮도 반대, 주 중과 주말도 반대인 거다.

둘은 어쩌다 같이 일하게 되었나?

**썸데프:** 둘 다 비슷한 시기에 360사운즈에 들어왔다. 각각 활동하던 중 디제이 앤도우 형이 자신의 믹스 시디 발매 파티에서 우리 둘이 함께 플레이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더라. 그때 처음으로 파티 포스터에 '썸 시리어스'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썸원:** 좋아하는 음악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았다. 둘이 지하 작업실에서 1년 동안 같이 살기도 했더니까?

그나저나 '썸'데프와 '썸'원이라니... 이름은 둘이 맞춘 건가?

**썸데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



### 썸원(Someone)

본명: 김성원  
출생: 1987년 2월 23일  
소속: 360사운즈

### 썸데프(Somdef)

본명: 왕두현  
출생: 1985년 4월 16일  
소속: 360사운즈  
데뷔: 2013년 썸데프  
EP 앨범 (somdef)



조용하던 근처 아파트 단지까지 그들의 디제이가 울려 퍼졌다.

내 이름은 한 음악에 담기는 여러 가지 의미 중 하나도 하나의 정의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썸 데피니션 (Some Definition)'의 줄임말이다.

**썸데프** 썸데프 형의 이름은 이렇게 간지나는 반면, 내 이름은 별 뜻이 없다. 본명이 김성원인데, 외국인 친구들이 발음이 안 돼서 자주 '썸원'이라고 부르더라. 재밌어서 그냥 그걸로 썼다.

그럼 '썸 시리즈'는 무슨 뜻인가? 혹시 조커의 명대사 "와이 썸 시리즈?"에서 착안했나?

**썸데프** 그거야말로 정말 별 뜻 없이 만든 거다.

의미를 붙이자면 '너무 진지한 건 아니고, 적당히 진지하다'는 정도?

**썸원** 흑인음악을 듣다 보면 래퍼들이 특별한 의도 없이 '썸 시리즈'라는 아카펠라를 많이 한다. 듣다 보니 어감이 좋고 멋있더라. 게다가 우리 둘 다 이름에 '썸'이 들어가니 팀 이름으로 딱이지! 우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랩에서 가져온 '썸 시리즈' 아카펠라 부분이 많이 들어 있다. 들어보면 귀에 착착 감길 거다.

당신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는 주로 어떤 음악을 들을 수 있나?

**썸데프** 팟캐스트는 최신 음악을 발 빠르게 소개해주고자 시작한 거다. 엄청 좋은데 템포가 느리거나 조용해서 클럽에서는 틀지 못하는 음악이 있지 않나! 그런 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기 위한 채널이다.

**썸원** 작년 3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에피소드가 31개 나왔다. 가끔씩 게스트를 초대해서 그들이 고르는 음악을 우리가 믹스에 내놓는다. 래퍼 빈지노와 진보도 게스트를 한 적이 있다.

MAXIM 1월호에서 당신들을 추천한 프로듀서 진보 말인가? 그와는 어떤 인연이 있나?

**썸데프** 썸데프 1집 앨범에 수록된 '서커스'라는 곡을 진보가 피쳐링해줬다. 그가 나온 MAXIM 1월호를 봤다. 진보가 잘생기게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웃음)

앞으로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썸데프** 2014년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팬들에게 주는 깜짝 선물 같은 거지!

**썸원** 개인적으로는 걸스데이의 민아?

우리도 걸스데이가 게스트로 등장하는 에피소드를 꼭 들어보고 싶다. 디제잉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썸데프** 노래를 많이 듣고, 잘 놀아야 한다.

**썸원** 디제잉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열심히 플레이만 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하니 오히려 에너지가 더 잘 발산되더라.

**썸데프** 맞다. 그래서 플레이하기 전에 일부러 술을 엄청 마시곤 했지.

## 아티스트 협업이 그린 썸 시리즈 팟캐스트 커버

360 라디오 스테이션의 또 다른 갈래, '썸 시리즈 팟캐스트'는 매달 디제이, 래퍼, 프로듀서 등의 게스트를 초대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곡들을 전달받아 믹스한다. 아티스트 협업이 그리는 팟캐스트의 커버는 이 스페셜한 믹스를 기다리게 만드는 또 다른 재미! 썸 시리즈가 추천하는 베스트 커버 3개를 소개한다.



①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한석봉과 어머니> 전래 동화를 패러디한 아홉 번째 커버다. 어머니의 현란한 떡 살기 스킬에 맞서 썸 시리즈는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화려한 디제잉을 선보인다. 휘개! 휘개!



② 열세 번째 커버는 전래동화 <흑부리 영감과 노래 주머니>를 패러디했다. 구준엽 처럼 흥이 넘치는 흑부리 영감이 "그 소울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도깨비들의 물음에 썸 시리즈의 클레이리스트가 담긴 혹은 때어 내놓는다.



③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꾸민 30번째 에피소드의 커버. 기존의 4컷 만화 형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썸데프와 썸원의 특징을 잘 녹인 눈사람이 등장했다.

다 읽었어?  
그럼 이제  
틀을 차례.



맞다. 그래서 우리도 원고 쓸 때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다. 클럽에서는 어떤 술을 마셔야 하얗게 볼태울 수 있나?

**썸데프:** 어떤 술을 마시느냐보다 얼마나 강한 술을 마시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입장하기 전에 친구들과 만나서 거나하게 한잔하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곤 클럽에 들어가서 맥주같이 가벼운 거 말고 센 술을 한 잔씩 마시는 게 좋다.

**썸원:** 잘 놀고 싶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지 말고, 술을 준비하라.(웃음)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자와 친해지는 방법은?

**썸데프:** 파티를 재밌게 즐기는 사람들은 어느새 여자들과도 잘 어울리더라.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음악에 취해 놀다 보면, 또 어딘가에서 그렇게 즐기고 있던 여자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다.

**썸원:** 비슷한 사람들끼리 노는 것 같더라. 만날 사람은 만난다고, 클럽 안에서도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될 것 같다.

힙합을 주력으로 하는 디제이로서, 힙합 클럽이 점점 줄어들어 아쉽지 않나?

**썸원:** 가요에서는 오히려 힙합이 강세다. 지드래곤도 힙합을 하잖아? 하지만 클럽에서는 일렉트로닉 클럽이 파이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맞다.

**썸데프:** 여자분들이 힙합 클럽에 많이 놀러 오면 좋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썸데프:** 모리(MOREE)라는 소원 팔찌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해서 믹스 시디를 발매할 예정이다. 팟캐스트 커버로 주로 쓰는 파란색, 노란색, 흰색을 써서 팔찌를 만드는 거다. 예쁘겠지?

**썸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여는 SERVE & LEAN 파티에 주력할 거다. 이태원의 케익샵 클럽에서 하나가 MAXIM 독자들도 와서 재미있게 놀다 가라! ☺

촬영을 위해 가게에 있는 온갖 소품을 다 대령한 썸 시리즈스. 판매 침 몰겠다...



## 썸데프의 대표 곡

2013년 6월 발매한 썸데프의 1집 앨범 <Somdef>에 수록된 두 곡을 추천한다. 약 뻘 듯한 그의 정신 세계를 엿보자.



### ① Circus(Feat. Jinbo, Taehun)

부드럽고 경쾌한 일렉트릭 피아노 멜로디 위에 진보의 달짝지근한 보컬을 얹어 마치 꿈속을 여행하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패션, 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아트모스(ATMOS) 디자인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그룹 '세끼치(김보휘, 김동수, 정현호)'가 연출한 뮤직비디오는 곡의 몽롱한 분위기를 제대로 표현했다.



### ② Get Raw

(Feat. Simo, Ari, DJ Someone)

시모 특유의 그루브한 랩과 신인 여성 래퍼 아리의 터프한 음색이 조화를 이루며 거칠고 강한 느낌의 곡을 완성했다. 거기다 디제이 썸원의 스크래칭이 조미료처럼 어우러져 개성 강한 두 보컬을 조화롭게 만든다.



## Who's Next?



팻보이 팻  
Coming Soon...

# Smoke & Drink

## 마초 간지 폭발! 시가레노\* 만드는 법

술을 마시면 저절로 담배가 땀긴다.  
그래서 만들어 봤다. 담배 피우면서  
마시는 술 시가레노. BY 김소윤

\* 시가레노: 시가렛과 갈리아노의 합성어

### 준비물

- 갈리아노 빈 병
- 바카디 151
- 담배와 라이터

**1** 이탈리아 리큐어 갈리아노의 크고 아름다운 병을 준비한다. 안에다 불소를 하기에 이 병만큼 안성맞춤인 것도 없다. 그 안에 바카디 151을 30mL 정도만 잔에 따라 병에 붓는다. 소주 한 잔이 50mL이니 그것보다 약간 적게 넣으면 된다. 양이 적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 술은 알코올도수가 무려 75.5도에 이르는 존나 센 술이다.

**2** 병 안의 공간을 담배 연기로 채울 차례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병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기를 뽑어 넣는다. 700mL나 되는 병을 다 채우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3**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병 입구를 손으로 막고, 뒤집었다 세우기를 반복한다. 병을 매운 담배 연기에 바카디 151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 열심히 흔든다.

**4** 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곧바로 손을 떼고 입구 안쪽으로 라이터를 켜다. 연기가 머금은 알코올에 불이 붙으며 화려하게 타내려 갈 거다. 연기가 자욱한 불자욱의 장관은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두 눈 꼭바로 뜨라!



### Editor says...

화려한 불쇼가 끝나고 병 바닥에 덩그러니 남은 리큐어는 마시기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에디터는 현란한 불쇼에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 주류 연구가 신호민이 건넨 술을 받아 눈 딱 감고 입안에 털어 넣어 보았다. 췌! 담배 연기와 합공을 했던 바카디 151의 강렬한 맛에 미각을 잃을 뻔했다. 자옥에 강물이 있다면 이런 맛일까?



### Helper

신호민

(a.k.a ALEX)

8년 동안 바텐더로 활동하면서 영국, 호주, 미국 등 해외에서 궁극의 칵테일 기술을 연마했다. 현재 국내 주류 회사에 근무하며 주류와 칵테일을 연구 중이다.

식도가 타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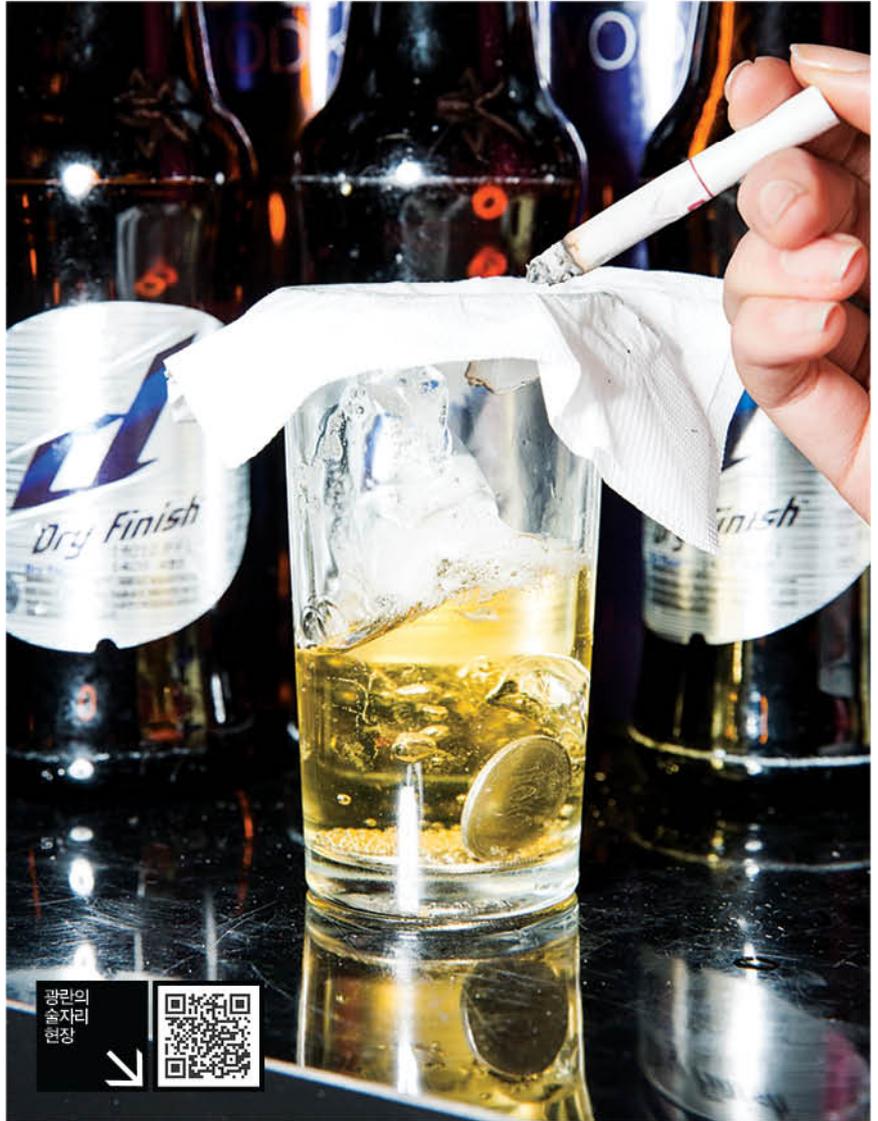




### MAXIM이 추천하는 분위기 UP 술 게임 #1. 담배 빵 게임

**술자리에서 맨날 '369', '있다 없다'만 하기 지겹지 않나? 각종 술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3월, 돌고래 아이큐도 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술 게임으로 분위기를 띄워보자. 머리 따윈 필요 없다. 잡아라. 정신줄!** BY 장혜민

- 1** 맥주잔에 술을 따른다. 아리따운 그녀에게 먹이고 싶은 만큼!
- 2** 잔 위에 휴지를 한 장 펴놓고, 가운데에 백원짜리 동전을 살포시 올려놓는다. 동전은 머리 깨끗하게 씻어두자.
- 3** 손가락에 물을 살짝 묻혀 컵의 테두리를 툭툭툭 두드린다. 너무 흠뻑 적시면 나중에 휴지에 불이 붙지 않으니 주의할 것!
- 4** 한 사람씩 차례대로 불을 붙인 담배 끝을 휴지에 대고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인다. 만약, 옆자리에 앉은 아름다운 여성에게 술을 먹이려면 동전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담배로 지지고 잔을 넘겨주면 되겠지?
- 5** 계속된 담배 빵 공격에 휴지가 팻 하고 찢어지면 그 턴에 걸린 사람이 잔 속에 떨어진 동전을 버릴땐 심아 벌주를 원샷한다. 술이 들어간다 쪽쪽쪽쪽~ 쪽쪽쪽쪽~



### 이달의 알뜰알 뉴스

혈기왕성 청춘을 위한 3월의 주류 소식



**오늘만은 정신줄 놓고 빼박하게**  
 좀 놀아본 놈, 지드래곤이 젊은 맥주 '드라이드'의 새 TV CF 모델이 됐다. CF에서 지드래곤은 혼자 공중에 헛발 차기를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가방에 들어가는 등 골리는대로 자유롭게 움직인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매 순간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젊음'이란 주제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운동 후 마시는 신개념 맥주**  
 운동한 다음 어김없이 밀려오는 시원한 맥주의 유혹에 몸짱 프로젝트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좌절하지 마라. 캐나다의 저칼로리 맥주 'LEAN MACHINE'은 일반 맥주와 맛은 비슷하지만 성분은 스포츠음료와 비슷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24캔(1Box)이 현재 약 16만 원에 판매 중이다.



**술병부터 간지가 나아**  
 화이트데이에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되나? 세련되고 예쁜 걸 좋아하는 그녀 마음을 사로잡을 불링블링한 테킬라 세트는 어떨까? 호세쿠엘보와 6명의 아티스트들이 1800 보틀을 캔버스 삼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은은한 아가베 향과 깔끔한 풍미에 그녀의 허가 녹아내려겠지? 튜름 튜름.

### 섹시 흡연 명장면 3

너무 섹시해서 같이 한 대 빨고 싶어지는 영화 속 흡연 명장면. BY 김소윤



#### 1 샤론 스톤 in <원초적 본능(1992)>

유명 록 스타가 정사 도중 송곳에 찔려 죽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떨어진 금발 머리로 보아하니, 범인은 고미 도중 수컷의 목을 따는 암사마귀 취향의 백인 여성. 용의자 물망에 오른 캐서린(샤론 스톤)은 취조실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상 가장 섹시한 흡연 신이 탄생하게 되었으니, 입술 사이로 담배 연기와 함께 섹시한 대사들을 뱉어내는 샤론 스톤의 카리스마에 당시 남성들은 비디오테이프가 다 늘어질 정도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댔다.

#### 2 우마 서먼 in <펄프 픽션(1994)>

영화 <펄프 픽션>에서 우마 서먼은 술, 담배, 마약을 즐기는 두목의 여자로 등장한다. 영화에서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태우며 퇴폐미를 발산하는 그녀는 실제로도 흡연을 즐기는 애연가였다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급하게 밖으로 나가더니 미친 듯이 담배를 피웠다든 목격담도 전해진다. 액션 영화에 욕심이 많은 그녀는 건강 관리를 이유로 수차례 금연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매번 얼마 안 가 실패하고 말았다고, 흡연하는 모습이 이렇게 섹시한데, 그냥 피우면 안 돼?

#### 3 민효린 in <써니(2011)>

2011년 대한민국을 복고 열풍으로 몰아넣은 영화 <써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자면 단연 하이틴 모델 '수지' 역의 민효린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다. 그녀가 담배 연기를 뿜는 장면은 학교 소각장에서 물레 흡연을 하는 일진이라는 설정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청순하다. 머리를 한쪽으로 늘어뜨리고 창가에 몸을 기댄 채 담배를 피우는 자태는 줄리엣을 연상시킬 정도. 실제로는 비흡연자인 민효린은 전자 담배와 금연초를 피우며 흡연하는 훈련을 했다고 한다.

### 이달의 신상 담배

뉴페이스들, 자기 소개 시작!



#### ▶ BAT 코리아 던힐 파인컷 수퍼슬림

BAT 코리아에서 디자인에 힘 좀 준 새 제품을 출시했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만 재배되는 최소한 담뱃잎을 사용해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한층 끌어올린 '던힐 파인컷 수퍼슬림'이 바로 그 주인공! 가죽 느낌이 나는 고급스러운 흰색 패키지는 여성 흡연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녀석, 여자들한테 좀 빨리갔는데?



#### ▶ KT&G 보험시가 셰이크

흔들면 더 맛있어진다! KT&G에서 새로운 캡슐 담배를 출시했다. 일반 캡슐보다 두 배 이상 큰 몬스터 캡슐을 터트리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에너지 넘치는 향이 터진다. 이 상쾌한 에너지를 더 강렬하게 느끼고 싶다면 담배갑을 한번 흔들어보자. 셰킷 셰킷!

# MAXIM BUYER'S EDGE

**100년 전통의 프랑스 향수 데타이(Edtaille) 한국 상륙**  
 프랑스의 전통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최고급 향수 브랜드 데타이의 향수 5종이 3월 한국 땅을 밟는다. 이번에 출시되는 5종의 향수는 유럽 남성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 생활 다섯 가지의 모티브를 병 디자인에 새겼다. 소형 비행기와 자유로운 여행의 감성을 상징하는 아에로블란, 드라이브 매니아를 위한 마일, 골프 감성을 담은 파흐까트, 감각의 정신을 숭배하는 에스크리우어, 요트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아칭의 5종이다. 땅, 불, 바람, 물, 마음~을 하나씩 캡틴 플래닛 생각나...  
 30mL 78,000원 / 100mL 148,000원  
 데타이 청담 부티크(02-332-0212)



## 내 차의 건강을 위해! 하도(XADO) 맥시멈 엔진 치료 복원제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와 미세먼지는 사람뿐 아니라 자동차 건강에도 광상히 해롭다. 자동차 안에 쌓인 미세 먼지가 부품을 손상시켜 성능을 떨어트리기 때문. 하도(XADO)에서 나온 맥시멈 엔진 치료 복원제는 엔진의 마찰이 심한 부분에 인공 다이아몬드 코팅층을 형성하여 엔진 마모를 예방하고 재생에 도움을 주어 최상의 상태를 유지시킨다. 연비 향상과 더불어 엔진의 소음과 진동이 감소하는 효과까지 있으니 지금 당장 사용해보자. 내차가 20,000km 이상 달렸다 싶으면 고민 말고 일단 그냥 넣어봐~

225mL 120,000원  
 하도(www.xadoshop.co.kr)



## 용량은 업! 가격은 다운! 아이소이 '모공 속까지 탈렸다! 수분만 남긴 클렌징 폼'

천연 기능성 화장품 아이소이가 용량을 두 배로 늘린 '대용량 모공 속까지 탈렸다! 수분만 남긴 클렌징 폼'을 출시한다. 이 긴 이름의 클렌징 폼은 모공 속 노폐물을 완벽히 제거해주면서 수분은 유지시키는 클렌징 제품이다. 화학 성분을 첨가하지 않아 민감한 피부나 지성 피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가까운 아이소이 매장을 방문해 온갖 노폐물로 꽉 찬 모공 속을 싹싹 비워보자. 이름 길이만큼 효과도 뛰어난지 확인해 볼까?

150mL 54,000원  
 아이소이(1544-4302, www.isoico.kr)



## 건강한 모발을 위해! 디스 데모카 샴푸로 감아 봐.

머리카락이 사프심처럼 똑똑 끊어지거나 인사동에서 파는 풀타레마냥 점점 가늘어져서 걱정이라고? 그 임담한 마음 우리도 질 안다. 디스 데모카 샴푸로 모발 건강을 챙기는 건 어때? 샴푸 하나로 트리트먼트 효과는 물론 모발 내부의 단백질까지 복구해주는 기능성 제품이다. 특히 잦은 염색과 펌으로 심하게 손상된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윤기 넘치는 건강한 모발로 재생시켜 준다. 모발은 물론 두피 건강까지 개선해 준다고 하니 전문 헤어 살롱에서 비싼 돈 내고 받는 관리만큼이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400mL 88,000원  
 더 마이부  
 (1544-2053, www.themaibu.com)



## 상쾌한 허브향이 듬뿍! 예거마이스터!

따스한 봄기운이 만연한 3월을 맞아 향긋한 허브와 상쾌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예거마이스터를 따 보는 건 어떨까. 상큼한 초록병에 스타아니스, 계피, 생강 등 건강에 좋다는 허브와 함께 달콤한 과일향을 풍기는 예거마이스터를 담았다. 봄의 기운을 느끼기 딱 좋은 신선한 느낌일까? 토닉위더와 함께 섞은 예거 토닉, 오렌지 주스와 함께 섞은 예거 오렌지 또는 영하 15도로 얼려 마시는 아이스 콜드 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거를 즐길 수 있다. 3월에는 실랑 실랑 봄에 취하고~ 훌쩍 훌쩍 예거에 취하고~ 에헤라 디아~ 예거마이스터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Jagermeister)



**UFC in MACAU! 김동현의 한국인 최초 UFC 10승 도전과 남익철의 UFC 데뷔가 기다린다!**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 독립을 기념하는 3.1절 마카오에서 UFC 최초의 코리안 파이터 김동현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UFC 10승에 도전한다. 상대는 UFC 7승 1패의 기록을 가진 존 헤서웨이 선수다. 국내 ROAD FC 라이트급을 평정한 남익철 선수는 ROAD FC 타이틀을 반납하고 이날 UFC 데뷔 무대를 가진다. 3.1절 저녁, 가족 모두 TV 앞에 둘러앉아 두 한국인의 파이트를 응원하자. <UFC in MACAU>는 오는 3월 1일 토요일 밤 9시 액션 전문 채널 수퍼액션을 통해 HD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수퍼액션(080-080-0780)

DW

Daniel Wellington



**화이트데이 그 달콤한 시간, 다니엘 웰링턴**

프레피룩 전문 쇼핑을 해버데셔스에서 이번 화이트 데이를 맞아 스웨덴에서 건너온 시계 브랜드 다니엘 웰링턴을 추천한다. 다니엘 웰링턴은 클래식하면서도 학생 같은 느낌을 주는 프레피 스타일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브랜드다. 시계의 밴드는 가죽과 나토 두 가지로 제공되어 그날의 스타일에 맞게 바꿔 착용할 수 있다. 각각의 디자인마다 다양한 크기로 출시하고 있으니 커플 시계를 찾고 있다면 다니엘 웰링턴을 찾아보자. 같은 시계를 착용한 커플은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 그녀의 밤마저 공유하고 싶다면 얼른 GET~! 해버데셔스(070-4705-0203, www.thehaberdashers.co.kr)



대한민국 대표  
**커플링은 커플이야**  
www.couple2ya.com

검색창에 **커플이야** 를 검색해 보세요.

**사랑으로 통 치게? '커플이야'와 함께 작고 반짝이는 걸 준비하라!**

화이트데이에 그녀에게 줄 사랑바구니를 준비하고 있나? 남들 다 주는 사랑 말고 특별한 게 필요하다. 작고 반짝이는 건 사랑과 커플링의 공통점! '커플이야'는 자체 공장에서 직접 만든 반지를 전광석화같이 빠른 배송과 거품을 쏙 뺀 유통 과정으로 제공하며 대한민국 커플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다. 심심애도 김중배의 결국은 다이아몬드 반지에 넘어갔지?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도 커플이야에서 커플링을 사야 그녀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

커플이야(www.couple2ya.com)



**예한의원에서 지친 피부에 생기를 주고 촉촉도 받자**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가 당신의 연애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 예한의원을 방문해보자. 예한의원은 독자적인 흉터 재생술인 SL 흉터 재생술을 보유해 1회 시술만으로도 여드름 흉터에 새살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찜찜한 여드름, 여드름 흉터 치료는 이제 그만! 느긋하게 아로마 족욕을 받으면서 피부 상담을 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날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

예한의원(02-564-2060, www.ye2060.co.kr)



**내가 러시아 소치 표준? 러시아 스탠다드 보드카 출시**

금양인터내셔널에서 러시아 프리미엄 보드카 '러시아 스탠다드 보드카'를 국내에 최초 출시한다. 주기율표를 완성한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레예프의 엄격한 보드카 생산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보드카 맛이 특징. 빙하 40km 밑에서 끌어올린 물을 35m의 여과기를 거쳐 더욱 순수한 맛을 보장한다. 이거 한 모금이면 김연아가 소치 얼음판 위에서 트리플러츠-트리플 토루 콤비네이션에 이어 트리플 플립, 더블 악셀 하는 짜릿함이 허에 꽂히는 건가?!

오리지널 38,000원, 골드 55,000원, 플래티넘 59,000원, 임페리아 100,000원 / 금양인터내셔널(02-2109-9200)

간헐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짙게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라!

###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전역 인증  
게시판  
바로 가기



←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겠네.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3가지

#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조부께서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MAXIM에 전역 신고만 하면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쓴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1명에게  
멋진 세이코알바 스펀크 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4년 3월 20일까지)

# 전역자랑깁

네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급 평생 멤버십!



평생 30%

**라중훈**  
"전역하고  
인증해서 할인  
받을 거대!" 라고  
항상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던 9사단  
군악대 후임들이, 나 정말 인증한다! 할인도  
받을 거대! 난 밖에서 열심히 MAXIM을 구독할  
테니 너희는 내가 선물하는 과일호를 열심히  
보아라, 나와서 부디 만날 수 있길 바라며 남은  
기간 조금만 더 수고해라.



평생 30%

**이수환**  
포들이들 잘 지내고  
있느냐? 나다. 만년  
탄약수, ㅋㅋ 전역한  
지 이제 한 달 남짓 돼가는구나. 외박이나 휴가를  
다녀올 때 MAXIM을 항상 사오곤 했었지,ㅋ  
내가 전역하면 MAXIM 정기 구독한다고 늘  
얘기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전역 인증을 하는  
날이 금방 올 줄은 몰랐대. 건강하게 지내라.  
나중에 면회 갈게. 마지막으로, 민재야 내가 밥  
한번 살 테니 휴가 나와서 연락해라! 약속은  
지킨다.ㅎ



평생 30%

**정경선**  
내가 "올려야지,  
올려야지." 하다가  
이제야 전역  
인증을 올린다.ㅋㅋ 내가 올린 글이 MAXIM  
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몰라서 약간  
기대하며 이렇게 전역을 인증한다.ㅋ 이거  
신청하면 주둔지에 MAXIM을 쓴다고 하는데,  
ㅋㅋ 우리 주둔지가 조금 있으면 GOP  
올라가는데,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ㅋㅋ  
그래도 혹시나 받으면 내 덕이다!

위 12명을 비롯한 총 350명의  
용사들이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정기 구독 평생 30% VIP가 되었다!



평생 30%

**정승화**  
이놈들이 남쪽이라  
다들 편한 줄만  
아는데, 고생만  
죽으라 하는 너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결국, 시간은 가니까 조금만 더 참으려구나.  
좀 더 많이 참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ㅋ  
다들 보고 싶다. 힘내라!



평생 30%

**차선민**  
애들이 내가 군  
생활 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던 전역  
인증이라는 걸 이렇게 진짜 하게 됐다 이런 날이  
정말 올 줄은 몰랐는데 오긴 오더라. 정말  
"전역하고 제일 먼저 전역 인증해야지"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했는데, 이렇게 MAXIM에 가장  
먼저 자랑한다. 전역 직전에 전역증 안 나온다고  
걱정했는데, 바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평생 30%

**홍준현**  
말년에 갑자기  
부대가  
해체돼버리는  
바람에 전역모도 선물 못 받고, 불뿔이  
흩어지면서 바뀐 부대에 적응하느라 고생  
많았었지, 이렇게 전역하고 나니까 보고 싶은  
녀석들이 많다. 전역일도 이상하게 적힌 전역증  
받아서 전역 인증은 안 할까 생각했지만,  
전역해도 MAXIM은 늘 꼬박꼬박 챙겨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인증한다. 이제 다들  
짬도 먹을 대로 먹었으니 조금만 고생하면  
다들 어느새 전역할 거야, 나오면 꼭 연락해!  
나와서 연락해라! 약속은 지킨다.ㅎ



평생 30%

**황대웅**  
솔직히 나처럼  
군 생활을  
다이나믹하게  
한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 같다. 피할 수  
있는 것도 피하지 못하고 긴 걸리기 위해  
숨긴 것도 다 걸리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동기인  
것 같다. 나의 비밀을 거러김없이 털어놓고,  
힘들 때 위로해주며 힘이 되는 동기가  
필요하다. 솔직히 군 생활 금방 끝난다는 건  
예비군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심한 거짓말인  
것 같다. 내가 볼 땐 전역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전역을 하는 것 같다. 다들 고생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평생 30%

**노영재**  
3227부대 1중대,  
내가 워낙 조용히  
살아서 너희는 이제  
날 기억도 못할 것 같구나. 아직도 군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나도 전역한 거 보면 너희도 곧  
무사히 전역할 수 있을 거다. 곧 훑힌기가 다가올  
텐데,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그나마 할만 하겠지?  
난 집에서 MAXIM을 보고 있을게. 너희는 열심히  
훈련을 뛰어라!



평생 30%

**조다니엘**  
우리 통신! MAXIM  
잘 보고 있나?  
ㅋㅋ 우리가  
부대에서 그렇게 MAXIM을 자주 봤지. 재미도  
있었고, 서로 먼저 보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간부들도 같이 보고, ㅋㅋ 애 그림다. 그리우니까  
여기 내가 선물하는 MAXIM 잘 받아라. ㅋㅋ  
근무나 훈련 때 보다가 걸리지 말고, 엘 병장이  
올림. ㅋㅋ



평생 30%

**성재명**  
다들 잘 지내나?  
내가 드디어 전역  
인증을 한다.  
너희 모두를 위해 MAXIM 열심히 보고 남은  
군 생활 힘내라! 그리고 다들 MAXIM 서로  
먼저 보겠다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어쨌든 잘  
지내라!



평생 30%

**이호수**  
많이 부족한  
선임이었지만  
잘 따라줘서  
고맙다. 국방부의 시간은 멈추지 않으니  
잘 건디길 바란다. 서로 차별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며 지냈으면 좋겠다. 다치지 말고  
건강히 전역하기를 기원하며! ^o^ 파이팅!



평생 30%

**정동휘**  
휴가 때마다 집  
근처 서점에서  
MAXIM을 사서  
보며 언제쯤 나도 전역 인증을 할 수 있을지  
까마득했는데, 이렇게 전역 인증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다니 나도 너무 신기하다. 후임들이, 내가  
성격상 너희에게 신경을 거의 안 쓰다시피 해서  
미안해.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구나. 그럼 재밌게 보렴.  
전역하고 봐도 재밌다. ㅋㅋ

# Unpicked

## 이달에 도저히 쓸 수 없었던 사진

웃픈 B컷들 속에 담긴 MAXIM 3월호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내려오는데  
딱 3초 주갠어



이봐...

이 달의 무서운 얼굴1



### ICON 이영돈 PD (p.114)

**똥 이야기** 촬영 콘셉트는 프라이팬 돌리며 피망 볶기 하지만 이영돈 PD가 직접 움직이니 자꾸 사진이 흔들렸다. "그럼 그냥 팬을 가만히 들고 계세요, 저희가 피망을 던질게요!" 그리고 어시스턴트에게 피망 조각을 던지라고 한 게 화근이었다.(이 고문관들이, 피망 조각을 공중에 띄우랬지, 누가 이영돈 PD 얼굴에다 던지라고 했냐..ㅠㅠ) 난데없이 면상에 피망 세례를 맞은 이영돈 PD... 극강의 매너력으로 괜찮다고는 했지만... 카메라는 포착했다. 표정 관리 안 됐던 순간의 무서운 얼굴을, 형님 죄송해요.



지금 뽑아요?

이 달의 몸쓸 포즈



### 미스맥시 콘테스트 김고은 (p.142)

**안 쓴 이유** 목을 뽑을 것 같아서.



나하하하하

이 달의 무서운 얼굴2



### Who's that Girl 최정문(p.132)

**못 쓴 이유** 얼룩말이 뻗쳐 보여서. 최정문씨 이제 그만.. 얼룩말 군의 인내심이 술술 한계치야!



이 달의 주객전도



### STUFF 세련된 사회 초년생을 위한 15가지 아이템(p.81)

**못 쓴 이유** 상미 말고 제품이 주인공이라고 예쁜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러시면 주객전도가 극심해서 감사합니다요.



규칙은 알지?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 씩이다.

이 달의 무서운 얼굴3



### DJ 릴레이 인터뷰: 썸 시리즈(p.164)

**못 쓴 이유** 뺨 돌릴 때 본 바로 그 눈빛이라서. "전부 다 드릴게요. 집에만 보내 주세요"



어머~가집에,  
그래서 그걸 그냥 뒀어?

이 달의 몸쓸 사진



COVER 레인보우 조현영 화보(p.118)

**못 쓴 이유** 그림 속의 금발 여자와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서, 현영씨 이쪽 좀 봐 줘요



음... 어닝 걸레  
여기 뽀뽀하고 가

이 달의 몸쓸 귀신



Style 까 먹고 싶어지는 팬티(p.92)

**못 쓴 이유** 능숙하게 바닥에 누워 팬티 매무새를 만지는 김소윤 에디터가 카메라에 걸렸는데, 모가지에 팔만 달린 귀신같이 몹시 섬뜩하다. 그 귀신, 남자 맛을 못보고 슛쳐녀로 죽은 게 한이 된 원귀로구나... 쫓쫓쫓



문제의 김소윤 에디터  
사실은 이렇게 얼떨떨한 미녀



이 달의 몸쓸 초점

DSLR 기술,  
여기까지 왔구나

STUFF 세련된 사회 초년생을 위한 15가지 아이템(p.81)

**못 쓴 이유** 전자 제품 촬영인데 자꾸만 카메라가 상미 다리에 포커스를 맞추네. "미친 카메라야 주인의 마음을 읽지 말라고" 김유신의 말처럼 목을 베야 하나..



오우



웁-

이 달의 몸쓸 후배



수능신공(p.160)

**못 쓴 이유** 촬영 중 선배(손안나 에디터)의 벽지를 훔쳐보다 딱 걸린 박정욱 에디터. 그러니까 네 별명이 '발정욱'인 거야.

**SUPER  
ACTION**

가  
의  
가

**김동현,**  
한국인 최초 **UFC 10승** 도전!

**UFC** in MACAU

**3월 1일 (토) 밤 9시 슈퍼액션 독점 생중계**

# MAXIM

KOREA

## ICON

### 이영돈 PD

저희도 참 좋아하는데요,  
MAXIM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 MAXIM MOVIE AWARD

맥심이 선정한 최고의  
배트맨, 슈퍼맨 연기자

### 빠심 MONEY

EXO와 소녀시대로 돈 벌기

### 한국 만화의 거장

이현세 허영만 김성모  
애국심을 말하다

### 성룡 액션이

이제 슬픈 이유

## 9 GEARS FOR NEWBIE

사회초년생을 위한 완벽 기어 가이드

### HOT GIRLS

on HOT WHEELS

미스맥심 김소희 on Genesis  
폴리나 그레츠키 on McLaren

### MAN SKILLS

NBA식 덩크슛 특훈법  
약 안 쓰고 쥐 잡기  
연필 우주 최고로 깎는 법  
뽕사리 안 내는 비법



MARCH 2014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03



본 자료는 MAXIM Korea의 저작물이므로 개인 소장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등 공개된 곳에 재업로드, 제3자에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재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MAXIM**  
KOREA